

제 23 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품집

2021 재외동포 문학의 창

시 부문 · 최승현
단편소설 부문 · 이월란
체험수기 부문 · 송영일
입양수기 부문 · Spencer Lee Lenfield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품집

2021 재외동포 문학의 창



2021
재외동포
문학의창

발간사

올 한 해도 재외동포문학상이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54개국에서 응모해 주신 1천3백여 편의 소중한 작품이 모여 세계적인 (Global Korean) 문학이 한층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코리안은 본래 '고려(高麗)'라는 말에서 나왔고 이는 한자로 높을 '고' 고을 '려' 즉 '매우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울까요?

저는 우리 문화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홍익인간'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라'는 뜻으로 이 정신이야말로 한민족 정체성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아름다운 글로벌 코리안 여러분!

여러분의 작품을 통해 한민족의 아름다움이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나갈 거라 믿으며, 재단은 재외동포문학상이 여러분의 든든한 창작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작품을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1. 10. 30.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성곤 김성곤

발간사 • 3

심사평 • 9

시

대상 **매주** • 28
최승현 (러시아)

우수상 **어머니의 숲** • 30
리련화 (중국)

시신을 닦으며 • 32
김지영미셸 (뉴질랜드)

가작 **길 위의 할머니** • 34
유영재 (호주)

왕십리 • 36
김재구 (인도네시아)

한글학교 • 38
김선옥 (가나)

밥을 지으며 • 40
이현순 (독일)

집에 가는 길 • 43
한정아 (아일랜드)

할머니의 회초리 • 44
조숙현 (아르헨티나)

단편 소설

대상 **길몽** • 48
이월란 (미국)

우수상 **아내** • 70
이영미 (미국)

엄마를 닮았네 • 89
박시드니 (덴마크)

가작 **좌표 없는 이방인의 나라** • 111
최승현 (러시아)

스왈로우 • 129
배수영 (미국)

꼰대기 • 145
박용석 (사우디아라비아)

체험 수기

대상 **한민족 한마음 한의학 진료소가 만들어진 사연** • 168
송영일 (우즈베키스탄)

우수상 **우주에서 보낸 한철** • 179
유재원 (중국)

중국 영화를 물들이다 • 201
박상수 (중국)

가작 **멕시코의 태양 아래에서** • 211
정갑환 (멕시코)

엄마와 나와 노르웨이 할머니들 • 228
한은옥 (노르웨이)

엄마, 세이 땡큐 • 239
박은경(박지반) (호주)

2021
재외동포
문학의 창



심사평



시 부문

심사위원 | 신달자 · 유자효 · 정호승 · 문태준

단편소설 부문

심사위원 | 오정희 · 구효서 · 박덕규

체험수기 부문

심사위원 | 이경자 · 박인기 · 은희경

청소년 부문

심사위원 | 권지예 · 서하진

입양수기 부문

심사위원 | 이미선 · 한분영

심사평 시 부문

심사위원



신달자 | 심사위원



유자효 | 심사위원



정호승 | 심사위원



문태준 | 심사위원

제 23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에 보내온 시 작품들을 세밀하게 읽었다. 이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가 23회를 맞을 만큼 오래된 연유가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승한 작품들을 보내와서 심사위원 모두는 놀라웠고 감격스러웠다. 해외에 거주한 기간이 오래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의 활용과 시적 상상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이었고, 작품들마다에 창작자의 심정이 몽클하게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고국 방문과 친지 상봉이 여의치 않은 까닭에서인지 올해 작품들에는 모국에 대한 향수와 가족애를 표현한 작품들이 보다 많았다. 태어나고 성장한 고향의 공간에 쌓여있는 기억들을 불러오거나 가족들과 쌓은 두터운 정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배어 있었다. 모든 작품 한 편 한 편이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또 모든 작품 한 편 한 편이 시의 품격을 잘 보여주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재외동포문학상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러울 따름이었다.

‘어머니의 숲’, ‘시신을 닦으며’, ‘메주’를 놓고 심사위원들은 숙고했고, 행복한 토론을 했다. 시 ‘어머니의 숲’은 어머니를 우주적인 존재로 승화시킨 작품이었다. 어머니께서 실로 한 올 한 올 손수 짠 직조물을 은하수로 보거나 한아름의 큰 평온으로 은유한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시신을 닦으며’는 한 망자의 몸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짚어보고, 한 인간의 고단했던 생애를 조문하는 시였다. 생명의 가치를 조용하고 정밀한 관찰을 통해 제기하는 시였다.

고민 끝에 대상작을 시 ‘메주’로 선정했다. 이 작품은 병상의 어머니를 마른 메주의 형상과 발효의 과정에 빗대고 있는 수작이었다. 격렬하지 않은 어조로 차분차분하게 시행을 이끌어가지만, 그 시행들 속에는 시적 화자의 슬픔과 눈물이 가득 고여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찍찍 갈라지고 바싹 마르면 거뒤틀야하느니라/ 염수다 빠져나간 링거병/ 서서히 눈 감는 어머니”라고 쓴 시구에서는 특히 그러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진심이 실감 있게 표현된 작품이었다.

재외동포문학상에 응모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수상자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심사평

단편소설 부문

심사위원



오정희 | 심사위원



구효서 | 심사위원



박덕규 | 심사위원

재외동포문학상. 말 그대로 ‘재외동포’들이 쓴 ‘문학작품’을 심사해서 상을 주는 제도다.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문학작품 또한 무엇보다 예술품으로서의 절대 가치라는 게 있다. 그것은 소재나 표현 등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구축된다. 문학의 주요 요소인 문장의 정확성, 표현의 논리성과 독창성 등은 기본이고 구성력, 주제 등에서도 각별한 수준이 요청된다. 그런데 짐작하겠지만 문학작품에 대한 이런 기대나 잣대를 재외동포가 쓴 문학작품에 적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 되는 것이 ‘재외동포’라는 단서다. 재외동포문학상은 재외에서 상당기간(7년 이상) 거주한 동포가 쓴 ‘한국어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재외동포의 문학 글쓰기가 모국 거주 국민들에 비해서 능숙하기가 어렵다는 건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당장 표현 면에 그럴 것인데, 이 표현의 미성숙성은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문장이나 문단의 연결, 형상화 능력, 주제의 표출 등에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의 문학작품은 절대 가치라는 점에서 보면 어떤 정도로건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바라건대, '재외동포'로서의 체험과 정서에서 우리나라는 특별한 요소들이 문학적 가치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순기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심사에도 '재외동포문학상'의 이러한 상반되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했다. 대체로는 체험의 절절함이 묻어나는 작품이 마음을 움직였다는 감상이었지만 동시에 그 작품들이 문학작품으로서의 절대가치라는 면에서의 아쉬움이 작지 않았다는 소감도 있었다. 3인 심사자가 공통으로 높은 점수를 준 작품을 두고 순위 매김에 들어갔다. 처음부터 3표를 받은 작품은 없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한 편이 3표를 받을 만한 작품으로 재조정되었다. 「길몽」이 바로 그것이다.

「길몽」(이월란, 미국)은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 아들의 장례식을 꿈꾸며 잠시 행복에 젖는 엄마의 하루'를 담았다. 그 엄마는 짧은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 제초제가 들어 있는 시금치를 넣어 김밥을 만들어 간다. 아들은 마약에 절어 삶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부모가 마련해준 안가에서 한 달에 한번 엄마가 사가는 식료품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 부모에게조차, 죽는 것이 스스로와 부모와 이웃을 위한 최상의 결과가 되는 존재다. 이 절박한 상황을, 죽음으로밖에 구원되지 않을 아들의 삶을 대하는 엄마의 꿈, 그 길몽과 흉몽의 아이러니로 드러낸 수준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러나 문학작품의 절대가치라는 면에서 아쉬움도 오래 논의되었다. 사실 전달을 방해하는 습관화된 비유, 과거 일의 경과에 대한 불연속적인 서술, 지나치게 간략하게 처리된 결말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족분'을 인내하면, 한 이민자의 처절한 심정과 그 사연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상당한 충격을 안기는 작품이라는 평가로 귀결되었다.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그 다음, 「엄마를 닮았네」(박시드니, 덴마크)와 「아내」(이영미, 케냐)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엄마를 닮았네」는 안정된 서술로, 「아내」는 굴곡 있는

서사로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현지 생활의 구체성이 듬뿍 녹아들어 있는 「스왈로우(Swallow)」(배수영, 미국), 「좌표 없는 이방인의 나라」(최승현, 러시아), 「꼰대기」(박용석,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흥미와 의미를 느끼게 한 작품으로 끝까지 논의되었다.

「엄마를 닮았네」는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는 북유럽의 길고 짙은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 ‘그녀’는 모국방문에서 요양원에 격리중인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와 있다. ‘그녀’는 인류가 겪고 있는 질병과 그것에 따른 극심한 통제가 결국은 모여서 서로 긴밀하게 관계 맺으면서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이에 따라 소설은 한때 ‘자살’에 경도된 엄마를 닮은 ‘그녀’의 성향을 피력하는 쪽으로 전개된다. ‘자살’로 향해가는 ‘그녀’의 이러한 ‘독백’이 이 시대 인류를 반성하게 하는 뜻깊은 진술이라는 점이 인정된 반면, ‘스토리’를 기대하는 독자를 끝내 끌어들이기에는 어려울 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내」는 케냐에서 35년 동안 호텔업에 종사해온 80대 노인의 치매 상황을 중심 줄기에 두고 있다. 노인 부부는 6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해 아내가 사망했고, 노인은 살아남아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상태다. 노인은 아내의 죽음을 망각한 채 ‘아내의 손버릇’을 의심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를 뿐더러 실은 노인이 고국에서 온 딸을 아내로 착각하고 있다. 이 소설의 장점은 치매 노인의 이런 착각이 행해지는 과정의 무리 없는 서술과 그 원인을 밝히는 극적 전개에 있다. 상대적으로 노인이 살아온 인생 자체를 반추하거나 삶의 배경이 된 지역적 상황을 의미 있게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스왈로우(Swallow)」(배수영, 미국)는 병원 측과 환자 사이에 처한 통역사의 지위에서 한 한국인 노인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신선했다. 「좌표 없는 이방인의 나라」(최승현, 러시아)는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모스크바 인근)들의 공동

생활로써 ‘글로벌세계’의 이면을 보여준 점, 「꼰대기」(박용석,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성기가 지나버린 한인들의 중동 개척사의 현실을 보여준 점 등으로 평가받았다. 이 세편을 가작으로 올린다. 그 외 한 분이 투고한 「밤 문자」와 「배고픈 빙두」가 주목되었는데 「밤 문자」는 비유와 상징이 넘쳐 전체적으로 모호한 상황이 된 점, 「배고픈 빙두」는 탈북민 소재의 특별함에 비해 인물관계가 지나치게 계획적으로 설정된 점 등이 지적되었다. 「수상한 그 집」은 흥미진진한 설정을 쉬운 미담으로 해결한 점이 아쉬웠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말고 창작하면서 계속 도전해 주기를 기대한다.

심사평

체험수기 부문

심사위원



이경자 | 심사위원



박인기 | 심사위원



은희경 | 심사위원

〈재외동포문학상〉은 지구촌 75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삶과 현실 그리고 꿈을 전파하고 나누는 문학적 통로이다. 23년의 전통을 지닌 이 상은 그 이름에 맞게 문학상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체험수기’ 부문은 처음부터 있었던 장르가 아니라, 근년에 와서 추가된 장르이다. 체험수기는 시나 소설 등의 일반 문학 장르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 체험수기는 실제로 있었던 구체적 경험을 본인이 직접 기록한다는 점에서 ‘문학성’을 중시하는 시나 소설과는 구별된다.

그러면 체험수기는 문학성이 전혀 불필요한 장르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물론 체험수기가 허구의 세계를 창작해내는 능력이나 비유나 상징이 핵심을 이루는 시적 역량 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 기술 차원에서 서술과 서사와 묘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 표현 기술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설이 허구를 창작하는 것이라면, 체험수기는 겪었던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어떤

‘이야기(narrative)’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양자는 유사성이 있다. 체험이 소재라면 그것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술과 표현 능력이 필요할 터인데, 이를 문학성(표현성)의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체험을 텍스트로 만드는 과정에서 글의 구성과 표현이 온전하지 못하면, 체험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다. 많은 작품이 바로 이 점 때문에 본선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올해 체험수기 부문은 체험 내용이 역동적으로 출렁거리면서 사건(event)의 선이 굵고 강한 이야기(narrative)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소소한 일상 체험의 질적 내면을 정서적으로 감응하면서 자아의 존재나 의식을 따라 가보는 이야기들이 늘어났다. ‘어느 쪽이 낫다, 못 하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체험의 내용이나 진술하는 방식 면에서 글쓰기가 다채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종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15편이었다. 지구촌 각지에서 이산(離散, diaspora)의 시공(時空)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체험의 실록’으로 증언하는 데에 손색이 없는 글들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재외동포로서의 정체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주목하였다. 대개는 체험 이야기 속에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글로벌 세계인으로서 자아를 추동하는 미래 지향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었다. 이 양자가 내적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지탱하는 자아는 물론 ‘깨어 있는 자아’라 할 수 있을진대, 여기에 더하는 조건으로 서사는 서사대로 재미있어야 함을 살폈다. 이는 결국 체험의 질적 가치와 연결되는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까지 경합한 작품은 ‘한민족 한마음 한의학 진료소가 만들어진 사연’과 ‘우주에서 보낸 한 철’, ‘중국 영화를 물들이다’ 세 편이었다. ‘중국 영화를 물들이다’는 글로벌 공간을 모험과 도전으로 부딪치며 나아가는 한인의 모습과 자기 성찰의 과정이 동반되는 점에서 이야기가 깊이를 확보한다. 다만 국제 경쟁 관계 속에서 글쓰기가 겪

는 실패와 재도전의 디테일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이 아쉬웠다. ‘우주에서 보낸 한 철’은 코로나 팬데믹의 구체적이고도 리얼한 현실 공간을 중국과 한국과 호주를 넘나들면서 겪어내는 체험, 그리고 그 과정에 들어와 있는 자녀 교육의 고단한 현실을, 뛰어난 필체로 묘파한 점이 돋보였다. ‘한민족 한마음 한의학 진료소가 만들어진 사연’은 우즈베키스탄 동포사회에 문화적 유전자로 형성된, 동족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독자에게 감동으로 선사하는 작품이었다. ‘우주에서 보낸 한 철’과 경합을 이루었으나, 주제를 향한 이야기의 짜임과 응집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한민족 한마음 한의학 진료소가 만들어진 사연’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멕시코 태양 아래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고난의 역정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파노라마를 이룬다. 이야기 틈새로 묻어나는 모국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야기의 품격을 높였다. ‘엄마와 나와 노르웨이 할머니들’과 ‘엄마, 세이 탱큐’는 거주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세계 시민성에 다가가는 체험을 그렸다. 그 과정에서 모국의 어머니를 부단히 소환하면서 자기 정체를 돌아본다. 전자는 거주국 적응과정에서 자아의 변화와 발전을 기하려는 진지함이 돋보였고, 후자는 이산의 공간에서 한국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글로벌 청소년으로 자라는 아들의 시선을 재미있게 교차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입선하지 못한 작품 중에도 손에 놓기가 가까운 작품들이 있었다. 글쓰기 자체가 내가 나에게 주는 정신의 선물이라는 점을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지구촌 어느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더라도 체험과 의식을 꾸준히 기록하는 생활을 당부드리고 싶다.

2021년 8월 4일

심사위원 일동

심사평
청소년부 부문

심사위원



서하진 | 심사위원



권지혜 | 심사위원

재외동포문학상 청소년부의 출품작들을 읽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용기를 북돋우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즐거움을 느낀 한편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글솜씨가 해가 다르게, 그야말로 일취월장하고 있음에 새삼 기뻐다. 여느 해처럼 외국에서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나 한글학교에서의 행사, 한국방문기,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학업 따라잡기의 힘겨운 나날을 소재로 한 글들이 주를 이룬 가운데 이웃나라의 정치 상황에 얽힌 이야기나 김환기의 그림과 영화 미나리를 소재로 개인적 소회를 교차 서술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바다낚시를 떠난 하루를 그린 작품, 모기를 잡는 지극히 사소한 소재를 타국생활의 고통과 연결시킨 경우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소재를 접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문학상이 23회를 이어오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나 애국심 고취 등 그 본래의 취지가 여전히 살아 이어지는 한편, 모국어로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그려내는 과정이 한층 자연스러워진 것으로 보여 심사자로서 뿌듯한 마음이었다.

초등부 최우수작 [산토도밍고 한글학교 일기]는 오징어를 좋아해서 얻게 된 별명인 도징어로 시작해서 밥버거에 얽힌 학교에서의 급식, 한글학교에서의 김밥과 송편 만들기, 체육대회, 5월의 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서술한 재미있는 작품이다. 서로 연결고리가 딱히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을 천연덕스럽게 쓴 솜씨가 일품이었다. 정확한 문장과 적절한 표현으로 독서의 리듬을 갖춘, 초등학생으로는 놀라운 호흡과 흐름이었다. 우수작인 [우리의 소중한 하루]는 케냐의 예쁜 철판요리 전문 음식점, ‘하루’의 이야기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부모님의 고충, 찾아오는 손님들과 메뉴, 마스크가 된 고양이까지 세밀한 묘사가 읽는 이를 즐겁게 하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며 제목인 소중한 ‘하루’의 이중적 의미가 살아난 수작이었다. 다른 우수작 [낙시의 추억]은 한국에서 할아버지와 함께한 낙시의 추억을 잊지 못하던 글쓴이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아버지, 형과 함께 바다낙시를 떠난 하루를 그린 재미있는 작품이다. 낙시 준비과정, 멀미에 시달리는 형, 입질의 순간, 릴을 감을 때의 쾌감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이 하루의 추억이 글쓴이를 한층 성장시켰음을 짐작케 한다.

중고등부 최우수작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며]는 미안마에 근무하시는 아버지가 쿠데타가 일어난 와중에도 태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급박한 상황을 매우 긴밀한 구성과 정확한 문장으로 그려낸 작품이었다. “어둠은 막막함만을 주는 존재는 아니다. 지친 나를 어루만져주고 쉬게 하는 고요함도 있다”고 글쓴이는 말한다. 힘겨운 상황을 겪은 후, 내 안의 내가 한 뼘 자라난 사람만이 깨닫는, 상당한 내공이 느껴지는 문장이다. 우수작 [어긋난 나라의 엘리스]는 어린 시절부터 마주치면 ‘손가락으로 눈을 찌는’ 시늉을 해 보이는, 차별을 겪은 시간을 순차적으로,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 구어체로 서술한 독특한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알 수 없는 구덩이에 떨어진 엘리스처럼, ‘외계인이 된 기분’으로 살아온 글쓴이의 고단함이 손에 잡힐 듯 가슴 아팠다. 유사한 소재의 우수작 [낮선 나라에서의 용기]는 초등학교 이후 수차례 학교를 옮겨 다니다 8학년이 되어 비로소 ‘평범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과정을 차분하게 서술한 글로, ‘낮선 나라에 오니 너무 힘들다’고 하던 어머니를 이해하고 공

감하면서 한글을 성숙해지는 과정을 따라 읽으면서 ‘평범’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대부분의 수상작에서 글쓴이들의 일상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묘사와 정확한 서술이 돋보였다. 부디 글을 쓰는 과정이 응모자들에게 위로의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작품을 천천히 오래, 공을 들여 읽었다. 외국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이처럼 제대로 한글을 가르치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는 말씀을 덧붙이며 수상자들과 이야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경험을 나누는, 응모한 학생 모두에게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

심사평

입양수기 부문

심사위원



한분영 | 심사위원



이미선 | 심사위원

재외동포문학상에서 입양수기 부문은 올해로 두 번째 공모였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여러모로 여의치 않다보니 응모작품이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모된 작품들 하나하나 모두 자신의 입양경험과 생애사의 주요 사건들을 솔직한 감정 표현으로 잘 보여주었다. 물론, 문학상의 다른 분야들의 작품과 달리 영어나 거주국의 언어로 표현하다보니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았다. 따라서, 심사진들은 국외입양인들이 자신의 입양경험을 쓰는 “수기” 부문이라는 특성에 무게중심을 두어, 입양을 이해하고 입양인의 삶을 공감하게하고, 그동안 지나쳐왔던 그들의 삶의 한 부분에 한국동포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게 만들어 준 작품을 우선하여 선정하였다.

이러한 심사기준에 의해 대상으로 선정된 미국 입양인의 『My Adopted Mother Tongue』은 출품된 다른 작품들에 비하여 매우 독특하고 전문적이며, 국외입양인에게

있어서 한글을 배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올림이 큰 작품이었다. 한국과 미국문학작품의 번역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4세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성장한 한국입양인으로서, 한국어만 할 줄 알았던 아이가 미국에서 성장하며 어떻게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언어인 영어를 습득하게 되었는지, 또다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부딪혔던 경험들과 느낌들, 그리고 언어에 대한 관심이 유독 컸던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 등을 학술적인 내용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더불어 국외입양인에게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입양됨을 이해하고 완성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임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

가작으로 선정된 『A Journey of a German Korean Adoptee』는 독일의 평범한 가정에 입양되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입양인이, 보통의 청소년들이 겪는 성장통과 함께 국외입양인으로서 겪는 경험들을 잔잔하면서도 진솔하게 쓴 작품이다. 미국과는 또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유럽지역에서 한국인의 외모로 성장하며 가졌던 금금증인 ‘다름’의 기원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모국방문의 과정에서 느꼈던 매일 매일의 다양한 감정들을 담담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많은 국외입양인들이 모국방문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다.

가작으로 선정된 『On Being Adopted』는 국외입양인의 삶, 특히 여성 입양인의 심리적 내면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 입양인으로서의 성장과정, 입양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 자신을 무척 사랑했던 양모의 죽음을 계기로 새롭게 알게 된 자신의 입양과정에 얽힌 이야기들, 그로 인해 시작된 뿌리찾기의 경험들을 매우 솔직히 표현들로 서술하였다. 특히 서로 외모가 다른 백인 양모와 아시아 입양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 백인 여성과 다른 아시아 여성을 기준으로 본 한국 입양인으로서의 자기 외모에 대한 느낌 등, 여성 입양인의 심리적 내면의

미세한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가작으로 선정된 『Lee-Dae-Il / Two vs One: An Adoptee Memoir』은 한국에서 어린시절 친생부모님과 살았던 입양인이 한국에서의 아픈 기억들, 미국에서 겪은 인종차별 경험들, 한국입양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들, 친생부모와 상봉하며 겪어낸 감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을 묘사하는 글 솜씨가 상당히 뛰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한국이름, ‘이대일’을 자신의 입양 정체성과 연결 지어 나름대로 해석하여 한 사람에게 두 개의 국가가 담겨져 형성되는 국외 입양인의 정체성 정립의 과정을 담담하면서도 진솔하게 잘 표현하였다.

문학상의 다른 부문들 보다 특히 글쓴이의 개인사를 고스란히 드러내야하는 입양수기는 개별작품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고 독특한 삶의 역사이기에, 그들이 풀어놓은 개인의 역사를 정중한 마음으로 공감하며 심사하였다. 이번 입양수기 부문에 작품을 응모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해본다.



심사평



입양수기
부문

2021
재외동포
문학의 창



시



대상

최승현 (러시아) _ 매주 • 28

우수상

리련화 (중국) _ 어머니의 숲 • 30

김지영미셸 (뉴질랜드) _ 시신을 닦으며 • 32

가작

유영재 (호주) _ 길 위의 할머니 • 34

김재구 (인도네시아) _ 왕십리 • 36

김선옥 (가나) _ 한글학교 • 38

이현순 (독일) _ 밥을 지으며 • 40

한정아 (아일랜드) _ 집에 가는 길 • 43

조숙현 (아르헨티나) _ 할머니의 회초리 • 44

시
대상

메주

최승현 [러시아]

오래 매달려 있다 병실 가득 고린내 풍긴다
냄새가 고약하다고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는
손녀의 뽀얀 볼때기 꼬집는다
알맞게 익어야 제맛 나는 내 나라의 음식은
부글부글 끓어도 인내하고 마는 어머니 속내 닮았다
일 년째 병상에서 투병 중인 그녀 나이 헤아리며
한 세기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알뭍 어루만진다
석회질 다 빠져나간 앙상한 뼈 하얗게 썬 머리칼
내뱉지 못하고 말라버린 말들의 유적이
가계(家系)의 내력을 세로쓰기 하고 있다
호스로 칭칭 감긴 그녀 새끼줄에 매단 메주 같다
한 생애를 참고 견디며 꺾꺾 눌러 빛은
구덕구덕한 언어들 그녀 입천장에 매달려 있다
그녀의 입에 귀를 대고
말들의 풍경이 건네는 전설(傳說) 듣는다
쩍쩍 갈라지고 바싹 마르면 거뒤야 하느니라

염수(鹽水) 다 빠져나간 링거병
서서히 눈 감는 어머니
별이 잘 드는 독에서 장을 꺼내
마지막 밥상 차리고 있다



어머니의 숲

리 련 화 [중국]

그녀가 늘어진 실타래로
균형 잘 잡히게 떠놓은 은하수
한 아름 품, 촘촘히 박힌 평온

빈방 어둠 속으로 깊숙이 가라앉은 침묵
김버섯 무수한 주름살 속으로 잠겨진 숙명
번갈아 되풀이되는 걸뜨기와 안뜨기
한 땀 한 땀 엮어 넓게 넓게 자라나는 지붕

흰 새벽이 우주천체를 한 바퀴 관통하는 사이
손 테두리 인고의 무늬 깊어진다.
그 아래로 닳고 닳은 발뒤꿈치의 고단함

굽은 등 언저리
몇 개의 산이 떠돌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등뼈

한 올 한 올 얽힌 땀방울
가난의 허기 내쫓는다.

시름의 계절 수십 번 바뀌는 동안
튼튼한 울타리로 피어나는
소담한 목련의 미소

엄동설한 파르르
칼바람에
굽어지고 비틀어져도
둥글게 둥글게 부풀어 오르는 푸른 숲



시신을 닦으며

김 지 영 미 셸 [뉴질랜드]

마지막 숨 푸스스 사위고 두어 시간
못다 한 말이랴 닫히지 않는 턱에
흰 수건 둘둘 말아 고이어 놓고
불 빠진 방구들처럼 식어가는
한 여인의 전생을 닦는다
종이 한 장 두께 눈꺼풀이
세상의 문 완고히 닫아버리네
옹이 박힌 손 고랑배미 주름
금가락지에 겨우 남은 한 생의 흔적
풀씨 같은 목숨 품었던 둥그런 배가
첫 눈 맞은 무덤처럼 소복하다
유품이 되어버린 비누를 문혀
저승길 떠날 다리 애뜻이 쓸어 드리나니
헛헛한 세상 뿌리내렸던 어진 나무여

머칠 자란 수염 꺼끌한 얼굴 부비며
여인의 아들이 작별을 고하긴만
혼불마저 떠난 산중의 어둠인 양
아무도 비치지 않는 사자(死者)의 눈동자
생멸(生滅)의 첫발 디더 무엇을 보았을까
굽어진 팔 다리가
그물에 잡힌 새우 같다
이승으로 이어진 땃줄을 끊듯 나는
흰 천을 그녀의 머리로 끌어올렸다
죽음과 나 사이
이 알팍한 경계여

길 위의 할머니

유영재 [호주]

이사벨 할머니의 입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시골 출신이야 도시는 각박한데 이곳은 살만해. 소녀 적 이야기를 하는 할머니한테선 골동품상에서 나는 쿼퀴한 냄새가 났다. 그녀의 몸에는 낙엽과 먼지가 쌓여있는 것만 같았다.

할머니 머리엔 골동품만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에 신이 났는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 과거는 몸속에 스며있어. 우리가 걸어온 이야기가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지. 할머니는 세포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 놓았다.

나는 할머니의 헝클어진 붉은빛 갈색 머리카락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와 나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만났던 것 같다. 처음 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몇 번의 인연으론 어렵도 없지. 손자를 대하듯 특별 같은 온기로 바라보는 눈길은 멀찌감치 스쳐 지나간 인연으론 가당치도 않아. 우리는 엄마로 누나로 여동생으로 짝을 몇 번은 같이 틈운 것 같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가 설핏해질 때까지 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할머니 이야기는 복사기로 찍어낸 활자체 같았다.

앵두나무에 송충이가 있었어. 등에 도둑 가시가 달려있었지.

인생은 흠치는 거야. 양심이 있으니까 몰래 흠치는 거야.

송충이를 보고 달아나는 나를 보고 아들은 깔깔댔어.

앵두는 버터에 무쳐먹어야 돼. 할머니의 입에선 형클어진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골목에서 뒤돌아본 할머니는 내가 있던 자리에서 하얗게 웃고 있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나를 배웅하면서.



왕십리

김재구 [인도네시아]

산비탈 골목은 좁아도
먼 산을 기둥으로 떠받친 넓은 하늘을 이고 살았던
왕십리 셋집
골목에서 방문을 여는 대문 없는 집은
파란 하늘에서 가까운 집

비가 오면 축대가 무너질까 걱정
식구들은 잠 못 이루고
비가 개면 반가워 문을 열고
밤새 빗물로 목욕해 깨끗한 앞산을 바라보던
축대 아랫집

비 그친 앞산은 물안개를 첩첩 개어
하늘을 장롱삼아 구름을 저장 중이고
산기슭 아카시나무가
젖은 몸뚱이에 꽃송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서있던
5월 왕십리

꽃향기가 좋아라 소란하던 참새들의 수다가
누이들의 수다를 이기던
엄마가 지글지글 부쳐주던
구수한 돼지기름 빈대떡 냄새가 생각나는
인도네시아의 밤

시
가작



한글 학교



김 선 옥 [가나]

한글 학교는
작지만 커다란 장독대

언제 익을지 모르지만
꼭꼭 눌러 담는 가나다라

언제 삭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덮어주는 마바사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태양은 매일 지켜주고

아무도 열지 않아도
바람은 매일 자극하고

아무도 듣지 않아도
빛님은 쌓인 이야기 응답하네

자차카파파하
못다 한 공부도

깔끔하게 다듬어
장독에 장아찌 담네

한국이라는 식탁에 올려도
세계 테이블에 올려도
최고의 밥상 되고 이야기될 거라네

시
가작

밥을 지으며

이 현 순 [독일]

하얀 한국산 쌀을
하루쯤 물에 담가 두었다가
깨끗이 씻어서 밥을 지을 때면
모락모락 밥이 끓으면서 내는
하얀 김을 얼굴 전체로 맡는다.

온 집안에 밥 내음이 풍긴다
그 구수한 감칠맛이
축 처진 내 어깨를 올려주고
웅크린 가슴을 펴게 한다.

혈관 속으로 직접 스며드는 듯
고향 땅, 흙 맛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향기 같기도 하다.

50년이 넘는 타향살이에도

하루에 한 끼라도 밥을 먹지 못하면
심신이 고프고 허전하다.

쌀밥이 부잣집이나 제사상의 음식처럼
귀하던 1950-60년대
보릿고개의 고국이 생각나고
쌀을 구할 수 없어 푸석푸석한 흰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체격이 육중한 독일 환자들을
간호하기에 힘겨웠던 1970년대
그 가슴 시린 독일에서의 일상이 떠오르면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따뜻하고 찰기 있어 맛있는
하얀 쌀밥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금
밥을 먹어서 고품을 달래고 속이 편안하니
타향살이도 훨씬 수월하여
한시름 놓을 수 있지 않나?

가을날 알알이 익어가는 황금빛 벼 이삭을
시골길에서 바라보는 풍요로움은 또 얼마나
농부가 아니라도 흡족한가!

산골짜기 다량이 논에서
밀짚모자 쓰시고 땀으로 얼룩진 얼굴로
모내기, 벼 타작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 새참 머리에 이고가실 때

막걸리 술 주전자 들고 출렁출렁
즐겁게 뒤따라가던 단발머리 소녀였던 나,
지금도 눈에 밝힌다.

아, 쌀밥, 나에게 보약 같은 음식!
“밥 먹었나?” 정다운 우리의 인사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면 나는 고맙고 행복하다.
언제 어디서나.

시
가작

집에 가는 길

_ 위클로우 산길에서
한 정 아 [아일랜드]

황금색 빛줄기가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쏟아져 내린다.
 눈부신 한여름의 모래사장이 연두색 잎사귀 위에 주저앉았다.
 푸른 바다를 머리에 이고
 초록색 노란색 바둑판 같은 들판을 사이에 끼고
 하얀 솜뭉치들이 하늘에 땅에 촘촘히 늘어섰다.

구불구불 꼬부랑길 위에 늘어선 편백나무들 사이를
 낡은 본내트 앞세워 내달려간다.
 이 길이 강원도 꼬부랑 산길이면 좋으련만...
 하염없이 내뺄으며 악셀을 밟는다.
 이 길이 강원도 산길이면
 한달음에 달려가 젊었던 우리 엄마 보러 갈 텐데...

능선 너머 은발 머리 곱게 단장한 엄마가
 마디마디 곱은 손으로 손짓을 하며 웃고 있다.

할머니의 회초리

조 숙 현 [아르헨티나]

나는 지금도 가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추억이 있다.

6.25 전쟁 때 아버지께서는 전쟁터에서 전사하셨고, 21살에 과부가 되신 어머니께서는 개가(改嫁)를 하셔서 나는 조부모님 슬하에서 자랐다. 3대 독자 외아들에게서 하나 있는 손녀딸이었다.

소위 모자를 쓰신 아버지의 군복 영정 사진을 걸어 놓은 두 개의 대못 위에 회초리는 얹혀 있었다.

내가 잘못하였을 때, ‘매 갖고 와.’ 하시면 의자를 놓고 올라가 회초리를 가져다 할머니께 드렸다. 낭창낭창한 회초리는 내 장판지에 ‘찰찰’ 소리 내며 달라붙었다.

눈물과 콧물은 범벅이 되어 얼굴을 타고 내려와 턱 끝에서 방바닥으로 착지하였다.

매를 다 맞고 나면 또 의자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 사진 밑에 매를 올려놓았다.

그때마다 사진 속 아버지께서는 나를 바라보셨다.

장판지의 살이 얇은 줄을 그으며 부어올랐다.

할머니께서는 장판지 상처 위에 민트향이 진하게 나는 바셀린을 발라 주시며 항상 말씀하셨다.

“세상에 나가 애미애비 없는 호로 자식 소리 안 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어느새 아픔도 잊은 채, “할머니, 누룽지 있어요?”

할머니께서는 누룽지에 설탕을 솔솔 뿌려 주셨다. 기가 막힌 과자였다.

이제 내 나이 그때 할머니 나이가 되었다. 자식들에게 회초리로 때려 본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내 맘 같지가 않다. 시대 탓으로 돌려야 하나?

가끔 나는 그 회초리가 그리워 눈에 눈물이 고인 적이 있었다.

2021
재외동포
문학의 창



단편소설



대상

이월란 (미국) _ 길몽 • 48

우수상

이영미 (케냐) _ 아내 • 70

박시드니 (덴마크) _ 엄마를 닮았네 • 89

가작

최승현 (러시아) _ 좌표 없는 이방인의 나라 • 111

배수영 (미국) _ 스왈로우 • 129

박용석 (사우디아라비아) _ 끈대기 • 145

길몽

이 월 란 [미국]

콘도 옆 주유소 주차장에 수진은 차를 세웠다. 한 달에 한 번 올 때마다 주차를 하는 곳은 서쪽 끝자리다. 거의 비어있지만 때때로 우체부나 아마존 배달부 혹은 야외 노동자의 트럭이 주차되어 있기도 하다. 그녀가 오는 시간이 늘 점심시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차창을 열고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유색의 피부를 가졌다. 주유소를 드나들며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은 모두 멕시코, 폴리네시아 아니면 흑인이다. 백인들이 세운 나라에 백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 훨씬 많다. 수진의 동네로 잔디를 깎으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여기서 오는 지도 모른다. 수진이 그 자리를 선호하는 까닭은 숨어 있기 좋다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콘도와 가장 가까운 자리여서 산이 차에 실린 식품들을 나르기에 가장 짧은 거리이기 때문이다.

수진은 이곳에 차를 주차시킬 때마다 희망을 주차한다. 평생을 드나들게 될 거라는 악몽의 시동을 끄고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네모난 주차구역 가득 걸 어둔다. 오늘은 그 기대가 가득 차고 넘치는 날이다. 거의 두 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먹을 것을 사다 주었고 그 30일이 가까워올수록 악몽은 잤었다. 그 악몽의 끝에는 꼭 문자가 왔다.

“엄마, 캔 위 고 그로서리?”

생리통을 치르듯 그것은 통증과 함께 왔다. 이렇게 두 달 가까이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시동을 끄자 옆 좌석에 놓인 김밥이 보였다. 그동안 한 번도 음식을 해온 적은 없었다. 밖으로만 나돌며 자란 아이는 한국 음식을 그리워할 만큼 집밥에 길들여져 있지도 않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 아이에게 먹일 이 특별한 김밥엔 단무지, 쇠고기, 시금치, 당근, 어묵, 계란, 분홍색 어묵까지 평소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그리고 제조제가 들어있는 것은 바로 시금치다. 하얀 도마 위에서 김밥을 말 때도 토막토막 썰 때도 떨리지 않았는데 막상 김밥 봉지를 들어 올리는 수진의 오른손이 떨리고 있었다. 가방을 왼쪽 어깨에 메고 차에서 내린 뒤 운전석에 김밥을 내려놓았다. 잔디 깎는 기계와 낙엽을 쓸어 담는 갈고리와 사다리들을 가득 실은 낡은 트럭이 바로 옆자리에 들어서고 있었다. 야구 모자를 눌러쓴 멕시코인 동승자와 함께 내려서 주유소로 걸어 들어가는 것까지 수진은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주유 중인 차들이 보였고 길가엔 시내버스 한 대가 서 있었다. 흘러내리는 가방을 고쳐 멘 뒤 김밥을 다시 들고 차 문을 닫았다. 뻐뻐, 잠긴 차를 확인한 뒤 콘도 쪽으로 걸어갔다. 콘도 정문 앞 구석에 한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 거실에 걸린 그림 같다. 쉿한 얼굴은 늙지도 젊지도 않다. 언젠가 산의 콘도 거실에 앉아있던 여자의 얼굴인 것 같기도 하다. 이곳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얼굴이 없다. 다만 노숙인의 행색과 느린 걸음걸이가 있을 뿐이다. 험클어진 여자의 머리카락 사이로 초점 없는 두 눈과 마주쳤다. 쥐고 있던 여자의 검은 비닐봉지로 시선을 떨어뜨리는데 부서져 내리는 햇살을 받아 모은 듯 꼼꼼히 봉지 입구를 틀어쥐고 있었다. 춤지도 않은 날씨에 아래위로 여러 가지 색을 겹쳐 입은 여자의 웃은 그저 젓빛 그림자로 보일 뿐이었다. 여자의 텅 빈 눈 속으로 도시의 빛이 모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도시의 서쪽 끝, 이곳은 늘 해가 지고 있다. 노을처럼 얼굴을 붉히다 어둠 속에 엎드리고 말 것 같은 곳. 그리고 마침내 산 너머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만 같은

곳이다. 해가 떠 있을 땐 모두가 물속에 잠겨 있다. 물속을 걷듯 천천히 걸어 다닌다. 물 밖으로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된 사람들 같다. 수진도 물속을 걷는 듯 한번 씩 하늘로 쳐든 입술이 벌어지고 긴 한숨이 뿔어나간다.

차가 드나드는 콘도의 정문은 늘 닫혀 있어 비밀코드가 필요하지만 옆에 달린 쪽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노숙자들이 하나 둘 걸어 들어와 차고 옆에 딸린 작은 창고 속으로 숨어드나 보다. 수진이 콘도를 매입했을 때도 실외 차고에 딸린 작은 창고 안에는 찢어진 이불, 종이 박스, 플라스틱 컵들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다리를 뻗고 누울 수도 없는 작고 어두운 공간에서 누군가 살다간 흔적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었다.

쪽문을 들어서는데 남파아이가 파란 자전거를 타고 쓴살같이 나왔다. 하마터면 부딪칠 뻔했지만 아이는 아랑곳없이 지나쳤다. 하늘도 나무도 바람도 수진의 김밥 봉지만 쳐다보고 있었다. 산의 집이 있는 이층으로 향하는 잔디밭 구석에 둥근 철제 쓰레기통이 보였다. 천근만근 무거워진 몸으로 계단을 다섯 칸쯤 올랐을까. 한 번 살포하면 몇 시간 내 나무들이 죽기 시작한다는 고엽제도 아니고 요즘은 소금보다도 덜 위험한 저독성 제초제라는데. 마시지 않는 한 반려동물이나 가족에게도 해가 없다는데. 시금치에 버무린 정도가 마시는 양에 미칠 리도 없다. 죽지도 않고 병원 신세만 지거나 불구자가 되어버린다면 더 큰 악몽일 것이다. 김밥 봉지를 든 수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하늘과 김밥을 번갈아 보다 쓰레기통에 김밥을 던졌다. 이를 악물고 돌아서다 입술 안쪽에 깊이 파인 이빨자국을 혀로 쓸어보다가 다시 쓰레기통으로 갔다. 허기진 노숙자가 쓰레기통을 뒤지다 김밥을 찾아 먹기라도 한다면 큰일일 것이다. 김밥 봉지를 다른 쓰레기 밑으로 더 쑤셔 박고 보이지 않게 덮었다.

수진의 두 발엔 철경거리는 쇠시슬이 묶여 있다. 그래서 큰 폭으로 걸을 수도 없다. 나이가 들수록 더 무거워진 족쇄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다. 드문드문 생채기가 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듯 잡초가 더 많은 잔디밭을 지나 다시 계단을 오른다. 50년이 훨씬 지난 저소득층 아파트를 콘도로 개조한 이 건물에서 가장 튼튼해 보이는 건

이층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철제 계단이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족쇄와 부딪히며 철커덩철커덩 날카롭게 메아리친다. 검은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있는 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영화에서 본 교도소 계단이 떠올랐다. 아이가 6개월쯤 갇혀 있을 때 면회를 간 적이 있다. 마약을 못해서인지 반짝이는 얼굴에 붉은색 수의가 예뻐 보이기까지 했다. 그렇게 바닥을 치고 나면 옛말하며 살날이 올 줄 알았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이발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교도소마저 아이의 바닥은 아니었다.

산은 죽어있을지도 모른다.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버도스! 마약중독자들은 거의 과다 복용으로 죽지 않던가. 죽은 지 오래되었다면 아이는 썩어가고 있을까. 문을 열면 저승의 냄새가 역겹게 휘몰아칠까. 911을 불러야 하나. 아니 남편을 먼저 불러야 하나. 붉은 사이렌을 돌리며 웅웅 미친 듯이 달리는 911 소방차를 얼마나 많이 보았던가. 아니 아이가 어렸을 적에 수진의 집에도 두 번이나 온 적이 있다. 한 번은 아이가 장난전화를 했을 때였다. 달려온 소방차는 준엄한 경고장을 날렸고 수진은 머리 숙여 사죄를 해야 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수진의 집에서 스프링클러를 틀고 트랩 펠린을 뛰던 동네 아이가 미끄러지며 엉덩이뼈가 어긋나버렸을 때였다. 수술 직전까지 갔었지만 다행히도 뼈를 되돌리는 마지막 시도가 성공했었다. 혹 그 아이의 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지나 않을까 맘을 졸였었다.

계단을 오를수록 911 대원들이 들고 나오는 들것 위에서 산의 시신을 덮은 하얀 시트가 눈부시게 빛났다. 부패가 진행되고 있다든가 백골화가 되었다든가 시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이 무르익었다. 마침내 질기고도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야무진 꿈만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계단 끝에서 왼쪽으로 두 번째 집 앞에 섰다. 문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유리창은 나무판자로 가려져 있다. 문과 도어락은 오래된 콘도 건물에 어울리지 않게 반짝이는 새것이다. 부서지고 깨어진 것들을 고치지 얼마 되지 않았다. 흘러내리는

가방을 고쳐 메는데 검은 피부에 머리가 곱슬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잔디밭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조금 전 샛문에서 부딪칠 뻔했던 바로 그 아이였다. 죽어있는 듯 황폐한 땅에서도 아이들이 자라고 논다. 이층 맞은편 건물의 문이 열리더니 검은 후드티를 입은 젊은 남자가 나온다. 수진에게 손을 흔들더니 가드 레일에 두 팔을 올리고 담배를 입에 문다. 아이가 사라졌을 때 곧 돌아올 거라며 위로하던 남자다. 남편이 그랬었다.

“쳐다보지도 마. 하나같이 다들 개쓰레기 중독자들이야.”

수진은 남자를 향해 보일 듯 말 듯 손을 올려 보이려다 다시 문을 응시했다. 죽어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린다.

똑똑,

똑똑,

똑똑,

사람이 쉽게 죽지 않지. 희망을 집으며

한 번,

두 번,

세 번,

제발 열리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긴 간격을 두고 다시.

* * * * *

구석구석 썩어 썩어 낱알이 쏟아져 내리는 먼지가 끄적했다. 방 같기도 거실 같기도 한 공간은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로 찍어버린 사진처럼 흐물거렸다. 영혼만 남겨진 여자는 걷는 듯 나는 듯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꼭 그래야 한다는 듯이, 수초처럼 일렁이는 벽들이 웅기종기 둘러앉기도 나란히 줄지어 복도를 만들기도 했다. 만져도 만져지지 않는 벽을 따라 문도 없는 욕실이 성큼 열렸다. 거의 누렇게 변해버린 변기가 요의를 기다리는 듯 앉아 있었다. 무너져 내리는 삼면을 떠받치고 있는 욕조는 녹슨 철제 기구처럼

씩어가고 있었다.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증과 여기를 말끔히 닦아내고 싶다는 욕구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바로 그때 부르지도 않은 요의가 여자를 번쩍 들어 올렸고 재래식 화장실에 앉듯 변기 위에 쪼그려 앉았다. 그 사이에 여기저기 열심히 청소를 한 기억도 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청소도구를 양손에 들고 바쁘게 오가던 남자의 두 눈이 여자의 성기에 정면으로 쏘았다. 여자가 고개를 숙여 들여다본 것도 아닌데 눈앞에 클로즈업된 그 곳은 방금 제모를 마친 듯 음모가 단 한 가닥도 남아있지 않았다. 연분홍색 살갓이 새 기저귀를 차기 전 아기의 것처럼 깨끗해 보였다.

몇 시쯤 되었을까.

서랍장 위에 놓인 디지털시계는 보일 때보다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 창문 옆이어서인지 해 뜨고 난 후 해질 때까지는 장님과 눈을 맞추는 기분을 들게 한다. 역광인지 후광인지 짜증만이 탑재된 무용지물이었다. 피사체 후면에서 투사되는 조명을 잘 이용하면 피사체의 세부가 사라지고 실루엣만 남는 기하학적인 그림을 얻을 수 있다. 디지털시계의 숫자가 사라지고 남은 시계의 실루엣은 기하학적이라기보다 눈알이 빠져나간 검은 동굴을 마주 보듯 혼란스러웠다. 침대 반대편으로 여기저기 위치를 바꿔봐어도 밤낮으로 온종일 잘 보이는 곳은 없었다. 7:12, 전화기에 있는 시간을 확인한 후 문자도 전화도 아무런 알림 표시가 없는 액정을 보자 수진은 몸속의 흐르는 피가 잠시 멈춘 듯했다. 혹시라도 죽었을까.

또 꿈을 꾸었나. 이맘때면 늘 그랬다.

꿈의 주인은 누구일까. 내일을 미리 보기라도 하는 것일까. 어제를 단지 곱씹어 볼 뿐인 것일까. 이렇게 자주 마주치다 보면 두 주인이 바뀌는 것조차 자연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른다. 잠에서 깨면 꿈과 현실이 뒤바뀌어 있었다. 침대 왼쪽 사이드 테이블에 놓인 전화기를 잡기 위해 왼팔을 뻗을 때마다 수진은 어깨가 시리다. 아주 가까이 있는 작은 전화기는 그래서 자주 거대한 바위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가끔 정신이 몽

통해지는 지점에서는 작은 전화기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싶어진다. 살려주세요!
입 밖으로 차마 나오지 못한 그 다섯 글자는 자신을 지위달라는 애원이기도 했다.

어깨 통증 때문에 수진은 코르티손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 의사는 끝끝내 주사를
주지 않을 것처럼 시간을 끌었다. 어느 정상적인 부위를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될 수 있으면 맞지 않는 것이 좋은 나쁜 속임수임이 틀림없었다.

“밤에 그 통증 때문에 자주 깨나요?”

“하룻밤에도 몇 번씩 깨요.”

그 단호한 불평을 몇 번 들은 후에야 독침처럼 맞을 수 있었다. 코로존 주사로 사라
진 통증은 묘한 것이었다. 느낄 수 있는데 느낄 수 없는 감각처럼 어딘가에 숨어 있었
다. 마취 주사를 맞았을 때와는 또 다른 마비였다. 분명 그 자리에 있는 선명한 통증
이 가물거리는 장막 너머에서 수진을 뻘히 쳐다보는 느낌이었다. 모른 척 살아가기에
좋은 거리에 그것은 늘 숨어 있었다.

수진은 검색창을 띄운다. 꿈, 해몽, 먼지, 욕실, 청소, 성기, 노출. 열거해 본 것을
적당히 배합한다. 흥몽과 길몽 사이 애매한 배합은 바로 경고장을 날리기도 한다. 검색
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검색어의 단어 수를 줄이거나 보다 일반적인 단어로 검색
해 보세요. 두 단어 이상의 키워드로 검색하신 경우 정확하게 띄어쓰기를 한 후 검색
해 보세요. 키워드에 있는 특수문자를 뺀 후에 검색해 보세요. 성기 같은 19금 단어
때문에 실명 조회까지 거칠 판이었다. 지난밤의 해몽은 늘 천국과 지옥을 뒤섞어놓고
연옥쯤에서 미리미리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청소하는 꿈은 대체로 운이 상승하고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운세다. 근심거리만 사
라진다면 일 년 삼백육십오일 내내 침대를 떠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가운 소식 또
한 청소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특히 화장실을 청소하는 꿈은 재물의 손실부터 신분
상승까지 극과 극을 암시한다. 여성의 성기는 자식, 작품, 수치심, 비밀, 창조의 근원
까지 다양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 수진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는 철로가 끊어진
꿈을 꾸었고 3차로 들어간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거대한 독수리가 지붕을

뺏는 꿈을 꾸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가 빠지는 꿈도 야무지게 꾸었다. 꿈을 되새기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다. 해몽 글을 읽으며 눈이 반짝이는 이유다. 성기가 노출되는 꿈은 자식의 신변이 노출되는 거란다. 오래전 수진이 다니던 교회 장로님의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

“산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수진은 문자를 읽자마자 연락처들을 모조리 지워버렸다. 장로님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남은 음식들을 홈리스 쉼터에 갖다주거나 재활센터에 봉사를 다니다 산을 목격했을 것이다. 자식의 신변이 노출된 것은 그렇게 오래전의 일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그때부터 교회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었다. 한국 마켓이나 한국 식당에서 마주치는 옛 교우들은 알고 묻는지 모르고 묻는지 흔들리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수진의 세상도 흔들렸다. 한발 앞서 거짓 대답을 꾸며내기 바쁜 처참함은 남의 불행 앞에서 행복해 본 적이 있는 수진의 폐부를 찔렀다. 자식이 죽는 꿈을 꾸고 싶다. 아니 자식이 죽는 꿈은 길몽이란다. 자식은 근심거리나 문제를 암시한다. 내가 꾸고 싶은 꿈은 자식이 죽는 해몽을 가진 꿈이다.

며칠 전 수진은 제니를 보았다. 분명 제니였다. 단골 마켓의 늘 주차하는 자리로 꺾어드는 순간이었다. 맞은편 차에서 내리는 여자아이는 기억 속에 선명한 바로 그 얼굴이었다. 자그마한 키에 스모키 화장, 늘어뜨린 금발은 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얼마나 맑고 파란 눈이었는지 쳐다보면 호수에 빠질 듯 허우적거리곤 했다. 그녀의 두 눈은 그녀가 입을 옷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했다. 초록색 옷을 입은 날은 초원을 가로지르는 새이기도 벨벳 주머니 속에 숨겨 둔 에메랄드이기도 했다. 파랑색 옷을 입은 날이면 지중해의 푸른 지붕처럼 동그랗게 반짝였다. 초점이 흐려 보이는 날은 가질 수 없는 보석처럼 쇼윈도 안에서 반짝거리곤 했다. 이혼한 엄마와 아빠가 아래위층으로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이상한 아이였다. 하얀 피부에 할로윈 코스튬처럼 너털거리는 옷과 반짝거리는 색조화장도 예전 그대로였다. 급하게 시동을 끄고 핸드백을 낚아채듯 차에서 내리며 마켓 입구로 걸어가는 제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

았다. 차문을 닫다가 열쇠가 발등에 떨어졌다. 열쇠를 급히 집어 들고 자동문 너머로 사라지는 금발을 뒤쫓았다. 제니는 구름 위를 걷듯 가볍게 오른쪽 베이커리로 사라졌다. 도넛 코너를 지나 케익 진열장을 지나 통밀빵 코너까지 뛰어갔다.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눈앞에서 선명히 걸어가던 그녀가 사라졌다. 제니는 죽었다. 죽었다고 했다. 작년 마켓에 가는 차안에서 분명 샐이 말했다.

“엄마, 제니 죽었대.”

“아빠가 산다는 샌디에이고 재활센터로 갔다더니.”

왜 죽었는지는 묻지 않았다.

제니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

제니는 샐이 고등학생 때부터 늘 붙어 다니던 여자 친구였다. 제니는 산에게 또 다른 가족이 되었다. 먹을 것을 챙기러 올 때 말고는 방과 거실이 있는 지하실에서 올라 오지 않았다. 제니의 어린 부고는 내가 들어온 것 중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다. 알래스카에서는 백 가지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지만 아이의 주변에선 하나같이 단 하나의 이유로 죽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호수가 입을 벌리고 얼음의 심장으로 빨려 들어간 것일까. 불모의 바닥에 이마를 찡고 나비를 쫓아 오래오래 춤추던 아이. 교통사고처럼 부딪혀 겁 없이 사들인 환각은 재활 혹은 부활을 꿈꾸는 더 큰 도시로 퍼져나간다. 길어진 화장이 세상과의 돈독한 경계였다면 마약처럼 보드라운 입술은 물에 빠져도 동동 떠오르던 소문이였다. 즐거운 피가 도는 울창해진 미담의 숲은 꿈으로 가는 지름길투성이. 조롱당할수록 유독해지고 시들어갔을 부랑한 공주여. 근육강화제, 심장흥분제를 저지르던 도핑족들은 승자의 기분을 독식하거나 프리웨이 입구에 구걸하는 앙상한 해골로 서 있다. 잔혹한 동화가 너무 길었다. 불시착한 별이 욕망의 지구라니. 별을 보고서 어찌 별을 잊을까. 하얀 시트가 드리워진 그녀의 생몰연도는 꿈이었다. 그녀를 홀로 버려둔 건 꽃이 저절로 핀다고 착각한 바람의 소행이었다. 밤과 어둠 사이 물 위로 등 떠오른 소식에 수진의 꿈도 성큼 다가오고 있다고 여겼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하루를 손꼽아 기다렸다.

산이 변두리 콘도에서 혼자 지낸지도 2년이 넘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집에서 쫓겨났을 때 자신의 차를 몰고 나갔었다. 백 번 아니 천 번쯤의 약속을 어긴 뒤 아이는 집을 떠났다. 아이는 가족 간의 정신적 유대감을 갉아먹는 벌레였다. 수진의 가족은 동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살가움과 안타까움은 이내 고통으로 이어지고 말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 울며불며 붙들고 끌어안고 사정과 회유와 보상을 거친 뒤 바로 다음날 아이의 방에서 찾아지는 주사기는 희망 없이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주었다. 각자의 늪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다. 각자의 바닥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미워하다 떠나버리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다. 너무 열심히 살아온 죄였을까. 지난날의 모든 어둠이 아이가 퍼덕던 손갈 위로만 고스란히 내려앉았고 지난날의 모든 아픔이 아이가 마시던 컵 속으로만 고스란히 녹아내렸을까. 늘 화가 나 있던 아이를 되돌아볼 시간은 수진에게 없었다. 시간은 돈이었고 달리다 멈추면 곧바로 뒤쳐지는 것이 이민자의 삶이었다.

어디로라도 사라져주었음 했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혔고 들어오지 않으면 더 숨이 막혔다. 달리는 거리의 수많은 차들 중 어느 한 차와 부딪치기라도 했음 싶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나무들은 하나 둘 가지를 줄이고 있었고 나뭇잎은 수명을 다한 듯 푸른빛을 버리기 시작했다. 인내심의 수명도 거기까지였다. 우유부단함이 모성인 듯 모성을 연기하던 수진도 남편의 결정에 무언으로 항복했다. 남편은 수진이 없는 틈을 타 아이의 차 한가득 옷가지를 실어준 뒤 몇 백 불을 쥐여주었을 것이다. 수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시키지 않은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아이가 떠난 다음날은 이층에 있던 아이의 방이 말끔히 치워진 뒤였다. 아이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물건들이 쓰레기차에 실려 갔다. 값나가는 것들은 이미 전당포로 다 팔려나간 뒤였다. 아이의 방에 있던 물건들은 하나같이 고통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나같이 끔찍했다.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 태워 없애버려야만 할 것들이었다. 보이지 않는 길만이 망각으로 가

는 지름길이다. 아이에 관한 모든 대화는 금기시되었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살 것 같았다. 지난 10년간의 고통을 기억하기에 수진은 이제 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잊어 주리라.

너는 죽어가지만 나는 살아가리라.

SNS로 들려오는 소문에 아이는 알렉스라는 친구 집에서 농장 일을 하며 지내는 듯 했다. 한 달쯤 뒤 알렉스와 남편은 몇 번의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았다. 같이 마약을 하며 중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알렉스는 이제 정상인이 되어 있었다. 백인과 일본인의 혼혈인 알렉스는 아버지의 농장을 물려받고 건실한 농장주가 되어 있었다. 산이 자꾸만 사고를 치니 차를 없애달라는 부탁이었다. 남편은 거절했다. 차를 가지고 오면 끊어냈던 아이와의 끈을 다시 잇는 것이기도 했다. 아이가 살지 않는 집으로 날아드는 법원 출두 명령서나 빚 독촉장들은 잊을만하면 아이의 존재를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아이에게는 마지막 재산일 차를 자신이 나서서 처분해버리고 싶지도 않았으리라. 남편은 더 이상의 간섭이나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알렉스의 농장에서든 쫓겨나 차에서 지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몇 달 뒤 아이는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경찰이 차를 끌고 갔고 폐기처분되기 전에 벌금을 내달라는 것이었다. 아이의 차는 숙식을 해결하는 마지막 재산이기 전에 마약으로 이어진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아이의 차가 처분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경매 처분되었단다. 아이는 학교를 버렸고 친구를 버렸다. 아이는 아빠를 버렸고 엄마를 버렸고 집을 버렸다. 아이는 옷을 버렸고 전화를 버렸고 차를 버렸다. 아이는 내일을 버렸다. 무욕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길바닥으로 나왔을 것이다.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다. 홈리스 쉼터에는 샤워실도 컴퓨터실도 식당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마약은 없을 것이다. 마약과 마약 사이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인지도 모른다. 다음 마약에 닿을 때까지.

햇살이 부서져 내리던 화창했던 날 현관 벨이 울렸다. 산이 쫓겨난 지 6개월 만이었다. 수진은 집을 나갈 때마다 어디선가 아이를 마주치지 않을까 두려웠다. 도로 길 모퉁이나 프리웨이 입구에 종이 팻말을 들고 서 있는 홈리스를 볼 때마다 얼굴을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어디선가 마주칠지 모르니 지갑엔 늘 현금을 두둑이 넣어 두었다. 초인종 소리가 날 때마다 블라인드 사이로 먼저 창밖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는 현관 벤치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블라인드 사이로 수진과 두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눈은 수진의 눈을 후벼 파고 있었다. 설마 문을 안 열어주지는 않겠지 하는 눈빛이었다.

“당신도 책임은 있어.”

아이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집안으로 들어선 아이의 행색은 다운타운에서 카트를 끌며 횡단보도를 지나거나 HELP ME 라는 사인을 들고 서 있는 홈리스들과 다르지 않았다. 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보았다. 머리에 병거지 모자를 쓰고 해진 신발 위에 껴 신은 두꺼운 양말이 찢어진 창자처럼 너털거리고 있었다. 낮에는 땀에 젖고 밤에는 찬바람을 맞기 시작한 얼굴은 땀국물과 엉켜 반듯했던 이목구비가 사라져가고 있었다. 들고 있는 천 가방은 때에 찌든 잠바와 무슨 서류봉치들이 뒤섞여 곧 터질 듯 부풀어있었다.

“화장실 좀 쓸게요.”

물음이 아니라 통보였다.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똑똑히 보세요, 하는 표정이 눈치를 보는 두 눈에 서려 있었다. 10분이 지나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그녀는 아이를 불러내었다. 아이는 세수도 하고 나왔다. 땀국물이 엉성하게 지워진 얼굴이 더 낫설어 보였다. 손에 들고 나오는 수건을 받아들고 수진은 페이지 타올을 대신 건넸다. 네가 가져온 거리의 불행을 우리 집에 묻혀두고 가지 마, 라고 하는 듯.

“아빠가 곧 오실거야. 태워다 줄게.”

다행히 남편이 집을 비웠을 때라 혹시 마주칠까봐 마음은 더 급해졌다. 자식 때문

에 무너질 대로 무너진 남편은 이제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권총을 사다 모으는가 하면 다 버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자고도 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곳이란 대체 어디란 말인가. 혼자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다고도 했다. 그런 남편과 마주치게 할 순 없었다.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해먹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도시락을 싸줄 수도 없었다. 시동을 걸며 옆에 앉은 아이가 안쓰러웠다. 터질 듯한 천 가방을 발 앞에 두고 안전벨트를 매는 아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도 아이도 서로에 대한 기대는 더 이상 없었다. 해답을 모르는 문제지를 받아들었을 땐 그냥 영점 처리를 받으면 그만이다. 더 낮은 학점과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으면 그만이다. 더 낮은 연봉의 직장이나 더 작은 집을 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었다. 땅속 밖에, 바닥을 치면 이제 올라오겠지. 바닥에 처박히면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겠지, 하던 때도 있었던가. 하지만 아이는 바닥을 질질 끌며 살기로 했나보다. 온몸을 바닥에 끌며 옷이 해지고 살점이 해지고 뼈가 부러지고 가루가 되어 그냥 그렇게 사라지면 되는 것이었나 보다. 질질 끌며 살기엔 세월이 참 느리다.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어디서 자니? 뭐 먹고 사니? 대답을 듣고 싶지 않은 물음들을 수진은 한 마디씩 삼켜냈다. 할 말이 없어 한동안 침묵으로 달렸다. 둘의 침묵은 아이에게도 수진에게도 참으로 익숙한 대화법이기도 했다. 하지만 목적지만은 몰아야 했다.

“어디로 갈까?”

“1700 사우스 스테이트 쪽에 내려주세요.”

세상이 모두 자기 집이 된 건가. 거기가 어디쯤이더라. 수진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홈리스 거주지는 다운타운 근처에 있었고 아이의 목적지는 많이 떨어진 곳이다. 날씨는 곧 추워지는데 나름대로의 철저한 규율이 있다는 홈리스 쉼터도 못 견디고 뛰쳐나온 것일까. 수진은 이제 방관자에서 추측자가 되었다. 프리웨이에서 내려 햄버거 집으로 갔다. 배가 고프지 않을 리가 없었다. 아이는 햄버거 두 개와 빅 사이즈 감자튀김 두 개, 그리고 콜라를 시켰다. 오늘 밤과 내일쯤의 끼니였을까. 드라이브 인에서 끼니를 받아든 아이가 팽귤 엄마! 팽귤! 감사의 인사를 연발했다. 아이의 미소가 밝아질수록 수진의 가슴은 더 찢어지고 있었다. 몸속의 피가 혈관을 찢고 흘러내리고 있

었다. 눈물샘은 결코 비를 맞아본 적 없는 사막으로 변한지 오래여서 모래바람이 부는 듯 서걱거리기만 했다.

목적지는 쓰러질 듯 허름한 모텔이었다. 모텔에서 사는 듯한 피난민 같은 행색의 아이들이 열린 객실 문 너머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사각으로 둘러싼 객실 건물 중앙에 주차장이 보였다. 아이는 거기 내려달라고 했다. 천 가방과 햄버거 봉지를 든 아이가 차에서 내려 주차장 구석으로 엉거주춤 걸어갔다. 핸들을 꽉 잡은 수진의 두 손으로 몸속의 모든 힘이 재빠르게 몰려들고 있었다. 서 있었다면 아마 주저앉아버렸을 것이다. 저 많은 객실 중 어느 한 객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아이는 구석에 멈춰 섰다. 천 가방을 내려놓자 엄마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이의 미소가 언뜻 천진난만해 보였다. 반짝이는 차를 몰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엄마에게 길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잘 아이가 손을 흔들었다. 바이 엄마!라고 말했을까. 당신의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똑똑히 보았지?라고 말했을까. 차를 돌리며 아이가 펼친 종이박스 위에 엉덩이를 붙이는 것을 보았다. 두 눈을 부릅뜨고 새드 엔딩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듯 몰입하다 매몰차게 고개를 돌렸다. 집이 어느 쪽이더라. 서쪽으로 왔으니 동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프리웨이 입구가 어느 길에 있었지. South? North? I-15? I-215? 왔던 길이 어느 길이었지? 길이 보이지 않았다. 짧은 가을이 끝나가고 있었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모텔 주차장 구석이 보였고 잠들기 전엔 떠도는 아이가 보였다. 수진은 더 큰 악몽에 시달렸다. 마지막 잎새 앞에서 첫눈 소식에 휘몰아쳤다. 손발이 얼어붙은 하얀 눈사람 하나가 굴러들어오는 꿈을 꾸 뒤 남편에게 울며불며 매달렸다. 그리고 퇴직금을 털어 서쪽 변두리에 작은 콘도를 샀다. 마음은 급한데 투기꾼들인지 매수자들이 몰렸고 현금만 거래되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해가 지는 서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내려갔다. 백인들은 동쪽으로 유색인들은 서쪽으로 몰려 산다. 오래된 콘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급조된 싸구려 인테리

어와 숨겨둔 세월이 훤히 보였다.

거처를 마련하고 나니 아이에게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 홈리스 쉼터는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람을 찾아주지 않는단다.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노숙자들의 동네를 훑고 다녔다. 전쟁터 사진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텐트촌이 건물 사이사이 혹은 도로변에 버젓이 모여 있었다. 동면 준비를 하는 듯 텐트마다 겹겹으로 덮인 천막들이 쓰러져가는 썩은 고목들 같았다. 이 풍요한 땅에서도 하늘을 지붕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

어디 있을까. 피가 마르는 시간은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도 고문이었다. 침대와 옷가지들 그리고 부엌 용품들로 새살림을 차리며 언뜻 언뜻 희망을 품었다. 길바닥에서 밤바람을 맞으며 쪼그려 자 본 아이는 따뜻한 집에서 이제 따뜻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 친구의 SNS에 메시지를 남기고 며칠 뒤 수진에게 전화가 왔다. 콘도 청소를 마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쫓겨난 후 6개월 만에 현관 벨을 눌렀던 바로 그때 그 모습이였다. 아니 그때는 여름 노숙자였다면 지금은 겨울 노숙자였다. 그래서인지 한층 더 성숙되고 준비된 노숙자의 모습이였다. 더 두꺼운 코트와 더 더러운 바지, 더 큰 배낭과 돌돌 만 담요까지. 끼입은 코트가 몸에 맞지 않아 마네킹이 걸어오는 듯했다. 퇴역군인의 전술 가방 같은 거대한 배낭을 질질 끌며 패잔병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네가 살 집이야.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지내렴. 문제 일으키면 바로 쫓겨날 거야.”

“오케이, 땡큐!”

누군가는 몇 년을 안 쓰고 모아도 살까 말까 한 집이 생겼는데도 아이의 감정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콘도에 들어온 아이는 깨끗이 쓰겠다고 곧 직장을 잡겠다고 점점 나아질 거라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리기 바빴다.

한 달에 한 번씩 들여다보는 콘도는 갈 때마다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늙어가는

노인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가고 검버섯이 피듯 멀쩡했던 새집은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벽이 찢어지고 거울이 깨지고 유리창은 부서져 있었다. 부서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하나하나 쓰레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여분의 침실엔 한 가족이 들어와 살기도 했고 마약 중독자들의 정거장인 듯 뜨내기들의 짐이 쓰레기처럼 쌓여갔다. 한바탕 싸움이 일어난 듯 구석구석 인간 말종들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욕실은 꿈속의 끄찍했던 바로 그 장면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콘도를 사는 게 아니었어.”

문제를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고 콘도로 달려갈 때마다 남편의 악다문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오는 말이었다. 콘도 관리자로부터 소음 문제로 전화를 받거나 아래층 욕실에 물이 샌다거나 또 다른 지옥의 문은 끝도 없이 열렸다. 플러머를 데리고 막힌 변기를 벌써 세 번째 뚫고 오는 남편은 십 년은 더 늙어버린 얼굴로 다시 주저앉았다.

“미친 중독자들만 드나들 거라는 걸 몰랐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아직 더 내려갈 곳이 있다는 듯 남편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아이는 마약을 들고 오는 중독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했을 것이다. 냉장고에 가득 채워 준 음식들과 맛바꿨을 것이다. 약에 취하면 자고 약에서 깨면 광폭해졌다. 그리고 서로의 거래가 어긋날 때마다 싸우고 부숴줄 것이다. 콘도를 뜯어 먹으며 살고 있었다.

지난 연말에도 아이는 거리에서 겨울을 보냈다.

아이의 생일과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진은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렸지만 한 달이 넘도록 문자가 없었다. 예전엔 한 달을 넘기진 말라고 당부하던 남편도 그 즈음엔 소식이 올 때까지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연락을 기다리는 쪽으로도 연락을 하지 않는 쪽으로도 인내심은 바닥을 영금영금 기어 다니고 있었다. 악몽에 시달리다 맘먹고 찾아가기로 했다.

문을 몇 차례 두드리다 수진이 열쇠를 꽂으려던 참이었다. 아귀가 맞지 않아 빠져 덕거리는 문이 열렸다. 빼꼼히 내다보는 멕시코 남자는 샐의 부모라고 하자 잠시 눈

빛이 흔들리며 문을 활짝 열었다. 반바지에 민소매 차림인 남자는 콘도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문신이 새겨진 두 팔을 휘저으며 산을 어제부터 볼 수 없었다. 자기는 렌트로 살고 있으니 산이 보이면 연락을 주겠다고. 거실에 있던 검은 개를 급히 침실로 들여보내는 남자의 여자 친구가 보였다. 붉은 반점이 가득한 얼굴과 두 팔, 어눌한 발음까지 상태가 좋지 않았다. 산의 방으로 가보겠다고 따라들어 갔다. 침대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고 아이의 옷가지나 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며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멕시코 남자가 산을 죽여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온갖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칼로 찔렀을까. 총으로 쏘을까. 설마 때려죽이지는 않았겠지. 얼마나 아팠을까. 불쌍하고 불쌍한 내 새끼. 오 불쌍한 내 새끼. 아이는 마약이 필요했을 것이고 멕시코는 거처가 필요했으리라. 그리고 아이는 사라졌고 아이의 짐까지 모두 사라져버렸다. 아이가 돌아올 거라면 아이의 짐이 모두 사라질 리가 없었다. 고심 끝에 수진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지금 바로 콘도로 가서 불법 거주자들을 쫓아내주겠다고. 그리고 산의 실종 신고를 받아들였다. 몇 시간 후 바로 연락이 왔다. 콘도는 안전하게 비워졌고 멕시코는 산의 행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콘도의 지역구 관할청인 경찰들은 이미 그 콘도 거주자들이나 주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산의 신원 조회 후 이미 실종 신고에 대한 심각성도 사라진 후였다. 그때까진 차라리 산의 장례식을 꿈꾸며 잠시 행복했었다. 아이와의 마지막 마음을 준비하며 잠시 들떠 있었다. 아픈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져버렸다니.

주인 잃은 콘도는 끔찍한 상태로 남겨졌다. 청소업체와 핸디맨을 데리고 가 청소와 수리를 했다. 창문과 문 그리고 도어록을 바꾼 후 콘도로 돌아오면 엄마 아빠에게 전화하라는 메모지를 붙여두었다. 콘도의 이웃들이 한 번씩 지나가며 산은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고 곧 돌아올 거라고 말해 주었다. 층간 소음이나 물이 샌다고 연락을 해오던 아래층 남자는 산이 멕시코에게 쫓겨난 거라고 했다. 그날 밤 싸우는 소리를 들었

단다. 아이가 죽은 건 아닐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자 또다시 허탈해졌다. 이웃들의 증언을 퍼즐처럼 맞춰보았다. 죽지도 않았다면 왜 돌아오지 않을까. 아이의 전화 마지막 통화는 911 이었다. 심란해진 수진을 단숨에 잠재운 건 남편의 한 마디였다.

“다 똑같은 개쓰레기들!”

불행의 이유는 참으로 여러 가지라고 했던가. 아이가 겪게 해 주는 지옥은 참으로 다양했다. 끝이 없는 호러 무비의 주연이 되는 건 갈수록 잔인해진다는 것이다. 이제 그냥 무심히 살아질 때도 되었던만 수진에게 익숙해진 통증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있었다. 두어 달 후 아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멀쩡하게 돌아왔다. 송곳니 하나가 빠졌다가는 눈썹과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렸다가 하는 건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었다.

초법적 살인을 통해 범죄를 일소한다는 공약으로 필리핀의 대통령이 된 두테르테는 내 아들이 마약에 연루되었다면 사살하라고 했다. 고급 페라리 스포츠카를 지게차로 밀어버리거나 지게차의 쇠뿔치가 반짝이는 차를 들었다 놓았다 구겨버리는 장면은 보기만 해도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다. 벌거벗은 시체들이 홀로코스트의 가스실처럼 쌓인 사진은 끔찍하지만 아주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초법적 처형으로 수천 명이 사살되었다.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쾌락을 꿈꾸다 천상으로 옮겨진 이들의 몸뚱이는 구원받은 영혼들과 다르지 않다. 마약 세계에서의 빈부의 격차는 확연하다. 부유한 중독자들은 고액의 변호사들이 지켜주는 화려한 방에서 합법적인 환각을 즐긴다. 가난한 중독자들은 락스나 윈텍스 같은 청소용품들을 흡입하다 구걸하거나 흠친 돈으로 사들인 마약과 함께 교도소를 드나든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폴레옹보다 더 위대한 두테르테여!

수진이 꿈꾸는 오직 한 가지 희망은 자식의 시신을 보는 일이었다. 매일 전자자 명단에서 아들의 이름을 찾았다. 수많은 총성과 수많은 포화를 뚫으며 끈질기게도 살아 돌아오는 아이. 거리에서 공원에서 주차장에서 구석진 나라를 구하려 몸을 던지다 번

번이 탈영병이 되었을 것이다. 신분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온 세상의 때를 혼자 다 묻히고 돌아오던 그 무욕의 얼굴. 하늘은 병거지 모자를 쓰고 땅은 해진 신발 위에 더 해진 양말을 신고 있었다. 부러진 주삿바늘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를 양상한 아이의 몸을 꼭 껴안던 날 두테르테는 이천 명을 살해하고 칠십만 명의 자수를 받아냈단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닌 백해무익한 짐승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완전범죄가 있다면 정말 아이를 죽이고 싶었다. 적어도 자신보다 일찍 죽기를 바랐다가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죽어줬으면 싶었다. 수진의 삶은 왜 이토록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꽉 차 있을까.

수진에게 한국에 있는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시길 기도했던 날들이 있었다. 하반신 마비로 누워 계신지 이태 췌, 남동생과 올케는 이미 자식과 며느리가 아닌 지 처가는 간병인이 되어 있었다. 우울증이 왔다면 올케는 걸핏하면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돌았단다. 지방에서 올라온 언니들은 잠긴 아파트 문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 창문을 두드리며 엄마와 대화를 했단다. 몇 달에 한 번씩 얼굴을 비치는 시누이들은 친정엄마를 내팽개친 몸쓸 년들이었고 병든 시모를 가둬두고 외출을 하는 며느리는 더 몸쓸 년이었다. 엄마를 사이에 둔 가족들은 서로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욕창이 번지는 몸뚱이에 갇혀 천정만 바라보는 생명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던 말인가.

멀쩡히 돌아온 산의 얼굴을 다시 보았을 때 수진은 한순간 기뻐던가. 어디서 샤워를 하고 온 것인지 말끔해진 얼굴이 어쩐지 더 예뻐 보이기도 했던가. 세상 끝까지 갔다 온 수도자의 모습을 잠시 보기도 했던가. 그러다, 그래 사람이 쉽게 죽지 않지. 마주 보는 고통의 무게를 통째로 무대 위로 올린다. 관객의 시선으로 아주 큰 것을 아주 작은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나면 세상은 참으로 쉬워진다. 아주 소중한 것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바꿔 버리고나면 세상은 참으로 단순해진다. 냉정하게 돌이켜 보건대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목숨만이 질기게 붙어있을 뿐이다. 생각해 보면 수진에게는 아주 익숙한 불행 같기도 했다. 가슴이 자라면서부터 수진은

행복에 익숙해 본 적이 없다. 행복은 늘 불안을 데리고 다녔다. 한국 드라마 속에서 자식의 시신 위에 엎드린 한 여자가 오열을 했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 저리 끔찍한 일일 수도 있을까 싶었다.

제초제가 든 김밥을 신고 수진이 콘도로 가는 길은 여느 때와 달랐다. 차들은 무엇인가 쫓기듯 미친 듯이 달렸다.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 거침이 없었다. 차들이 닿을 목적지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에 따라 힘이 주어지던 오른 발이 속도를 올렸다 줄였다 했다 보다. 뒤차의 운전자가 백미러 속에서 두 손을 치켜 들고 있는 것이 언뜻 보였다. 머리가 주뻔 당기자 가슴까지 예리한 통증이 왔다. 영겁결에 차선을 바꿔 주었다. 썩하고 지나치는 왼쪽 뺨이 화끈거렸다. 그녀를 향한 이 목구비가 욕지기를 내뿜고 있는 듯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그 차의 목적지가 정녕 궁금했다. 그녀도 그렇게 뻥뻥거리며 추월을 하고 결사적으로 달린 적이 있었다. 그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성공한 삶을 위해 달리고 달리다 막상 목적지에 닿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뭔가 보이긴 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상처들, 이름 지을 수 없는 통증들, 후회스럽도록 시들고 쪼그라진 꽃잎들만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핸들을 잡을 때마다 수진은 신기했다. 저 많은 사람들은 어찌면 저리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을까. 손목을 조금만 비틀어도 바로 거기엔 죽음이 있는데, 잔인한 광경 속의 주인공으로 던져질 수 있는데. 거대한 바퀴로 다가오는 집채만 한 트럭을 지나칠 때마다 수진의 손목은 종종 움직이려 했다. 80마일의 도로 위에서 5도만 꺾여도 그녀의 차는 저 거대한 바퀴와 맞물릴 수 있다. 맥없이 뿔뿔히 잡초처럼 뒤엎길 것이다. 바퀴와 바퀴 사이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 종잇장처럼 구겨질 것이다. 그리고 앰블런스에 실려 화장터로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부서진 차나 뒤집어진 차, 웅성거리는 사고 현장을 지나칠 때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코미디처럼 피를 묻히고 구겨진 차 안에 거꾸로 앉아 있는 것은 50대의 이름 없는 여자였다.

멍하게 이어진 속도를 따라 떨어진 수진의 초점 사이로 공항과 레드우드로 빠지는 사인이 보였다. 서쪽 끝으로 가까워지면 공항으로 갈 수도 있고 붉은 숲으로 갈 수도 있다. 공항 가는 길은 수진을 늘 서울로 데려다주었다. 늘 서울로 가고 싶지만 서울에서 살고 싶진 않았다. 숲으로 핸들을 꺾는다. 삼나무가 가득한 길 없는 숲이다. 오래된 숲에는 이제 나무가 없다. 붉은 나무들이 붉은 피가 도는 사람이 되어 곳곳에 박혀 산다. 한 달에 한 번 먹이를 주러 가는 길. 20마일 남짓한 그 길은 서울에서 이 도시까지의 거리처럼 멀다.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시간만큼 지루하다. 길 없는 하늘길을 뚫고 가는 것처럼 막막하다. 물속을 헤엄쳐 바다를 건너는 만큼 힘겹다. 수진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궁금해질 때마다 이승에서 지은 죄들이 하나 둘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릴 때 구멍가게를 하던 큰언니의 가게에서 훔쳐 먹었던 칠성 사이다까지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다.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아이가 재활센터를 드나들 때도, 그룹 카운슬링을 다닐 때도,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 랜덤 메시지를 받고 마약검사실을 드나들 때도, 개인 상담을 받으러 다닐 때도 절망보다 희망이 컸다. 아이를 들여보내고 기다리던 주차장 가득 선명한 희망이 주차되어 있었다. 의사인 산의 상담사는 마약 중독자들은 환자와 다름없다며 자신 또한 한때 중독자였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지처럼 박혀있는 조언.

“경험상 희망을 많이 갖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마켓에서 돌아오던 어느 날 차 안에서 산이 그랬다. 부끄러움과 미망 사이에서 아이의 섬섬한 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엄마, 난 이 동네가 좋아. 눈이 찢어진 아이도 왕따도 없어. 모두들 똑같이 보여.”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얼굴은 앨범 속에서 환히 웃고 있던 다섯 살배기와 다르지 않았다. 멜빵 달린 반바지를 입고 데이케어에서 달려 나오던 아이. 양중맞은 턱시도를 입고 피아노를 치던 아이. 중학교 강당에서 바이올린을 켜던 아이.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던 아이.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벌렁 드러

눅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도 했었는데 자라면서는 점점 말수가 줄면서 아무것도 요구하려 들지 않았다. NO라는 대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거절당하기 전에 냉소적이고도 어두운 자아의 세계로 숨어드는 듯했다. 초등학교 때는 전날 밤에 준비해 둔 옷을 얌전히 입고 등교를 하지만 메고 나가는 백팩 속에는 몰래 갈아입을 옷이 들어 있곤 했다. 한글도 읽고 쓰던 아이는 사춘기 때는 아예 말도 섞으려 하지 않았다. 잘잘못을 따지고 들자면 모두 수진의 잘못인 듯 여겨졌다. 엄마가 한국에 가면 다신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든 건 바로 수진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콘도 문을 나서며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다. 처음엔 아이의 온몸에 언뜻 서운함이 감돌더니 이제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기만 했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고 아무도 껴안아주지 않는 아이는 환각인 듯 점점 더 말라가고 있었다.

* * * * *

인기척 없는 문을 수진이 다시 두드리는데 잔디밭 사이로 검은 피부에 머리가 곱슬한 아이가 파란 자전거를 타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지나간다. 이층 맞은편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는 담배를 비벼 끄곤 다시 집안으로 들어갔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다. 다시 문을 두드린다. 여전히 기척이 없다. 수진의 전화번호 뒷자리로 만들었던 비밀번호를 누른다. 첫 숫자를 누르며 씩어가는 시체가 보였고 두 번째 숫자를 누르며 멀쩡히 걸어 나오는 아이가 보였다. 세 번째 숫자를 누르며 소파 위에 백골이 된 시체가 보였다. 시체를 갇아먹고 있는 구더기떼를 보는 상상, 아이의 배를 갈라 사망시점을 꺼내는 상상, 아이의 장례식에서 억지로 눈물을 흘리는 상상 끝에 번호의 끝 자리를 누르려는 순간 문 안쪽으로부터 소리가 났다. 그리고 철커덕 문이 열렸다. 땀모자를 뒤집어쓰고 긴팔 셔츠를 입은 아이가 시체처럼 서 있다. 초점 없는 눈이 말을 한다.

“소리 엄마, 자고 있었어.”

단편소설
우수상

아내

이영미 [케냐]

도톰한 커튼을 살짝 올려보니 투명한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혀있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 회사에 일찍 나가봐야겠다. 지금쯤 마이나는 마른 수건으로 차에 묻어 있는 빗물을 닦아 내고 있을 것이다. 그의 나이가 아마 50살쯤 되었으니 나와 일한 지도 25년이나 되었다. 내가 개인 운전사를 고용하게 된 이유는 마타투라고 불리는 봉고차 운전사들 때문이었다. 운전기사들이 워낙 거칠게 차를 모는 바람에 출퇴근하는 시간에 매일 지옥 같은 경험을 했다. 그동안 내 차를 몰던 많은 운전사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마이나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 마이나에게 적응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 그의 몸에 배어있는 고수와 양파가 섞인 냄새다. 나는 워낙 후각이 예민해서 가끔씩 차 안에서 그의 냄새가 나면 여간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다. 만약 오늘이 그날이라면 마이나에게 꼭 말해 줄 것이다.

‘출근할 때는 꼭 씻고 오라’고 말이다.

귀밑에서부터 턱 아래까지 꼼꼼히 면도를 했다. 옷장 옷걸이에 걸려있는 양복 중에서 네이비 색깔의 정장을 꺼냈다. 잘 다려진 옐은 핑크색 와이셔츠를 입고 오랜만에 넥타이를 목에 매었다. 왁스에 물을 살짝 섞어 머리카락에 발라 빗어 넘기니 제법 멋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오늘은 호텔 잠보실에서 케냐 젊은 사업가 200명이 모여 아보카도로 기름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있다.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옷맵시를 고쳤다. 발밑에서 슬리퍼가 끌리는 소리만 빼놓으면 휘파람이 나올 정도로 기분이 좋은 아침이다.

아래층으로 내려오니 가정부 모린이 벽시계를 올려다보며 허둥지둥 출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놀란 눈으로 이층을 향해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마담, 마담”

등 뒤에서 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보면 몰라? 출근하지, 오늘은 스케줄이 많아서 바쁠 것 같아.”

나는 신발장 안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오래된 검은색 구두를 꺼내 들었다.

“정말 왜 그러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작은 체구의 아내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이 사람이 왜 그래?”

“호텔에서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나 되셨어요.”

아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나를 전신 거울 앞에 세웠다.

“지금 연세가 60세도 아니고 70세도 아닌 80세라고요.”

거울 속 얼굴은 눈가만 제외하고는 그런대로 좋아 보였다. 아랫배는 제법 나왔지만 나름 옷맵시도 살아있다.

멋처럼 기분 좋게 출근을 하는데 아내는 나에게 나이를 확인시키며 소란을 피웠다. 나는 아직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쳤고 사람들과 약속 시간도 잘 지킬뿐 아니라 기억력까지 좋은데 말이다. 큰 소리로 나에게 표독스럽게 말하던 아내는 평소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내와 한바탕 소란을 피웠더니 무척 허기가 느껴졌다. 식탁에 준비되어 있는 식빵에 달달한 살구 잼을 바르고 구운 소시지를 입속으로 밀어 넣었다. 삶

은 계란을 식탁에 탁하며 깨뜨리는 순간 아내보다 모린이 더 쾌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린만 조용했다라면 나는 지금쯤 호텔 사무실에서 최고급 케냐 AA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것이다.

어제 모린이 퇴근하면서 그녀의 가방 안에 토마토 3개와 양파 2개를 넣어 간 것을 눈감아 준 사람은 나다. 생각할수록 쾌ષ한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에는 모린이 내 옷장을 뒤졌는지 양말 몇 켤레와 새 팬티 몇 장이 안 보였다.

달달한 바나나를 입속으로 집어넣자 그동안 잊고 있었던 수건 밑에 넣어 둔 봉투가 생각이 났다. 수건을 차곡히 정리해둔 수납장 안쪽에 현금을 넣어 두었던 것이다. 급한 일이 생기면 손쉽게 현금을 꺼내 쓰는 방법 중 하나이다. 나는 급한 마음으로 발밑에 질질 끌리는 슬리퍼를 고쳐 신고 2층으로 올라갔다.

호텔에서 35년을 일한 김명진이다. 그동안 못 볼 것, 볼 것 다 본 사람이다. 나이로 비라피키 호텔에서 일하면서 직장이든 집이든 차 안이든 물건 위치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금방 알아채는 습관이 생겼다. 불편한 다리를 끌고 방안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수건 수납장 깊숙이 손을 넣어 구석구석을 뒤져 보았다. 제일 안쪽에서 거칠고 두툼한 봉투가 잡혔다.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아쉬운 마음이 교차했다.

‘두고 봐……. 모린, 한번 꼬리가 잡혀 보라고…….’

이번만큼은 증거가 잡히면 아내와 단판을 지을 것이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날씨가 흐렸다. 현관문 위 시곗바늘이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누가 볼 새라 하얀 대문을 살짝 열었다. 높은 담자락을 따라 몇 보 걸어가니 도로 위로 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내가 서있는 곳에서 직진으로 20분 걸으면 로터리가 나올 것이다. 로터리 가운데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하얀 시계탑이 서있다. 시계탑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느린 걸음으로 15분쯤 가면 강 사장 집이 나오고 왼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30분 걷다 보면 큰 성당이 나온다. 그리고 시계탑에서 직진으로 20분만 걸어가면 왼편으로는 아프리카 UN본부, 건너편으로는 미 대사관이 나온다. 그 지점에서 빠른 걸음으로 5분만 더 가

면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자바 하우스’라는 커피숍이 나온다. 내가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고 있으니 어느 곳이든지 찾아다닐 만큼 길눈이 흰하다.

시계탑에서 시작될 나의 산책 코스는 직진 코스다. 심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양다리 에 힘을 주며 한 발을 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숨이 찬 목소리가 들렸다.

“무제(Mzee), 무제(Mzee), 어르신”

마이나가 언제 뒤쫓아 왔는지 나의 오른 손목을 ‘획’ 낚아챘다. 그 바람에 온몸이 휘청거렸다.

“어르신, 밖에 나가실 때 혼자 다니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만큼은 마이나를 따돌리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쳐 버렸다. 로터리 가운데에 서 있는 시계탑 시곗바늘이 오전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매일 이 시간 아내는 조용한 집안에 음악을 틀어 놓고 성경을 필사하거나 기독교 방송을 본다. 가끔은 찬송가를 크게 틀어 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한다. 나이로비에 한인교회가 있지만 아내는 한사코 현지 교회를 다닌다고 고집했다.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는 한국의 대형교회처럼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 처음 예배를 참석하던 날을 잊을 수 없다. 찬양 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영어와 스왈리어를 번갈아가며 40분 이상 노래를 부르며 박수를 치고 춤을 추었다. 이후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 앞으로 나와 말을 하자 청중들은 그의 말에 연신 “아멘, 할렐루야”라고 화답했다. 내가 듣기에는 분명 설교가 맞았다. 그러나 또 다른 신사분이 마이크를 잡자 그는 1시간 넘도록 설교를 했다. 설교시간 내내 줄음과 사투를 하고 시간을 확인하니 오전 10시에 시작한 예배가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 집 담벼락이 보이자 갑자기 아랫배가 팽팽해졌다. 외출하기 전에 미리 볼일을 봤는데 방광이 꼭 차 올랐다. 걸음걸이가 마음과 다르게 더뎠다. 마이나가 커다란 대문을 재빠르게 열어젖히자 나는 얼른 현관문을 열고 화장실을 찾았다. 분명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할 화장실이 안 보였다. 35년 동안 살고 있는 집인데 화장실이 안 보이니 당황스러웠다. 불안한 눈으로 아내를 찾는 동안 발밑으로 미끄러져 나온 오른발이 신

경에 거슬렸다. 점점 아랫배가 터질 것 같아 발자국을 내딛기조차 힘들었다. 부엌 한 쪽에서 조용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오븐 앞에 서 있는 아내에게로 갔다. 아내의 왼쪽 발꿈치를 살짝 잡아당기자 뒤집개를 들고 있던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아내 옆에 서 있던 인도 여자가 눈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내게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상하네……. 화장실이 안 보이네.”

아내는 뒤집개를 팽개치고 나의 오른손을 잡아끌었다. 부엌을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짙은 갈색 문이 보였다. 아내는 잼싸게 문을 열고 나를 밀어 넣었다. 하얀 변기 앞에 서니 마음이 급해졌다. 벨트를 제치고 재빠르게 바지 지퍼를 내렸다. 변기 안으로 쏟아지는 노란 액체를 보니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현기증이 일어났다.

볼일을 보고 나오니 고소한 기름 냄새가 식욕을 자극시켰다.

“손은 씻으셨어요?”

“당연하지, 매번 확인은 왜 해?”

아내는 슬그머니 내 눈치를 살폈다.

“크리스틴에게 집을 내놓는다고 말했어요. 크리스틴 남편이 부동산 사업을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집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조금 전 부엌에서 보았던 여자가 크리스틴인가 보다.

“나와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판다고?”

아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몇 개월째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도 이야기했고 그 전날에도 얘기했는데…….”

“요즘이라니…….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아내는 미간을 좁히며 먹다 만 부침개 위에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다.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하고 특별히 노래를 좋아해서 이층 거실에 노래방까지 설치했다. 1주일에 한 번은 동요, 가요, 팝송, 성악까지

부른다. 아내는 지난번 아침에는 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 새우더니 오늘도 마찬가지다.

나이로비에서 45년 동안 살면서 아내는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다. 오히려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한 사람은 나였다. 나의 정년퇴임 이야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아내는 일사천리로 넓은 정원 한쪽에 게스트하우스를 짓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정원이 있는 집은 눈 씻고도 찾아보기 힘들 다며 말이다. 그랬던 그녀가 요즘 부쩍 집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나 몰래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이 분명했다.

아내의 부모님은 작은 교회를 중형교회로 성장시키셨고 같은 교회에서 명예롭게 퇴임하셨다. 장인은 목회를 하기 전에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종종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으로 출장을 다니셨다. 어느 해 장인은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다가 영적 경험을 하고부터 잘 드시던 술과 담배를 끊고 신학교에 입학했다. 아내는 4남매 중 첫째 딸로 온순하게 성장했고 중학생 때부터 예배 시간에 피아노 반주를 했다. 그녀의 활동 영역은 집과 교회 그리고 학교가 전부였다.

우리 대학생 때 봉사 동아리에서 만났다. 소록도로 봉사활동을 간 학생들은 20명이었는데 1주일 동안 짜증 한번 안 낸 사람은 아내뿐이었다. 취업을 앞둔 27살의 나는 여름방학이 끝나가기 전에 아내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나는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아주 가끔씩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다녔다. 마음속으로 아내와 결혼을 생각하고는 그녀가 다니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우리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의 부모님은 사윗감이 믿음이 약하다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다. 장인은 주일예배만큼은 꼬박 나오는 나를 지켜보시고 결혼 조건으로 8주 동안 본인과 일대일 성경공부를 제안하셨다. 내가 세례를 받던 날 교회 분들은 희남 자매는 천사 중의 천사라며 그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내와 살다 보니 그녀의 마음은 천사 중에 천사였다.

우리 부부는 결혼생활 5년째 되던 해 기다렸던 아기를 낳았다. 케냐로 떠나는 세식구를 위해 교회 분들은 축복의 기도를 해 주셨다. 아내는 생후 6개월 된 딸아이를

안고 나이로비로 오는 내내 평온해 보였다.

오늘은 강 사장 집에 가서 꼭 물어볼 일이 있다. 시켓바늘이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마이나, 마이나 와피(Wapi)? 와피(Wapi)?”

늘 이 시간이면 현관문 밖에 있어야 할 마이나가 안 보였다.

“마이나, 마이나 어디 있니? 어디 있어?”

케냐 차이를 마시던 마이나가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뛰어 왔다.

“꾸엔다 (Kuenda) 은제(Nenje), 밖에 나가자!”

“무제(Mzee), 싸와(Sawa), OK!”

하루 중 나와 마이나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요즘 아내를 밖에 나가는 나에게 마이나를 따라 붙었다. 내가 이 동네에 집을 사게 된 계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하고 길거리가 깨끗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국제 학교와 각 나라 대사관들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 거리에 편리한 쇼핑몰이 있어서 이기도 하다. 나름 부유한 동네라고는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철에는 수돗물 색깔이 붉은색에 가깝고 바람이 세게 불기라도 하면 전기가 불안정한 것은 여전하다.

아내는 마이나에게 분명히 주의를 주었을 것이다. 한시라도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우리 집에서 월급을 받는 현지인 중에 그나마 한국말을 잘 알아 듣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마이나다. 내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내 걸음걸이가 빨라지자 뒤에 쫓아오는 마이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제, 천천히, 천천히.”

“마이나, 하쿠나 마타타. 걱정하지 마.”

양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앞뒤로 돌려 보았다. 제법 팔이 잘 돌아갔다. 그나마 아내와 마이나가 나를 늙은이로 취급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기회를 봐서 한 번쯤 마이나에게 혼썰을 내주고 싶어졌다.

“무제, 무제, 노우, 노우, 안 돼, 안 돼.”

한 문장에 스왈리어와 영어, 한국말까지 섞어가며 말하는 마이나가 참 기특하다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다.

맞은편에서 어느 집 가드너가 사냥개 종류의 커다란 개를 데리고 나왔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두 마리 개를 산책시켰다.

“무제, 잠보.”

“잠보, 잠보.”

내 뒤에 따라오는 마이나와 그는 악수를 하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을 것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현지인들이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곧잘 이야기를 잘하니 가드너와 마이나는 매일 보는 사이니 할 말이 더 많을 것이다. 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직원들끼리도 무엇이 좋은지 깔깔거리며 대화를 한다. 직장에 출근을 했으면 일을 해야지 잡담을 하는 것도 부족해서 어느 때는 아예 일손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나마 인도 사람들이 주인인 가게에 서는 잠시 어린 눈초리에 수다는커녕 한순간도 일손을 놓지 않는다.

나는 마이너와 가드너가 악수를 하며 인사를 주고받자 마이나의 레이더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리에 힘을 꽉 주었다. 마음처럼 발이 바빠 움직여 주지 않는 것이 아쉽지만 로터리에 하얀 시계탑이 보이자 속도를 내어 걸었다. 시계탑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금방 나오는 강 사장 집에 가서 CCTV 설치에 대해 물어볼 생각이다.

시계탑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 도로가에 있는 강 사장 집 검은색 대문만 안 보였다. 나는 ‘애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앞만 보고 걸었다. 언덕길이 나오더니 내림 길이 나왔다. 다시 언덕길을 오르니 커다란 기와집 같은 중국 레스토랑이 보였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온몸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 티셔츠가 흠뻑 젖었다. 식당이 가까워지자 기름진 중국음식 냄새가 허기진 배를 유혹했다. 한참을 걸었더니 다리에 힘이 빠져 걷는 것이 힘에 부쳤다. 무작정 식당으로 들어가서 작은 연못 앞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뒤따라오던 마이나는 생각조차 안 났다. 중국 식당에서 자주 먹었던 계란 볶음밥과 땅콩이 뿌려진 청경채 볶음, 씨줄링 돼지고기볶음과 튀긴 양파를 밑에 깔은 치킨 wings를 주문했다. 물론 따끈한 중국차도 시켰다. 나온 음식을 정신없이

먹다 보니 배가 불러왔다. 배도 부르고 햇볕이 어깨 위에 내려앉으니 졸음이 쏟아졌다.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한참이나 이렇게 즐기고 있었나 보다. 잠 기운에 정신이 몽롱한데 가까운 곳에서 낮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제, 무제”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나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로 작은 체구의 아내가 종종 걸음으로 들어왔다. 티죽대감처럼 동네에 오래 살면서 나와 아내가 자주 오던 식당인지라 사장이 나를 알아보고 아내에게 전화로 일러 주었다고 한다. 마이나는 눈물까지 흘리며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밥 한 끼를 식당에서 혼자 먹었을 뿐인데 다들 야단법석을 떨었다. 마이나의 온몸이 땀에 젖은 것을 보니 꽤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맸나 보다. 그나마 마이나에게 말해 줄 것이다.

‘제발 쫌, 쫌, 샤워 좀 하고 다니라고 말이다.’

“마이나, 마이나 오늘은 시계탑까지만 산책을 가자.”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마이너 표정이 안 좋아 보였다. 늘 웃음이 많은 마이나인데 말이다. 산책을 하면서 나는 슬쩍 마이나의 손을 끌어당겼다. 아침부터 뽀롱뽀롱하던 마이나의 얼굴에 웃음이 보였다. 마이나가 자주 흥얼대던 노래를 불렀다.

「잠보? 잠보 부와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하바리 야코? 무주리 씨나.

(오늘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와게니, 와카리비시와.

(손님들, 환영합니다.)

케냐, 하쿠나 마타타.

(케냐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부를 때 속으로 비웃었다. 케냐에 무슨 걱정이 없단 말인가? 문제는 가는 곳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말이다.

어느 나라든 부정부패가 없는 곳은 없겠으나 나는 아직까지도 눈속임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꼴을 못 본다. 무슨 일이라도 할라 치면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말로는 뭐든 다 된다고 호언장담 해 놓고 막상 당일이 되면 진행된 일이 하나도 없었다. 내 생각에는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일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지 직성이 풀린다. 만약 현지인들에게 일을 보채기라도 하면 “볼레, 볼레, 천천히”라며 오히려 나를 진정시켰다. 결국 인내의 한계가 오면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늘 나였고 인격이 부족한 나쁜 사람이 돼 버렸다.

라피키 호텔에서 내가 과장으로 일을 시작한 나이는 35살부터였다. 젊은 남아공 사장은 호텔 물건이 말도 안 되게 사라진다고 나에게 주방과 식당, 룸에 제공되는 물품까지 확인하라고 했다. 케냐인 제임스가 물품 담당이었지만 사장은 그를 믿을 수 없으니 내가 직접 하기를 원했다. 서비스 쪽 일은 물건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리스트에 적혀있는 물품과 실제 물건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라피키 호텔이 나이로비에서 수준 높은 곳인데 레스토랑에서 종종 이가 나간 접시와 컵을 손님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임스는 호텔에 가끔씩만 보이더니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았다. 나는 나름 제임스를 신뢰하고 있었던 터라 운전기사를 앞세워 그가 사는 집으로 갔다. 호텔에서 1시간을 달려간 곳은 ‘강계미’라는 동네였다. 복잡한 시장 골목을 간신히 빠져나와 사람들에게 물어 제임스 집을 찾아갔다. 동네 입구에 들어서니 큰 차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길은 좁았고 오래전에 비에 쓸려 내려간 흙길이 나오자 더 이상 차가 올라갈 수 없었다. 결국 운전기사와 나는 아내가 챙겨준 선물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언덕을 한참이나 올라갔다. 조용하던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아이들 눈에 동양인인 내가 신기하게 보였던지 “무중구, 무중구” 외국인이라며 뒤쫓아왔다.

제임스가 사는 집은 다른 집에 비해 그나마 좋아 보였다. 바나나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고 벽돌로 지어진 집에 지붕은 양철이었다. 제임스는 핏기 없는 얼굴로 우리를

만겨 주었다. 나는 건강이 어떠냐고 물었고 그는 “무주리, 싸나” 괜찮다며 힘없이 웃기까지 했다. 그의 아내에게 밀가루와 쌀, 식용기름, 설탕과 고기를 선물로 내밀었다. 임신 막달인 듯 한 그의 아내는 우리를 위해 홍차와 생강 비스킷을 내왔다. 그녀가 머그컵에 홍차를 듬뿍 채웠기에 나는 조심스럽게 컵을 들어 올렸다. 눈에 익은 하얀 컵 위에 ‘라피키 호텔’이라고 인쇄된 글자가 보였다. 컵뿐 아니라 티스푼, 포크, 쟁반까지 말이다. 평소 같았으면 기분 나쁜 표정이 고스란히 얼굴로 드러났을 텐데 이상하리만큼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제임스의 고향은 빅토리아 호수 근처라고 했다. 나이로비에서 버스로 16시간 이상 비포장도로를 달려가야지만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집안의 대들보처럼 큰 아들인 제임스는 100불이 안 되는 돈으로 자신의 가족과 부모와 형제들까지 돌보며 살고 있었다. 정작 자신은 결핵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지만 병원에 입원조차 할 수 없었다. 나의 권유로 제임스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는 호텔에 출근하지 못했다. 제임스의 장례식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치러졌다.

예전 생각에 빠져드니 마음이 착잡했다. 앞서 걸어가던 마이나가 웃는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다.

“무제, Are you OK?”

“마이나, I am OK, 무주리 싸나.”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한 옥탑 올라간 목소리로 나를 반겼다.

“조금 전에 부동산 사업하는 크리스틴의 남편 소개로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을 언제 팔 수 있냐고 묻기까지 한걸 보면 우리 집이 맘에 든 것 같아요.”

“집을 사고팔 때 조심해야 해. 여기 사기꾼들이 많은 거 알고 있지? 지난번 사건 기억 안 나? 딜러가 사기꾼들과 짜고 내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집 밖으로 끌고 나가서 어떤 짓을 했어? 동네 밖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세큐리티 직원들이 발견하지 못했으면 큰코다칠 뻔했었다고.”

한숨 소리가 내 입에서 새어 나오자 아내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깐, 이곳을 빨리 정리하고 떠나요.”

우리 부부는 케냐에 온 지 10년째 되던 해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구입했다. 직장 생활로 모았던 돈과 신혼집으로 샀던 작은 아파트를 팔아 나이로비에 1,200평이나 되는 오래된 집을 샀다. 아내는 오래된 집은 맘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넓은 정원은 좋아했다. 아내는 가장 좋은 잔디를 정원에 심었다. 정원 한쪽에는 코스모스 씨를 뿌리고 보라색과 흰색 그리고 분홍색 수국을 심었고 도로 쪽 담가로는 파파야와 아보카도, 바나나 나무를 심었다. 평평한 정원 밑으로 비탈진 곳에는 빼곡히 로즈메리와 라벤더, 민트 등 각종 허브를 심었고 아래쪽 땅에는 상추와 부추, 대파, 고추, 쪽갓, 알타리와 열갈이 그리고 삼겹살 구이에 빠질 수 없는 깻잎을 심었다.

아내는 한국을 방문할 때면 사다 나른 빨간색 목장갑을 끼고 호미로 밭을 일구며 매일 식물과 야채에 물을 주었다. 사실 나는 정년퇴임을 하면 한국에 가서 살고 싶었지만 오히려 아내는 이웃집 담을 따라 다섯 채의 게스트 하우스를 지었다. 방안에는 각각 화장실을 넣었고 작은 거실에는 소파와 식탁, 부엌 쪽으로는 오븐과 세탁기, 냉장고와 식기류를 준비했다.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동안 아내는 무척 행복했다.

인생 제2막을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은 인생 제1막을 내려놓은 나보다 훨씬 에너지가 넘쳤다.

허브에 물을 주는 사이 고향 후배인 강 사장이 찾아왔다. 나이는 나보다 한참 어렸지만 강 사장은 사려가 깊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강 사장이 우리 집에 올 때면 동네에서 먼 한국 빵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단팥빵과 찹쌀 도넛, 생크림 빵을 사 온다.

“선배님, 잘 지내셨어요? 식사는 잘하시죠?”

“그렇지 뭐……, 요즘 자네 사업은 어떤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손님들이 안 온 지 오래되었어요. 여행사 사무실 월세는 계속 나가고……. 그래서 최근에 사무실을 정리했어요.”

“아이들이 한창 크는 나이인데, 걱정이 많겠어?”

“모두 힘든 시기이니 이번에도 잘 견뎌야죠.”

“그나저나 자네 아내는 잘 있나?”

“선배님도 알다시피 아내는 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요즘 들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다고 하네요. 케냐에 살면 살수록 사는 게 지친데요. 어제도 셋째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강 사장, 우리 아내도 요사이 그런 소릴 자주 한다네.”

강 사장은 마시던 새콤한 패션 주스가 목에 걸렸는지 기침을 해댔다. 나는 강 사장과 헤어질 때 주먹으로 악수를 대신하며 봉투를 그의 주머니에 살짝 넣어 주었다. 뒤를 돌아보는 강 사장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강 사장, 아이들과 함께 외식 한번 하게.”

강 사장이 우리 집에 오던 날 그에게 중고 CCTV 구매를 부탁했었다. 일머리가 좋은 강 사장은 내 방에 CCTV를 직접 설치해 주고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달아 주었다. 나 대신 기억해 놓을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든든했다.

이번에는 아내가 나를 믿어 줄 것이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아내는 딸 대학 입시를 위해 한국에 6개월 동안 나가 있었다. 아내는 주방을 담당하는 마마 사이먼에게 된장과 김치찌개, 미역국을 끓이는 방법을 가르쳤다. 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비빔밥과 깍두기, 배추김치 담그는 법까지 전수해 주었다. 가정부로 갓 일을 시작한 모린에게는 내 와이셔츠와 속옷을 다리는 방법이며 세탁한 옷을 어느 곳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꼼꼼히 알려 주고는 딸과 함께 한국으로 출국했다.

마침 강 사장이 사업 리서치를 위해 우리 집에 머물게 되어서 나는 그를 위해 1층에 있는 방을 내주었다.

모린은 두 남자의 옷 세탁과 다림질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구두가 윤이 나도록 닦아 놓았다. 정이 많은 강 사장은 모린에게 고맙다는 말과 더불어 팁을 챙겨주곤 했다.

연휴가 긴 주말이었다. 나는 금요일 저녁에 한국 청년들을 집에 초대해서 양고기 숯불구이와 함께 술을 거하게 마셨다. 다음 날 아침 나와 강 사장은 숙취로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아래층에서 강 사장이 큰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잠옷 바람으로 나는 그가 머무는 1층으로 뛰다시피 내려갔다. 그의 방 한 가운데에는 연휴와 휴일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모린이 서 있었다. 모린이 정신없이 자고 있는 강 사장 침대로 살그머니 들어왔던 것이다. 다정다감한 강 사장의 성격이 아이 둘을 데리고 고되게 살아가는 젊은 싱글 맘에게 큰 사랑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나는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모린을 우리 집에서 당장 잘라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내는 모린은 잘 못한 게 없고 착각하게 만든 강 사장의 실수라며 오히려 그녀를 두둔했다. 아내는 집에서 일하는 현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매번 이런 식이었다.

오래전, 나의 결혼반지가 모린 앞치마에서 나왔을 때에도 아내는 나보다 모린을 믿어 주었다. 모린은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에서 반지를 발견했을 뿐이고 잠시 자신이 보관한 것이라며 친연덕스럽게 말했다. 내가 믿어 주지 않는 눈치이자 그녀는 아내에게 직접 주려고 했으며 억울한 듯 눈물까지 툭툭 흘렸다. 기가 찰 노릇이었다.

나는 직장에서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을 보았다. 직원들은 해가 지고 어두운 저녁이 되면 호텔 가시나무 울타리 사이에 맥주와 와인을 숨겨 놓았다가 퇴근할 때 내 눈을 피해 챙겨갔다.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내가 케냐에서 터득한 기술이 있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절대로 눈감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가장 잘 먹혔던 방법은 발각되는 즉시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었다. 나를 직원들을 다루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것이 내 철칙이고 신념이고 정의였다. 그러나 집에서만큼은 내 방침은 통하지 않았다. 아내는 내 의견보다는 현지인들의 말을 더 믿어주었다. 아내는 진짜 천사가 아니면 바보 멍청인 것이 틀림없다.

CCTV 화면으로 작은 체구의 여자가 2층 거실에서 왔다 갔다 했다. 화면 속에 보이는 여자가 아내 장희남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오늘은 한 달 동안 녹음된 CCTV 화면을 돌려 보고 싶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괜스레 말소리를 죽이며 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사장, 강 사장 나야.”

“안녕하세요? 선배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강 사장, 자네 오늘 시간 괜찮으면 우리 집에 와 줄 수 있나?”

모린과 아내에게 무시당했던 일들이 머릿속으로 스치면서 말할 수 없는 희열감이 생겼다. 방 안에서 서성이던 나는 2층 거실로 나왔다. 끝내 불편한 다리를 끌고 아래 층까지 내려와서 강 사장을 기다렸다. CCTV 카메라 한 대는 2층 거실, 한 대는 부엌 그리고 지금 내가 서있는 1층 거실과 한 대는 내 방에 설치되어 있다. 강 사장만 오면 한 달 동안 녹음된 영상을 돌려 볼 것이다.

나는 마스크를 쓰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는 강 사장을 조용히 이층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한참 동안 화면 속은 지루할 정도로 같은 모습이 반복되었다. 넓은 집안에서 불편한 다리로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 매일 똑같은 시간에 모자를 눌러쓰고 현관문을 열기 전에 거울을 한번 쳐다보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나였다. CCTV 필름에는 모린 모습이 가장 많이 찍혀 있었고 그녀는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오전 내내 반쯤 허리를 굽히며 집안 바닥 청소와 부엌일을 하다가 오후 4시가 되자 빨래를 걷어 접었고 다림질은 이틀에 한번 꼴로 했다. 시곗바늘이 정확히 오후 5시를 가리키면 모린은 퇴근을 했다. 그동안 주방 일을 하던 아줌마는 코로나19 때문에 게스트 하우스에 손님이 없어서 잠시 휴가 중이다. 주방 아줌마 모습은 CCTV 필름에는 그림자조차 없으니 녹음된 영상에는 나와 아내와 모린 그리고 가끔 차를 마시러 오는 강 사장과 아내의 젊은 친구 크리스틴이라는 인도 여자가 전부였다. 영상 속에서 아내는 2층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가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메모를 했다. 단조로운 행동이 반복되자 나와 강 사장은 번갈아가며 하품을 했다. 영상이 막바지에 이르자 나는 집중해서 화면을 뚫어져라 지켜봤다. 오후 5시가 되면 퇴근해야 할 모린이 내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내가 강 사장의 손등을 두드리자 그는 화면에 눈을 집중시켰다. 모린은 CCTV 카메라를 등지고 양복과 와이셔츠를 보관하는 옷장 문을 열었다. 그녀의 손이 옷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 내려갔다. 점점 빨라지는 손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

닌 것 같았다. 갑자기 모린이 손을 멈추더니 무엇인가를 꺼내 들었다. 강 사장이 화면을 멈추고 그녀의 손을 확대시켜보니 동백꽃 모양의 브로치였다. 지난 12월에 한국에 불일이 있어 나갔다 온 강 사장 부인에게 부탁한 선물이었다.

올해 11월은 나와 아내 장희남의 결혼 50주년이다. 깜빡 잊고 있었던 물건을 모린이 찾아낸 것이다. CCTV 화면을 함께 지켜보던 강 사장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지금껏 혼자 의로운 척, 착한 척, 이해심 많은 척하던 아내에게 꼭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장면이었다. 그동안 아내에게 무시당했던 일들을 꼭 보상받고 싶었다. 모린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짜릿했다.

“강 사장, 자네도 봤지? 오늘은 반드시 아내와 결판을 내야겠네.”

나는 강 사장에게 아내를 불러 달라고 부탁을 했다. 강 사장은 우리 부부가 이런 일로 말싸움을 하던 것을 알고 있었다. 강 사장이 주뻗거리며 밖으로 나가는 것을 머뭇거렸다.

“자네, 왜 그러나, 자네도 내 억울한 마음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강 사장은 무슨 고백이라도 하듯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선배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안되었어요.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거실로 나가서 이야기해요.”

따뜻한 물을 갖고 온 강 사장은 급한 내 성격을 식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물 한 모금을 삼키며 마른 입술을 축였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놀라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제가 누님이라고 불렀던 선배님의 아내 분은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던 분이세요. 선배님, 누님은 지금이 세상에 안 계세요. 6개월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래, 자네도 CCTV 영상 속에서 아내를 봤잖은가.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

“선배님, 선배님은 지선이를 누님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집에 있는 사람은 누님이 아니라 선배님의 딸 김지선이에요.”

“자네……. 안 되겠네. 여보! 여보! 어디 있어? 장희남! 장희남! 이리 좀 와봐.”

나는 직접 아내를 찾기 위해 일어섰다. 갑자기 머리가 핑 하고 돌자 몸이 휘청거렸다. 강 사장이 나를 부축해 소파에 다시 앉혔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강 사장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켜서 TALK라고 쓰여 있는 노란색 화면을 눌렀다. 강 사장 이름 밑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보였다. 그는 김명진이라는 이름을 찾아 화면을 눌렀다. 바탕화면에는 나와 연배가 비슷한 여자가 내 팔에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우리 집에 있는 아내와 무척 닮아 보였다. 그녀가 누구인데 나와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일까…….

“선배님과 팔짱을 끼고 있는 분이 장희남 누님입니다. 선배님 아내이시고요”

강 사장은 다시 김지선이란 이름을 눌렀다. 사진 속에는 도도한 표정의 젊은 여자가 나를 물끄러미 건너다보았다.

“이 사람이 아내 장희남이 아니고 딸 김지선이란 말인가?”

“네. 선배님, 두 분은 6개월 전에 골프장에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비탈길에서 큰 트럭이 추월하면서 선배님의 랜드 크루저를 박아 낭떠러지로 굴렀어요. 사고가 나자마자 두 분은 앰블런스로 아가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누님은 응급실에서 1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선에게 두 분 소식을 알렸고 따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케냐로 온 것이예요. 저와 지선이가 누님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때 선배님은 응급실에 계셨어요. 신의 도움으로 선배님은 3개월 전에 퇴원하셨지만 사고 후 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하신 거예요.”

강 사장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 나는 혼이 빠진 사람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래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살며시 눈을 뜨니 지금까지 아내라고 믿고 있었던 딸 김지선이 눈앞에 서 있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먼저 아빠에게 엄마의 소식을 말했어야 했는데, 아빠가 저를 엄마라고 믿고 계셔서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아빠의 외동딸 김지선, 엄마 품에 안겨 나이로비에 온 딸이에요.”

어디에서부터 기억이 영커버린 것일까. 강 사장과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내 혼란스러웠다. 나는 지선에게 말을 꺼낼 기운조차 없어서 눈으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딸 지선은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건너편 소파에 앉아 있는 강 사장은 착잡한 표정이었다. 지선은 두 손을 만지작거리더니 조심히 말문을 뗐다.

“저는 혼자 자랐지만 아빠의 넉넉한 월급으로 좋은 집에서 살았고 나이로비에서 비싼 국제 학교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3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한국으로 떠났고 졸업 후 처음으로 케냐에 왔어요. 1년에 한 번 아빠와 엄마가 한국으로 오셔서 한 달 동안 저와 시간을 보내셨고 가끔 유럽에서 만나서 여행을 다녔고요. 2년 전 스위스로 여행을 함께 갔었는데 기억나시죠?”

말없이 앉아 있던 강 사장이 지선의 말을 거들었다.

“스위스 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저희 막내에게 초콜릿 하고 목각으로 만든 소 인형을 선물로 사다 주셨잖아요. 선배님과 누님은 젊었을 때부터 주말이면 집에 한인 분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셨어요. 나이로비에 사는 한인들 중에 선배님 댁 양고기 야마 초마(숯불고기)를 안 먹어 본 사람은 열 손가락 안에 꼽힐 겁니다. 케냐에 근무하는 S상사와 L상사 직원들과 대사관분들 그리고 미국, 캐나다, 영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인들까지 초대하셨잖아요. 제가 케냐에 처음 왔을 때 한국 교환학생들과 NGO 단체에서 근무하던 청년들을 초대해서 저녁을 먹고 술을 거하게 마셨다가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모린에게 혼쫓났었고요.”

딱 다문 내 입술 사이로 쥐어짜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는……. 장희남은…….”

“엄마는 …… 거실 장식장 위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계세요.”

CCTV 한쪽 화면 안에는 낮이 나간 사람이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다른 화면에는 2층 거실과 아래층에 있는 부엌과 1층 거실이 보였다. 현관문 옆에 커다란 전신 거울이 보였고 왼쪽으로는 브라운 색 엔틱 장식장이 보였다. 장식장 한가운데에 열린 옥색 용기가 놓여 있었다. 두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들여다보니 용기 가운데 붉은색으로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다. 몇 시간째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있었는지 다리가 굳

어 일어서는데 한참이나 시간이 걸렸다. 나는 불편한 다리를 슬리퍼에 집어넣고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장식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벌렁거리는 소리가 귀까지 들렸다. 코끝에 타이어 타는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CCTV 화면으로 보았던 사기 모양의 용기가 눈앞에 보였다. 용기 곁에는 ‘고 장희남 여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안에 아내가 있다니……. 여기에 장희남이 있었다니…….’

아내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아내를 소록도에서 처음 만났던 날, 케냐에 6개월 된 딸 지선이를 품에 안고 오던 모습, 정원을 꾸미며 행복하게 웃던 아내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엠보셀리 공원으로 달리는 차 창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보였다. 운전하는 마이냐에게 시원한 데톨 비누냄새가 풍겨 났다. 마이너 옆에는 강 사장이 앉았고 뒷자리에는 딸 지선이와 내가 앉았다. 우리는 킬리만자로 산을 보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가고 있다. 한국의 겨울이 그리울 때면 눈 덮인 킬리만자로 정산을 보러 왔던 아내를 위해서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뒤쫓아 오던 사파리 차 한 대가 앞서 나가며 뿌연 흙먼지를 쏟아 냈다. 울퉁불퉁한 흙길을 따라 차가 움직였다. 내 품에 안겨 있는 아내의 유골함이 흔들거리며 춤을 추었다.

오늘은 아내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다. 그녀가 킬리만자로 산과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차를 멈추었다. 멀리 지나가는 코끼리 가족들에게도 안녕을 고했다. 나의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아내의 유골이 흙먼지 속으로 사라져 갔다.

광활한 초원으로 흩어지는 아내의 영혼이 마치 킬리만자로의 산 정상을 향해 날아가는 나비 떼처럼 보였다.

어디에선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케냐 하쿠나 마타타, 김명진 하쿠나 마타타.’

엄마를 닮았네

박 시 드 니 [덴마크]

아침 8시가 넘었지만 창밖은 아직도 칙흑같이 어두운 밤, 거실 안의 전등불은 유리창에 녹아들어 정원 너머로 긴 손을 뻗친다. 담벼락 넘어 풀썩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무거운 어둠을 머리에 이고 우두커니 서 있다. 그 나무는 수십 개의 팔을 벌리고 어슴푸레 눈을 비비며 기지개 켜 준비를 한다. 어제 날짜로 동지가 지난 올 12월은 한 달 동안의 일조량이 겨우 두 시간 남짓이라고 아침 라디오 뉴스가 전한다. 이맘때쯤이면 대략 아침 9시쯤 동이 터서 오후 3시 반에 해가 진다. 하지만 하루 종일 끼어있는 짙은 구름은 두터운 암막이 되어 사람들에게 해님의 존재를 망각하도록 주술을 걸고 있다.

솔미는 자신의 기억 장치를 검색해서 몇 년 전 1월 한 달 동안의 일조량을 끄집어냈다. 11시간. 그 당시 한달 동안 최소의 일조량으로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다. 올해 남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일기예보를 보아하니, 아마도 올 12월은 일조량면에서 한 자리 숫자를 넘기기가 힘들어 보인다. 덴마크 역사상 한 달 동안 최소의 일조량 기록을 깨버릴듯한 기세다.

그녀는 내심 뿔랑꼴리해져서, 계절에 어울리는 동지 팔죽이나 해 먹을까 하고 잠시 고민에 빠졌다. 한국에는 간단히 전자렌지에 데워먹을 수 있는 팔죽이며, 호박죽, 야채죽이 있고, 그 외에 거의 모든 음식들은 진공 포장되거나 냉동 포장으로 유통되

어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다. 한국에서는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요즘은 전화보다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신속 배달을 해 준다. 집 현관 앞뿐 아니라 바닷가 해수욕장이나 한강 강변 공원으로도 음식 주문이 가능하다. 최근 그녀가 한국에 갔을 때 친구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서 캠핑을 한 적이 있다. 그녀의 친구는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배경 삼아 생선회를 먹고 싶어 했다. 친구는 스마트폰으로 근처 생선회 배달 검색을 한 후 전화를 걸었다. “생선회 배달되죠?” 상대방에서 ‘예, 어디로 배달해 드릴까요?’ 하고 되물은 모양이었다. “정자 바닷가 공용주차장으로 와주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예, 그럼,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친구는 약속대로 30분 후 바닷가에서 계단 몇 개를 올라가서 주차장에 도착했다. 곧이어 스쿠터를 탄 배달원이 나타나서 친구에게 생선회를 전달해 주고 친구의 카드를 받아 결제를 한 후, 다시 스쿠터를 타고 사라졌다. 역시, 한국은 진정한 배달의 민족인 게 틀림없다.

그렇다고 덴마크에 음식 배달 문화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Wolt라는 회사명이 써진 네모난 하늘색 보온 가방을 등에 멘 배달원들이 자전거의 페달을 열심히 밟는 모습을 대도시 중심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덴마크의 대표적 배달음식은 피자이다.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배달음식이 무엇일까 그녀는 궁금해졌다. ‘아마도 치킨? 짜장면?’ 피자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알래스카에선 헬리콥터로 피자를 배달한다는 얘기를 떠올리며 그녀는 자전거 배달이 가장 친환경적이란 생각을 한다. 머지않아 배달 산업에도 첨단 기술이 도입되어 작은 드론이 세계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며 배달을 할 것이라고 그녀는 믿는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한국이 아닌, 지구 반대편, 8시간의 시차 생활권에서 살고 있고, 이곳에서 한국 음식은 배달이나 쇼핑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직접 손수 재료를 사고 다듬고 끓이고 볶고 조리를 해야만 한다. 한번도 직접 동지팔죽을 끓여본 적이 없는 그녀는 열심히 유튜브 동영상을 뒤져서 동지팔죽 만드는 법을 배우고 연구한다. 만드는 법도 천차만별, 누구는 팔을 밤새 불리라고 하고, 누구는 불릴 필요 없이 한번 끓여서 첫 물을 따라 버리고, 새 물을 받아서 압력솥에 끓여서 믹서기에 갈면 된다 한다. 참쌀가루 반죽을 해서 새알을 직접 빚어 하

는 사람도 있고, 간편하게 냉동 새알을 구입해서 넣으라는 사람도 있다. 불린 찹쌀을 넣으란 사람도 있고, 불린 맵쌀도 섞어 넣으라는 사람도 있다. 모든 레시피에는 소금과 설탕을 기호에 맞게 첨가하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그녀가 팔을 사려면 시내에 있는 아시안 상점까지 다녀와야 하고, 그곳에서 살수 있는 팔은 모두 중국산이다. 찹쌀가루는 태국산이거나 베트남산이고,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식 찹쌀가루와는 전혀 다른, 봉투를 열자마자 먼지처럼 하얗게 날아가는 완전한 건식 가루다. 압력밥솥이 없는 그녀는 일반 냄비로 몇 시간동안 팔을 끓일 엄두가 나질 않는다. 이곳엔 전문 한국 슈퍼마켓은 아직 없지만 최근 한류의 여파로 몇몇 기본적인 한국 식품을 이곳 아시안 상점에서도 살 수 있긴 하다. 그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Kmall이라는 한국 마트에서 한국 식품을 주문했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Paypal로 대금 결제를 하면 독일에서 덴마크로 택배가 도착하는 데에 이틀이 걸리곤 했다.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을 넣어 아무리 포장을 잘했다 해도 이틀 후 택배가 도착했을 때는 모든 냉동식품이 해동이 된 상태였고, 그녀는 며칠 동안 부지런히 해동된 냉동식품을 혼자서 소모하느라 무진장 애를 썼었다. 그녀는 팔빙수용 통조림을 사서 물에 넣어 끓이다가 건식 찹쌀가루를 풀어 넣어 되직하게 편법적인 팔죽을 쑤어 볼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결국 팔죽 생각은 접어버렸다.

한국에 다녀온 지 겨우 나흘이 지났고, 아직 시차 적응이 되지 않은 그녀는 오후 4시면 핸드폰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간다. 한국시간으로 치면 밤 12시다. 한 시간여 유튜브 채널을 뒤적이다 오디오북을 읽어주는 채널에 고정시키고, 책 읽어주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사르르 잠에 빠져든다. 잠에 빠져든지 두 시간쯤 지났을까? 따르릉따르릉 울려대는 전화기 소리에 놀란 그녀는 시공간의 개념이 뒤죽박죽된 채로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깜짝 놀란 한 마리 닭처럼 푸드득거리며 날아올라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다. 핸드폰 창에는 발신자 모름 표시가 들어왔다. 그녀의 다른 모든 친구들은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으로 발신자가 뜨지만, 단 한 명, 발신자 모름이 뜨는 친구가 있다. 단 한 명이기 때문에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이 발신자 모름 표시는 이제 그녀에겐 친구들 중 유일하게 발신자 표시를 거부하는 마틴

이라고 인식이 되어있다. 개인 사생활 보장을 철저히 옹호하는 그 친구는 본인의 전화번호 표시를 극구 부인하여 발신자 번호 보호신청을 계속 유지해 왔다.

“여보세요?” 그녀가 답했다.

“어? 벌써 잠자는 거야?” 마틴은 그녀가 아직 시차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녀의 잠에서 깬듯한 부스스한 목소리가 언짢은 듯 하다. 저녁 8시도 채 안 된 초저녁에 잠자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질타하는 듯 하다. 야행성인 그 친구는 새벽녘이 되어서나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그에게 저녁 8시는 한낮과 같은 시간이다. 친구이기 보다는 덴마크의 유일한 가족과 같은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항상 힘이 되고 위안이 되어왔다.

그녀에게는 하나의 모토가 있다. ‘기대를 하지 말 것! 기대 뒤엔 항상 실망이 따르니까’. 하지만, 가끔씩은 그 모토를 잊고 기대도 한 번씩 해 본다. 그녀는 며칠 전 한국에서 돌아올 때 공항으로 픽업해 줄 만한 친구를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년에 한 두번씩 꼭 다녀오는 한국 여행, 항상 주말에 들어오는 비행기 편을 선택했었다. 주말엔 모두들 쉬는 날이기 때문에 공항으로 픽업해 줄 친구를 찾기가 쉬운 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목요일 밤 한국을 출국해서 금요일 새벽 암스테르담 도착 후 비행기를 갈아타고 금요일 오전에 덴마크로 들어오는 여정이었다. COVID-19 팬데믹으로 매일 운항하던 비행기편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친구들은 근무 중이라서 나올 수가 없다고 했다. 마지막 히든카드를 뽑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마틴에게 전화를 걸었었다. 사정 얘기를 하고 공항으로 픽업을 부탁했다. 그녀는 거절의 답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터라 그의 반응에 사뭇 놀람을 금치 못했다. 한국에서 덴마크로의 먼 여행길, 비행기 안에서, 또 공항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을 그녀에게서 혹시라도 COVID-19 감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 마틴은 그녀에게 택시 타기를 권고했고, 대략 50-60만원의 택시비 중 기꺼이 20만 원을 보조해 주겠다고 했다.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으로, 뼈뚫는 살림에 알뜰살뜰 살림꾼으로 소문난 그로서는 엄청나게 큰 선심을 쓴 셈이었다. 그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팔손인 노모와 항암 치료 중이신 새아버지도 있고, 당뇨병을 앓

고 있는 애인에게 감염의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외부 접촉을 전면 차단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는 중이었다. 잠깐 동안 그녀는 놀란 마음에 멍해져 있었으나, 잘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부탁을 거절한 마틴 또한 마음이 많이 불편했는지, 전화 통화 후 연신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본인의 거절을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보였다. 그녀는 서운한 마음도 잠시, 마틴이 가엽게 생각되었다. 괜히 그 친구에게 거절을 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겨주었다는 생각이 밀려왔고, 이럴 줄 알았으면 부탁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하고 후회가 막심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남에게 신세 지지 말고 그냥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배짱 편하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비행기 요금과 택시요금이 저울대에 올랐고, 거리 대비 턱 없이 비싼 택시요금에 그녀의 지갑 사정까지 비교해가며 곧 결단을 내렸다. 택시보다는 역시 친구의 픽업의 길을 택하겠노라고, 그녀는 결국 덴마크 도착 후 공항에서 세 시간을 더 기다린 후에야 재택근무를 일찍 끝내고 공항으로 나와 준 중국 친구로부터 차를 얻어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마틴은 그녀가 집에 도착한 후에도 내심 그녀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하루에 한번씩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있다.

“모래 시간 어때? 같이 산책하면 좋겠는데, 너 주라고 우리 엄마가 구워준 크리스마스 쿠키도 있고, 세시 삼십 분 전 괜찮니?” 마틴이 수화기 반대편에서 산책을 제안한다. 덴마크 사람들은 시간을 말할때, 또 숫자를 말할 때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표현을 사용한다고 그녀는 항상 생각해왔다. ‘세시 삼십 분 전이 뭐람? ‘두시 반’ 이라던가 ‘두시 삼십분’이라 표현하면 알아듣기도 쉽고, 간단하고, 편할 텐데 말이지.’ 그녀에게 숫자는 더 헷갈린다. 예를 들어 89는 ‘팔십구’라 하면 될 것을, 여기에서는 ‘구와 팔십’이라고 한다. 북구의 어둡고 길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여러모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덴마크 사람들은 시간과 숫자를 어렵게 표현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으리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해도 빨리 지는데, 좀 일찍 안될까?” 그녀는 어둠이 내리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다.

“어, 그러면 내가 서둘러서 두시 삼십 분 전 까지 가도록 할게.” 그녀는 아직 덜 깬 잠 속에서 열심히 덴마크식과 한국식의 시계 읽는 방법을 계산해가며 약속시간을 머릿속에 구겨 넣었다. ‘한시 반’으로.

“마을 입구에서 만날까? 아님, 마을 끝에 있는 교회 앞에서?” 그녀는 약속 장소를 제안했다.

“네가 편한대로 정해” 그는 결정의 공을 그녀에게로 던졌다. 그들의 최애 산책 코스는 스캐너보 라는 소도시로 호수와 녹색이 잘 어우러진 곳이다. 마을 입구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을 여러번 겪었던 그녀는 교회 앞 주차장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그날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지 않길 기대하면서.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다시 잠을 청하다가 잠이 쉽사리 돌아오지 않자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둔 전화기를 다시 손에 집어 들었다. 전화기는 그녀에게 세상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이자, 음악을 들려주는 디스크자키이자, 날씨를 예보해 주는 기상대이자, 약속을 저장해 주는 비서이자, 뭐든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대답을 찾아주는 오라클이 된지 오래다. 그녀에겐 이제 전화기가 없는 일상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다. 전화기는 그녀의 반려자가 되어 어디든지 동행한다. 그녀는 전화기의 유튜브 속으로 잠수하는 것을 즐긴다. 그녀는 각국의 뉴스를 찾아본다. 온통 코로나 관련 뉴스다. 한국에서는 K-방역으로 COVID-19 유행을 잘 제어하고 있지만, 최근 겨울로 들어서면서 매일 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는 사회 거리두기 3단계로의 봉쇄를 감행하느냐 여부에 초점이 맞춰서 있다고 했다. 덴마크 또한 연일 4천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추세로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동안 나라를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에서는 유전자 전이로 확산이 더욱 더 빨라진 COVID-19 변이가 유행하고 있다며 유럽 내에서는 영국이 격리 대상국이 되었다. 독일 또한 연일 확진자 폭등세로 대 도시들이 봉쇄를 시작했다. 덴마크에 있는 친구들은 그녀에게 한국이 더 안전하다면서 내년 봄까지 한국에 더 있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돌아오라고 충고를 했었다. 그녀는 팬데믹 관련 뉴스의 진실성에 깊은 회의를 느낀다. 팬데믹을 등에 업고 나라마다 권력을 남용하고 개인의 이동할 권리를 제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최악의 독재정치를 보는 듯하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들이 앞을 다투어 국경을 봉쇄하고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근다고 해서 과연 바이러스가 통과를 하지 못할까?’ 그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지난해 가을 그녀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14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140일처럼이나 길게만 느껴졌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요양원에 계시는 엄마를 보러 면회를 갔었다. 그녀는 마스크를 쓰고, 알코올 소독제로 손을 닦고, 체온을 재고, 면회 신청서를 자세히 기록한 후 요양원 직원에게 면회를 부탁하면, 직원은 침대에 누워 계신 그녀의 엄마를 일으켜, 외투를 입히고 마스크와 모자를 씌우고 휠체어에 앉힌 후 무릎 위에 담요를 두른 후 현관 입구로 모시고 나왔다. 그녀는 현관 밖에서, 그녀의 엄마는 현관 안에서, 현관의 대형 유리 문을 사이에 두고 반가운 얼굴을 마주했다. 그녀는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서 날아왔지만, 엄마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마지막 남은 몇 걸음을 더 다가갈 수가 없다. 그녀에게 좌절감이 몰려온다. 가깝지만 먼 거리다. 반갑다고 손을 잡을 수도 없고, 감싸 안을 수도 없다. 머리에 눌러쓴 모자와 입과 코를 감싼 마스크 사이에 엄마의 빼꼼한 눈 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는 너무 아쉬웠다. 그녀는 문득 팬데믹 이전의 시절이 그리워졌다. 그때는 그녀가 자유롭게 요양원에 출입을 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요양원에 출근하듯 들어와서 엄마 침대에 걸터 앉아서 엄마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엄마에게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엄마에게 옛날이야기를 물어보면, 엄마는 기억나는 대로 열심히 대답을 해주었다. 엄마는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라면서 옛날 노래도 흥얼거리셨다. 11시 반에 점심 시간이 되면 그녀는 엄마의 점심 식사를 도와드리고, 12시가 되면 그녀는 직원식당으로 내려가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요양원 직원 같다는 착각을 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그녀 엄마 옆에 누워서 함께 낮잠을 자기도 했고, 엄마가 낮잠 주무시는 모습을 뒤로하고 그녀는 숙소로 돌아오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이면, 그녀는 또 요양원으로 엄마를 만나러 갔다. 그때는 자유롭게 요양원을 들락거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몰랐었다.

이제는 팬데믹 때문에 그녀가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현관 밖에서 유리 문을 사이에 두고 겨우 30분간의 면회가 허용되었다. 그나마도 일주일에 한

변만 면회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녀가 덴마크에서 왔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
 요양원 이사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그녀는 매일 면회를 올 수가 있었다. 귀가 잘 들리
 지 않으시는 엄마와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나누기란 불가능했다. 그녀는 요양원 직원
 에게 부탁해서 이면지 한 묶음과 매직펜을 받아 쥐고 그녀의 엄마가 쉽게 읽을 수 있
 도록 글씨를 커다랗게 써서 유리문 앞에 가까이 다가 섰다. “엄마, 나 누구?” 하고 그
 녀가 질문을 써서 보여주면서 물었다. 그러면 그녀의 엄마는 “누구긴 누구, 내 딸이
 지” 하고 반갑게 내색하였다. “내 딸도 못 알아볼까 봐? 엄마를 놀리고 있어”. 엄마는
 기분이 좋으셨다. “엄마 잘 잤어?” 라고 써서 보여드리면서 물어보면 그녀의 엄마는
 고개를 끄덕하셨다. “어디 아픈 데는 없고?”하면 “딱히 아픈데 없다” 하셨다. “가려
 운 건 좀 어때?” 엄마가 가렵다고 팔을 긁는 시늉을 하셨다. 그녀는 간호 과장님을 불
 렸고 엄마의 가려움증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간호과장님은 꼼꼼
 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 알리지성 피부염으로 늘 고생하시는 엄마는 피부 연고를 자
 주 바르셨는데, 근래에 피부염이 심해졌고 계속해서 연고 처방만 받아오다가 두피에
 도 심하게 번져서 한참을 고생하신 후, 결국 피부 전문병원에 가서 옴 진단을 받으셨
 단다. 엄마는 물론 담당 요양보호사님들도 함께 옴 치료를 받았으며, 회복 중이라 하
 셧다. 옷가지들과 이불 담요 등 엄마가 사용하시던 모든 것들을 삶아 빨았다고도 했
 다. 그녀는 옴이란 게 뭘지 몰랐고 나중에 전화기 속 구글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사람 피부 아래에 굴을 파고 사는 감염성 기생충 벌레
 란다. ‘엄마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벌레에 옮았을까?’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
 녀의 몸에도 벌레가 기어가는 듯 간질간질 해졌다. 현관에서 유리 문을 사이에 두고
 겨우 30분을 볼 수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면회를 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위안하며
 그녀는 매일 엄마 면회를 갔다. “엄마, 나 누구?” “엄마 잘 잤어?” “어디 아픈 데는 없
 구?” “가려운건 좀 어때?” 그녀는 주로 종이에 쓰여진 똑같은 질문을 재활용했고, 때
 른 새로운 질문을 첨가해서 물어보기도 했다. 그녀의 엄마 또한 재방송을 하듯 어제
 와 같은 답을 해주셨다. 그녀의 엄마는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끼니는 잘 챙겨 먹
 고 다니는지를 제일 궁금해하셨다. 그러던 중 COVID-19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

서 거리두기 통제가 강화되었고 엄마를 매일 보러 가던 요양원의 면회도 금지되었기에 그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그녀는 벌써 석달 가까이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 엄마를 보러 갈 수 없게 되자, 그녀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의미가 없어졌다.

그녀가 엄마를 보기 위해 요양원으로 가는길은 결코 쉽지가 않다. 물론 자가용 운전자나 렌터카 운전자에게는 쉬운 일이겠지만, 시내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과는 완전 반대인 시골 산골짜기 동산 아래에 요양원이 있다. 그녀는 숙소에서 좌석 버스를 타고 불국역까지 간다. 불국역에서 요양원까지는 택시로 가면 8,000원 정액 요금제다. 들고 가야 할 짐이 많은 날이나 시간에 쫓기는 날, 두어 번 그녀는 택시를 탔다. 그외 대부분의 날들은 왕복 8킬로를 고행길 삼아 걷는다. ‘스위스의 언덕이나 노르웨이의 산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렇게 먼 곳이 아니더라도, 토함산 올라가는 산길만 같았어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벗 삼아 걸을 수 있을 텐데...’ 그녀는 매번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가 없다. 인도가 따로 없는 시골 찾길에 차들이 왕왕 거리며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몸은 한껏 더 움츠러든다. 이곳 주변은 소 축사가 너무 많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소 축사를 지나 개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면 가축시장이 나오고, 거기서부터는 콘크리트로 덮아놓은 논 둑 길을 지나서 다시 한번 개천을 건너면 또 다른 소 축사들이 나온다. 그곳에 묶여있는 개들의 “환대”를 받으며 언덕길을 오르면 동산 아래 시골 마을을 품은 요양원이 나온다. 평생 줄에 묶여 지내는 개들에겐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목청 높여 짖어대는 것이 그날 최대의 하이라이트인듯 하다. 여러 개들중 특히 한 마리는 하얗고 긴 털을 가졌다. 견생에 한 번도 털 손질을 받아본 적이 없는 듯 정신없이 얽혀진 털 때문에 몇 걸음 걷기조차도 불편해 보였다. ‘물론 단 한 번의 산책도 해 본 적이 없겠지’. 그녀는 차마 그 개들을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가슴이 조여 온다. 종종걸음으로 서둘러 언덕을 올라간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 목줄에 매여 평생 묶여 사는 그 개의 입장이 되어 본다. 돌아누울 자리도 없는 좁은 철장에 갇혀 있는 돼지의 입장도 되어 본다.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수평아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분쇄기에 던져지는 병아리의 입장도 되어 본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입장도 되어 본다. 이 세상에는 끔찍한 살생이 너무나 많이 저질러지고 있다.

그녀는 치가 떨린다. 수많은 고통과 죽음이 그녀의 가슴을 뚫고 지나간다. 그녀에겐 고깃간의 고기가 더 이상 음식 재료로 보이지 않는다. 그녀 자신의 몸뚱아리가 도살된 느낌이다. 그녀 자신의 살덩이처럼 느껴진다. 모든 생명들이 그녀 자신의 몸뚱이처럼 느껴진다. 고깃국 끓이는 냄새에 그녀의 속이 뒤집어진다. 그녀가 완전 채식을 고집한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그녀가 정치인이 된다면 개를 줄에 묶어 키우는 것을 불법화하고, 가축을 가둬 키우는 것도 불법화하리라.

덴마크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그녀로서는 과연 덴마크에 무사히 입국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입국 후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지도 의문인데다, 코로나 테스트 음성 증명서 없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도, 예정대로 비행기가 뜰지도, 모든 것들이 의문 투성이었다. 그녀는 열심히 구글을 뒤져서 덴마크 입국 관련 정보를 탐독했다. 덴마크 국적자인 경우는 코로나 감염 여부에 불문하고 언제든지 덴마크에 입국이 가능하던 사실을 알아내고 나서야 그녀는 마음을 한시름 놓았다. 한국의 인천 국제공항 이용자는 팬데믹전에 비해 95퍼센트 감소했고, 그 여파로 공항버스들이 거의 대부분 운항을 중단한 상태였기에, 새벽 1시 출국을 위해 밤 10시에 공항에 도착하려면 사용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은 단 두 가지 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아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는 방법과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KAL 리무진을 타는 방법. 그녀 혼자서 무거운 짐 세 개를 끌고 메고 긴 계단을 내려가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포기했고, 유일하게 운행 중인 KAL 리무진을 타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가는 방법을 모색하던 차에 한국 친구 서연에게 김포공항까지 태워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 고맙게도 서연은 김포공항으로 가느니 곧장 인천공항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흔쾌히 부탁을 들어줬다.

팬데믹 전에는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여행할 때 비자가 필요 없었다. 덴마크 국적자인 그녀는 노 비자로 3개월간 한국에 머물 수 있었기에 자유롭게 한국을 오갈 수 있었다. 팬데믹으로 모두들 국제 여행을 삼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 더 엄마를 만나보고자 또 한국행을 계획했다. 덴마크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와 통

화하여 한국에 가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했다. COVID-19 때문에 한국으로의 노 비자 자유여행은 불가능하지만, 재외 동포 F4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외 동포 F4 비자를 준비하기 위한 서류 목록은 상당히 길었다. 비자 신청서 외에, 컬러판 여권 사진, 비행기 표 사본, 여권 원본과 여권 사본, 은행 잔고 증명서, 덴마크 국적 취득 증명서, 이전 한국 국적을 증명할 만한 서류, 국적 이탈서, 무범죄경력 증명서, 이름 변경 시 동일한 증명서가 요구되었고, COVID-19 관련 서류로는 테스트 음성 증명서, 건강 증명서, 시설격리 동의서가 필요했다. 시설 격리 동의서란 한국 입국 후엔 곧바로 14일간의 격리에 들어가는데, 한국 주소지가 없으면 시립 격리 시설 비용 210만 원을 본인이 지불하고 격리소에 들어가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다행히도 그녀의 친구 서연은 최근에 그녀가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남양주 소재 돌담집을 기꺼이 격리 장소로 제공해 주었다. 한국 입국 며칠 전에는 남양주 소재 보건소에 덴마크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있다고 사전에 신고도 해야 했다. 덴마크에서 암스테르담을 거쳐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모든 승객은 체온을 잴고,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고, 확진자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건강증명서를 제출했다. 모든 공항과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며, 기내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했다. 비행기에는 대략 70퍼센트의 빈자리가 있어서 그녀 혼자서 4개 좌석을 차지하고 누워서 편하게 비행을 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로.

거대한 점보 제트기는 지구 반바퀴를 돌아 나비처럼 우아하게 인천 공항에 착륙했다. 착륙 전 비행기 승무원이 배부해 준 서류 한 묶음을 받아 쥐고, 그녀는 볼펜, 여권, 탑승권을 가방에서 꺼내 앞 좌석에 연결된 간이 탁자에 올려놓았다. 평소 같으면 입국 신고서와 세관신고서만 작성하면 되었지만, 이번 경우는 입국 신고서를 대신해서 자가격리 동의서,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사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고, 방역지침서와 방역 안내서도 받았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모든 승객들은 한 줄로 서서 본인의 방역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각자의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했다. 방역 절차가 길어질 거라고 미리 걱정했던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줄에서

대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차례가 되었고, 투명 방역 스크린을 마주하고 담당 방역원에게 인사를 건넸다. 방역원은 그녀의 이마에 체온을 측정한 후 36.2도라고 적었다. 방역원은 한국 내 자가격리 주소를 확인하고 한국 내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그녀의 친구 서연과 통화를 했다.

그녀는 덴마크에서 떠나오기 전부터 서연에게 미리 신신당부를 해 놓은 상태였다. 공항 방역대에서 확인 전화를 할 테니, 그녀가 인천 공항 도착할 시간쯤 되면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오더라도 꼭 전화를 받아달라고. 방역원은 그녀가 서연의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게 맞는지 직접 통화로 확인을 했다. 방역원은 익숙하고 능률적인 손놀림으로 그녀의 스마트폰을 받아서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자가격리 집주소를 입력한 후, 주소지 산하 보건소 담당자와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정해진 시간에 체온 측정과 건강 이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1차 방역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확인서를 받고 다음 방역 단계로 넘어갔다. 그곳에서는 자가격리 주소지에서 14일간 머물러야 하며, 이로 인해 이동의 자유를 침해당하는데에 동의하고 위반 시 법적인 제약을 받는 데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위반할 시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주어진다고 했다. 이로써 검역 절차는 무사히 끝났고 그녀는 검역 확인서를 받아들고 입국 심사대로 들어가서 재외 동포 F4 비자를 보여주고 여권에 입국 도장을 받았다. 짐을 찾아 세관 검사대를 빠져나와 입국 게이트 앞에 대기하고 있던 방역 도우미의 안내로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은 최종 귀갓길까지 안내를 받았다. 그녀의 경우 공항 앞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표를 구입해서 남양주까지 가는 버스에 탑승했고, 그 버스에는 남양주뿐 아니라 인근 구리시나 하남시까지 가는 입국자들도 함께 탑승했다. 탑승객들은 모두 남양주 체육센터에서 하차했고, 그곳에는 남양주 보건소 산하 방역원들이 도착한 입국자들의 이름과 자가격리 주소, 연락처를 또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 방역원들은 입국자들의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손소독제로 손 세정을 권한 후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게 했다. 그녀는 일회용 장갑을 낀 채로 준비된 볼펜을 잡고 목록표에 이름을 적은 후 한국 내 자가격리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으려는데 시와 읍 이름 외에 번지가 기억나지 않았다. 전화기에 저장된 주소록을 들춰보려 전화기를 눌렀지만 일회용 장갑을 낀 채로는 스마트폰의 엄지 지문 장금을 해제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일회용 장갑을 벗었다 꺾다를 두어 번 반복한 후에 겨우 목록 작성과 서명을 마친 후에야, 대절해 두었던 전담 택시 편으로 각자 이용객의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 한 마리의 쥐새끼도 빠져나갈 수 없는 철저한 방역망에 그녀는 감탄과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감옥에 갇힌 듯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숨을 쉬는 자유까지도 박탈당한 듯 숨이 턱까지 막히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에 반해서 그녀의 덴마크 귀국행은 놀랄 만큼이나 아무런 제약이나 통제가 없었다. 비행기 내와 공항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외에는 덴마크행 비행기 탑승 시 체온을 측정하지도 않았고, 코로나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 건강 확인서를 제출 하지도 않았다. 코로나 테스트 음성 증명서도 필요하지 않았다. 덴마크 유탄란드 반도 중앙에 자리 잡은 빌룬 공항에 내려서도 아무런 제제나 방역 없이 덴마크 여권 소지를 확인받은 후에 곧장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물론 자가 격리도 없었다. 그녀는 갇혀있던 새장을 빠져나온 한 마리 새가 된 기분이었다. 날개를 넓게 펴고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아올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스크 사이로 스며드는 자유의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며 가벼운 마음으로 공항 내 로비 카페에 자리 잡고 앉아서 두유로 만든 핫초코를 시키고 유튜브의 고양이, 강아지들을 벗 삼아 중국 친구의 픽업을 세 시간 동안이나 더 기다렸었다.

친구 마틴과 산책약속을 한 날이다. 약속시간에 맞춰 가려면 몇 시에 집에서 출발해야 하는지 그녀는 시간을 쏙아봤다. 그녀는 항상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간 약속은 칼처럼 잘 지킨다. 그녀 때문에 마틴은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았고, 얼마 전엔 김치 만드는 방법까지 배워서 직접 김치를 담궈먹는 열렬한 김치 팬이다. 며칠 전 그녀에게 마틴은 한국 식품 목록을 문자로 보내왔다. 시내 가까운 곳에 사는 그녀에게는 아시안 상점을 들러서 장을 보는 것이 그보다 훨씬 수월했기에 가끔씩 그는 그녀에게 부탁을 한다. 이번 목록에는 ‘샘표 진간장 3병, 참기를 한 병, 고추장, 김치만두,

구운 김, 두부, 청경채, 고수, 새송이버섯' 이 쓰여있다. 그녀가 필요한 식재료를 사려면 그녀가 애용하는 Rema1000이라는 슈퍼마켓 체인점에 들러야 한다. 그 슈퍼마켓 체인은 타 슈퍼마켓 체인점들 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유기농 채소도 많고 직원들도 친절할 편이어서 그녀는 최근 3년간 줄곧 이 체인점을 이용한다. 그 슈퍼마켓 체인을 좋아하는 건 분명 그녀뿐만은 아닌 모양이다. 덴마크인들이 선호하는 올해의 10대 브랜드에 이 슈퍼마켓 체인이 당당히 1등을 차지했다는 라디오 뉴스가 들렸다. 해마다 1등을 한 LEGO를 제치고 Rema1000이 1등에 올라섰다니. 그녀는 내심 놀랐다.

그녀는 약속 시간 계산 외에도 움직일 동선까지 계산한 후 계획을 세운다. 집에서 12시에 출발해서 시내 아시안 상점에서 불일 보고, 신호등을 피해서 국도보다는 고속도로에 차를 얹어 스캐너보에 있는 Rema1000 슈퍼에서 장을 본 후, 그 마을 끝자락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 1시 반에 도착한다는 완벽한 계획이다.

“엄마는 좀 어떠세요?” 마틴이 물어본다. 항상 그렇듯 마틴은 그녀의 엄마 걱정을 해준다. “엄마는 나를 선방하고 계셔. 밥도 약도 잘 드시고, 엄마 머리에 다시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 나오는 걸 보니 아무래도 오래 사실 것 같아”. 그녀의 엄마는 검은 머리 염색을 40여 년 동안 고집하셨었다. 엄마와 오랫동안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그녀의 소원대로 엄마는 머리 염색을 포기하셨고, 그 이후론 멋진 은발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녀는 마틴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의논도 많이 한다. 사는 얘기, 죽는 얘기, 죽음 뒤편의 얘기, 삶은 다른 모습으로 계속된다는 얘기, 카르마 법칙, 윤회의 법칙. 그들에게 대화의 장르와 토픽은 무궁무진하다. “왜 사는지 통 모르겠어. 난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삶은 고난의 연속인 것을. 난 이 고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싶은데 말이지”. 그녀는 기운 없는 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그녀는 밤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살하는 방법을 수없이 생각하느라 간밤에 한숨도 못 잤다. 특히나 그녀가 엄마를 만나고 돌아온 이후로 그녀는 죽음이란 단어에 집착이 더 심해졌다. 그녀는 항상 ‘삶은 고통, 죽음은 자유!’라는 고정관념을 만들어 그녀 자신을 속박하고 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매일매일 떠올리는 ‘오늘 저녁에는 뭘

해 먹을까?’ 같은 대수롭지 않은 고민처럼, 그녀는 ‘어떻게 죽어버릴까?’라는 생각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지만, 실은 그녀가 스물다섯 살 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때는 길고 짧은 것 생각하지도 않고, 확실한 방법을 심각하게 연구하지도 않고, 단지 죽어야겠다는 일념 하나만을 가지고 너무 즉흥적으로 실천에 옮겼다. 그녀는 청바지에 둘러진 가죽 허리띠를 빼서 목에 두르고 난 후, 발 받침대에 올라서서 방문 위에 허리띠 버클 쪽을 올리고 최대한으로 문을 닫아 보았다. 잠시 벼둥거리다가 곧 후회하고 다시 발 받침대를 딛고 내려왔다. 혼자서 관객 없는 팬터마임을 하고 난 기분이었다. 잠깐 시늉만 냈었다. 너무 허술했다. 허망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자살은 안 돼? 알지? 너를 아끼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일이야. 그들의 남은 평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라구. 살아 있는 동안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만, 우울한 상태에서 목숨을 끊는다면, 그 당시의 우울한 상태가 죽은 후 저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지. 아무리 깨어나고 싶어도 깨어 날 수 없는 영원한 악몽에 시달리는 것.” 마틴은 그녀의 자살 생각을 읽어내기라도 한 듯, 다시 한번 그녀에게 자살은 안된다고 다짐을 한다.

그녀는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차츰 삶의 의미와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를 가던 목조 건물의 튼실한 나무 기둥을 볼 때마다, 목을 메달기에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목재뿐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 몇 년 전 그녀가 살던 주택에는 넓은 정원이 있었고, 그 정원 한가운데에는 대략 수령이 최소한 50년 정도는 된 커다랗고 실해 보이는 붉은 메이플 나무가 자랑스럽게 우뚝 솟아 있었다. 나뭇가지들이 균형 있게 뻗어져 있고 동그스름한 돌을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으로 균형이 잘 잡힌 아주 잘 생긴 나무였다. 그녀는 창고에서 알루미늄 사다리를 가져와서 나무 기둥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고 나무가 두 팔을 벌리는 곳까지 올라갔다. 시야가 넓어지고 저 멀리 녹색 광야가 한없이 펼쳐졌다. ‘이 나무에 목을 메달면 멋진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저세상으로 갈 수 있겠지’ 그녀는 또 병처럼 떠오르는 자살 생각을 억지로 떠 밀어내어 땅 밑으로 내동댕이 쳤다. ‘이 바보

야, 공개 교수형도 아니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나무에 목을 매단다는 건 그저 쇼에 불과해. 길가에 지나가던 행인이, 아님, 지나가던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나를 구하려고 노력하겠지. 남들의 눈에 띄이지 않는 어딘가 으스스하고 조용한 곳이어야 한다니까.’ 생각이 여기까지 머물자 그녀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머릿속으로 열심히 물색했다. ‘겨울의 바닷가는 인적이 드물고 한적하니까, 바닷가로 가서 한쪽 구석에 차를 세워놓고, 배낭에 돌맹이를 가득 주워 담고 바닷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거야.’ 아주 쉽고 그럴듯한 계획이다. 성공 확률도 높을 것 같다.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물고기 밥이 되고 나서야 알려질게 분명하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집에 아주 잘 드는 면도 칼이 있었다면,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양쪽 손목을 베어버렸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차츰 따뜻한 물은 차갑게 식어 갈 것이고, 검붉은 색으로 변해 버린 물은 그녀의 야윈 몸을 커튼처럼 감싸서 보듬을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절대로 면도 칼을 사지 않았으며, 집안에 있는 칼들은 너무 무더서 손가락을 베기도 힘들 정도였다. 문득 그녀는 그녀의 엄마가 처녀 시절에 선택했던 자살 방법이 최소의 고통을 주는 방법이라 생각하는 데에 이르렀다. 그녀는 그녀의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불면증을 호소하고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수면제 한 병을 한꺼번에 모두 입속으로 털어 넣는 방법이다. 알약을 삼키지 못하는 그녀에게는 그 많은 약을 한 알씩 삼켜야 한다는 게 처참한 고문이 되겠으나, 무사히 약을 다 삼키고 나면 스르륵 잠에 빠져 들 것이고 다시는 그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엄마 경우에는 군에 갔던 엄마의 남동생이 휴가를 맞아 누나를 찾아와서 머리맡에 놓은 약 병을 발견한 후 잠에 빠진 누나를 들쳐 없고 병원으로 실어가 위 내용물을 세척해서 살려 냈었다. 그녀는 ‘그때 엄마가 살아나지 않았다면?’하는 헛된 상상을 해 본다. 그랬다면 그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다. 내심 아쉽다는 생각이 맴돈다. 항상 그렇듯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원망했다. ‘자식을 키울 능력도 없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왜 자식을 세상에 내놓았냐고, 그녀는 절대 자식을 낳지 않겠노라고 어린 나이에 다짐을 한 터였다. 그녀는 수면제에 취해 잠든 그녀를 찾아와 깨워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내심 확신했다. 완

벽하고 그럴싸한 방법이다. 이번엔 그녀의 생각이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으로 날아갔다. 차고 안에 차를 주차 시키고 연통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차 안에 들이고 시동을 걸어서 질식하는 방법이다. 그것도 어렵지 않은 괜찮은 방법인 듯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산 정상을 오르면 아래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목뒤로 삼켜야 했으며, 물가를 지나칠 때면 물속으로 풍덩 빠지고 싶은 충동을 잡아 묶어야만 했다. 다리 위에서 철도 아래로 몸을 던진다던가, 차를 몰아 교각을 들이받는 방법도 종종 레퍼토리에 등장한다. 몇 년 전 그녀는 회사 근무 중 외부 회의 참석 후 차를 몰아 사무실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지하주차장 입구 가까이 왔을 때쯤 그녀는 잠깐 몇 초 동안 정신을 잃었고 차를 큰길에서 꺾은 후에 지하주차장 앞 가로등을 계속해서 들이 받고 있었다.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회사 동료가 놀라서 그녀의 차 옆으로 뛰어왔었다. 자살 근처엔 가지도 못했다. 사고 전날 그녀는 엄마와 전화 통화를 했었다.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엄마는 자신의 레퍼토리를 또 재방송하였다. 그녀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라는 법이 어디 있어? 누가 먼저 같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내가 당장 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거구”. 말이 거의 씨가 될 번 했다.

‘오늘 하루만 더 참아보지 뭐. 자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하루만 더. 그녀는 그렇게 하루살이가 되어간다. 그녀가 자살 생각에 시달리는 것 또한 그녀가 엄마에게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거라는 엉뚱한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또 다시 엄마가 원망스러워졌다. 그녀가 어렸을 때는 왜 사람들이 결혼가정을 꺼리는지, 가정교육 여부를 왜 따지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젠 그녀도 조금은 알 것 같다. 왜 사람들이 집안을 따지는지를.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결혼 가정이나 고아원에 자란 아이의 인성은 틀리다는 것을. 그녀의 엄마는 지난 때문에 홀트 아동 복지를 통해서 자식을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려고 했었다. ‘그때 엄마는 왜 자식 입양 보내기를 포기했을까? 내가 그때 다른 나라로 입양되었다면?’ 그랬다면 어떤 모습의 인생이 펼쳐졌을지 그녀는 너무 궁금해졌다. 입양아로서의 삶이 훨씬 더 흥미진진할 것 같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가 보지 않은 그 길 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가 궁금했다. 그녀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심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그녀는 그 당시 상황을 매트릭스에 업로드해서 ‘취소’ 버튼을 눌러 그 당시 엄마의 선택을 무효화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서 ‘외국 입양’ 버튼을 선택한 후에 다시 게임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가 어렸을 때는 엄마와 전혀 닮지 않았다고 귀가 아프게 들어왔다. 그녀의 삼촌들조차 그녀가 갓난아기 때 답십리 개천 다리 밑에서 주워다가 키웠노라고 놀려대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를 보는 사람들마다 어쩌면 엄마랑 똑같이 생겼느냐고 혀를 내두른다. ‘어렸을 땐 전혀 닮지 않았던 얼굴이 나이 들면서 닮아 가는 건 무슨 오묘한 요술일까?’ 그녀는 늙고 병들어서 나날이 약해져만 가는 그녀의 엄마를 보면서 33년 후 그녀 자신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더욱 울적해졌다. 그녀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기저귀에 볼일을 보며 살고 싶지 않다.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이 뚫어져라 바라보며 살고 싶지 않다. 하루 종일 찾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며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살면 뭐 하니, 빨리 죽어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는구나”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볼 때마다 되뇌는 구절이다. 그녀는 엄마의 판에 박힌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싫다. ‘엄마, 말로만 죽고 싶다 하지 말고 정말 죽고 싶으면 실천에 옮겨야지. 약 끊고 음식물 끊고!’ 그녀는 엄마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고 싶은 걸 참아내느라 얼굴이 빨개지고 몸속에서는 열이 피어올랐다. 침을 삼켰다. 숨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엄마! 엄마가 덴마크에 왔었을 때 하숙했었던 집 주인 할아버지 기억나? 그 할아버지 암 투병 중에 식음을 전폐하셔서 돌아가셨데.” 그녀는 이 대화를 통해 엄마에게 영감을 주려고 노력했다. 본인의 의지로 삶을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녀의 엄마는 귀가 멀어졌다는 핑계로 본인이 듣고 싶은 말들만 선택해서 들으셨다. 그녀의 엄마는 살고 싶어 하셨고, 식사 후 손바닥 한가득 약을 한입에 털어 넣으셨다. 파킨슨 약, 혈압 약, 위장 보호하는 약. 때로는 신경안정제가 첨가되기도 했고 필요에 따라 약의 종류나 개수가 조절되기도 했다. 약의 색깔도 가지가지,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다. 그녀는 그 혼한 두통약도 입에 대지 않는다. 그녀는 모든 종류의 약을 혐오한다. 가끔이지만 그녀에게도 약을 복용해야 하는 때가 있긴 하다.

염증을 다스리기 위해 페니실린을 복용하고 페니실린에 죽음을 당한 대장균을 보충해 주기 위해 프로바이오틱도 함께 복용해야 한다. 그녀가 알약을 삼킬 때면 그녀의 식도는 반사적으로 입구를 차단해 버린다. 알약을 잘게 쪼개고 나서야 간신히 삼킬 수가 있다. 그녀는 약으로 목숨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 그녀는 약을 거부하고 끼니를 거부하리라. 단식은 길면 14일 이상도 끌 수 있다. 그녀에겐 14일도 너무 길다. 냉전 시대 때 소련의 KGB 소속 스파이가 신분이 탄로 났을 때, 구속과 취조를 피하기 위해 목걸이에 달고 있던 독극물을 삼키던 영화 한 장면을 그녀는 떠올린다. 그녀 자신을 위한 아주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은듯하다.

마틴과 산책 중에 산책코스로 항상 교회 묘지를 끼고돌 때마다 그녀는 묘비명을 자세히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다. 특히,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유심히 살펴본다. 대 다수 묘비명의 주인들은 80년 이상을 이 세상에 머물고 떠났다. 간혹 20대 청춘의 죽음도 있고, 중년의 죽음도 여럿 있다. 청춘의 죽음을 알리는 묘비명을 맞이하면 그녀는 청춘의 짧은 삶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픈 마음이 찢릿하게 그녀의 가슴속으로 흐른다. 중년의 죽음을 만나면 그녀는 단번에 이렇게 생각한다: ‘분명 암이었을 거야. 암 선고를 받고 몇 달간 고통스러운 투병을 했겠지.’ 이번엔 부모를 먼저 보낸 젊은 자녀들의 안타까움과 서러움이 그녀에게 전해진다. 갑자기 그녀는 통계라는 학문에 관심이 생긴다. 사람들이 몇 살에 무슨 원인으로 죽음을 맞이하는지가 궁금해진다. 그녀는 그녀의 비서인 전화기를 열어 덴마크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덴마크인들의 죽음에 관한 통계 데이터를 들여다본다. ‘대략 1년 동안 평균 55,000명이 사망을 하며, 암은 사망 원인 1위이다. 1년 동안 대략 600명이 자살을 하고, 하루에 대략 2명이 자살을 하는 셈이다. 자살률은 총 사망률의 1.1%를 차지한다.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자살률이 대략 세배나 더 높다.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한다. 10대와 20대의 젊은 층의 자살이 많다.’ 그녀는 이제 한국의 자살률이 궁금해진다. 이번엔 한국통계청에 접속해서 최근 사망 통계 보고서를 다운 받아 읽는다. ‘한국에서는 최근 1년 동안 295,110명이 사망을 했고, 그중 13,799명이 자살을 했고, 하루에 대략 38명꼴이며, 자살률은 총 사망률의

4.7%를 차지했다. 한국은 OECD 국들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달고 있다.’ 한국 역시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보다 더 높다. 그녀는 또 궁금해진다. ‘도대체 왜, 남자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하는 걸까?’

마틴과의 산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깊은 생각에 빠진다. 그녀는 또 엄마를 생각한다. 그녀의 엄마는 요양원에서 지내신지가 벌써 8년이나 되었고, 요양원에서 지낸 처음 몇 년 동안은 목발을 짚고 걸어 다니셨으며, 외식이 그리 우실 땐 콜택시를 타고 외출도 가끔씩 하셨었다.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동안 한 번은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져 수술을 받으셨다. 휠체어를 타고 욕실 세면대 가깝게 기대어 씻으시다가 갈비뼈에 금이 간 적도 있다. 그녀의 엄마는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유리그릇 깨지듯 온몸의 뼈가 너무나 쉽게 금이 가고 부러졌다. 어느 날은 새벽에 잠이 깬 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져서 골반뼈가 부러져 큰 수술을 받았다. 그 당시 의사가 말하기를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골반뼈 수술 후 5년 넘게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하셨다. 골반뼈 수술 이후에 그녀의 엄마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녀의 엄마는 오래전에 파킨슨 진단을 받으셨고, 몇 년 전엔 폐암 진단도 받으셨다. 의사는 엄마가 앞으로 2년 정도 더 사실 거라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덴마크와 한국을 자주 오가면서 최대한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의 엄마는 매년 겨울마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최근에는 폐렴이 심해져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도 하셨다. 의사는 그녀의 엄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가족들에게 알렸다. 엄마의 형제분들과 가까운 친척분들이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자 병문안을 다녀갔다. 하지만 그녀의 엄마는 며칠 후 의식을 되찾으셨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가 있었다. “나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의식을 되찾으신 후 그녀 엄마의 첫 마디였다. 그녀의 엄마는 폐렴에서 회복하신 후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었다. 폐암 진단을 받은 지도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엄마는 여전히 식사도 잘 하시고 건강 상태도 안정적이다. 그녀의 엄마는 최근 들어서는 요양원을 나가고 싶다고 보채는 날이

부쩍 많아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와 단둘이 살고 싶어 했다. “솔미야, 우리 방 하나 얻어서 같이 살자” 그녀의 어머니는 애원하듯이 그녀에게 부탁을 했다. “난 이제 엄마랑 같이 못 살아. 엄마 기저귀는 누가 갈아줄 건데?” 그녀는 곰곰이도, 심각하게도 생각해 보지 않고 어머니의 제의를 일축에 거부했다. 요양보호사들이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주실 때면, 그녀는 일부러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뼈만 앙상한 어머니의 알몸 보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대소변과 마주하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어머니를 통해 삶이란 게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를 그녀는 절실히 깨닫고 있다. 그녀는 오래 산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란 생각을 한다. 특히나 병들어서 오래 사는 건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그녀가 엄마라면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지 않을 것 같다. 자식 앞에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을 것 같다. 그녀가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녀는 삶을 끈질기게 지속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 그녀에게 가족이 없이 혼자라는 사실에 그녀는 흡족해한다. 그녀는 그녀가 병들고 늙었을 때 민폐를 끼칠 가족이 없다는 것이 너무 다행스럽다.

개나 고양이는 물론이고 돼지, 소, 닭, 뱀, 개미, 거미, 지렁이, 파리,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살아있는 생물들에 대한 무한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지만, 왜 그녀의 어머니에겐 원망과 심판의 감정이 앞서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한 번이라도 그녀가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고, 그녀 자신의 생각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녀의 세상에서는 그녀가 주인이다. 그녀의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녀를 위해 존재한다. 그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면서 그녀 자신에게 적절하고 합당한 결정을 내려왔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세계를 빠져나와 어머니의 세상을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어머니의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녀의 어머니가 주인공이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원하든, 어머니의 책임이고, 어머니의 삶이다. 과연 그녀가 어머니의 세상으로 침투해서, 그녀의 임의대로, 그녀 자신의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어머니의 삶은 이런 점이 옳고 저런 점이 그르다고 쉽게 심판을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 그녀에게 회의가 일어난다.

결국 그녀는 ‘엄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나름 최선을 다했을거야.’라는 생각에 도달한다. 가난한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안 된다는 건 그녀의 성숙하지 못한 생각일 뿐이라고. ‘엄마가 살고 싶다는데 내가 나서서 엄마한테 당장 끊어 죽으시오’라고 할 순 없는 거라고. 그녀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엄마에게는 꼭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고. 엄마가 그녀와 똑같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거란 바램을 해서도 안되고 강요해서도 안되는 거라고.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녀의 가슴 한켠이 멍멍해진다. 그녀는 엄마가 불쌍하게 여겨진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찾아 오지않는 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거나 없는지. 식사는 잘 하고 계신지. 내일 아침에는 일찌감치 요양원에 전화를 넣어서 엄마의 근황을 물어봐야겠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오늘따라 더 멀게 느껴진다.

좌표 없는 이방인의 나라

최승현 [러시아]

그는 모국어를 썼다.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리던 찬송을 멈췄다. 맥주를 흘짝이는 나를 흘끗거리며 식료품점으로 들어갔다. 검은 비닐봉투를 든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렴풋이 가사가 기억났다.

‘주 말씀 성경에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광고성 스팸 메시지 사이에 그가 보낸 문자가 있었다. 메신저 아이디는 맛디아, 프로필 배경사진은 십자가였다. 마지막 문자 발송일은 2019년 7월 3일. 2018년 초 한국에 간다고 안부 전화가 왔었다. 잊고 지냈던 이름 립호철. 그는 해외 파견 북한 건설 노동자로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었다.

2018년 3월 14일

‘최 형 잘 지내지요? 남녘은 봄인데 모스크바는 아직 겨울이지요? 두드키노 동무들은 일 없지요?’

그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퍽엄퍽엄 문자를 보내왔다. 억양 강한 북한 말투가

곳속에서 맴돌았다. 임시 망명 신분으로 2년을 모스크바에서 거주했다. 2016년 입국 사증 발급을 러시아 한국 공관에 신청했지만 한 달 후 러시아와 북한이 '북러 불법체류자 송환 협정'을 체결하면서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대사관은 북한 난민에 대한 사증 발급을 무기한 연기했다. 림 씨는 공식 망명 체류 기간을 포함 2년간 모스크바에서 체류했다.

나와 림 씨는 두드키노에서 3개월간 함께 지냈다. 두드키노는 다차(별장)와 다가구 주택이 즐비한 전원 마을이었다. 모스크바 남부 지역 순환도로 옆에 숲으로 둘러싸인 이 빌리지는 모스크바 상류계급 인사들의 주말용 고급 별장과 다가구 주택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공동주택에는 에스엔게(CIS • 독립국가연합)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했다. 방 한 칸을 세 얻어 사는 부부 단위의 이주민이 많았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2~3명이 같은 방을 썼다. 휴일이면 에스엔게 출신 외국인들은 식료품 가게에 옹기종기 모여 맥주를 마시거나 점포주 내외를 통해 고국으로 돈을 송금했다. 루블 몽치를 건네면 모바일 뱅킹을 통해 삼시간에 숨, 숨, 탱케가 가족 계좌로 입금됐다. 이들은 식료품점 난간과 계단에 걸터앉아 썸미치키(해바라기 씨)를 씹으며 모국어로 지인과 통화했다. 해거름색이 되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한 칸짜리 세간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방이 열 개인 3개 층 코티지(Cottage) 주인은 한국 사람이었다. 91년 소련이 개방되면서 모스크바에 유학 온 한인 1세대였다. 이 씨는 현지인 여성과 결혼해 정착한 50대 후반의 교민 언론 사장이었다. 이 집에 세 든 것은 2017년 6월이었다. 러시아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 수입이 없었다. 비자 만료는 1년이 채 남지 않았고 독채 아파트를 임대한다 해도 현지 주인은 거주지 등록을 꺼렸다. 무엇보다 다달이 지불해야 할 월세가 만만치 않았다. 반면 이곳은 거주지 등록이 가능했다. 하늘에 마름꼴로 달아놓은 수직 회전창이 마음에 들었다.

두드키노 에스엔테 162번지. 파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석판으로 된 널찍한 차양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 입구는 어두컴컴했고 여름에도 서늘해 현관 안쪽은 동굴 같았다. 거실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문간방이, 오른쪽에는 자바라 칸막이가 쳐져 있었다.

문간방은 이 씨의 작업실로 각종 서적과 집기류, 간이침대, 사무용 인쇄기가 보였다. 칸막이 뒤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거실 안쪽에는 방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주방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두 개의 방문을 어슴하게 쬐었다. 눅눅한 습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집은 마구간 같았다. 빛만이 동서남북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유일한 나침반 역할을 할 정도로 채광이 좋지 않았다.

유난히 비가 많이 왔던 2년 전 여름, 지붕과 2층 화장실을 잇는 우수관 부식으로 1층 천정에서 빗물이 썩고 벽지에 얼룩이 졌다. 집주인 이 씨는 배관공을 불렀다. 해머드릴 타공 소음이 집 안 구석구석을 두들겨댔다. 2층 화장실 바닥 타일이 뜯겨졌고 구멍이 난 1층 천장 내부의 나무 구조물이 으씨년스러웠다. 공사비를 두고 이 씨와 인부는 옥신각신했다. 이 씨는 초과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항변했고 남자는 작업이 까다로워 두 배의 노임을 달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다시는 부르지 마라.”

그는 앉아 있던 의자 팔걸이를 주먹으로 내리친 후 힘껏 몸을 일으키더니 우즈베키스탄 말로 소리 높여 따졌고 이 씨는 한국말로 욕지거리했다. 몸을 돌려세운 남자와 마주쳤다. 자글자글한 주름과 구릿빛 피부. 핏발 선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그는 노인이었다.

“왜 그래요?”

“뭘 왜 그래? 돈 더 받아내려고 앙탈 부리는 거지.”

남자는 두드키노에 사는 에스엔게 이주노동자들의 주택만 수리하는 개인 사업자였다. 전문 업체보다 인건비가 싼 반면 전문성은 떨어졌다. 과거에 몇 번 보수 작업을 의뢰했는데 같은 에스엔게 출신 외국인들에게는 저렴하게 수리해 주는 반면 자신에게는 두 배 이상 보수비를 요구한다며 투덜댔다. 2층에 사는 아스메트를 통해 들은

바로는 작업을 마친 이후 늘 수리비 문제로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씨는 노인이 부르는 값에 4분의 1만 지급했다. 그러면서도 호출이 있을 때마다 이 씨의 집을 찾았다. 거절하느니 한 푼이라도 버는 게 남자 쪽에서는 이득이었다. 이날 남자는 반나절을 허비했고 이 씨는 공사가 커진 만큼 노인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몇 배는 더 돈을 쓰게 됐다. 승자 없는 싸움의 피해는 국적이 다른 13명 세입자의 몫이었다.

어느 날 이 씨는 나를 불러 세우고는 흐뭇한 표정으로 천장을 가리켰다. 구멍 난 천정은 깔끔하게 마름질돼 있었고 화장실도 새 타일을 깔아 마감했다.

“1층에 새로 이사 온 친구 솜씨야. 탈북자인데 기가 막히지?”

이 씨의 작업실 외 건물과 뒤뜰이 연결된 방 하나가 더 있었다. 이 방에는 4개월 월세가 밀린 아르춌과 보나라가 살았다. 이 씨는 야반도주를 염려해 부부의 거처를 안채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보나라는 방에서 자주 아르춌에 언성을 높였다. 아르춌은 작달막한 키에 목을 앞으로 길게 빼고 굽은 허리로 어기적 걷는 모양새가 유인원 같았다. 그는 다른 동거인들과 달리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안 피웠다. 그의 유일한 취미는 쉬는 날 거실 소파에 앉아 공유 플랫폼에 올라오는 개그 동영상을 보는 것이었다.

무표정한 그는 이때만큼은 흥연대소했지만 거실이 어두워 웃는 표정을 보지는 못했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둘은 법적인 부부 사이는 아니었다.

아르춌은 아제르바이잔 출신이었고 보나라는 우즈베키스탄 여자로 농산물 시장에서 만나 동거하는 사이였다. 보나라는 자신의 수입을 우즈베키스탄에 송금하면서 생활비 대부분을 아르춌에게 받아썼다. 그녀는 월세를 받아 화장품이나 장신구, 옷을 사는 등 자신을 치장하는데 썼다. 여자는 남자에 우즈베키스탄 식솔에 부칠 돈을 요구하며 삿대질과 잔소리를 했지만 아르춌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웃는지 우는지 모를 특이한 표정으로 인상만 살짝 찌푸렸다. 키가 아르춌보다 큰 보나라는 이 목구비가 뚜렷했다. 짙은 눈썹과 쌍꺼풀, 날렵한 콧날에 얼굴은 가름했다. 하지만 외

모와 달리 수다스러웠고 타인을 자주 헐뜯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부풀려 집 주인 이 씨와 이웃을 이간질했다. 때에 따라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자신에게 이로운지 잘 알았다. 단체로 집주인에 불만 사항을 건의할 때면 보나라는 뒤로 빠졌다.

그녀의 잠적은 예정된 시나리오였다. 아르츨의 별이가 나아지질 않자 이 씨의 아이를 낳아 줄테니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이 씨는 손사래를 쳤고 그녀는 우즈베키스탄에 보름 정도 다녀온다며 캐리어를 썼다. 주방에 있던 나에게 다가와 돌아와서 보자며 눈인사를 건넸다. 아르츨 역시 메모 한 장을 남긴 후 나흘 후 집을 나갔다. 종이에 는 ‘이즈비니쨌, 야 빠툼 베르누 쟈기(미안합니다. 돈은 다음에 갚겠다)’라고 적혀 있었다. 아르츨과 함께 있는 메신저 프로필 사진은 다른 남자와 정답게 찍은 사진으로 바뀌었다.

이 방의 새 주인이 림 씨였다. 이렇게 공동주택은 방 한 칸에 세 든 세 명의 20대 타지키스탄 청년 아흐메트, 아비케, 라수르와 우즈베키스탄 부부인 아스메트, 굴리나라.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우그르백,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카라백과 질로라. 이 씨의 러시아인 장모 제냐 할머니. 집을 관리하며 신문을 배달하는 나이지리아 출신 흑인 막스. 한국인인 나와 탈북민 림 씨 등 12명의 다국적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됐다.

림 씨는 방문을 열어두는 법이 없었다. 낮에는 텃밭이 있는 뒤뜰에서 직접 제작한 제재기로 목재를 다듬었고 저녁에는 방에서 종종 기타 반주에 맞춰 찬송가를 불렀다. 가끔 대중가요 비슷한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보천보전자악단 출신 공훈가수 리경숙의 ‘언제 만나랴’였다.

어젯밤 꿈속에서도 당신을 그려 봤어요/ 아득한 하늘가 멀리 애타
게 불러 봤어요/ 언제 만나랴 언제 만나랴 기다려 타버린 마음/ 돌아
오세요 돌아오세요 아~ 고향의 품에

그는 원곡 노랫말 가운데 ‘조국’을 ‘고향’이라고 바꿔 불렀다. 그에게 고향과 조국은

동의어가 아니었다.

림 씨가 들어온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자바라 칸막이가 있던 자리에 슬라이딩 불박이장이 설치됐고 다용도 신발장을 들여놓은 후 수십 켤레의 신발과 잠동사니로 어수선했던 현관 안쪽이 말끔해졌다. 목공용 대패기의 앙칼진 쇠소리가 멈추자 제나 할머니가 키우는 닭들이 제재기 쪽으로 모여들어 바닥에 떨어진 대팻밥을 쪼았다. 요란한 엔진 톱 소리에 묻혀 있던 비행기 활공 소음이 귀청을 때렸다.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제재기와 슬라이딩 테이블쏘를 손으로 가리키며 묻자 고개를 들어 비행기를 쳐다보던 그가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이쯤한거야 뭐, 톱날이 무디어서 고져, 잘 잘리지가 않네요. 남조선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인가 봄네다?”

러시아 언론사에서 북한 번역가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었고 한국에 있을 때 북한이 탈주민 취재를 했었다. 림 씨가 낯설지 않았다.

“어디 교회 다니세요? 담임 목사님이 아는 분인가 해서요?”

“로시야 장로신한교회라고... 잘 모르실 겁니다. 툴라에 있는데...”

툴라는 모스크바에서 200km 떨어진 소도시로 톨스토이 고향이었다. 관광지로 한국인들에게도 제법 알려진 곳이었다. 그는 다른 탈북민 소개로 6개월 정도 교회에서 숙식하며 일을 보냈다. 돈벌이를 위해 며칠 전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매 주일마다 툴라로 예배를 다녔다. 일요일 아침 첫 기차로 갔다 저녁에 돌아왔다. 그의 눈은 시야에서 사라지는 비행기를 쫓고 있었다.

“북조선에 갈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하루에도 수 십 번을 왔다 갔다 하는 데 상승생승 하구만...”

림 씨는 모터 전원을 다시 켰다. 원형 톱니에 밀어 넣은 각목이 두 동강 났다. 두드 키노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활주로가 있었다.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취항 노선을 운항했다. 에스엔계 이주노동자들은 국제 열차나 이 공항을 통해 모스크바에 왔다.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했고 300달러 안팎의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었다. 수입 대부분은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부친다. 식비와 주거비를 지불하면 남는 게 없다. 이주 생활에 마침표는 없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가까이 있거나 조금 떨어져 있을 뿐 도돌이표는 언제나 이들 생의 악보 한가운데 있었다. 이주 계기나 명분이 다를 뿐 나 역시 외국인 노동자였다. 뚜렷한 목적 없이 왔으니 돌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8년이 흘렀다.

나보다 다섯 살 위인 그는 함경북도 길주 출신으로 고난의 행군 시절을 군에서 보냈다. 전방 2군단 5사단 소속 공병부대를 끝으로 13년의 군복무를 마쳤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처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세 명의 자녀 중 10살 된 장남은 꽃제비 생활을 하다 시장에서 건달들에 맞아 죽었고 막내는 6살 때 장티푸스로 목숨을 잃었다.

림 씨는 북한에 있을 때 길주 인민위원회에서 가구 제작 근로자로 일했다. 별이가 변변치 않자 2012년 러시아 벌목 파견 사업에 신청서를 냈다. 그를 포함한 30여 명 북한 노동자들은 하바롭스크의 산림 지역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2년, 러시아 극동 아무르에서 1년을 벌목공, 공사장 용접공으로 일했다. 하바롭스크에서 고려인 목사를 만나면서 탈북을 결심했다. 림 씨가 꺼내 보인 성경책의 표지는 오래 품고 다닌 듯 손때가 묻어 반질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죽은 자식들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조선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모든지 열심히만 허문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 의

국에서 공부도 시키고…. 북조선에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구원 받으려면 남조선에 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리자 삭개오가 떠올랐다. 부자가 되기 위해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유대 사회에서 로마의 앞잡이가 된 삭개오는 체면을 무릅쓰고 돌무화과나무에 기어 올라가 지나가는 예수를 바라봤다. 삭개오는 회심했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 림 씨는 구원을 받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은 건지도 몰랐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까, 구원이라는 게 실로 존재하는 것인지 무신론자인 나는 알 수 없었다.

2018년 6월 23일

‘최 형, 강원도 화천 하나원입니다. 내일 퇴소합니다. 이곳에서 청평사 광조 스님을 만났습니다. 아시는 분인가요? 중생은 인간이고 구제는 구원인 거죠? 경기도 안성으로 갑니다. 한국에 오면 연락하세요.’

남조선이란 낱말 대신 한국이라고 적었다. 모스크바에 오기 전 내가 불교계 신문사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30대 초반 다니던 신문사에 사표를 내고 온 곳이 러시아였다. 데스크는 종교법인 선학원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라고 지시했다. 당시 선학원은 출입 기자는 나왔다.

“파사현정(破邪顯正)과 정론(正論)을 위한 건데 어쩔 수 없잖아?”

대학 선배가 선학원 기관지 불교저널 편집장이었다. 선학원은 불교계 장자 종단인 조계종과 심한 갈등을 겪었다. 분종을 두고 조계종과 선학원의 양분된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탈종의 위법과 적법성을 두고 두 단체는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신문사는 이해관계 속에서 흥위병 역할을 했다. 그곳에 부처님의 발우는 없었다. 밥그릇만 있을 뿐,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선배의 밥그릇을 발로 찰 수 없었다.

퇴사 후 구직 활동을 했지만 지방 삼류대 인문학과 출신인 나를 뽑아주는 회사는 없었다. 갑을 노동의 한국 사회에서 알량한 자존심 하나는 지키고 싶었다. 일이 되지 않으려 찾았던 일이 소화를 배송이었다. 그러나 사고가 잦았고 특수고용직 특성상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인적, 물적 피해의 책임은 내 몫이었다. 사고 처리가 더더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하는 게 불가능했다. 배송 시간 맞춰 전달하는 게 킷이었다. 3개월 만에 그만뒀다. 1분 1초를 다투는 퀵서비스는 교통법규 위반이 불문율이었다. 목숨을 담보로 한 고개 운전만이 능사였다.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는 돈의 묘기를 선보일만한 실력을 갖춘 라이더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다국적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 입사했다. 배달원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배달 최우선이라는 바이크 캐리어에 붙은 스티커 문구를 믿었다.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이었다. 메이트 원부터 시작해 점장이 된 김미선은 나와 동갑이었다. 4대 보험 가입도 의무사항이었다. 몇 달 동안 업무는 수월했다. 4명의 라이더 중 누군가 무단 결근하지 않는 한 ‘30분 이내 배달 완료’는 지켜졌다. 알바생들과 어울리는 재미도 쏠쏠했다. 한 부모, 조손 가정의 아이들이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방과 후 시간제 알바를 겸하는 고등학생들이었다. 학업에 취미가 없어 일찍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든 미성년자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점장으로 승진해 본사 직원이 되는 게 꿈이었다.

배달량이 부쩍 많아진 것은 같은 쇼핑몰센터에 경쟁업체가 체인점을 오픈 한 이후다. 점장도 바뀌었다. 서지연 점장은 경기도 부천점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다 승진해 원미점으로 발령받았다. 20대 후반으로 고3 때 메이트 원으로 알바를 시작해 27살에 점장을 단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이름에 존칭을 썼던 김 점장과 달리 나를 라이더 최라 불렀다. 카운터 티오를 줄이고 주방 인원을 늘렸다. 자신이 직접 주문을 받았다. 층 낸 숯크림 밀로 하얀 목덜미가 유난히 두드러져 보였고 귓 선이 보이도록 귀밑 머리를 말끔히 실핀으로 고정했다. 고객 앞에선 하얀 치아가 드러나 보이도록 웃었지만 직원들 앞에선 무표정했다.

경쟁업체 영향 탓인지 점포 매출이 줄기 시작했다. 반면 시간당 배달 건수는 갈수

록 늘었다. 라이더가 비번인 경우 30분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급기야 원 코스 포, 파이프 포인트를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마지막 배달지에 2시간이 지난 후 도착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발생하는 운영과 관리상의 문제였지만 클레임 감당은 라이더의 몫이었다. 본사에서 라이더 운영 지침과 관련한 공문이 하달됐다. 난 배달 중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서명을 마친 후였다. 스태프 한 명이 본사 발신의 ‘라이더 운영 지침 추가의 건’이라는 공문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정호 씨 이거 그냥 형식적인 거래요. 특별한 것은 없는데 라이더 안전을 위해서라 네요.”

꼼꼼히 서류의 내용을 훑어봤다. 내용 가운데에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는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었다. 원 코스 트리 포인트 배달을 마치고 돌아 온 참이었다. 중앙선 침범과 인도 주행, 횡단보도 주행, 신호 위반, 짐작 가는 위반만 네 건이었다.

“이거 사인할 수 없어요. 배달하면서 교통법규 지키는 거, 그거 지금 상황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대책을 세워 주시던지요. 이거 라이더가 일부러 위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잇는 사이 ‘삐삐’ 소리를 내며 배달 전용 포스 단말기가 울렸다. 주문이 여덟 개나 밀려있지만 바이스(VICE)인 인선이가 콜 주문을 접수했다. 홈서비스 시스템은 콜센터에서 주문을 받으면 고객 거주지와 점포 위치의 거리와는 상관없이 30분 내로 배달이 가능한 매장에서 역선택하는 방식이었다. 10개까지는 무조건 주문을 받으라는 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다들 서명했는데…….”

“잠깐 만요. 점장님하고 이야기 좀 하고요.”

카운터 포스에서 손님 주문을 받고 있던 서 점장에 면담을 요청했다.

“본사 지침이에요. 라이더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라이더 최님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는 것 압니다. 다른 점포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자주 목격되는 모양입니다.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위법 행위라는 거 아시잖아요? 방지 차원이 라고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는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를 쓰려고 애썼다. 연필 심 부러지듯 ‘뚝’ 소리 나는 말투였다.

“포스를 봤는데 배달이 밀린 상태에서 왜 주문을 계속 받는 겁니까?”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나이에 비해 눈가에 주름이 많았다.

“준수 사항을 지키시면 됩니다. 30분 내 배달! 교통법규요!”

틀린 말은 아니었다. 배달 지연을 걱정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4명의 라이더였다. 내가 지침을 준수하면 동료 라이더들의 업무량이 배가되고 그들이 따르면 내가 지침을 어겨야 했다. 딜레마였다.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선택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말을 끝낸 서 점장은 배달 포스가 있는 사무실에 들렀다 카운터 포스로 돌아갔다.

배달 주문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라이더 모집 공고가 나간 후 이틀간 세 명이 면접을 보러 왔다. 50대 중년 남성과 대학 휴학생, 고등학교 자퇴생이었다. 점장은 가장 나이 어린 친구를 선발했다.

매일같이 직장을 그만두는 수만 명의 사람들과 달리 난 이직이 아닌 국경을 넘었다. 지인들이 지금까지도 소련이라 부르는 러시아였다.

2018년 8월 9일

‘답장이 없네요. 한국은 정말 답습니다. 모스크바는 시원하지요? 결심을 명백히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선교하시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창곤 사장을 알던데. 잃어버린 돈은 찾았나요?’

그는 3개월 만에 두드키노를 떠났다. 약속과 달리 집주인은 림 씨에게 일거리를 알선해 주지 않았다. 건물 유지 보수 이외에 텃밭의 모종판 거치대나 차광막 제작 등 요구 사항이 늘었다.

이 사장에 대한 림 씨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다. 텃밭 옆 빈터에 별채를 지어서 살라는 말을 했을 때는 혀를 찼다고 했다.

“떠날 사람에게 집을 지으라니...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같은 날 저녁에 발생한 아비케와의 시비에 림 씨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다.

“너 뭐라고 했네?”

방정맞고 이죽거리를 좋아하는 아비케는 세입자 가운데 가장 어렸다. K 홀딩스 러시아 법인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그의 어머니는 사할린에서 이주한 고려인 4세였다. 한국말을 제법 했다. 림 씨는 어느 때처럼 이른 저녁 식사 중이었다. 다른 때와

달리 일찍 귀가한 아버케는 림 씨 옆에 다가가 반팔 옷소매 끝을 잡고 김치 냄새가 난다고 쿵쿵거리며 빈정거렸다.

“간나 새끼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네?”

아버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과민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뒤로 물러섰다. 아버케의 행동은 림 씨의 화를 더욱 북돋았다. 같은 에스엔계 세입자들에게는 건방을 떨어도 이 씨와 내 앞에서는 공손했다. ‘주몽’같은 사극과 K-POP을 좋아한다고 했다. 부러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시늉을 해 보이기도 했다. 그런 아버케의 행동을 림 씨도 언젠가 면발치서 본 적이 있다. 갑질 횡포를 당하는지 언젠가는 법인장의 흉내를 내며 자신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린다면서 욕지거리를 따라 했다.

“웃지 말라! 네 애비한테도 그러네? 맛 좀 볼래?”

림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고는 이를 악물며 화를 삭였다. 난 진정하라면서 그의 어깨를 잡았다.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동거인들이 일을 마치고 귀가한 모양이었다. 림 씨는 방으로 들어갔다. 식지 않은 국과 콩밥, 계란 프라이를 얹은 묵은 김치가 담긴 종지 그릇. 조출한 밥상이었다.

“북조선 출신이라고 무시당한 게 한두 번이어야지요. 조런 아새끼들 공사판에서 수도 없이 만났습시다. 아들놈 나이밖에 안 되는 철썩는 것들이 고저 북조선에서 왔다 하면 비웃습시다. 미안합니다. 나도 막 욕이 나가서……”

“아버케가 심성이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림 선생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걸 거예요. 그리 생각하시고 화 푸세요.”

“아새끼가 미워서 그랬간디요… 내가 날 때린 거지.”

림 씨나 아비케나 매일 마주치고 살아야 하는 처지였다. 앙금이 있어야 서로 불편할 게 뻔했다.

“리 사장과는 일 못하겠습니다. 부리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따위 집 나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기거할 곳은 있으세요?”

“모스크바에 있는 목사님께 도움을 좀 청해 보려 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했다. 림 씨는 떠날 채비를 마쳤다. 이 씨에 통보만 하면 그뿐이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자가용을 중고차 딜러에 판매하고 신형 컬러 인쇄기를 구매하기 위해 이 씨가 사무실에 보관해 뒀던 4000달러가 갑작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집에 사는 모두가 용의자 선상에 올랐다. 림 씨가 나가면 100% 범인으로 몰릴 게 뻔했다. 이 씨는 일주일 내에 돈을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으면 모두 내 쫓을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세입자 모두 근심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그들 대부분 한 달에서 많게는 5개월의 월세가 밀려 있었다. 도난이라는 명백한 근거는 없었다. 이 씨가 다른 곳에 두고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세입자들은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이 식사 후 주방에 두고 간 세제나 식용유, 두루마기 휴지를 사용하거나 가져가는 일은 있었지만 냉장고에 보관한 이웃의 식료품에 손대는 이는 없었다. 돈을 훔칠 만큼 손버릇이 나쁜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다. 예순이 넘는 우그르백이 한국인인 나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했다.

“뜨이 췌 즈나예쉬, 바크루크 네트 따끼흐 류제이(너 알잖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다.)”

“카네쉬나, 야 빠니마유(저도 압니다).”

늦은 시간인데 사무실 불이 켜져 있었다. 맥주 몇 캔을 들고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땀 크또?(거기 누구야?)

“저 정호예요.”

술을 마시는 날 그는 아파트가 아닌 두드키노에서 밤늦도록 신문을 편집했다. 맥주를 따라주며 혹시 다른 데다 두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물었다.

“야!, 자동차 넘기고 여기서 돈 받아 여기, 여기에다 꽂아 두었다니까.”

이런저런 잡다한 서류 묶음과 낡은 서적들 사이에서 러시아어판 성경을 꺼내 보았다. 표지에는 러시아 정교회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다.

“이게 내 금고야. 월세 받으면 여기 적어두고 종이 같은 거 주문하면 여기서 빼서 줬다고.

한글 발음으로 적어놓은 에스엔계 사람들의 이름과 방 번호인 듯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두꺼운 입출금 거래 장부처럼 보였다.

“여기 돈 집어넣는 걸 누군가 본 거겠지. 차 팔고 인쇄기를 바로 주문해서 그냥 여기에 두었다고... 누군지 짐작 가는 애 없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했다. 다음날 저녁 주방에서 회의를 소집했다. 림 씨를 제외한 세입자 모두가 같은 시간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 여섯 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에는

우그르백을 포함한 남자들이, 앉은뱅이 의자에는 여자 둘이 앉았다. 젊은 친구들은 서서 경청했다. 림 씨는 방에 있었다. 거실과 주방 사이 선반에 카메라가 내장된 곰인형의 머리가 모터 소리를 내며 좌우로 회전했다.

“은 빠다즈레바예트 까즈도바 이즈 나스. 우 나스 아스팔로씨 톨까 치프리 드냐. 예스씨 톨까 아드노 바즈모즈노스씨……. 남 누즈나 빠모치 미스테루 림(이 씨는 우리를 계속 의심한다. 4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방법은 하나다. 림 씨를 도와주자).”

2주일 전 교당에서 림 씨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한 교도가 사무실을 큰 평수로 이전하는데 맞춤 가구 제작을 그에게 부탁할 수 있느냐고 물어 온 적이 있었다.

이 씨에 한 달간 여유를 달라고 했다. 그의 선전 포고에는 월세 미납 세대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산이 있었다. 잃어버린 4,000불은 차치하고 몇 개월간 밀린 월세를 일 주 일만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도 기대하지는 않는 눈치였다.

“림 선생님이 여기 사람들 좀 도와주시죠. 구원이 신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하느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굴 도와 줘네까…. 다른 사람 찾아 보시라우요.”

“어차피 돈을 찾지 못하면 선생님도 이곳에서 나갈 수 없어요. 난민 신분이신데 이 씨가 신고라도 하면요.”

그는 방 문턱에 걸터앉아 킁킁한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무르 공사판에서 일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 여러 외국 애들하고 일했는데 러시아 십장이 우리 북조선 동무들을 의심하더군요. 죄라면 북조선에서 태어난 건데….”

한참 뜬을 들인 후 그는 말을 이었다.

“뭘 내놓으란 말입니까?”

낮이고 밤이고 제재기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버케는 목공소에 일하는 고향 친구에게 나사나 경첩 피스, 접착 스토퍼, 사이드댐퍼, 마감캡 등 조립에 필요한 부속품을 조달했다. 우그르백은 벌목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에 도움을 요청했다. 자동 대패기나 밀대, 테이블 톱, 복학기, 페더보드 같은 목공 기계를 무상으로 빌렸고 천연 목재, 파티클보드, 합판 등 목재를 구해 왔다.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아스메트는 일이 없는 날 아그잠과 함께 목재를 짐차로 실어 왔다. 막스는 림 씨의 보조 역할을 자처했다. 굴리나라는 밀대와 자동대패로 각재와 판재를 다듬은 후 무늬목을 붙이거나 퍼티를 칠했다. 미장 경험이 있는 질로라는 조립이 완성된 가구에 페인팅 후 셀락을 발랐다. 난 완성된 가구를 아르케와 함께 사무실로 옮겼다. 이 씨와의 약속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가구를 주문한 박 씨가 미리 잔금을 계산해 줬다. 4,000달러가 조금 넘는 3십만 루블이었다.

“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끼리 모은 거니 받으세요.” 이 씨는 내 얼굴과 돈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돈을 받아 사무실로 들어갔다.

2019년 3월 28일

‘최 형, 야간 신학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 - 고린도후서 6장. 하느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림 씨가 두드키노에서 거처를 옮긴 후 난 러시아 정부 국가 장학생에 합격해 늦깎이에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학교에서 아내를

만났고 두드키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전 졸업했다.

누군가는 떠나갔고, 누군가는 남았다. 또 누군가는 새로 이사 왔다. 아내는 임신 6개월째였다. 눈에 띄게 배가 불러왔다. 이곳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했다. 식탁 의자는 여섯 개고 중간중간 앉은뱅이 의자가 여기저기 놓여있다. 투박한 접시와 밥그릇, 이가 나간 포크, 때 묻은 나무젓가락. 모든 게 그대로다. 밥을 폈다. 냉장고에서 김치용기를 꺼낸다. 한 끼 분량이다. 김치를 종지에 담는다. 기름때가 범벅인 프라이팬 바닥면 코팅이 심하게 벗겨져 있다. 식용유를 듬뿍 쳤지만 계란이 계속 눌러 붙는다. 계란 프라이를 김치 위에 얹는다.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를 보내왔다.

2019년 6월 3일

‘아들 언제 오니?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지’

지붕 위로 비행기가 좌표를 따라 날아간다. 식탁이 빼겨거렸고 낫그릇에 숟가락이 부딪히며 자꾸 징징 소리를 냈다.

단편소설

가작

스왈로우

배수영 [미국]

박 노인이 시애틀 근교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 가게 된 것은 삼킴 장애 때문이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음식을 삼키는 일은 자연스럽다 못해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한 달 전 무렵부터 박 노인은 단지 삼키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했다. 식사 도중 자주 기침했고 음식물이 코로 역류하거나 입에서 침이 줄줄 새기도 했다. 물을 포함해 무엇이든 삼키는 게 고역이라 끼니를 거르다 탈수증까지 생겼다.

허기와 갈증이 극에 달한 어느 날, 뜨신 국물과 면 생각이 간절해진 노인은 팔팔 끓인 물을 스티로폼 용기에 부었다. 퐁퐁하고 매끈한 면이 무탈하게 인두와 식도를 거쳐 위장으로 내려가기를 바라며 두어 줄기를 호로록 빨아들이다가 호흡 곤란이 왔다. 때마침 도착한 간병인이 신속하게 응급 처치를 해서 다행이었다. 간병인은 기도를 열기 위해 박 노인을 뒤에서 껴안고 명치에 여러 차례 압박을 가했다. 기침과 함께 불어터진 우동 줄기와 미역 건더기가 목구멍에서 힘차게 튀어나왔다. 기력을 소진한 노인은 그 자리에서 혼절했고 즉시 911 차량이 출동되었다. 한때는 힘겹나 썼을 듯 다부진 기골의 노인을 들것 위로 옮기기 위해 구급 대원 서넛이 동원되어야 했다.

통역 에이전시의 호출을 받은 서연은 문자에 찍힌 주소를 보고 응급실로 달려갔다.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을 돕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환자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의학 용어나 복약 지도를 잘 못 이해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

기관 측에서 언제나 통역사를 부르게 되어 있었다. 박 노인은 삼킴 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디오 투시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를 찍고 독방 형태의 응급 진료실에 막 도착한 참이었다. 휠체어에 구부정하게 앉은 노인은 충격이 채 가지지 않은 듯 반쯤 낮이 나가 있었다. 그의 들쭉서진 은빛 머리칼이 잔기침을 할 때마다 미세하게 떨렸다. 서연은 간병인과 목례를 나누고 노인과 의사의 중간쯤 되는 지점에 섰다. 의사는 모니터에 엑스레이 결과를 띄운 뒤, 모두에게 잘 보이도록 화면을 돌려주었다. 갈빗대 사이로 희뿌연 숨문치가 옆계 흩어져 있었다. 그 숨문치가 폐렴이 퍼진 부분이라고 했다. 음식물이 기도도 들어가면 입속의 박테리아가 폐로 이동하여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삼킴 장애는 대개 폐렴을 동반한다고도 했다. 의사는 노인과 간병인, 그리고 서연을 번갈아 바라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다.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흔한 증상입니다. 식도와 기도 주변 근육이 약해진 탓인데 노화 현상 중 하나이지요. 뇌졸중 병력이 있으신 것도 원인이구요.”

‘흔한’ 증상이라는 말에 경직되어 있던 노인의 어깨가 살며시 누그러졌다. 의사의 사무적인 태도가 오히려 노인을 안심시킨 듯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눈을 맞추며 위로하듯 설명했다면 덜컥 겁이 났을 터였다.

“나으실 때까지 계속 죽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삼키는 방법을 매일 훈련하셔야 해요. 오늘은 입원하시고, 내일부터는 간호사가 맥으로 직접 방문해서 가르쳐드릴 겁니다. 질문 있으세요?”

노인은 대답 대신 낮게 그르렁댔다. 질문이 없다는 뜻인지 죽만 먹기는 싫다는 뜻인지 모호했지만, 의사는 노인의 ‘그르렁’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팽팽하게 부푼 노인의 발을 조심스레 눌러 본 의사는 양말을 헐렁한 것으로 바꾸라고 일러준 뒤 진료실에서 나갔다.

다음 날, 서연은 간호사 방문 진료를 통역하기 위해 박 노인의 아파트로 향했다. 저소득 노인 아파트가 대개 그렇듯, 박 노인의 아파트도 번잡스러운 차이나타운 한복판에 있었다. 안 그래도 좁은 도로는 빈틈없이 주차된 차들의 행렬로 더욱 운행 폭이 줄어들었다.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와 마주칠 때마다 옆으로 바짝 붙어 비껴가며 근처

를 빙빙 돌던 서연은 결국 세 블록이나 떨어진 곳에 차를 댔다. 팔 전체에 문신한 남자가 건물 벽에 기대어 추적추적 내리는 비 사이로 담배 연기를 뿜어댔다. 서연은 차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여러 번 확인하고 패딩 재킷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쓴 채 힘껏 뛰었다.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려고 보니 현관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더운 김이 서연의 얼굴을 훑 덮쳤다. 히터의 열기와 가슴기가 토해내는 증기로 집 안은 사우나처럼 무더웠다. 정면으로 보이는 벽에는 군사 정권 시절의 대통령 사진이 화려한 금빛 액자에 끼워져 있었고, 바로 아래에 그가 대통령이 된 건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는 찬양 시가 걸려 있었다.

“아직 간호사님이 안 오셨으니까 앉아서 조금 기다리세요.”

어제 응급실에서 만났던 간병인이 접이식 의자를 펴서 서연 앞에 놓아주었다. 조심스레 의자에 앉자 서연과 노인이 마주 보는 구도가 되었다. 서연이 인사를 하려 했지만, 노인은 소파에 기대어 앉은 채 줄곧 눈을 감은 채였다. 험렁한 양말 위로 드러난 그의 발목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다. 벽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약 복용법과 비상 연락망이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간호사는 활기찬 목소리로 자신을 헬렌이라고 소개하고 간병인과 서연에게 악수를 청했다. 소란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박 노인은 실눈을 떠서 누가 왔는지 확인하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헬렌은 노인의 호흡이 가쁘지는 않은지, 거동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배변 및 수면 장애는 없는지 등을 확인했다. 헬렌이 묻고 서연이 통역하면 간병인이 대답하는 식이었다. 간병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노인을 돌본다고 했다. 와서 환자가 약을 제대로 복용했는지 확인하고, 점심을 차리고 식사를 거들며, 아파트 복도에서 걷기 운동을 시켜드린다고 했다.

헬렌은 오늘 노인이 섭취한 음식의 종류를 물었다. 내내 시큰둥하게 듣고 있던 박 노인이 음식 이야기에 갑자기 화색을 띠며 말했다.

“난 라면이나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런 걸 먹어도 되는지 좀 물어봐 주시오.”

의치라 발음이 새긴 했지만, 그는 충혈된 눈을 반짝이며 분명하게 의사를 전했다.

마치 이 질문을 하기 위해 온 힘을 그러모은 것 같았다. 서연은 노인의 말을 그대로 통역했고 헬렌은 고개를 저었다.

“국수 면발은 길어서 위험해요. 지난번처럼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어요. 지금으로선 죽처럼 되직한 음식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도무지 맛이 없어서 말ियो.”

노인은 헬렌이 허락해 주길 바란다는 듯 재차 물었다.

“어떻게 좀 안 되겠소? 매일 죽만 먹으려니까 아주 사람이 죽겠습디다.”

노인의 호소에 헬렌은 애처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드시고 싶은 걸 못 드시는 괴로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녀가 말끝을 흐린 것에 희망을 걸기라도 한 듯 다음 말을 기다리는 노인의 얼굴에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아른거렸다. 잠시 머뭇거리던 헬렌은 무언가 결심했다는 듯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환자분 연세면, 이젠 삶의 질을 고려해서도 되긴 합니다. 치료와 목숨 연장을 위해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며 불만족스럽게 살 것이냐, 아니면 리스크가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걸 하며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물론 제 입장에선 국수를 드시지 말라고 권하고 싶지만, 환자분이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는데도 그걸 드시겠다고 결정한다면, 그럴 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환자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린 거지요.”

이 말을 그대로 전하자 노인이 껄끄러운 표정으로 입을 오물거렸다. 그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닌 게 분명했다. 가끔 또는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아요, 라는 대답을 원했을 것이고, 라면과 짜장면이 ‘먹어도 되는’ 음식 범주에 들어가길 바랐을 터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라면과 짜장면이라는 흔한 메뉴를 두고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노인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간병인은 죽을 최대한 맛있게 조리하기 위해 폭 익힌 채소와 참기름을 가미하겠다고 덧붙였다. 헬렌은 좋은 생각이라며 간병인에게 엄지손가락을 올려 보였다.

“자, 잘 보세요.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허리를 똑바로 세운 뒤 고개를 약

간 앞으로 숙여 턱을 당긴 자세로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마뜩잖은 표정으로 먼 곳만 응시했다. 머쓱해진 헬렌은 가방에서 청진기와 혈압계, 옥시미터를 꺼내 바이털 사인을 잰 뒤, 다른 질문이 있느냐고 물었다.

“주치의를 바꿔주세요.”

“주치의를요?”

“가정주치의가 뭘 알아. 난 심장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삼 개월마다 가정주치의를 보러 가는데, 내가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적고 약 리필해 주는 것 외엔 따로 특별한 조치를 해주는 게 없어.”

헬렌은, 심장 전문의는 주치의 개념이라기보다 우려되는 증상이 생겼을 때만 만나는 스페셜리스트에 해당하며,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의 심장 문제는 노화에 의한 것이기에 약을 바꾸거나 수술을 한다고 낮는 질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똑같은 불만을 반복해서 토로했다. 마치 자신에게 차도가 없는 것이 가정주치의 탓이며 심장 전문의를 주치의로 삼으면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믿는 눈치였다.

“병원이란 데가 말이오.”

그의 목소리가 다소 격양되어 있었다.

“사람이 입원을 더 해야 하는데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비용이 들어서 그러는지 병실이 부족한지, 아직도 여기저기 아프고 불안한데 자꾸만 이제 괜찮다고 집에 가래요.”

노인이 한시라도 빨리 퇴원하고 싶어 하리라 생각했던 서연은 적잖이 놀랐다. 그리고 보니 간병인이 노인의 집에 머무는 시간은 오후 두 시까지로, 이후엔 적당한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고 우두커니 텔레비전을 보는 게 일과의 전부가 아닌가. 밤이 되면 묵직한 고요 속에 자신의 기침 소리가 공명하고 한숨 소리는 두 배로 증폭되어 들릴 것이다. 어느 날 빈집에서 홀연히 쓰러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의 무뚝뚝한 턱 아래서 꿈틀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입원실에서는 팔에 부착된 혈압 밴드가 매시

간 부풀어 오르고 심박 수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모니터가 간호사를 호출해 주기도 한다. 수액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들른 간호사와 하이, 하우아유펙링, 아임오케이, 라는 뻔한 인사말이라도 주고받는 게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분 전환이 되는지 서연은 잘 알고 있었다.

노인은 계속해서 헬렌이 어찌지 못하는 병원 시스템이나 주치의에 대해 이런저런 불만을 쏟아냈다. 간병인은 민망하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고, 헬렌은 아이 다루듯 친절할 미소를 띠고 서연의 말을, 아니 노인의 말을 경청했다. 그러나 증상과 관련 없는 질문으로 노인이 계속 시간을 끌자, 이제는 가야 한다며 주섬주섬 서류와 청진기를 챙겼다.

“좀 더 상세한 삼킴 훈련이 필요하니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헬렌은 내일 같은 시각으로 약속을 잡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다. 서연이 한국식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헬렌도 황급히 허리를 숙였다. 서연이 안녕히 계세요, 하자 그녀도 어니언히 게우স্য, 했다. 박 노인은 소파에 그대로 앉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몸을 뒤로 돌려 우리의 인사를 받아주려면 간병인에게 의지하여 자세를 바꾸는 번거로운 수고를 들여야 하니 못 들은 체 하는 것을 택했을 수도 있다. 현관 문을 닫으려는 찰나, 눈동자를 정면으로 찌르는 눈부심에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어느새 먹구름과 비가 걷히고 노인의 어깨 너머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마침 새가 한 마리 지나갔고 우두커니 앉은 노인의 뒷모습이 고목 나무처럼 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인 딸 하은이를 픽업하여 집으로 가는 일은 서연에게 즐거운 일과였다. 차 안에서 쉴 새 없이 조잘대는 아이 덕에 누구와 친하고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엄마! 오늘도 클로이랑 점심 먹었는데, 한 시간 내내 똑같은 얘기를 들어줘야 했어!”

“무슨 이야기인데?”

“네이튼이라고, 클로이가 좋아하는 남자애야. 만나기만 하면 그 애 얘기를 정말 끝

도 없이 해. 운명의 첫사랑이구나.”

서연이 건네준 쿠키를 먹으며 눈알을 굴리던 하은이는 손가락에 묻은 부스러기를 빨아먹다가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래도 내가 들어줘야겠지? 클로이가 이런 얘기 할 사람, 나밖에 없잖아.”

서연은 백미러에 비친 딸을 흘깃 보며 미소 지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언제고 나눌 수 있는 관계야말로 일상의 무게를 버틸 은근한 힘을 실어준다는 것을 요 꼬맹이는 벌써 아는 걸까.

“그래, 들어 줘. 너희 둘, 소울메이트라며.”

또래보다 말이 늦어서 언어 치료사를 찾아다니며 걱정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딸과 이런 대화까지 나누고 있다니. 서연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은이가 신통했다.

어느새 끈게 뻗은 침엽수가 늘어선 마당에 도착했다. 하은이는 차에서 뛰어내려 손살같이 제 방으로 올라갔다. 서연은 스파게티 면을 익힐 물을 올리고 샐러드에 넣을 상추를 송송 썰었다. 노인의 집에서 나올 때 잠시 비추던 햇살은 벌써 먹구름 뒤로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아랫배가 불룩한 먹구름은 당장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고, 구름 밑 축축한 공기가 시큼한 이끼 냄새를 강하게 끌어올렸다. 꽃향기처럼 달고 은은하진 않지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싱싱한 냄새였다.

‘잠. 깜빡했네.’

서연은 급하게 비타민D 한 알을 입에 털어 넣었다. 일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애틀에서 비타민D 섭취는 필수였다. 알약을 먹지 않아도 스스로 비타민D를 합성할 줄 아는 심해 바닷물고기 같은 능력이 있다면 좋으련만. 알약을 입에 넣은 채 컵에 물을 따르려고 보니 정수 필터 주전자에 텅 비어 있었다. 주스나 우유라도 마시려고 냉장고를 뒤졌지만 오늘따라 아무것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수도물을 컵에 담으려는 순간, 허뿌리에서 놓친 알약이 서연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구멍으로 미끄러졌다. 바짝 마른 식도 벽에 알약이 달라붙었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킁킁거렸다. 급하게 수도물을 들이킨 후에도 여전히 식도를 죄는 듯한 이물감이 남아 있었다. 전기밥솥을 열고 밥을 한 숟갈 크게 퍼서 우걱우걱 씹어 넘겼다. 서너 숟갈을 더 삼키고서야 비로

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데 냄비에서 물이 끓어올랐다. 어느새 퇴근한 남편이 배가 고프다며 부엌을 서성거렸다. 정신이 번쩍 든 서연은 마른국수를 끓는 물에 던져 넣고 양파와 송이버섯을 달달 볶아 토마토소스를 만들었다. 잠시 후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지만, 그녀는 좀처럼 스파게티를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목에 무언가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서연은 어릴 적부터 수분기 적은 음식을 잘 삼키지 못했다. 식도가 좁아서인지 목에 물기가 적어서인지 고구마나 밥 등을 삼키면 질식할 듯 목이 메어왔다. 가로세로 1cm 이상인 알약도 자주 목에 걸려 곤욕을 치러야 했다. 특히 길쭉하게 생긴 약은 삼키기 전에 심혈을 기울여 혀뿌리에 세로로 배치해야 했다. 목구멍을 향해 조준한 상태에서 삼켜야 걸리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물만 넘어가고 약이 그대로 혀 위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혀가 긴장해서 알약을 꼭 잡고 있었던 것이다. 몇 차례 시도해도 물만 넘어가 물배만 잔뜩 차서 결국 약을 크리셔에 넣어 빵아 먹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약을 빵아 먹으면 맛도 쓰고 가루가 식도 벽에 달라붙어 조직을 자극할 위험이 있어서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셔야 했다. 그것도 괴로운 일이었다.

서른 초반의 어느 날, 그러니까 하은이가 아직 서연의 뱃속에 생기기도 전이었다. 그날따라 그녀는 유난히 멍했고 비현실과 현실의 경계를 부유하고 있었다. 마땅히 울었어야 했지만 울지 않았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그녀와 분리된 것처럼 느껴졌다. 인형만 한 아이가 화장로에 누워 있었다. 아이는 지겨운 환자복 대신 드레스를 입고 꽃신을 신고 아끼던 곰 인형을 옆구리에 끼고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정말 어이 없게도 서연은 그런 순간에 마땅히 휘몰아쳐야 할 비통함 대신 어떤 자세로 서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따위를 고민하느라 마음이 수십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그중에서도 서연을 가장 혼란스럽게 한 건 눈물의 부재였다. 오열하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

았다. 한 가지로 이름 붙일 수 없게 뒤엉킨 감정 중 어떤 것에 먼저 반응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다만 그녀 주위에 어떤 보호막이 둘러쳐졌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 보호막은 견고한 방탄유리 같아서 분명히 총을 맞은 것 같은데 몸에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다. 몸을 관통하지 못한 총알들이 어정쩡하게 서 있는 서연의 발 앞으로 툭 떨어졌다. 피를 한바탕 흘리는 것을 무기한으로 보류한 채 언제까지고 유리관 속에서 안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도 서연은 잘 지냈다. 그녀에겐 서른 중반의 한 시기일 뿐이지만 아이에게는 전 생애였던 그 2년이 마치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이.

때로는 보호색을 입고 잠복해 있던 망각이란 놈이 엉뚱한 데서 지뢰를 터뜨리기도 했다. 육아와 살림 사이에 일을 잘 버무려 넣은 평범하고도 바쁜 하루를 살다가 별안간 숨이 턱 막힌 적이 있었는데, 'terminal(터미널)'이라는 단어를 우연히 맞닥뜨릴 때였다. '제거하다'를 뜻하는 'terminate'에서 유래한 형용사로, 아이의 진단서에서 'terminal disease(죽음에 이르는 병)'라는 문구를 처음 마주친 순간의 날카로운 충격은 서연에게 트리거로 장착되어 있었다. 그 후로 그녀가 이 단어를 마주칠 때면 어디선가 탕! 하고 방아쇠가 당겨졌다. 방탄유리에 싸여 있어서 죽지는 않았지만 정적을 가르느 총성이 아득하게 메아리쳤고, 유리 벽을 들이받고 자살한 총알이 전해준 진동은 호수 밑바닥에 모래바람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자비라곤 없는 금속의 파열음. 삭막하고 단호한 'ㅌ' 소리가 울리면 심연에 가라앉은 기억들이 부웅 떠올라 해초처럼 넘실댔다. 그럴 때면 깊은숨을 몰아쉬어 기도를 느슨하게 열어야 호흡이 진정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기괴한 꿈을 꾸었다. 소화되지 못한 국수 가락이 서연의 배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로 자라는 꿈이었다. 나뭇가지는 점점 길어져서 목구멍을 통해 몸 바깥으로 뻗어 나왔다. 뿌리는 서연이 누운 침대와 서연을 함께 묶어 칭칭 감아버렸고, 더 많은 결가지가 탐구명과 눈물샘을 통해 솟아올랐다. 마침내 천장과 지붕을 뚫고 치솟은 가지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였다. 너의 삶도 저랬어야 하는데, 하고 잠에서 깬 서연은 증얼거렸다. 힘겹게 살과 뼈를 뚫고

나와 가지를 하늘로 뻗어야 하는 나무가 될 게 아니라, 날다 힘들면 튼튼한 가지 위에 앉아 쉬고, 전깃줄 위에 조로록 선 새들과 재잘대다가, 풀밭에서 지렁이를 쓱 뽑아 먹기도 하는 지극히 평범한 새였어야 하는데.

다음 날, 서연은 약속한 시각에 맞추어 박 노인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다. 그때 문자 알림이 울렸다. 노인이 또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에이전시의 문자였다. 서연은 비상계단으로 뛰어 내려갔다. 병원은 멀지 않았지만 증축 공사로 정문 입구가 막혀 있었다. 우회 표지판을 따라 병원 뒤에 차를 세우고 응급실로 갔지만 노인은 이미 입원실로 옮긴 뒤였다. 기나긴 복도를 거쳐 엘리베이터를 두 번 갈아타고서야 입원실을 찾을 수 있었다. 박 노인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간병인이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에도 자신이 오기 직전에 혼자 컵라면을 드시다가 다시 기도가 막혔다는 것이다. 라면이 뭐라고, 좀만 참으시지, 라고 말하는 간병인은 지쳐 보였다.

실려 오지 않았다면 집에서 연하 식이요법대로 만든 음식을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삼키는 훈련을 하고 있을 터였다. 노인은 안전한 감옥 대신 위험한 자유를 택한 걸까. 먹고는 싶는데 살고도 싶어서 일부러 간병인이 올 시간에 맞추어 모험을 감행한 거라고 보는 건 무리일까. 환자복을 입고 있어서인지 노인은 전날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환자복은 몸에 바늘을 꽂고 전극을 부착하고 드레싱을 갈기에 최적화된 디자인이라 앞은 병병하고 뒤는 행하게 뚫려있게 마련이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런 볼품없는 옷까지 걸치고 즐거울 리 없다. 노인은 여전히 서연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독백인지 대화인지 모를 이야기를 시작했다.

“올 어머니는 다른 집 어머니들처럼 자살한 잔소리나 간섭을 안 하셨다오. 장기간 뒤에는 일 년에 겨우 두어 번 뵈러 갔는데, 항상 이렇게만 물으셨지. ‘살만하냐. 난 경제적인 상황을 물으시는 걸로 생각했다오. 그때 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악에 받쳐 있었거든. 그래서 차차 나아지겠죠, 라던가, 그럭저럭 먹고는 살아요, 라고 대답하곤 했는데. 지금 와 생각해 보니 그 질문은 행복하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

노인은 가래가 잔뜩 낀 목을 그르렁대면서도 말을 계속했다. 누가 듣든 말든 상관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올 아버지가 항상 밖으로만 쏘다니는 양반이라 어머니는 평생 외롭게 살았소. 육이오 때 이불 홀청을 찢어 만든 끈을 자식들 허리에 동여매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피난시킨 분이시. 전쟁 중에 어머니가 목숨 걸고 식구를 건사하는 동안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소식도 없었소. 그런데도 어머니는 우리가 장난치고 노는 걸 보면서 ‘살만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 후회 같은 게 무슨 소용이냐 마는. 제일 후회되는 게 있다면 좀 더 만족하고 살지 못했다는 거요.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에 비해 나는 가진 게 참 많았는데. 그걸 모르고 늘 힘들다고 생각했지.”

다 큰 어른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젊은 사람이 하는 위로 따위 노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걸까. 아이가 놀이터가 아닌 침대에서 삶의 전부를 보낼 때 지인들이 해준 위로의 말이 조금도 서연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 못한 것처럼.

노인 옆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졸던 간병인이 부스럭대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다.

“좀 들어요. 오늘 새벽에 썬낸 거라 맛있어.”

스티로폼 용기 위에 가지런히 놓인 경단이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박 노인을 결눈질했다. 마음껏 삼키지 못해 이 자리까지 온 노인 앞에서 무언가를, 그것도 ‘맛있는’ 것을 먹는 게 미안하게 느껴졌다. 간병인이 괜찮다는 신호로 서연의 팔을 쿡쿡 찔렀다. 서연은 할 수 없이 검은깨 고물이 뿌려진 것으로 골라 입에 넣었다. 서연이 떡을 씹느라 입을 우물대는 사이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차례대로 다녀갔다. 그들은 노인을 진심으로 걱정했고 다정하게 대했지만, 그러한 친절은 역설적으로 노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었다. 아픈 사람이 누리는 특권은 그가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노인이 무언가를 손에 꼭 쥐고 있는 게 서연의 눈에 들어왔다.

“들고 계신 건 뭐예요?”

노인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폈다. 엄지손가락 길이만 한 몽당연필이었다.

“집사람하고 쪽지 주고받을 때 쓴 거요. 집사람은 새벽에 나가 종일 김치를 담그고 오후 2시에 퇴근했고, 나는 오후 4시부터 야간 청소를 했지. 하루에 식구들 얼굴 마주치는 시간이 한 시간도 안 됐었소. 그때는 핸드폰이니 문자니 하는 것도 없어서 할 말 있으면 쪽지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다녔지. 그런 식으로 20년 가까이 살면서 애들을 키웠다고. 그러다 애들이 대학 졸업할 때쯤 되니까 집사람이 암으로 죽었고, 아들들은 군의관이 되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사니 얼굴을 못 본다오. 구십 평생을 살았는데, 갈 때 되니까 내 곁에 이거 하나 남네.”

그는 헛헛, 하고 웃었다. 사는 게 헛되고 헛되다는 듯이. 박 노인 가족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들 사이에 오간 최소한의 대화를 아는 존재가 몽당연필이라니. 죽음에 다가간다는 것은, 살면서 중요하다고 믿었던 수많은 요소 중 핵심만 추려내는 필터링 작업일 것이다. 서연은 문득 궁금해졌다. 군더더기를 제하고 남은 그녀의 진액은 무엇일까, 하고. 검버섯이 피어오른 노인의 손이 천천히 퍼졌다. 그는 꼭 쥐고 있던 연필을 서연에게 내밀었다.

“나 대신 버려줘요.”

“버리시려고요? 이거, 할아버지께 소중한 거잖아요.”

“이젠 필요 없소. 어차피 곧 만날 텐데, 뭘.”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간호사가 들어와 이제 퇴원해도 좋다고 했다. 퇴원 후 지침 사항 및 추가된 약 목록이 적힌 종이를 받은 서연은 가방에서 형광펜과 볼펜, 포스트잇을 꺼냈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긋거나 노란색으로 칠했고, 주의 사항을 한글로 번역하여 빈칸에 큼지막한 글씨로 적었다. 약병마다 하루 몇 회, 몇 알이라고 적은 포스트잇도 붙여 두었다. 서연이 정리한 내용을 간병인에게 보여주며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는 동안, 박 노인의 눈은 어딘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복약 지도나 의사의 지시 사항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통역도 끝나고 더는 머물 이유가 없어 서연은 노인과 간병인에게 인사를 했다. 노인은 서연을 등진 채 창밖 풍경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이제는 끝을 통과할 준비를 해야지.”

노인은 왜 ‘통과’한다는 표현을 썼을까. 통과도 ‘ㅌ’으로 시작되는 단어이지만 ‘terminal’처럼 무시무시하게 들리지는 않았다. 통과는 뚫고 나감이고 투과이며 연결이다. 노인에게 생의 끝은 천 길 낭떠러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통하는 ‘문’일지도 몰랐다. 말랑말랑한 젤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몸으로 부딪치면 풀리는 문. 햇살 한 줄기가 투과할 수 있는 문. 그 투명하고 부드러운 문 너머 펼쳐진 또 다른 길. 그 위에서 누구나 뽀얗고 말간 어린이가 되어 삶이라는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노인이 이 길과 저 길의 문턱을 통과하는 날, 드레스를 입고 꽃신을 신고 곰 인형을 옆구리에 낀 두 살 반짜리 여자아이를 마주칠지도 모를 일이다.

하은이가 울면서 달려왔다.

“엄마, 블루제이가……”

“블루제이가 왜?”

하은이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보니 작은 어항에서 기르던 파란색 베타 물고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며칠 전에도 어항에서 튀어나와서 식탁 위에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 넣어줬는데. 그땐 괜찮았는데…… 오늘은 아예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못 보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 버렸어…… 어떡해, 엄마.”

서연은 울먹이는 하은이를 진정시키고 블루제이를 조심스럽게 형겅에 썼다. 며칠 연속으로 내린 비 때문에 발이 푹푹 빠지는 잔디밭을 건너 화단 귀퉁이에 블루제이를 묻었다. 하은이는 쪼그리고 앉아 조약돌을 모으더니 블루제이 묻은 곳을 중심으로 둥그런 울타리를 만들었다. 봄에 허브를 심을 때 썼던 나무 껍질에 R.I.P. 라고 써서 깊숙이 꽂아주기도 했다.

“엄마. 블루제이는 자살한 걸까?”

“뭐? 자살을 왜 해.”

“요새 자꾸 어항에서 튀어나왔었잖아. 어항 속에만 있는 게 답답했을 거 아냐. 한 마리 더 넣어줄 걸 그랬어. 그랬으면……”

“물고기는 그런 거 모른대.”

“정말?”

“응. 물고기들은 기억력이 좋지 않고 단순해서 좁은 어항에서도 잘 산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나도 블루제이의 심정을 알 길이 없었다. 하은이를 재우고 검색을 해 보았다. 물고기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포식자를 피할 때, 혹은 피부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 몸을 날려 물 밖으로 튀어 나간다고 한다. 블루제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마 세 번째일 것이다. 피부병에 걸리면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것을 물고기들은 직감으로 아는 걸까. 그래서 안전한 물에서 바깥으로 뛰쳐나가 스스로 삶을 마치는 걸까. 아니,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물고기들은 그저 몸에 붙은 이물질을 떼어 내려고 온 힘을 다해 뛰어오른 것일 뿐, 물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항이 아니라 바다에 있었다면 이 정도 점프로 물 밖으로 벗어나지는 않았을 테니. 블루제이는 그의 조상 물고기들이 하던 것처럼 몸을 세차게 흔들어 살아보려고 한 거다. 마지막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서연은 어릴 때부터 좀 별난 아이였다. 세수할 때 고개를 숙이면 웬지 누군가에게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일부러 고개를 뺏뺏이 들고 세수를 했다. 그래서 서연이 세수하고 난 세면대 주위엔 언제나 요란하게 물이 튀어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가련하게 고개를 파묻고 흐느끼는 행위 역시 해본 적이 없었다. 친구들은 서연이 센 척하는 유형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연은 슬픔의 순간에 누군가의 동정을 받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았다. 자기의 슬픔은 누구의 어깨에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혼자 감당할 것이므로. 슬픔은 서연에게 알약 같은 존재였다. 알약은 입에 계속 물고 있을 수 없으며 언젠가는 삼켜야 한다. 삼키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입안에 남게 된다. 그저 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삼켜야 하며, 그래도 목에 걸린 느낌이 있을 때는 밥을 몇 숟갈 삼켜주면 된다. 알약이 슬픔이라면, 물과 밥은 일상이다. 그런 면에선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에게도 장점 하나쯤은 있는 셈이다.

서연은 알약을 무심히 삼키듯 일상을 꾸역꾸역 삼키는 일을 반복하면서 슬픔을 조

금씩 증발시키고 있는지도 몰랐다. 슬픔이란 색도 향도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풀처럼 끈적이는 성질이 있어서 몸과 물건에 달라붙어 있다. 나무가 꽃가루를 떨구듯 몸을 활발히 움직이면 슬픔도 각질처럼 떨구어져 어느새 공중분해되고 만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잘될 거야, 힘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그만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사실을 원통해 하기 보다 함께여서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서연은 슬퍼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 순전히 그녀의 선택으로.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서연을 깨웠다. 부스스 일어나 마루로 나가니 하은이는 주말에만 허락한 게임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었다. 서연은 잔소리하려다 그만두었다. 이 순간도 강물처럼 지나가리라 생각하니 괜히 아까웠다. 서연은 아일랜드 앞 스텔에 앉아 부녀의 모습을 찍었다.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목련 가지가 빗방울에 흔들렸다. 한 가지에 필 꽃, 피는 꽃, 시든 꽃이 다 붙어 있었다. 서연의 몸도 가랑비 흩뿌리듯 매일 조금씩 사멸하고 있을 것이다. 잠깐의 화려한 섬광을 제외하고 삶이 대체로 자질구레한 일의 연속인 까닭은, 아마도 죽음을 향해 조금씩 소멸해가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연습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서연은 재활 센터나 진료실, 초음파실 등 병원의 이곳저곳을 돌며 통역을 계속했다. 사실 그녀가 만나는 환자 중 영어를 전혀 못 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이곳에 정착하여 삶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터득한 요령으로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 대답도 할 수 있었다. 설령 못한다 해도 소통 실력이 좀 더 나은 배우자나 자녀를 데리고 오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경미한 일시적 증상이나 정기 진료가 아니라 수술이 필요하거나, 합병증이 있거나, 치료 옵션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했다. 서연은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비단 언어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긴장과 불안을 애써 감추며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들은 대기실에서 서연을 만나면 반가워했고 휴대폰을 열어 자식이나 손주의 사진을 보여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사명감이란 건 처음부터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별생각 없이 그 일을 시작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기는 경우도 있다. 큰 병을 앓았던 아이를 키워 본 엄마들 중, 아픈 이들을 도우며 살겠다는 봉사 의지를 불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서연은 소명이나 신념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종일 육아에서 벗어났기에 무언가를 하고 싶었고, 돈을 벌고 싶었고, 지금 상황에서 그녀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이 일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서연과 달리, 사람들은 서연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 환자들은 의외로 서연에게 기댔고 많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으며 그녀와 계속 친분을 쌓고 싶어 했다. 딸 갖다주라며 초콜릿 한 봉지를 챙겨주는 환자도 있었다. 서연은 차츰 이 일의 의미를 깨달아 갔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지만, 서연은 아직도 노인의 안부를 모른다. 연락처도 모를 뿐더러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연은 그저 그를 가끔 떠올리며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 오늘도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며 열심히 삼킴 훈련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마지막 라면을 정말 맛있게 끓여 먹고 별빛 아래 거목처럼 쓰러졌을까.

잠든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다. 내일은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는 날이다. 서연은 재킷 주머니에 넣어둔 몽당연필을 꺼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라고 꼭꼭 눌러 쓴 메모지를 반으로 접어 남편의 휴대폰 아래 놓아두었다. 그리고 보니 통역도 ‘ㄷ’자로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서연은 잠시 멍해졌다. 스포트라이트처럼 한 곳을 집중해서 비추던 마음속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렸다.

꼰대기

박 용 석 [사우디아라비아]

1. 꼬인 군번

저는 쯤다의 꼬인 군번입니다. 아, 저는 군인이 아니니 군번이란 말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상황을 표현하는데 꼬인 군번이란 말보다 더 좋은 단어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꼬인 군번이란 말을 처음 들은 것은 갓 대학을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던 한 선배가 막 제대를 해서 3월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는 1학년 때 이수하지 못한 한두 과목을 우리와 같이 듣기도 했는데 그 덕분에 우리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밥을 먹거나 시간이 남아서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옹기종기 앉아 있을 때 가끔 자기 군대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꼬인 군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꼬인 군번이란 말을 들은 때입니다.

말인즉슨, 이 선배가 자대에 배치를 받고 보니 자기 바로 위에 선임들은 많은데 그 위에는 고참들이 별로 없어서 군 생활의 거의 절반이 가까이 오기까지 새로운 신병을 못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는 소대의 만년 신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대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죄다 자기가 도맡아서 한 일이며 손글씨를 잘 쓴 죄로 행정병으로 뽑혔는데 훈련이 있을 때마다 셀 수도 없는 보고용 차트를 매직으로 쓰느라고 며칠 밤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일이며 그 외 군대에서 겪은 크고 작은 힘든 일

들을 하소연하듯이 풀어내곤 하였습니다. 행정병 일이 바빠서 첫 휴가도 같이 입대한 훈련소 동기들 보다 한참 후에나 나올 수 있었노라고 푸념할 때면 군대 관련 경험이라고는 초등학교 때 위문편지 보낸 것, 그리고 고향이 전방에 가까운 관계로 학교로 가는 길에서 행군 훈련하는 군인들에게 건빵 얻어먹은 것이 전부인 저에게도 꼬인 군번이란 말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들 수 있겠는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딱히 폭행이나 따돌림 같은 선임들의 부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이 양반이 공교롭게 후임이 늦게 오는 부대에 배치된 것이 문제인지라 듣는 우리로서는 극적인 긴장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짐작 그외 이야기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고 그도 어느 순간부터 군대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충 10여 년 넘게 잊고 지내던 꼬인 군번이라는 단어가 제 입가에 다시 오르내리게 된 것은 90년대 말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젓다라는 도시에 정착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젓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지역의 중심 도시로 홍해를 면한 항구도시입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교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인간적으로 잘나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그럴만한 젓다 교민사회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젓다에 온 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근무하느라 바쁜 관계로 아직 주변 지역의 지리도 잘 몰라서 한국 식당 두 곳과 숙소 그리고 근무지만 겨우 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교민회의 사무국장이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전화를 해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무국장의 목소리는 약간 수줍은 듯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조금 망설이다가 그가 약간 더듬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음, 저는 젓다 교민회 사무국장인데요, 젓다에 오셨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으시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8월도 덥긴 하지만, 정말, 이곳의 8월 날씨는 듣던 것보다 훨씬 덥네요. 완전히 노천 사우나인데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 특별한 일 없으시면 회포도 풀 겸 한 7시쯤에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하면 어떨까요?”

“저야 좋죠. 감사합니다. 제가 댁을 잘 모르니 아리랑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6시 30분에 거기서 뵈겠습니다.”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탱크 엔진 같은 굉음을 내는 각진 디자인의 86년식 진회색 시보레 카프리스를 몰고 온 사무국장은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어서 타고 있는 8기통 미제 차만큼이나 믿음이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처음 보는 손님 둘이 먼저 도착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마 사무국장이 혼자 이야기하기 미묘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초대해 온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은 다부진 덩치에 어깨가 넓어서 한 번에 봐도 운동으로 다져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줄곧 다소곳한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선비 다운 점잖은 기품이 흐르는 것이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녁상을 기다리면서, 어색한 침묵이 부담스러운 듯 사무국장이 좌중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이 분은 교민회 부회장이시면서 건설업 하시는 김 사장님이시고 이 분은 무역업을 하시는 박 사장님이세요.”

“아, 저도 박 씨입니다.”

종씨를 만난 반가움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가만히 보아하니 양반가 자제 같은데 남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는 박가입니다 해야지 박씨가 뭐요? 나는 청나라 시조 누르하치하고 종씨인 김 명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색을 하며 화를 내는 듯이 시작한 말투에 순간 긴장했던 저는 떡 벌어진 어깨와

다부진 체격의 외모와 다르게 누르하치와 종씨라고 말하며 익살스럽게 마무리하는 김 사장의 말 솜씨에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르하치가 정말 신라 왕족의 후손인지는 차치하고 이분의 재치 있는 한마디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온데 간데없이 사라지고 좌중은 박장대소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30년 지기 친구처럼 격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농담이 아니고요. 우리 역사에서 광해군이 그냥 계속 왕을 하고 여진이 명나라 정벌하려고 할 때 후급하고 같이 한편 먹고 거래를 해야 했어요. ‘같이 명나라 정벌한 다음에 증원은 너희가 차지하고 만주는 우리 주라’ 하면서 말이죠. 아, 막말로, 고구려, 발해 주민들이 상당수가 말갈 즉, 여진이었는데 만주 땅 원주인이 우리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지들은 더 잘 알았을 것이니, 증원하고 바꾸자고 하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동북아 역사가 바뀌고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2-3등 하는 강국이 되었을 텐데. 하, 생각하니까 또 아쉽네”

“에이, 그거야 지금 지나온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그 시대를 살다간 사람들은 언감생심 감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군다나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 도움도 받았는데요.” 그 사이에 안면을 좀 텃다고 제가 반론을 폈습니다.

“아, 누가 뭐래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결정한 일이 후손들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지금 보니 청와대에서 외교정책 보좌관 정도 하셔야 되는 인물이신데 여기에 잘못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추켜세우자 신이 났는지 누르하치 사장님은 저에게 다짜고 짜 오늘부터 형님 아우로 지내자고 하였습니다. 저야 사람을 알아서 손해 볼 것이 없었기에, 더군다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역만리 사교무친한 도시에서 형님 아우 하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특히 공신력 있는 한인 조직인 교민회의 부회장이라면 나쁘지 않은 일처럼 보여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곧 남자들 넷을 위한 저녁상이 차려지고 젓다에 도착한 지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

식을 그것도 집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의미 없는 이야기가 오가고 상에 있는 음식이 천천히 없어져갈 즈음 사무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 박을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좀 부탁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부탁을 하시려고 그러시죠? 저야 여기가 처음이라 부탁은 오히려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우는 타자 좀 칠 줄 아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르하치와 종씨라고 하는 김 사장이 대뜸 물었습니다. 다짜고짜 타자를 칠 줄 아냐고 하니 무슨 맥락에서 하는 말인지 의아해서 저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느라고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시절은 기계식 타자기는 거의 사라져 가고 문서 편집은 컴퓨터를 통해서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갑자기 타자를 칠 줄 아냐고 하니 모른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다고 하기도 애매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무실에 수업료 내려 갈 때 사무실 여직원 누나가 한글 타자기를 치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그걸 사용해 보거나 심지어 만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타자기는 못 칩니다만, 컴퓨터 자판은 좀 칩니다. 워드나 아래 한글로 문서 편집도 좀 하고요.”

“아, 잘 됐네. 그러면 충분하지 뭐.” 사무국장이 안심이 된다는 듯이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문서 편집을 할 일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교민 회보를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편집할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편집하시던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편집을 못 하게 되었어요. 원고는 여기 계신 사무국장이 월 말 즈음에 드릴 테니 그것을 컴퓨터 자판으로 치고 출력해서 인쇄소에 가서 복사하고 제책하면 됩니다. 제책은 인쇄소 직원들이 해 주니 편집하고 출력만 하면 돼요. 분량도 얼마 안 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부탁해요.”

지금까지 밥 먹는 내내 거의 몇 마디 안 하던 박 사장이 일장 연설에 가까운 긴 말을 쏟아내자 그 말에 압도되어 저는 저도 모르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선뜻 승낙을

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에게 누가 무슨 부탁을 하면 처음부터 너무 쉽게 들어주지 말고 일단은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말하면서 즉답을 피하고 부탁받은 그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또 해서 손해 보는 일은 아닌지 계산을 해 본 다음에 천천히 답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쉽게 승낙을 하면 상대도 감사한 줄 모르고 제게 받은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저를 아무 때나 부탁하면 들어주는 쉬운 사람으로 깔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사장의 ‘부탁해요’라는 마지막 말에 저의 머릿속은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갑자기 하얗게 되었습니다. 대답 조심하라는 어머니의 조언은 기억에도 없다는 듯이 곧바로 “예.” 하는 대답이 어떤 종류의 메뉴가 있는가 찬찬히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누른 자판기의 원하지 않는 커피처럼 자동으로 쏟아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생각도 안 해보고 너무 경솔하게 교민 회보 편집인의 일을 맡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하겠다고 한 말을 못 하겠다고 즉시 반복하는 것도 너무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불현듯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회보 편집 일은 잘 알겠는데요, 그 일을 꼭 제가 해야 되나요? 제가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교민회에는 저보다 능력 있고 더 젊은 친구들이 많을 듯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신참인 저보다는 여기에 몇 년이라도, 하다못해 1년이라도 거주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민사회에 젊은이가 없어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이어서 사무국장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사우디의 건설경기는 퇴조하기 시작했고 91년도에 일어난 걸프전의 여파로 그 전쟁 비용을 감당하느라 사우디 정부의 재정이 건전하지가 않아요. 거기다 말이야,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는 사우디 정부가 균형 예산을 세우는데 필요한 가격에서 한참 아래에서 형성되어서 최근에 새로 발주한 건설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단니까. 완공하고도 아직 건설비 잔액 못 받은 현장도 있다고 하더라고. 벌써 이번 달만 해도 우리가 철수하는 교민들 송별회를 세 번이나 해줬어요. 한국 건설회사에 식료품하고 건설 자재 납품하던 사람 중에도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두바

이나 쿠웨이트로 건너간 사람도 있어요. 그나마 젊은 사람은 상사 주재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빠서 교민회 일을 못해요. 그리고 2-3년 후에는 본사로 귀임하기 때문에 자기가 쯤다 교민이라는 소속감도 별로 없어요.”

“아니 그래도 편집할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지 않나요?” 저는 가능하면 편집 일을 안 해볼 요량으로 못 믿겠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 지금 교민회는 한국 가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벌써 귀국했고 인근의 다른 나라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중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버리자니 아깝고 계속 유지하자니 잘 안되는 사업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다들 나이가 사십이 넘었고 컴퓨터는 잘 몰라. 아우가 적임자라니까. 아마, 여기 쯤다에서 거주 경력이 제일 짧은 사람도 최소 10년에서 15년은 될걸. 우리가 남은 이유는 그래도 중동에서, 좁게 잡아도 GCC 안에서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강국이고 언젠가는 예전 같은 황금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지.” 누르하치 사장님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재하던 한국 지상사도 많이 철수하고 덩달아 거주 교민들도 살 길을 찾아서 귀국을 하거나 형편이 좀 더 나은 이웃 국가로 떠나는 형국이라 교민사회는 침체되어 있었고 교민들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동 봄으로 흥정대던 80년대가 지나가고 잔치가 끝난 연회장 마냥 손님 다 떠나고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와 빈 그릇만 남은 썰렁한 사우디의 90년대가 스산한 가을 저녁처럼 쓸쓸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단순 방문도 아니고 앞날이 창창한, 채 서른이 안된 제가 쯤다에 살겠다고 사우디에 입국을 했으니 사람들은 저의 입국 사유가 궁금하기도 했겠지만 우선 반가움을 금할 수 없었나 봅니다. 같이 일할 교민회 집행부의 실무 임원을 하나 확보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저는 알았습니다. 쯤다 교민사회는 바로 워싱턴만 드글드글해서 군 생활의 거의 반이 다 되도록 신병을 받지 못한 제 선배의 소대처럼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어요.

2. 교민회

그날의 저녁 식사 후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교민회 회장단과 상견례도 할 겸 회보 편집에 대한 모임을 교민회 사무실에서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국장 댁에서 저녁을 먹던 날 저를 태우고 집으로 가던 사무국장이 아리랑 식당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국학교를 보여주며 저 안에 교민회 사무실도 같이 있다고 말해 주었던 탓에 저는 교민회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교민회 사무실은 한국학교 운동장 끝 북쪽 담벼락 옆에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내부는 제법 공간도 넓고 탁자며 책상이며 전화기와 컴퓨터도 놓여 있어서 사무실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날카로운 눈매에 머리를 올 백으로 빗은 박 회장이란 분이 앉아 있었는데 그의 눈매 때문에 저는 그의 얼굴이 마치 초등학교 시절 교실에 걸려있던 을지문덕 장군의 초상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예의 누르하치 김 사장과 사무국장이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이 분은 박동천 교민회장님이시고 이 분은 새로 회보 편집을 맡은 미스터 박입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사무국장이 간단히 소개를 하자, 박 회장은 유쾌하게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민회보 편집을 하기로 했으면 홍보위원이시군요. 어이구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뭐라도 먼저 먹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야. 손님도 오셨는데. 저기, 사무국장! 아리랑에 전화해서 짜장면이나 시키지그래? 곱빼기로.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잘 먹어야지.” 날카로운 눈매와 다르게 그의 말투에서는 정감이 넘쳐났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회보를 만들고 있는데 너무 내용이 간단하고, 거주 한인들이나 교민회의 사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적은 기사가 별로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교민회장 동정하고 행사 안내문, 체육 동호회 경기일정 안내가 거의 다라니까. 난 말이죠, 이 교민회보가 우리 젓다 한인사회의 역사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젓다 한

인사회에 대해서는 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신문이나 잡지보다 우리 회보가 더 월등할 수 있거든요. 먼 훗날 사우디 교민 진출사를 어느 역사가가 연구한다고 할 때 정부 문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만 우리가 발행한 교민회보도 정부 공식 문서와는 또 다른 가치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야 그렇겠죠. 교민 회보야 주로 쓰는 내용이 거주 한인들의 이야기 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회보의 내용을 채워야 할까요? 우리가 무슨 전문 기자도 아니고 쟁다 한인 사회가 엄청나게 커서 써야 될 기사가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무국장님이 기사를 쓰신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생업이 있는 분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뜨악하게 말을 하자,

“아이고. 우리 회장님 또 저 이야기하시네. 미스터 박,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것은 없고 그냥 소박하게, 한번 쓱 보고 버리는 회보가 아니라 한인들이 그래도 최소한 흥미를 가지고 읽고 교민회가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 하면 되죠. 우선은 그 정도를 목표로 잡자구요.” 저에게 부담감을 안 주려는 양으로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은 같은 말을 쓰더라도 읽는 사람이, 어, 뭐냐, 여기 살지 않는 독자가 읽더라도 쟁다 한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상상이 되도록 좀 자세히 쓰자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쓰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난 3월에 우리가 야유회를 갔는데, 여기 봐봐. ‘3월 25일 많은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야유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준비에 수고해 주신 부녀회원님들 감사합니다.’하고 달랑 두 문장이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야유회는 어디로 갔는지, 준비하느라고 교민회 부녀부에서는 어떤 수고를 했는지 이런 것도 쓰고 또 가서 어떻게 놀았는지도 좀 쓰고 말아야. 생활 상식이나 사우디 시사 정보도 좀 넣고.” 박 회장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무국장님과 협의를 해야 하고요, 교민 회원 중에서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명예기자단 같은 것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문제는 이제 홍보위원이 되는 미스터 박하고 박 사무국장하고 나

하고 셋이서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해 봅시다. 그리고 보니 쓰리 박이네. 이참에 3P라고 회사 하나 차릴까? 3M이 시비 안 걸라나? 허허허.”

박 회장이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회보를 편집할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편집 방향에 대한 논의만 할 것이었으므로 편집회의는 자연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회보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될 무렵 주문한 짜장면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교민회장 말로는 아리랑의 조 지배인의 부친께서 한국에서 중국집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짜장면을 먹어 온 조 지배인은 짜장면에는 일가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의 짜장면은 한국의 웬만한 중국집보다도 맛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르하치 부회장의 말에 의하면 조 지배인이 직접 손으로 면을 뽑는다고도 했습니다.

“젓다 교민사회가 축소되고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물도 많고 있을 것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놀랍다는 듯이 말하자, 사무국장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요,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우리 교민회도 잘 나갈 때 마련해 둔 설비들을 아직도 다 가지고 있어요. 코리아나 슈퍼 뒷마당에는 떡방앗간도 있고, 그것을 제일김치 김 사장님이 자원봉사로 관리해 주시는데, 그 양반 월남에서 일한 기술자 출신이라 떡도 잘 뽑고 고장 나면 기계도 잘 고쳐요. 자동차도 손보실 줄 안다고 하던데 뭐, 저기, 카미스라고 여기 사우디에 우리나라 대관령 같은 고산 지대가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 배추와 무를 재배하는 한국 분도 계시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우디가 사막만 있는 것 같지만 산맥도 있고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계곡도 있어요.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아주 다채로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사우디예요.”

짜장면을 먹으면서 한 번 더 제가 회보 편집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정확히는 홍보위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편집은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홍보위원을 맡아도 되나요? 홍보위원은 교민회의 임원인데 저는 이제 막 젓다에 온 사람이잖아요. 모양새가 그다지 좋

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기..... 김 부회장이 정관을 보고 임원의 자격이 어떻게 되나 설명을 좀 해봐.”

“음, 교민회 정관에 있는 운영위원의 자격을 보면 제1항에 사우디 거류증을 가진 20세 이상의 성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우는 두 가지 다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홍보위원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아, 그렇게 문서로 보장되어 있다면 흥분한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대답을 하면서 김 부회장이 건네주는 교민회 정관을 보니 과연 저 같은 신참도 운영위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운영진과 이사진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들어진 상당히 조직적인 정관이었습니다. 회장 밑에는 부회장 2인과 사무국장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이 있고 그 아래에는 교민회의 실무운영을 보좌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었습니다. 또 회장과 운영위원회를 견제하는 이사회가 있었는데 이사회는 당연직인 회장단과 한인사회의 각종 친목단체의 장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친목단체는 지역 구이고 친목단체의 장은 국회의원 같은 셈이었습니다.

“이 정관은 말이야, 처음에 젓다에 주재하는 한 타이어 회사 지사장이 만들었는데 그 양반 법대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젓다 교민회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이 교민회 부지만 봐도 말이야 부지는 애초에 정부가 대사관 지으려고 샀는데 대사관 건물 건설하기 전에 대사관이 수도 리야드로 이전하면서 한국학교를 지었지. 그런데 건물은 그 당시 한 건설회사가 무료로 지어주었어요. 저기 보이는 야외 농구장과 애들 놀이터도 우리가 지었고 이 앞에 그늘막은 한 4,5년 되었는데 그 당시 한인 회장이 사비로 지었어요. 저 유치원 건물은 교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서 지었고, 물론 뭐 재외동포재단에서 조금 지원도 해 줬지. 재동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 사람들 매년 얼마씩 교민회에 지원해 주거든. 그제 돈을 받아서가 맛이 아니라 이런 게 다 사람 살아가는 정이야. 아, 우리 정부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박 회장이 자부심에 차서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누르하치 부회장이 말을 받았습니다. “아우야, 사람들이 상

해 임시정부 청사를 역사적인 장소로 생각하잖아?”

“그렇죠.” 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해서 저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쟸다 교민회 사무실이 그런 곳이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청사에는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여기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니까. 사람들이 파독광부나 간호사들은 엄청나게 생각해 주잖아. 그분들 월급을 담보로 독일에서 차관을 가져왔다고. 물론 그분들 고생한 것과 희생을 잊을 수가 없지. 그런데 여기 쟸다 교민사회도 그에 못지 않은 기여를 했어요. 파독광부나 간호사들이 우리 경제 발전에 마중물 같은 역할을 했다면 사우디 교민들은 수로의 역할을 했어. 정주영 회장님 회고록만 읽어봐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수주하고 선수금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숨통이 트였다고 외환은행장이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는 대목이 있어. 여기 계신 박회장님은 그 주베일 산업항 공사할 때 현장에 있었던 분이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지 눈으로 보신 증인이라니까. 그때는 뭐 안전 관리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을 때였으니까. 다들 공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지. 광부들 중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월급을 실제로 차압 당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희생이 크진 않았을 거야. 최소한 거긴 선진국인 서독이었고 노동자들 안전에 있어서는 여기보단 철저했을 테니까.”

듣고 보니 어린 시절 아저씨뻘 되는 친척분이 중동에 일하러 갔다가 불의의 심장마비로 공사현장에서 돌아가셔서 온 동네가 슬퍼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라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민회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전에 건설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끝나고 정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김치 김 사장님처럼 어떤 분들은 베트남 전쟁 후에 이란으로 갔다가 팔레비정권 무너지고 여기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사무국장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회보 편집을 위한 모임은 갑자기 교민회 임원 자격의 시비를 다루는 교민회 정관 이야기로 흘렀다가 교민 정착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나름 탄탄한 조직을 갖춘 교민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사람들 면면을 보니 이건 보통 끈대들이 아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들이었고 나쁘게 보면 지나치다 싶을 만큼 국가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긴 그래서 무보수 봉사적인 교민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인회의 일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3. 부흥을 위하여

박 회장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리는 수도 리야드에서 국왕을 면담 후 사우디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쯤다에서 만나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외환 위기 이후에 쯤다에 있던 우리 총영사관이 철수하는 바람에 교민회는 갑작스럽게 대사관과 협력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물론 방문 일정의 대부분은 대사관에서 준비했지만 총영사관이 없는 쯤다에서 교민회는 대사관 직원들에게 있어서 이 대신 잇몸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민회는 이것저것 대사관 직원들이 요청하는 자질구레한 필요들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한 한인 사회에 활력이 도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주한 나날 속에서 박 회장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정부관료들의 최우선 방문 목적이 그러하듯이 이번 방문의 제일 우선순위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었습니다. 총리는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대동하고 왔는데 박 회장은 그들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쯤다 교민회가 다시 옛날처럼 부흥하기 위해서는 한인사회가 건설 관련 사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일반무역으로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총리가 주최한 한인들을 위한 만찬에서, 총리와 함께 주빈들을 위한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와 총리의 고향이 똑같이 포천이라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향에 가면 고향 까마귀도 반갑다고 하는데 지역만리에서 교민회장을 하고 있고 더구나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고향 사람을 만났으니 총리는 신이 낫음에 분명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젃다 교민회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물었고 박 회장은 젃다 교민회가 우수한 우리 중소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총영사관의 철수와 함께 무역관도 대사관이 있는 리야드로 옮긴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제안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총리의 방문 일정이 끝나자 박회장은 자비를 들어서 젃다 시내에 사무실을 났습니다. 귀국한 총리가 무역협회의 경기지부와 교민회를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사무실 한 칸에 무협 회원사들의 카탈로그며 회사소개 책자들을 모아서 작은 전시실 비슷한 것을 꾸미고 본격적으로 사우디 수입업자와 한국 회사들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교민 사회의 친구들을 모아서 일종의 협동조합 비슷한 공동 사무실을 낸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의 회원들은 평소에는 자기들의 본업을 하다가 연결된 중소기업의 제품들 중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우디 바이어들과 맞는 제품이 있으면 두 회사를 연결해 주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영문으로 된 카탈로그를 제대로 구비한 중소기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국문으로 된 제품 소개 책자를 보냈는데 이런 자료는 판매 상담을 위해서는 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한 회사는 강아지 옷 같은 애완견들을 위한 패션용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는 이슬람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동물이라 사우디 사람들은 거의 애완용 개를 키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건설 관련 일들만 했던 회원들이 새로이 일반 무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이어 발굴과 시장조사에서부터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만 했는데 이는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참여하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소액이나마 비용을 보전해 주거나 빠르게 실적이 나지 않는

이상 오래 지속하기가 힘든 구조였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1년여를 끝다가 사무실 임대료와 책상 같은 비품 구매비만 날리고 흐리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사업의 종말과 함께 때마침 임기를 마친 박 회장도 교민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별 변화 없는 교민 사회에 무심한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교민회는 두어 번의 새로운 교민 회장을 맞았고 새로운 이민자들이 오지 않는 교민사회에서 저는 홍보위원으로 때로는 문화 위원으로 때로는 사무국장으로 한인회의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며 잿다의 꼬인 군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장기 침체된 한인회가 새로운 활기를 찾은 것은 2010년대 초반에 불어닥친 세계적인 원유 가격의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이 시기는 80년대에 건설한 사우디의 사회 간접자본들이 수명을 다 해서 새로 보수를 하거나 그동안 늘어난 인공로 인해 발전소나 담수공장 같은 설비들을 새로이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할 때였습니다. 수요가 확실한데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재정이 넉넉해지니 중동의 산유국들은 앞다투어 건설 프로젝트들을 발주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사우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잿다로 출장 오는 건설사 직원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건설회사들이 잿다에 지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서 잿다 한인사회는 사우디에 진출한 한국 건설회사에 건설자재를 납품한다거나 장비를 임대한다거나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오랜만에 활력을 찾고 있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서 교민회의 고문으로 봉사하고 있는 박 회장에게도 여러 사업 제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언제나 잿다의 한인사회를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한인들을 잿다에 정착시키고 그들이 사우디 경제계의 주류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에게 가장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은 정리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꼭 가격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사회 구조 그리고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장소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순응해서 때로는 흠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모이기도 하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먹을 것 구하기 쉽고 살기 편한 강변에 고대 문명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수출과 해상운송에 효율적인 바닷가 근방에 공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또한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박 회장은 일부러 젓다 교민사회를 부흥시키려는 것 같아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한때는 말이야, 연말에 한인 축전을 하면 이 테니스 코트 3개는 물론이고 저 끝에 있는 한국학교 교문 옆에 있는 배구장까지 사람으로 꽉 찼었어. 한국학교도 학생들로 늘 시끌벅적하고 말이야.”

“아니, 교민사회가 부흥하는 것을 회장님께서 책임 지실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 살기 편하고 돈 벌기 쉬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바이 좀 보세요. 회장님이 교민 회장하실 때는 젓다하고 비교가 안되었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커졌습니까?”

“아니 내가 뭐 억지로 교민사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잘 살고 한국에서 나 기다리고 있는 마나님한테도 잘 해 줄 수 있고.....” 박 회장은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상하게 교민사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강박 같은 집착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박 회장에게 한 번은 젓다에 기반을 둔 한 사우디 건설회사가 엄청난 제안을 해 왔습니다. 자기들이 사우디 정부 발주 공사를 수주했는데 시공 능력이 없어서 한국의 기술력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많은 한국 교민들에게 일거리가 생기고 박 회장이 그토록 원하던 한인사회에 물질적으로 기여할 기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려고 했는지 사우디 회사는 자기들은 약간의 수수료 정도만 챙기고 공사는 한국 회사가 다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시공회사의 재무적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1천 오백만 리얄 정도를 자기 회사에 예

치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략 한화 45억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수주한 공사를 검토한 한국 회사는 기꺼이 이 보증금을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 회사는 자기들이 약속한 기간 안에 공사의 시작을 하지 못해서 그간 사우디 정부 당국의 두 번에 걸친 경고를 받았고 한 번의 경고를 더 받으면 수주 자체가 철회된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는 엄연한 사기였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한국 회사는 예치금만 입금한 상태에서 3번째 경고를 받고 공사 자체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불은 박 회장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필사의 노력으로 예치금의 반환을 위해 뛰었지만 이 회사는 천만 리얄은 반납했지만 나머지 5백만 리얄은 상황이 좋아지면 돌려주겠다고 여유를 부렸습니다. 다급해진 박 회장은 사우디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수임료를 먼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돌려받을 금액의 3%인 15만 리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수표는 발행하되 수표의 현금화는 소송에서 이긴 후에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변호사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신용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싫어하는 박 회장은 자기 이름으로 15만 리얄의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더 어렵게 꼬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도 시작하기 전에 약속한 말과 다르게 은행에 가서 수표를 현금화했습니다. 계좌에 그만한 잔액이 없었던 박 회장은 사우디 상법상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한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워낙 강직한 박 회장이 자기의 어려운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잿다의 교민 선후배들이 모금을 하여 수표 금액을 지불한 덕분에 그는 출옥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인 사회에 나오지 않고 조용히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품을 아는 한국 건설회사들과 교민들이 그를 도와서 그는 한 건설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며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박회장을 만난 것은 이런 사건이 생긴 얼마 후였습니다. 하도 연락을 안하고

지내서 얼굴이라도 볼 심정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새로 옮긴 사무실이라고 하면서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마침 우리 아이의 등굣길에 있는 건물이라 아침에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출근 전에 박 회장의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안부를 묻고 나서 사무실을 둘러보니 워낙 작고 누추해서 장난삼아 농담하듯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니 회장님, 요즘 젓다에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차도 바꾸고 집도 더 큰 데로 이사하시던데 회장님 사무실은 더 작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좀 일이 있어서 사무실을 줄였어.”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는 그간에 일어난 일들, 수표 이야기며 감옥 이야기를 남의 말 하듯이 무표정하게 이야기하더니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도와 줘서 다시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 라마단에 입금된 공사비를 찾아서 직원들 월급 주려고 은행에 갔다가 말이야 돌아오는 길에 에티오피아 애들한테 강도를 당했어. 현금으로 한 20만 리알 되는데 현금 가방 채 다 빼앗기고 얼굴도 한 대 맞아서 지금도 이렇게 퍼렇게 되었잖아,”

자세히 보니 얼굴에 멍 자국이 보일 듯 말 듯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가? 돈 가방은 빼앗기면서도 강도들이 타고 온 차량 번호는 봐줬지. 그 번호를 추적해서 경찰이 범인을 잡았는데 차량을 운전한 젊은 애만 하나 잡고 나머지는 못 잡았어. 이 녀석이 통 불지를 앓는다는구먼.”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떡하긴 뭐? 그냥 적선한 셈 치는 거지. 근데 말야 오늘 경찰서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담당 경찰이 그러더라고 이 사건은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사형도 내릴 수 있대. 사우디에서는 범죄조직을 만드는 것은 가중처벌된 대요. 돈은 못 찾아도 가해자에게 사형으로 양값음을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럴 수가 있나? 그 운전했다는 녀석 얼굴 보니 한 열 대여섯이나 되어 보이던데 앞길 이 구만리 같은 애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또 내가 그깟 돈 20만 리알 잊어버리는 것이 낫지 어떻게 생목숨을 죽이라고 해. 그래서 합의해 주고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글하나 써주고 왔어.”

“잘 하셨네요. 복 받으실 겁니다.”

박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도대체 이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잘 하셨다고 긍정은 했지만 한없이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같아서 속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도대체 왜 그렇게 한인사회 활성화에 욕심이 많은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뭐 하려고 그렇게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세요?”

“내가 무슨 발전을 위해 애를 쓴다고 그래. 근데 난, 이런 생각은 있어. 박 홍보위원.” 박 회장이 저를 홍보위원으로 부를 때는 그가 교민회장 시절을 간절히 그리워할 때였습니다.

“나는 말야, 여기 사는 우리 교민들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나라가 한번 세계에 대해서 큰소리치는 나라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저는 또 아, 이 양반 또 꾀대스러운 말씀 시작하시네 하는 마음이 들어 빨리 자리를 뜰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 IMF 때도 말이야 200억 불이 없어서 그 환난을 당했다잖아. 근데 우리 해외 한인들이 인구 규모가 지금의 4-5배가 돼서 한 2, 3천만이 밖에 살고 또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다면 한 명당 천 불씩만 국내로 송금하면 해결될 문제였지. 5인 가족 이라 치고 가구당 5천불 보내면 충분했지”

“사우디도 석유가격 따라서 경기가 출렁출렁 하기 때문에 이 나라 정부도 탈 석유화하려고 애를 쓰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 똑똑하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공장도 하고 유통도 하고 하면서 같이 잘 살면 좋겠어. 누르하지 김 회장이 말한 대로 만주를 먹어야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해외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면서 그 나라 주류 인사들과 교류를 잘 하고 그 나라를 친대한민국 국가로 만들면 그게 만주 땅 10개 얻는 것 보다 훨씬 낫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오전에 잡은 약속도 있어서 출근을 핑계 대고 자리를 떴습니다. 꾀대들은 답답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갈수록 아름다운 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차를 몰면서 저

는 문득 우리말의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알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는 글을 읽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긴 흉악범도 나도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 주장이 꼭 틀린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예쁨’에 있지 않고 ‘아는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말에 들어 있는 조상들의 철학과 문화가 다시금 놀랍다는 생각과 박 회장이란 인물도 알아갈수록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끈대를 위한 애가

잠에서 깨어난 박 회장은 몸이 평소와 같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팔에 힘이 없고 움직일 수 없었으며 팔뚝 근육은 마치 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겨우 일어나서 움직이는 다른 손으로 가장 친한 흥 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는 그의 얼굴도 반은 움직이지 않아서 전화하는 내내 침을 질질 흘리며 불분명한 목소리로 집으로 와달라는 말만 겨우 하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한숨에 달려온 흥 사장은 김 회장 집의 잠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반신마비가 왔는지 오른쪽 반신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 회장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쓰러졌다는 소식은 곧 온 젓다 교민사회에 퍼졌습니다. 그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한 교민회 임원들은 조를 짜서 그가 입원한 중환자실에 번갈아 가면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저도 서너 번 그가 입원한 병실에 가봤습니다. 중환자실은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이 허용되어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 방문하면 병문안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병문안 시간은 그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한인들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열악한 사우디의 의료수준 때문인지 아니면 박 회장의 병세가 워낙 심해서 그런지 차도가 없자 우리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자 다들 전문의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느니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느니 하면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결국 박 회장을 한국으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우디의 건설경기 활황으로 잠시 개통된 대한항공 직항을 타고 박 회장은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리야드를 지나지 못하고 리야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착륙한 사이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끈대 기질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생각에 제가 다 동의할 수 없지만 그의 생각만큼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름답고 그립습니다.

2021
재외동포
문학의 창



체험수기



대상

송영일 (우즈베키스탄) _ 한민족 한마음 한의학 진료소가 만들어진 사연 • 168

우수상

유재원 (중국) _ 우주에서 보낸 한철 • 179

박상수 (중국) _ 중국 영화를 물들이다 • 201

가작

정갑환 (멕시코) _ 멕시코의 태양 아래에서 • 211

한은옥 (노르웨이) _ 엄마와 나와 노르웨이 할머니들 • 228

박은경(박지반) (호주) _ 엄마, 세이 땡큐 • 239

한민족 한마음 한의학 진료소가 만들어진 사연

송 영 일 [우즈베키스탄]

“할머니 좀 어떠셨어요?”

토요일 아침은 본래 달콤한 늦잠과 느긋한 하루를 기대하는 법인데, 요즘에는 아침 일찍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만남을 가져야 하는 바쁜 요일이 되었다.

“일 없소. 일 없소. 땡기기가 좀 바쁘지.”

언뜻 들으면 구직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하소연으로 들린다. 일해서 돈 벌고 싶은 데 도통 일이 없다는 푸념과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느라 바쁘신 고생스러움을 토로 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괜찮아. 괜찮아. 걸어 다니면 좀 아파.”이다. 한국 사람이 쓰는 단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시는 이분들은 바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른다.

“같이 오던 까짜할메이 있자예요. 오늘 못 왔지”

“왜요?”

“바자르(시장)에 갈 일이 있다 했지. 그래서 오늘은 나 혼자 왔지. 내 아침부터 다 블레니아(혈압) 올라갔소. 갈라바(머리)아프지, 찡찡(조금) 우스탈라스트(피곤)하단 말이요. 깔레나(무릎)는 계속 바쁘지. 나를 좀 고쳐주겠소?”

김 폴리나 할머니는 아픈 무릎을 쓰다듬으며 활짝 웃으셨다. 할머니의 고려 말은 통역을 거치지 않고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다.

고려인 어르신들의 고려 말은 함경도 방언에 속한다고 한다. 러시아어 단어가 중간 중간 섞여있지만 익숙해지면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우즈베키스탄에서 60-70년을 넘게 러시아어만 말하며 살아오셨기에 러시아어가 더 편하실 텐데도 한사코 고려 말을 고집하신다. 고려 말을 모르는 분들은 크게 부끄러워하시는 경우도 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내 고려 사람이지만, 고려 말이 서툰데 그래도 다 알아듣소?”

자신의 고려 말에 자신 없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고려 말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계신다.

“로샤(러시아)말 말고 고려 말 합소. 같은 고려 사람끼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그분들의 얼굴에 안도감과 미소가 보인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일하고 있는 자식들 이야기와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들은 빠질 수 없는 자랑거리다.

“딸도 아들도 다 한국 있지. 한국에서 신발도 보내주고 그리하지. 내 한국에도 시번(세번) 댕겨왔지”

고려인 할머니들의 자식 자랑은 한국 할머니들하고 레퍼토리가 똑같다. 어쩔 땐 내가 있는 곳이 우즈베키스탄이 아니고 한국 시골 어딘가쯤인 것 같다.

내가 우즈베키스탄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지 어느덧 도합 8년이 넘었다. 한국 국제

협력단 국제협력의사로 3년, 이어서 글로벌 협력의료진으로 5년 넘게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의료지원과 현지 의료인 교육을 해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130여 개 민족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다. 우즈베크 민족이 가장 많은 비율(약 84%)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타지크 민족, 러시아 민족, 카자흐 민족 등이 살고 있다. 그중 고려인은 1%도 안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내가 고려인 동포 어르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의료봉사를 결심한 것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도 그렇지만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2018년 여름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여름에 섭씨 45도가 기본이다. 가끔 50도가 넘는 폭염과 싸워야 할 때도 있다. 더위가 심상치 않던 어느 날 아침 7시쯤, 시원한 마룻바닥에서 땀을 흘리며 출근 전 게임을 피우고 있을 때였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도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치료를 원하는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당시에는 러시아어가 익숙하지 않아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 게다가 아직 출근시간 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전화를 받았다. 아마 중요한 다른 일이 있어, 그와 관련된 전화이겠거니 생각한 모양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진료 여부를 묻는, 통상적으로 내가 귀찮아했던 유형의 전화였다. 나는 전화를 건 사람의 러시아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간신히 내가 이해한 바로는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느냐는 뜻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렇다고만 짧은 러시아어로 대답했다. 우리의 통화는 그렇게 짧게 끝났다. 그날 진료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아침에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방문하지 않았다.

‘전화를 했으면 와야지. 물어보기만 하고 안 오다니.’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잠깐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이날은 휴진일이었다. 휴진일에는 보통 오전에는 강의 준비를 하고 오후에 강의를 한다. 폭염 속에 에어컨도 없는 내 진료실에서 강의 준비에 지쳐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축 처져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다. 반가운 미소를 띤 얼굴이었지만 처음 뵈는 고려인 아저씨였다. 한국어를 전혀 못해 통역 선생님을 불렀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바로 어제 전화를 걸었던 그분이었던 것이다.

“어제 전화하셨으면 어제 오셨어야죠. 왜 오늘 오셨어요?”

나는 강의 준비에 방해를 받았기에 타박하듯이 말했다.

“어제 전화하고 택시 타고 오늘 아침에 오셨다”라고 하네요. 통역 선생님의 놀란 얼굴이 보였다.

‘이건 무슨 소린가?’

진료부를 보니 주소가 카라칼팍스탄 쿤그랏이다. 쿤그랏은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13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택시로 1박2일에 걸쳐 와야 하는 곳이다. 그 먼 길을 왜 오셨냐고 물어보고 싶어졌다. 제발 나한테 치료받으면 다 나올 것 같아서라는 부담스러운 이유 때문은 아니라고 대답하셨으면 했다.

“선생님한테 치료받으려고 오셨다고 하네요.” 통역 선생님도 어이없는 눈치였다.

큰 기대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이미 여럿 있었다. 내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화타나 편작도 아닌데 나를 왜?

“쿤그랏에도 병원 있고 의사도 많은데 그리고 가까운 큰 도시 누쿠스도 있는데…”

나는 아저씨가 다른 일로 수도에 오신 김에 들렀다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했다. 그 래야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 같았다.

“같은 까레이찌(к о р е й ц ы)라서 오셨대요.”

아저씨가 말하는 러시아어는 간단했기에 나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대답을 마친 아저씨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이어서 하신 말씀도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마야 파밀리아 김(내 성은 김이요).”

같은 까레이찌(к о р е й ц ы). 우즈베키스탄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까레이츠(к о р е е ц , к о р е й ц ы의 단수형)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곧 바로 местный? из южной или северной? 라고 다시 물어본다. 현지 고려인? 남한? 북한? 이냐고 묻는 것이다. 여태껏 질문에 수백 번 답하면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절대 북한 사람도 고려인도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더 나아가 그들과 나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여겨왔다. 내가 우즈베키스탄에 귀화한 것도 아니고, 내 친척이 북한에 있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그러다 1박2일간 택시를 타고 나를 만나러 왔다는 김 아저씨의 ‘같은 까레이찌(к о р е й ц ы)’ 라는 말에 오랜 시간 품어왔던 의문이 풀렸음을 깨달았다.

김씨 아저씨 말고도 수많은 고려인 동포 어르신들이 나를 찾아왔었다. 러시아는 물론이요 인접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에서 택시, 기차, 비행기를 타고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다. 오랜만에 집에 온 자제분들을 데려오시는 경우도 있었다.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따님을 데려오셔서 따님 진료상담을 하셨던 아주머니도 계시고, 벨기에에서 일하고 있는 자제분의 부축을 받고 오셔서 딸 치료를 부탁하신 할아버지도 계셨다.

이런 우리 동포 할머니, 할아버지를 진료하면서 품어왔던 의문이 하나 있었다. 진료 후에 그분들의 미소와 안심하는 웃음소리를 마주하다 보면 그분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나를 통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굳이 나를 만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고향이 그리워서 나를 찾아오신 걸까?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한국이 아닌 러시아 연해주가 그분들의 고향이 된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면 북한 지역이 고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가 고향을 대신하진 못할 것이다. 게다가 고려인 동포들은 마음만 먹으면 러시아는 물론 북한도 자유로이 갈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 고려인 어르신들이 한국에서 온 한의사인 나를 신뢰하고 멀리서 오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나에게 치료받길 원하는 것은 쉽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먼 이국 땅에서 만난 같은 민족, 서로가 다른 언어를 쓰고, 국적도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원류(源流)의 힘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흐르는 것만은 분명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그게 항상 궁금했었는데, 김 씨 아저씨의 방문으로 이분들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받고 기뻐하셨던 것이구나라고 어렵잡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

이다.

“멀리서 오신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겠습니다”

김 씨 아저씨의 거친 손을 잡고 치료실로 안내하면서 드린 말씀이다.

그 후로도 김 씨 아저씨는 일 년에 한두 번 전화를 거신다. 그 사이 나도 러시아어가 많이 늘어 통역 없이도 아저씨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 택시 탑니다. 내일 진료합니다, 독토르 송?”

“오신다면야 시간을 내서라도 봐드려야죠. 조심해서 오세요”

어느새 김 씨 아저씨와는 친척처럼 푸근한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고려인 어르신 모든 분들과 진료실에서 마주 앉아 펜스레 손을 맞잡고 싶어졌다. 80여 년 전에 강제 이주 역사를 가진 고려인 어르신들은 사실 친근한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나 마찬가지로 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어로 *к о р е е ц*, 영어로는 korean이다. korean은 남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한 사람, 북한 사람, 고려인, 조선족, 미국계 한국인 등 우리는 우리를 세세하게 구별하고 나누지만 모두가 korean, *к о р е е ц*, 한민족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동포는 3개의 조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몸이 태어난 곳인 우즈베키스탄, 생각을 지배하는 언어의 조국인 러시아, 민족의 조국인 남한 혹은 북한. 그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그분들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같은 핏줄인 한민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한국일 것이다. 어찌 보면 한국에서 온 나와와 만남은 그분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달콤하면서도 선명한 향수(鄉愁)에 젖는 순간일 것이다.

고려인 어르신들이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실 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

“아שמचाі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땐 어르신이 숨이 차고 가슴이 불편하시다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긴급하게 통역을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병력을 캐물었다. 조금 후에 본 뜻을 알게 된 나는 너털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아슴차이요’는 ‘고맙습니다’란 뜻으로, 그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 조선 초기 육진이 위치한 곳에서 사용되던 방언 중 하나라고 한다. 그 말이 낯설고 선뜻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 우리말의 사투리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처럼 말이다.

고려인 어르신들과 더 많은 만남을 준비해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이왕이면 내가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서서 그분들을 기다리면 나를 찾아오시기가 한결 수월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결심만 섰을 뿐이지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할지는 쉬이 판가름이 되지 않았다. 본래 일하던 장소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하기에는 방해요소가 많았다. 일하는 장소가 봉사 장소가 되는 순간 두 영역에서 모두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 보았지만 나 역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외국인이다 보니 허가받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의료봉사이지 않은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다. 그렇게 지지부진하던 중에 우즈베키스탄 고려문화협회 박 빅토르 회장님이 치료차 나를 찾아오셨다. 우즈베키스탄 국회 하원의원이기도 한 박 회장님은 치료를 받으시다가 조심스레 이런 말씀을 하셨다.

“독토르 송, 혹시 우리 협회에 와서 우리 고려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기적으로 치료 좀 할 수 있나요? 다른 건 다 내가 준비 할테니 독토르 송은 진료만 해주시면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협회에 찾아와 치료받고 싶다고 성화를 부려서 힘드네요”

내원환자가 많아 오랜 대기시간 끝에 치료를 받으시게 되어, 과연 바쁘는데 그런 일을 해줄까란 의구심과 어쩔 수 없는 부탁이라 그런지 미안함이 말씀에 섞여있었다.

그런데 나에게 이것은 매우 반가운 제의였다.

“네? 그럼요! 저도 준비하던 일입니다.”

흔쾌한 응답에 박 회장님이 오히려 놀란 눈치였다.

그렇게 박 회장님과 의기투합해서 진료소를 만들기로 했다. 진료소가 들어설 장소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한국문화예술의 집으로 결정되었다. 한국문화예술의 집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들이 주축이 되어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으로 만든 대규모 공연장과 전시장을 갖춘 문화센터 성격의 공간이다.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시 양국 두 정상이 직접 개관식에 참여해 축사를 했을 만큼 양국 우호의 의미가 큰 장소이다. 진료소를 만들기로 결정했으니 진료소 이름을 정해야 했다. 진료소 이름에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첫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둘째, 진료소가 추구하는 목표나 성격을 나타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어떠한 의료 진료를 제공할지 표시하기로 했다. 김 씨 아저씨의 방문을 떠올리며 ‘한민족’이라는 말을 꼭 넣고 싶었다. 진료소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고려인 동포 어르신들일 테지만 우리 진료소는 한민족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이고 싶었다.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인들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탈북민도, 잠시 부모님을 방문하러 온 유럽 어느 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고려인 후손들도 나는 다 포용하고 싶었다. 그렇게 진료소의 주요 방문자를 한민족으로 정하고 나서 우리 진료소의 성격과 목표 같은 것을 이름에 넣고 싶었다. 거창한 정치적 구호인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말은 애초에 이 진료소에 쓰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이 진료소는 아주 작은 진료소일 뿐이고, 어느 정치적인 단체의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어르신들이 나를 보고 느끼시는 마음이나, 내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느꼈던 마음이 결국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분들이 나를 바라보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나 역시 고려인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지만 우리는 결국 한마음이라는 생각으로 진료소 이름에 한마음을 넣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의학 진료를 하니 한의학을 꼭 넣을 필요가 있었다. 고려인 어르신들에게 한의학은 단순한 의학이 아니고 한민족을 상징하는 의학이다.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약 18만 명의 한인들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할 때도 한의학은 항상 그분들과 함께 했으며, 힘든 정착 과정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

할도 했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의학을 공부하는 고려인 의사들도 많았고,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침 치료 잘하기로 유명한 의사들은 대부분 고려인과 그 후손들이다. 이렇게 ‘한민족 한마음 한의학 진료소’란 긴 이름을 짓고 진료소를 준비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4월 3일, 한민족 한마음 한의학 진료소를 열게 되었다. 처음 문을 열 때,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문 앞에 진을 치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반가운 얼굴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계셨지만 우리는 모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나눴다. 처음 진료를 시작하면서 통역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말로 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놀라웠다. 나도 오랜 시간 내가 생각했던 봉사활동을 기다려왔지만, 이분들도 긴 시간 동안 나를 기다려 왔음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진료를 하다 보니 진료소가 대공연장 바로 옆이라서 대공연장의 소리가 벽을 통해 들려왔다. 하지만 시끄럽다기보다는 정겨운 상황이었다. 다름 아닌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었다. 한국문화예술의 집은 고려인 동포들이 그리운 한국 문화를 만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춤, 노래, 연극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체적인 전통을 가지게 된 고려인들의 춤과 노래, 연극 연습이 항시 있다. 자신의 문화를 보존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은 나를 만나러 오신 김씨 아저씨의 마음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한민족 한마음 한의학 진료소가 한국문화예술의 집에 생기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것도 대공연장 바로 옆에 말이다.

합창단원으로 활동하시는 임 스베타 할머니, 연극 극단 감독이신 허가이 세르게이 할아버지도 토요일에는 나를 만나러 오신다. 누워서 침 치료를 받으시다가 노래도 한 소절씩 하시는, 흥이 충만한 스베타 할머니는 자기 마을 ‘빨리파젤’ 자랑을 하셨다.

“선생님, 내 빨리파젤에서 왔소. 빨리파젤 가봤소?”

“잘 알죠. 제가 전에 거기서 봉사활동하곤 했어요”

14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근무할 때 고려인 마을인 뿔리따젤 보건소에서 봉사 활동했던 게 새록새록 생각이 났다. 한국에서 온 같은 동네 사람을 만난 것 마냥 반가웠다.

뿔리따젤은 구 소련 시기에 가장 생산성이 좋은 집단농장으로 뽑혀, 구 소련을 방문하는 외국 귀빈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었을 만큼 유명하고 고려인들에게 의미 깊은 곳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

할머니는 ‘뿔리따젤’ 마을 이름이 ‘도스틀릭’이라는 우즈베크식 이름이었다가 최근에 ‘황만금’으로 바뀌었다고 알려주셨다. ‘황만금’은 뿔리따젤의 지도자였던 분의 이름이다. 그는 막대한 생산성 증대 업적을 인정받아 1957년에 소련 사회주의 노동영웅 훈장을 받은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마을 이름을 한민족의 한 사람 이름으로 바꿔주었다는 이야기에 할머니와 같이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치며 같이 기뻐했다. 한민족이라면 같이 기뻐해야 할 자랑스럽고 가슴 뭉클한 사건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순번으로 접수된 할머니를 모시고 진료를 시작하는데 할머니가 불쑥 이야기를 꺼내셨다.

“나는 중국에서 왔소. 내가 5살 때. 그래서 내 이름은 러시아 식이 아니요.”

“아, 그래서 이름이 한자식 이름이네요. 중국 어디에서 오셨어요?”

“지시라고 하얼빈에서 더 가야 있지. 우리가 8남매인데, 어릴 때 아버지가 다 데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왔지.”

이제 정말 진료소에 한민족이 다 모이고 있다.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디에 살든, 어느 언어를 쓰던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곳에서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고 삶의 큰 바탕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안정감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진료를 끝마치고 인사를 나누시려는 어르신들께 내가 먼저 고개숙여 “아슴차이요”라고 말했다.

다들 깜짝 놀라시며

“선생님. 고려 말도 알고 있소?”

“당연히 알죠. ‘고맙습니다’잖아요.”

고맙습니다는 뜻의 이 말은 고려 말이지만, 함경도 방언이면서 전라도 방언이기에 결국엔 한국말이다. 그리고 한국인인 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고 계신 고려인 어르신들과 주고받는 말이기에 이제는 한민족의 말일 것이다.

이번 주에도 “안녕하세요”로 활기차게 시작해서,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주며 어르신들과 “아슴차이요”로 작별 인사를 나눴다. 다음 주에도 우리는 다시 만나 한민족 한 마음을 확인할 것이다.



우주에서 보낸 한철¹⁾



유재원 [중국]

칭다오 류팅공항에 내리자 우주복 속에 표정을 감춘 우주인들이 나를 맞는다. 마치 국제적, 아니 우주적 요주의 위험인물이라도 된 듯 삼엄한 감시 속에서 정해진 경로를 따라 걷자니, 낯선 시공간으로 이동하는 묘한 느낌이다. 중국어를 사용하는 우주인들은 이상 생물체를 대하듯 사뭇 진지하게 나에게 핵산 검사를 시행하고, 그 샘플과 함께 분석을 위해 어딘가로 보낼 신선한 피를 넉넉히 뽑아낸다. 조금 전까지 나의 일부였던 붉은 액체가 작은 병에 담겨 우주인의 손놀림에 바코드를 두르고는 멀어져간다. 저들이 무언가를 내 몸에 주입하는 것보다는 내 것을 조금 내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공항 건물을 빠져나오자, 바깥 공기를 느낄 여유도 없이 대기 중이던 버스에 오르라 한다. 10년을 넘게 살았던 이곳 칭다오에 멀쩡히 살던 집을 두고도, 이 순간 나는 오늘부터 14일간 목을 숙소는커녕 격리 지역조차 모른 채 버스에 오른다. 지정된 여러 격리 장소 중 랜덤 배치. 이것이 목적지에 대한 정보의 전부이다. 더 자세히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거니와, 나름 수고하는 우주인들의 심기를 건드릴까 싶어 굳이 묻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 방역을 위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한 저 복장을 나는 우주복이라 부른다. 그것은 이 세계와의 철저한 차단과 차이에의 선언이고,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특별한 공간의 상징이 아닌가. 그렇게 내게는 방송이나 사진을 통해 우주복이 먼저 있었고, 전혀 달갑지 않게도 이제 직

1) 감히 랭보의 글귀를 빌어 흠집을 내게 되었음에 해량 구합니다.

접 우주인들을 마주하고 있다. 그가 누구이든 우주복 속에 들어가면 우주인이 된다. 나는 이제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는 걸까. 하지만 정작 코로나로 인해 인생의 경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아들이다. 신장 50cm, 체중 2.75kg의 조그마한 아기로 태어나 어느새 중3의 나이가 되고, 아빠의 키를 훌쩍 넘어버린 아들. 불과 한 달 정도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아들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올 줄 알았건만, 지금 나는 아들을 서울에 남겨 둔 채 혼자 이곳에 와 있다.

중국에서의 첫 도시 장쑤성 난통, 한국에서 준비해 온 테스트기를 통해 내 몸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이었다. 덕분에 아들의 태명은 ‘광복’이가 되었다. 당연히 한국에 가서 출산할 것으로 생각하는 남편에게 나는 현지에서 출산하겠다고 간단하게 잘라 말했다. 당신이, 아빠가 해야 할 몫을 서울의 친정 식구들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 애 낳는 데 최신 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출산의 과정에 아빠도 함께해야 한다는 그럴싸한 이유는, 어쩌면 나를 이 낯선 땅으로 ‘유배’시킨 남편에게 부리는 심술이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중국에 들어온 지 3개월쯤 된 나는 중국어를 전혀 못 했고, 간단한 장보기조차도 남편의 동행이 필요했다. 예정일은 2006년 4월 초, 3월 초에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오셨다. 난통 시내의 괜찮다는 병원을 찾아 집에서 3, 40분을 택시로 오가며 다니던 병원 담당 의사와의 갈등이 깊어 가던 때였다. 이미 한국에서 자연분만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절, 매번 문제가 없던 담당 의사는 예정일을 두 달쯤 앞둔 때부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술을 종용했고, 그 이유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알아본 결과 나는 자연분만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다. 의사도 나도 서로 다른 외길을 고집했고, 그렇게 의사는 내게 조력자가 아닌 적장이 되어 있었다.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양수가 적다며 자연분만을 하려면 입원해서 조절해야 한다가에, 한국에서는 이런 이유로 입원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악한 병원 시설에 일주일 정도 입원하라는 말을 곱게 따랐다. 놀라게도 입원 중 목격한 것은 그곳에서 태어나는 아기 열 명 중 아홉이 제왕 절개 수술로 태어난다는 것이었다. 나머지 극소수의 자연분만은 수술 예정일 이전에 진통이 와서 갑작스레 조기

출산하는 경우였다. 이때부터 나는 의사를 적으로 간주하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시작했다. 아니, 나 혼자서는 아니었다. 광복아,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구나. 이제 엄마랑 광복이랑 둘이 해내야 하는 거야. 자신 있지? 친정엄마가 오시기 전, 남편이 출근하고 필요 없이 넓은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면, 거의 종일 뜨개질을 하며 광복이에게 꽤 많은 이야기를 하곤 했다. 남편과 나는 대화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광복이와 나누었기에, 광복이는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한다고 믿었다. 출산을 위한 운동으로 소통할 수 없는 거리를 홀로 걸으며 수없이 말했다. 광복아, 엄마는 광복이가 세상에 나오는 길에 그들이 칼을 들이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런데 광복이도 도와줘야 해. 조금 힘들지도 몰라. 그때만 해도 33살의 첫 출산은 노산이었다. 더구나 예정일보다 2주나 늦어지면서 의사는 거의 협박에 가깝게 겁을 주었고, 그것은 오히려 나의 오기를 발동시키면서 통역하는 아가씨가 난감해질 정도로 격하게 맞서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여러 차례 병원에서 내미는 각서에 사인해야 했다. 다시 생각하면 미안할 만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해하는 남편과 친정엄마는 뒷전이였다. 오히려, 가서 산파 한 명 구해 봐, 나 집에서 애 낳을 거야, 또는, 다 돈 때문이잖아. 의사한테 돈 좀 갖다줘 봐, 라며 남편에게 생떼를 쓰곤 했다. 누구에게 뒷돈을 쥐여주고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간 그날도 의사는 진통은 진통대로 다 겪고도 결국은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어깃장을 놓았다. 무시하고, 다시 각서에 사인하고,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 남편에게 다시 다짐을 받았다. 내가 직접 당신 붙들고 수술하겠다 하기 전에는 수술 동의서에 절대 사인하지 마. 다행스럽게도 분만실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전쟁터 같은 병원에 비밀스럽게 작은 천상의 공간이 숨겨져 있었고 그곳에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친절하고 온화했으며, 양수가 좀 적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미소 띤 얼굴로 가볍게 말했다. 그간의 담당 의사가 아이를 직접 받지 않는 단지 영업하는 의사였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었다. 2006년 4월 25일, 진통으로 병원에 도착한 지 12시간, 분만대에 오른 지 1시간 만에 광복이는 엄마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세상으로 들어오는 데 너끈히 성공했다. 비록 살집 없는 연약한 체구였지만 건강에 이상은 없었다. 장하다, 광복아,

아니, 아들! 중국은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불법이었기에 그간 내 안에 있던 광복이가 아들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독특한 것은, 병실로 이동하는 침대에 오르자 이불 위 엄마의 다리 사이에 강보에 싸인 아들을 올려 두고 그렇게 함께 이동하게 하는 점이었다. 안고 얼굴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다리에 느껴지는 약간의 묵직함과 연약한 꼬물거림, 그리고 그 작은 온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벽찬 감동이었다.

블랙홀이다. 버스는 그나마 익숙했던 공항 주변을 벗어나고, 도시를 벗어나고, 점점 낯선 곳으로 들어간다. 비포장도로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낡은 교외 외곽 도로에 키 큰 가로수가 길고 촘촘하게 끝없이 늘어서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관광 중이라면 근사하다고 느껴졌지도 모를 풍경이, 지금은 나를 삼키고 또 삼키며, 너는 저항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호텔을 상상하며 4성급일까, 5성급으로 배치되기도 한다면데, 하는 은근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도착한 곳에는 ‘청소년 축구 훈련원’이라는 명패가 아주 크게 걸려 있다. 올 것이 왔구나. 함께 온 같은 대학 소속의 동료인 황 선생님도 압담한 표정이다. 자국민은 이곳에 내려주고 외국인은 다른 호텔로 이동시킬지도 몰라. 실낱같은 기대는 매몰차게 된서리를 맞고,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인원 전체가 예외 없이 이제 이곳에서 2주간의 격리에 들어가는 상황. 건물 앞에서 지정된 플랫폼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원 정보 입력을 마치는 순서대로 방을 배정받고 건물로 들어간다. 몹쓸 바이러스 덩어리라도 만난 듯 우주인이나의 짐과 몸에 소독액을 뿌려댄다. 우주인들이 감시하는 ‘수용소’에서 내게 배치된 방은 905호. 9층에 오르자 커다란 QR 코드가 중국의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9층에 격리되는 사람들을 하나의 단톡방으로 묶는다. 905호에 들어서자마자 wifi부터 확인한다. 신호가 없다. 아직 어수선한 복도에 다시 나와 우주인과 소통을 시도한다. 나와 옆방의 황 선생님은 산둥S대학교의 교수이며, 우리는 격리 중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화상 수업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다급하게, 또한 최대한 힘을 실어 말한다. 무색하게도, 모든 요구 사항은 단톡방에 올리라는 간단한 답. 단체, 이것이 공산당 통치의 비법 중 하나인가 보다. 단체 속에서 개인은 쉽게 지워지는 듯

하다. 방으로 들어와 메시지를 올리고는 방을 둘러본다. 온통 하얗다. 벽도, 타일 바닥도, 침대의 이불도. 음, 화이트홀이군. 때가 되면 옷돈을 주며 더 머물겠다 해도 나를 토해낼 것이다. 킹사이즈 침대와 그만 한 침대 하나를 더 놓아도 넉넉하게 남을 넓은 공간, 중국의 널찍한 호텔 방 중에서도 이 정도로 큰 방은 본 적이 없다. 단체를 위한 숙박 시설인 탓이리라. 커튼이 드리워진 전면 유리 너머로 예상치 못했던 베란다가 있다. 커튼을 열고 역시나 널찍한 베란다로 나서니 시원스레 천정까지 닿아 있는 유리창 밖으로 낮은 공동 주택 단지가 반듯반듯하게 가꾸어 놓은 논이나 밭처럼 펼쳐져 있다. 도로변으로는 5층 정도의 신식 연립주택 단지가, 그 너머로는 1층짜리 중국의 구식 공동 주택 단지가, 희뿌연 대기가 감추어 버린 지평선을 배경으로 잘 '심어져' 있다. 근처에서 이곳이 가장 높은 건물인 듯싶다. 그리 근사한 풍경은 아니지만, 창밖으로 시야를 막는 건물이 없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2주간, 단 하나의 창으로 단 하나의 풍경만을 내다볼 수 있다. 2주, 저 하나의 풍경을 나는 얼마나 읽어낼 수 있을까? 이 창은 해가 뜨는 쪽일까, 해가 지는 쪽일까? 아직 해질 시간은 아닌데 뿌옇고 탁한 공기가 그림자들도 지우고, 먼 풍경도 지우고, 해도 감춘 것 같다. 매년 그랬듯이 작년, 20년도에도 겨울 방학을 맞아 3주 정도의 일정으로 왕복 비행기표를 끊고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향했다. 2020년 1월 17일 한국 입국, 그 직후 코로나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서 1년하고도 두 달을 우리집 없는 고향에서 떠돌다가 이제 타국의 우리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의 어느 지점에서 또 다른 어딘가로 소환되어 격리되어 있다. 이것은... 독특한 안정감. 충분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으나, 이 방만큼은 현재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고, 적어도 이 기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아주 많이 오랜만이거나, 혹은 처음인, 완벽한 '머물기'이다. 이것이 구속인지 자유인지 헷갈린다. 하지만 안정이라고 하기엔 아직 너무 소란스럽다. 궁금해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답하고, 그리고 9층 단독방 알림이 계속해서 울려댄다. 관리 측의 각종 통지문이 올라오고, 방마다 자신의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 요구 사항들을 올리고, 기타 질문과 대답 등등이 끊이지 않는다. 중요한 통지를 놓쳐서는 안 되기에 알림을 무시해 버릴 수가 없다. 어느새 나와 상관없던 그들과

‘우리’가 된다. 우리가 탄 비행기가 한국발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 단톡방 관리 측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배려는커녕, 외국인이 있든 없든 전혀 관심도 없는 듯하다. 하긴 의외로 중국 국적이면서도 중국말을 거의 못 하는 교포들도 몇몇 눈에 띈다. 우는 아기 젖 주는 질서 속에서 언어가 안 되면 울기조차 못하는 소리 잃은 아기가 된다.

병원에서 이번에는 아들의 황달을 문제 삼으며 아이는 입원시키고 나만 퇴원하러 한다. 7형제 중 다섯째인 나는 형제 중 가장 늦게 출산을 경험하는 터라, 그간 조카들의 황달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었다. 기억을 더듬으며 아들의 황달은 입원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4월 말, 난방 시설도 없는 난통의 병원 실내는 습하고 찬 기운이 가득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모유 수유였다. 아들, 힘들어도 엄마 젖을 빨아야 해. 좀 더 힘을 내 봐. 생후 3, 4일이 지나도록 아들은 힘겨운 듯 젖을 제대로 빨지도 못했고, 그래서 또한 아직 젖이 돌지도 않는 상황이었다. 이 시점에 엄마와 떨어져 병원의 우유병에 적응한다면, 아들은 다시 엄마 젖을 빨려고 하지 않을 것이 뻔했고, 모유 수유는 실패할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는 와중에 중국 분유를 먹일 수는 없었다. 한국이나 다른 외국 분유를 조달한다 해도 탐탁지 않았다. 무조건 함께 퇴원하겠다고 우겼다. 또다시 각서에 사인하고, 결국 아이와 함께 퇴원했다. 다시는 이 병원 근처를 쳐다도 보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다행히 아들은 집에 온 후 별 이상 없이 황달을 가볍게 넘겼고, 엄마 젖에 적응하면서 젖도 적당히 돌기 시작했다. 젖을 못 빠는 동안 우유병을 절대 물리지 않는 독한 딸 때문에 손가락으로 떠주는 보리차만으로 버텨야 하는 갓난쟁이를 보며 안타깝게 마음 졸이시던 엄마. 젖몸살로 피고름이 맺힌 젖꼭지를 두려움에 떨며 아이에게 물리는 나를 보며 안쓰러워하시던 엄마. 물을 끓여 뜨거운 수건으로 정성껏 찜질해주는 엄마에게, 그래도 이렇게 아픈 게 말도 못 하는 아들이 아니고 나서서 다행이라고 했더니, 고집쟁이 막내딸이 엄마가 되긴 됐나 보다. 하신다. 출산이 늦어져 산후조리 한 달 반 만에 엄마는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영상 통화는커녕 스마트폰도, 카톡도 없던 시절, 이 낯선 땅에 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갓난아이와 단둘이 남겨진 듯했다. 남편은 남편대로 한국인 상사와 중국인 직원들 사이에서 감당하기 벅찰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산후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다. 엄마와 언니들, 가족, 친구들이 못 견디게 그리웠다.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의 불안을 감지했는지 점점 예민해져서는 곤히 자다가도 비닐봉지의 바스락 소리나 상수도 물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결국 생후 석 달이 채 안 된 아들을 안고 남편을 뒤로 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때부터 양쪽에 집을 두고 두 달 간격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아들은 비교적 건강하고 밝게 무럭무럭 성장해갔다. 중국은 유난히 어린 아이들에게 관대했다. 공항에서는 아이를 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줄을 서게 하지 않고 우선으로 통과시켰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특혜가 없었다. 더운 여름날임에도 아이에게 양말을 안 신기면 어떡하냐는 등, 집을 나서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게 손짓 발짓 해가며 나보다 더 아이를 걱정하는 듯한 중국 어르신들을 쉽게 만나곤 했다. 제법 재잘재잘 말을 하기 시작하던 어느 날, 한국 TV에서 마침 중국어가 나오는 것을 보며 아들이 물었다. 여기는 한국인데 왜 중국말을 해요? 그 나이에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분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이곳은 한국이지만 중국 사람은 중국말을 한다고 말했더니 불쑥, 그럼 나쁜 사람은 무슨 말을 해요? 묻는 아들. 글썸..., 라는 내게 간단하게 답한다. "나쁜 사람은 나쁜 말을 하죠!" 어른은 종종 아이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허난성 낙양을 거쳐 중국에서의 세 번째 도시인 산둥성 칭다오에 이르러, 아들이 만 세 돌을 넘기고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자, 우리는 한국과 중국 중 어디에서 유치원을 보낼지 결정해야 했다. 그간 막연히 곧 다시 한국으로 가겠다면 남편은 본격적으로 중국에서의 정착을 결심했고, 그렇게 한국 집을 정리해서 국제이사를 하면서부터, 한국은 비록 가족들은 있으나 더는 '우리집'은 없는 곳이 되었다.

우주로 공간 이동 중 식음료 서비스 일체 불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비행기에 오르면서부터 물도 한 모금 구할 수가 없는 여정이 될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평소처럼 아침을 거르고 나왔다. 12시경 인천공항까지 배웅해준 언니들이 내미는 햄버거와 음료를 안 먹었더라면 격리되기도 전에 저혈당 쇼크가 올 뻔했다. 방 안에는 550mL 생수가 상자째로 비치되어 있다. 오아시스에 갇힌 기분이다. 목을 축이고 둘러보니 이 건물은 지은 지 몇 년 안 되었거나, 사용을 얼마 하지 않은 것 같다. 새집

냄새는 없었지만, 방과 가구는 물론 전자제품 등등이 사용 흔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새것에 가깝다. 더구나 중국의 훈련원이라는 곳에 바닥 난방이 들어오다니, 놀라운 일이다. 인터넷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에 관리자 중 하나가 친구 신청을 하더니, 개인톡으로 곧 공유기를 보내주겠다 한다. 개인톡? 웹 특별대우지? 아하, 공유기는 우는 아이에게만 주는 짓이었군! 옆방의 황 선생님 공유기까지 해결하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인다.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정규 시간표대로 수업해야 한다, 오늘 이동하느라 하지 못한 수업의 보충까지 포함해서. 위치를 찍어보니 이곳은 교주, 황다오구에 있는 우리집에서 북서쪽으로 46.2km 떨어진 곳이다. 이름은 많이 들었으나 처음 와 본다. 칭다오 격리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격리 시설 중 이곳 교주까지는 그래도 시설이 괜찮은 편이고, 더 외곽으로 나가면 훨씬 열악한 환경이라고 한다. 푹푹, 노크 소리. 우주인이 문 앞에 놓고 간 첫 식사는 예상보다 깔끔하고 푸짐한 중국식 백반 도시락이다. 꼭꼭 눌러 담은 조밥에, 만터우(馒头)와 중국식 만두가 하나씩, 반찬으로는 갈치구이, 셀러리감자볶음, 버섯닭조림, 토마토계란볶음, 그리고 별도로 흑미죽 한 그릇과 사과 하나, 나로서는 반도 채 다 먹지 못할 법한 양이다. 맛도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식사를 하는데, 도저히 못 먹겠다며 단톡방에서 몇몇이 불평을 한다. 중국에서 살아본 경험으로 봤을 때, 도시락이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인데…. 저들은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 밤이 되어서야 아들이 사촌형과 함께 다니기 위해 희망하던 중학교에 3학년으로 무사히 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확인하게 되었다. 어제 아침, 한국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어렵게 준비한 서류를 접수하고 아들에게 결과를 받으라고 당부한 채 출국한 터였다. 감사하게도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아, 이제 그 독특한 안정감을 좀 누려도 될 것 같다. 난생처음 격리라는 걸 경험하며, 50을 앞둔 나이에 또 새로운 고통과 새로운 기쁨이 있다고 새삼 나 자신을 환기한다.

중국에서의 정착을 결심한 후에도 아들은 유치원부터 이동이 많았다. 세 살, 먼저 황다오구 내에 있는 한국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 3, 4일 낯설어하다가 금방 적응하는가 싶더니 1년쯤 지나자 유치원에 가기 싫어했다. 이유를 물으니, “친구들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해요.” 이 나이 또래의 자녀를 둔 이곳의 한국 아빠들은 이

동이 잦았다. 또는 타지에서 육아가 힘들어 기러기 생활을 택하며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는 엄마들도 있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두 달씩 한국을 다녀오거나 하는 등등의 이유로 그나마도 인원이 많지 않은 한국 유치원 아이 중에 꾸준히 머물러 있는 아이들은 몇 안 되었다. 정을 붙일 만하면 ‘없어지는’ 친구들, 그리고 아파트의 집 한 채를 빌려 운영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도 서너 살을 한 반으로 묶어 이미 배운 과정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한국 유치원에 아이는 이제 싫증이 난 것이다. 네 살 여름이 끝날 무렵, 중국 유치원 구경을 해보기로 했다. 아파트에 바로 이웃해 있던 비교적 시설을 잘 갖춘 유치원에 아들과 함께 갔다. 유치원을 둘러본 아들은, 엄마, 이 유치원은 엄청나게 좋은 유치원이에요. 저 오늘부터 다니면 안 돼요? 하며 좋아했다. 아이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때부터 아들은 중국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던 거의 모든 엄마는 아이를 5살 여름까지 한국 유치원에 보내고, 중국 학교 적응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마지막 1년만 중국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었다. 5살도 안 된 아이를 중국 유치원에 보내는 나는, 어느새 주변 한국 엄마들에게 아이를 소풍도 안되는 곳에 보내 힘들게 하는 가혹한 엄마가 되어 버렸다. 사실 아들은 네 돌이 될 무렵부터 중국 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장에 보낸 것 외에 달리 중국어를 접하거나 배운 적이 없어서 거의 중국어를 하지 못했다. 하루는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유치원 선생님 말 못 알아들어서 힘들지 않니? 아들은 생각할 것도 없이 대답했다. 저 못 알아듣는 거 없어요! 다 알아들어요!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아들은 선생님이 하는 말에 자신의 상상을 더해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섯 살이 되면서, 그간 극구 반대했던 남편이 아들과 나의 호주행에 동의했다. 호주 멜버른에는 일찍부터 셋째 언니가 이민을 가 있었고, 우리 형제의 2세들은 고교 졸업 이전에 1, 2년씩 호주로 유학을 다녀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 우리의 경우 영어는 둘째 문제였다. 아들을 중국 현지 학교에 입학시키기로 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아들이 한국 외에, 중국을 다른 세계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그 사상까지 흡수해 중국 아이가 되어버리거나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한국의 정서나 문화를 짧은 기간에 온전히 습득하게 할 수 없는 대신, 중국 문화나 교육도 다양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경험적 배경을 깔아주고 싶었다. 해서 입학 전에 반년만 호주 교육을 경험하게 하자고 설득하던 끝에 다섯 살이 마지막 기회라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남편도 마침내 동의한 것이다. 2011년 3월, 아들과 나는 하늘 파랗고 녹색 우거진 멜버른에 도착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하늘만큼 환경만큼 맑고 푸르지 못했다. 늘 그래왔듯 여러 곳을 함께 돌아보며 아들에게 유치원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몇 곳을 싫다던 아들이 선택한 유치원의 담당자는 우리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이유를 물으니 세 가지를 말했다. 먼저 아이 비자가 여행 비자라는 것, 그리고 원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예방 접종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눌한 영어로 여행 비자 규정에 의하면 기간 동안 아이의 나이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당연히 정부 지원금 적용 이전의 전액을 지불할 것이며, 예방 접종 기록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했으나, 우리 아이가 들어오면 그만큼 현지 아이가 들어올 수 없게 된다며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했다. 말로만 듣던 인종 차별이었다. 부당한 것이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원하는 곳에 다닐 수 있기를 바랐다. 그 길로 언니 집으로 돌아와 밤새 단어와 문법을 찾아가며 이메일 편지를 썼다. 담당자가 제시한 문제와 우리의 답을 세세하게 적고, 모두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며, 아이가 정당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는 편지였다. 그렇게 작성한 이메일을 낮에 만났던 담당자와 유치원 원장, 그리고 관할 구역 정부 행정관리국 등 세 곳에 동시에 발송했다. 그리고는 행정관리국에 찾아가 관련 책임자에게 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책임자는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것 같았다. 최대한 돕겠다고, 그런데 사설인 그 유치원에서 계속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걱정스러워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무력감과 피곤함에 지쳐 길고 길게만 느껴지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등원을 허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제야 한 개인의 인격 문제를 일군, 혹은 그 나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여 해석했던 건 아니었나 싶었다. 그 후 아들이 그곳에 다니는 동안 다시 그런 차별을 느낀 적은 없었다. 아이를 직접 대할 때만큼은 감사하게도 모두가 천

사였고 훌륭한 교사였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잘 적응하고 밝게 생활하는 아들이 대견하고 고마웠다. 아들의 일정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나는 한국의 S대학교 평생교육원 온라인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렇게 호주에 있는 6개월 동안, 공정하면서도 개성을 살려주는 선진적인 교육을 실감하면서 아이뿐만 아니라 나도 얻은 게 많았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 적응한 탓인지, 단 한 번 빠져저리게 느꼈던 차별 대우의 후유증인지, 호주는 여행 정도면 충분하겠고 살기에는 중국이 편하다고 생각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듯 한국을 들러 칭다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격리 2일째, 예상대로 한국을 떠나오기 전보다 한결 평온해졌다. 이제 좀 방 안이 눈에 익는다. 친하게 지내자, 나에게 이곳이 난데없는 화이트홀이듯 너희들에게도 나는 이방인이고, 혹은 원치 않는 불청객일지 모르겠지만, 우린 2주간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거든. 어쩌면 이곳이 그리워질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친다. 여긴 호텔이 아닌데..., 중국서 외국인인 외국인 투숙 허가를 받은 호텔에서만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은 아마도 일부러 다시 찾아와도 나를 받아줄 수 없을 것이다.

5일째, 카톡이 안된다. 첫날 잠깐 되더니 이후 계속 들어오는 메시지를 볼 수는 있는데 보낼 수 없고, 사진이나 음성, 파일 등은 받는 것도 안된다. 그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없고 단지 대화를 읽을 수만 있는 상태, 저세상으로 간 이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이미 충분히 죽음을 연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식하든 못하든 순간순간 속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 두려워할 것은 아니리라. 아무래도 이 방에서는 뜨는 해도, 지는 해도 볼 수 없는 것 같다. 주택 단지 지붕에 늘어선 태양열 집열판이 모두 나를 향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밤에 달도 별도 볼 수 없다니... 이곳을 나가기 전에 한 번도 못 보는 걸까?

7일째, 단체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처음 들어올 때의 날카롭고 예민하고 또한 경계하던 냉기와 긴장이 사뭇 부드러워졌다. 요구사항에 응답을 받으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인정이 오간다. 개인톡이 가능한 직원에게 이곳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낸다. 이번 우리 비행기 일행은 85명으로 비교적 적은 인원이라고 한다. 관리 직원은 두 부류로, 자신처럼 훈련원 소속 직원이 7~8명, 정부 소속 직원

이 10명 정도란다. 단톡방에서 응답하는 이들은 방역 구역 밖에 있다고 하니, 우리에게 물건 등을 전달하는 우주인들은 그들의 지시만 따를 뿐 우리와 직접 소통할 수 없고, 소통해 봐야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단톡방을 통해 통지 형식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이곳에서 지켜야 하는 매일매일의... 예를 들면 꼬리물기(중국어接龙) 형식으로 하루 두 번 체온을 재서 올리고, 다음 날 먹을 끼니별 도시락 숫자를 올리고,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방의 비품 등등. 핸드폰 조작을 못 해서 이들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르지 못하는 이들이 여럿 있다. 그들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린 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저런 것을 습득하고 학습하고 성인이 되면 독립이 가능하게 된다. 교육의 목표는 '독립'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다시 홀로 서지 못하는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독립을 위해 그 많은, 나와 남의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결국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어린 아이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추하게 마냥 남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면, 더구나 그것이 자연의 순리라면, 이제는 독립을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걸까? 오랜만에 순간순간을 느끼고 붙잡으려는 나날을 보낸다. 코로나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발생했는지도 모른다고 상상해본다. 다른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나를 위해, 강제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야 했기에. 그것은 사실 나뿐 아닌, 우리 인류를 향한 메시지이고, 우리는 그것을 해독하고 인정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다. 맑은 편 라인에 묵는 사람의 위챗 모멘트(일종의 카카오토토리)에 올린 사진을 보며, 그쪽 풍경엔 물도 있고, 푸른 잔디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거기엔 일출과 일몰도 있으리라. 내게 그 풍경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 바라볼 때가 아니라는 것 같다. 아름답지 않은 것도 똑바로 보아야 했던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이 못 견디게 그리운 것도 겪어보아야 했던 것이다. 잿빛 풍경 속에서 한 점 색을 잃지 않은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아직도 내겐 할 일이 많다, 못 다 한 일 또한.

한 달쯤 전 중국의 소속 대학교로부터 입국하라는 통보를 받고 비자를 신청하려던 중, 코로나로 인해 작년 11월경부터 중국의 비자 정책이 바뀌면서 취업자 본인 외

에 동반 가족 비자 발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아들이 다시 중국으로 가려면 유학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적을 두고 있던 중국 중학교는 유학 비자를 내줄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다. 지난 1년 동안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현지에서 교실 수업을 하는 시간, 아들은 서울에서 혼자 실시간 온라인 수업 중계를 들었고, 그나마도 중간, 기말 정식 시험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더는 그 상태로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나이였다. 아들은 의외로 담담하게 중국에서 전학하느니 그냥 한국 학교에 가겠다고 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단 비자 신청서는 넣어보자는 말에, 그거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엄마 혼자 가요, 저 여기서 형하고 같이 학교 다닐게요, 라는 아들. 코로나라는 거대한 운석이 아들의 삶에 충돌하면서 12년 특례를 바라보던 장기적인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 며칠 후에는 형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만약 중3으로 못 들어가면 검정고시를 보겠다고까지 하던 아들. 서둘러 국내 입학 서류를 준비했다. 방학 기간임에도 중국의 담임 선생님은 성심껏 서류 발급을 위해 애써 주었고, 다시 현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영사관 인장을 받고, 또 한국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 서류를 갖추기까지 한 달이 걸려 출국 전날에야 겨우 접수할 수 있었다. 학교만큼은 해결하고 아들의 새로운 담임 선생님도 만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나마 여러 사람의 수고로, 이제 아들도 정식으로 한국의 동갑내기들 속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이다. 처음에는 아들 인생이 잘못되기라도 하는 것 같은 충격으로 느껴지던 것이, 다시 생각하니 전화위복이 될 것도 같았다. 아들은 중국어와 영어가 유창한 편이었지만 정작 모국어의 빈 구멍이 크고 그 대책은 묘연하기만 했다. 외국어 능력은 절대 모국어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며 누구보다 절실히 체감하고 있었다. 이제 한국에서 그 빈자리를 어느 정도나마 채운다면, 그간 아들 안에 파편적으로 떠다니던 이국 언어와 사고 능력이 조각을 맞추어 가리라.

11일째, 단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자연히 각자의 위치선이 생기듯, 개인 간의 관계도 생겨난다. 얼굴도 모르는 이들 몇몇이 이런저런 계기로 워썬 친구가 된다. 단톡방에 올린 내용을 보고 내게 무엇을 가르치냐며 말을 걸어온 909호 위엔보(가명)님은

한국 남자와 결혼한 내 또래의 중국 여인이다. 남편도 자신도 각각 이혼 후 늦게 만난 사이라고 한다. 내년쯤부터 황다오구에서 살 거라고, 그러면 맥주 한잔하자 한다. 과연 만나게 될까? 인연이란 모를 일이다. 902호 김춘화(가명)님은 핸드폰 조작을 못해서 힘들어하길래 개인톡으로 몇 가지 가르쳐드린 분이다. 나이가 좀 많으신 교포 여자분인데, 서너 차례 간단한 조작법 등을 가르쳐 준 것에 무척이나 고마워하신다. 내가 교사인 걸 안 후에는 그 감동이 더욱 커진 모양이다. 이미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하셨으면서도, 띄어쓰기 한 칸 없는 빼곡한 한글로 거의 예찬에 가까운 장문의 감사 메시지를 다시 보내온다. 이곳에 격리된 이들 중에 위챗의 간단한 기능, 예를 들면 친구추가조차 못 하는 사람이 여럿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김춘화님이 간단한 조작을 배우면서 무척 감동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냥 일회성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그간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새로이 할 수 있게 된 것에 스스로 놀라운 것 이리라. 배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도 끝이 있을 텐데, 나는 언제까지 배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 너는 탐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연습할 수 없을 때가 되면, 그때는 뭘 해야 할까, 캄캄하다. 얼굴 없는 그들과 이웃이 되어간다. 새삼, 단톡방에 꼬리 물기로 보고한 다른 이들의 체온을 살펴본다. 비슷하다. 저 낯선, 아니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나와 같은 체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닭은꼴의 모래알처럼 멍쳐지지 않고 우리는 서로 스쳐 지나갈 뿐이다.

13일째, 친구 신청이 또 들어왔다. 한국에서 일한 지 17년이 되었다는 교포, 925호 박중남(가명)님. 단톡방에 한글로 의미를 알 수 없는 몇 글자를 올렸길래, 혹시 도움이 필요한가 싶어 한국어로 질문을 올렸더니 친구 신청을 한 것이다. 중국어를 쓰지 못하는 것 같아 한국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어도 한국어도 쓰지 못하는 문맹이었다니. 한국어는 겨우 읽어내는 정도라고 한다. 이 시대에 비행기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들, 특히 우리 동포 중에 아직도 문맹이 있고, 내가 대화를 섞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생각해보니 이곳에 함께 격리 중인 이들 대부분이 교포이고, 그중 글이나 핸드폰 조작이 미숙한 이들이 상당수인 것 같다. 교포들은 비자를 위해서 내키지 않아도 중국을 방문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친구 신청을 수락하자마자 음성 통화

가 걸려왔고, 박중남님은 42분 49초 동안 쉬지 않고 말을 했다. 특별히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아닌, 그저 대화에 굶주려 쏟아져 나오는 말들. 그에게서 내가 모르는 세계가 들려온다. 한국 대립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오전에만 120명을 검사했고, 내내 줄을 선 끝에 자신은 오후에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추위에 떨며 줄을 서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화장실도 허락되지 않은 채, 가격은 18만 원. 믿기 어려운 말이다. 한국에서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 병원이 있다니, 그것도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이라니. 나의 경우 경희의료원에 예약하고 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친절까지는 몰라도 정중한 대우를 받으며 검사를 받았고, 모든 절차는 실내에서 이루어졌다. 가격은 25만 원. 가격의 차이 때문일까? 한국 사람이 18만 원짜리를 받아도 그런 대우를 받았을까? 그는 위챗도 처음 써본다고 했다. 그래서 단체방에서 거의 병어리, 장님으로 지냈던 것이다. 내가 칭다오에서 알고 지내는 교포분들과는 전혀 다르다. 나는 이 세계 사람들과 어디까지 소통할 수 있을까. 결국 내가 나서 그의 말을 꿰고 만다. 그의 한국어는 종종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한국어도 중국어도 모두 어설피고, 한국에도 중국에도 그야말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 나와는 차원이 다른, 저 깊은 밀바닥의 디아스포라. 다른 대부분의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그들은 치열하게 살고 있었다. 중국에는 국적 외에 아무것도 없어 환전해온 현금만을 사용하는 박중남님은, 원래 고향은 엔벤이지만 칭다오에 머물다 비자가 해결되는 대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한다. 그래도 한국이 좋아요, 작년에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나가라고 안 해서 얼마나 고마워요, 한다. 가족들 모두 한국에 나와 있는 그의 국적은 아직도 중국이었지만 중국인들은 그를 내국인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저렇게 떠돌며 시대와 문명을 따라가지 못한 채 낯설고 어려운 여정을 겪어야만 한다니. 그 삶은 현대적 정보화 시대의 삶과 괴리가 커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저 17년 전에 얻었던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만을, 그는 간절히 바랄 뿐이다.

14일째, 자정 지난 22일 0시 55분, 켜던 노트북을 다시 켜다. 베란다에 나갔다가 반달을 보았기 때문에 일기에 몇 줄을 더해야 했다. 북서쪽 하늘에 높이 않게, 아주

예쁜 반달이 비스듬히 느긋하게 누워 있다. 그 따갑지 않은 달빛이 격리 중인 내 창에 인사를 온 것 같아 참으로 반갑다. 쉽게 보려 하지 말라고, 교주의 마지막 밤이 되어 서야 마중을 해준다. 어디에 가든, 이 모든 것들과 나는 함께인 것이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내일은 또 다른 낯선 곳에서 저 달을 보거나, 혹은 못 볼 것이다. 늘 그곳에 있음에도.

칭다오로 돌아와 다니던 유치원을 졸업하고, 아들은 무난히 중국 현지 공립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여기서 '무난히'란, 중국 아이들과 달리 한국 돈 약 35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내고 입학 허가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말이 기부금이니 학교에서 금액을 제시하고, 전액 현금으로 교장실에 가서 직접 전달해야 했다. 전년도 입학생은 이것의 반, 그 전년도는 다시 그것의 반액을 요구했었다고 한다. 당시 이미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현지 공립의 외국인 입학이 전면 불가능했기에 이렇게라도 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했다. 바로 가까이 칭다오 시내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고, 이곳 황다오구도 점차 그렇게 가는 추세였다. 사실상 아들은 이 학교의 거의 마지막 외국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입학하고 얼마 후, 친구 많이 사귀었느냐는 질문에 남자 친구 10명, 여자 친구 10명을 사귀었다면서, 중국어를 섞어 가며 불쑥 묻는다. '엄마, 근데 外国是什么国家(외국은 어떤 국가예요)? 어떤 여자가 我喜欢外国男孩(난 외국 남자에 좋아해)라고 했어요.' 한국어로 '외국'을 모르는 아이가 아니었다. 이 정도의 중국어 실력으로 중국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3학년쯤 되자, 정작 문제는 한국어였다. 3학년 어느 날의 대화, 엄마, 저 요즘 사춘기인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요즘 엄마가 잔소리하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잠깐만요, 책에 있어요, 하며 가서 why 책 시리즈 중 '사춘기와 성' 편을 가져온다. 사춘기 증상을 설명한 부분을 펴고는 이야기하다가 '성적 호기심이 높아진다'에서 아들에게 너도 그런 것 같냐고 물었다. 아들 왈, '네! 전에는 학교 성적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좋은 성적도 받고 싶고 그래요!' 한국어 교육을 위해 4살 때 해온 것이라고는 4살에 한글을 떴 후부터 꾸준히 한글 그림일기를 쓰게 한 것이 전부이다. 한국에서 국어 교재를 사와 지도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내가 직접 지도하다가는 관계만 망치겠다 싶어 놓

고 있는 상태였다. 그나마 4학년쯤부터 다른 몇 명의 한국 형, 누나들과 그룹을 만들어 논술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6학년에 올라가면서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과 다른 뭔가 불안정한 낌새가 보였다. 하루는 학교에 관해 묻다가 앞뒤가 맞지 않게 말을 바꾸는 아이를 집요하게 추궁했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설움에 복받친 울음은 아이가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왔다. 한참만에 겨우 입을 연 아이는, 얼마 전에 담임 선생님이 저는 한국 애니까 이곳 고등학교 시험도 볼 필요 없으니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선생님은 신경 쓰지 않겠다고... 아이는 다시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학기 차이로 사실상 한국이 있으면 5학년인 나이였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왕따 문제보다 나은 건지 모르겠으나, 타국에서 자라는 아들의 정신적 부담을 나는 얼마나 헤아려 주었던가. 보통 이전의 한국 엄마들은 뭐라도 들고 선생님을 먼저 찾아가곤 했었는데, 나는 학기가 끝나는 날에만 아들을 통해 작은 감사의 선물을 하곤 했다. 아들에게는 말 그대로 '미움받을 용기' 관해 이야기하고, 며칠 지나 화장품 한 세트를 들고 담임을 찾았다. 이야기를 하다 내가 대학교 교사라고 하자 태도가 바뀌는 듯했다. 중국에서는 아직 교사는 직업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이후 담임의 태도는 달라졌고, 아들은 다시 즐겁게 생활했지만, 1학기를 마친 후에 다시 불쑥 호주로 가게 되었다. 아들보다 한 살 많은 넷째언니의 둘째아들은, 한국에만 가면 붙어 다니는 아들의 단짝이었다. 호주 유학에 대해 내가 물었을 때는 싫다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촌형이 간다는 말에 자기도 가겠다고 따라나섰다. 호주 셋째언니의 아이들에 대한 열정은 놀라울 정도이다. 나라면 사실 그렇게 여러 조카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다녀가는 것을 받아주고, 더구나 내내 같은 정성으로 보살피기는 어려웠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였던 이들이 목적지'별'로 흩어져 다시 실려 간다. 황다오구로 이동하는 나와 황 선생님은 다른 2명의 여자분과 함께 황다오구 비교적 외진 곳, 대주산 아래의 4성급 호텔로 들어간다. 이제 문제의 바이러스 감염 의혹을 어느 정도 벗었는지, 마스크와 장갑 정도만 착용한 이들이 우리를 맞이한다. 다시 이것저것을 작성하고, 단독 방에 가입하고, 방으로 안내되어 격리되고 나니 저녁 시간이다. 교주에서 마지막 검

사를 받은 게 그제인데, 다시 혈청 검사와 채혈. 한국에서 받은 한 번의 검사를 포함해 여섯 번째이다. 내일 이곳을 나가도 남은 일주일 추가 격리 마지막 날 혈청 검사, 격리 해제 후 취업증 갱신을 위한 신체검사 중 채혈이 아직 더 남아 있다. 이참에 '피갈이'가 되겠다 싶다. 내겐 덜어 내어도 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가 보다. 교주 925호 박중남님이 불쑥 음성통화를 걸어온다. 자신이 들어간 곳에서의 일정에 관해 물으신다. 그분의 목적지는 공항 근처인 청양구이기에 그곳 관할 구에서 어떤 기준이나 일정을 적용하는지는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쪽에 문의하셔야 한다고 답한다. 그분과는 이미 다른 세계에, 나 또한 다시 낯선 곳에 와 있다. 한국에서 일상을 회복하시기까지 순조롭기만을 빌 뿐이다. 우주 질서에서 계획과 어긋나는 이변을 맞닥뜨리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다음날, 이상이 없으면 학교 기숙사로 이동한다 했는데,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우리 네 명 중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니 대기하라고 학교 국제교류처 담당자가 통보해온다. 호텔 쪽에 알아보니 재검사가 아니고 재분석 이란다.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5번째 통보를 받은 게 어제인데, 6번째 검사에서 문제라니. 공간 이동 중 세포들이 변이를 일으켜 분석이 안되는 모양이다. 누구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같은 차로 이동한 4명 모두 대기 상태로 하루를 더 묵는다. 밤 12시, 개인톡을 신청해 나를 친절하게 안내해주던 간호부 직원이 재분석 결과는 이상 무라고 귀뜸을 해준다. 그래도 다음 일정에 대해서는 통지를 기다려 달라면서. 다음날, 구에서 파견한 차량으로 드디어 학교로 향한다. 함께 이동하는 다른 한국 분과 대화를 해보니 자신은 집으로 간다고, 자가 관찰 기간 일주일 남았다고 한다. 관찰 기간에는 사람 많은 장소가 아니면 외출도 가능하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사는 황 선생님과과는 달리, 나는 아들의 등하교 등의 이유로 외부에 살았기 때문에 기숙사 격리는 결코 자가 격리가 아니다. 우리는 대학교 소속인 관계로 학교 관리권 내에 있어야 하고, 외출도 전면 금지인 채 다시 일주일을 격리해야 한다. 학교 담당자는 나도 집으로 가면 안 되느냐는 말에 규정에 따라 달라고 구슬리며, 대신 나를 깔끔하고 정성껏 준비해둔 기숙사 사진을 보내온 터이다. 하긴 담당자에게 무슨 죄가, 무슨 권리가 있

겠는가. 중국에서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대면하기가 매우 어렵거니와, 누가 결정권자인지조차 알 수 없는 시스템이 대부분이다. 오랜만에 들어서는 학교 교정에 봄꽃이 만발해 있다. 그리고 그 꽃들과 학생들이 이루는 풍경으로부터 차단된 공간에 다시 간다.

아들이 호주로 가면서 나 또한 자연스레 가족들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당시 남편은 중국 연길에 머물면서 그곳의 한국 회사에 출근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가 4학년이 되면서부터 이곳 대학교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아이의 비자도 아빠의 동반 비자가 아닌, 내 취업 비자의 동반 비자로 전환한 상태였다. 호주에서 아들은 엄마와 있을 때보다 한층 더 날개를 펴고 있었다. 아들에게 나는 결코 유일한 정답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렇게 1년이 훌쩍 흘러 호주에서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고 돌아왔지만, 아들은 다시 다니던 초등학교에 복학해야 했다. 1년 손해를 감수하기로 하고 떠난 유학이었다. 중학교 입학은 초등학교 때만큼 녹록지 않았다. 여러 공립 중학교에 알아봤지만, 외국 아이를 선뜻 받아주겠다는 학교도 없었고, 입학 가능한 학생들의 고유번호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 외에 따로 입학 허가를 받는 과정을 아는 곳도 없었다. 현지 교육국에 문의하니 외국인의 입학을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학교로 연락하라고 하고, 학교는 모른다고 하고…. 결국 중국 사립 학교로 방향을 돌렸다. 처음에는 구경이나 해 보자고 아들과 함께 갔는데, 공립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우수한 시설과 환경에 아들은 대번에 이곳에 다니겠다고 했다. 사실 중국 사립의 학비가 그렇게 비싼 줄 알았더라면 다른 방법을 더 모색했을지도 모른다. 순수 학비만 학기당 한국 돈 약 300만 원 수준이었고, 급식 등 제반 비용을 합하면 1년에 약 1천만 원을 들여야 했다. 하지만 이미 그곳에 마음을 둔 아들에게 다른 말을 하기도 미안했고, 게다가 이제 다시 다른 곳을 알아보기에는 너무 지친 상태였다. 지금 생각하면 아들은 운이 참 좋은 셈이다. 공립에 갔더라면 코로나로 등교를 못 하는 지난 1년 내내 아들 한 명을 위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 중계를 해주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입학한 학교는 기숙사 생활과 등하교 생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기숙사 시설도 깔끔하고 괜찮은 편이었으나 아들은 등하교를 선택했다. 중국의 중학생들은 한국의 고등학

생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고등학교가 아직 의무 교육이 아닌 데다가, 학교가 턱 없이 부족해서 약 6~70%의 학생만이 대학교 입학이 가능한 일반 고교로 입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고등학교마다 등급이 있어서 성적에 따라 해당 등급의 학교로 입학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아들은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오전 7시에 등교해서 밤 9시에 하교하게 되었다. 그나마 사립이라서 야간에 학교에서 숙제 등을 마치게 하는 것이고, 일반 공립 학생들은 6시경 집에 돌아와 밤 11시, 12시까지 엄청난 양의 숙제를 스스로 해내야 하는 게 현재까지도 일반적이다. 덕분에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중학교를 내가 담당하게 되었다. 아들 혼자 못 다녀서가 아니라, 스쿨버스나 일반 버스로 가게 하면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었다. 성장기에 이 정도의 일정이 무리가 되겠다 싶으면서도, 나는 아침마다 아이를 흔들어 깨워주는 엄마가 아니었다. 이미 호주에서부터 아들은 알람을 두고 혼자 일어나는 생활을 했고, 초등학교 때도 아침에 한 번 이상은 안 부른다는 게 나의 원칙이었다. 덕분에 지각도 종종 했지만 꺾어야 할 과정이라 여겼고 나머지는 아들의 몫이었다. 중학교 첫 학기, 교우 관계나 학업 등, 아들은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고 제법 유쾌하게 생활했고, 큰 금액은 아니라도 장학금도 받으며 학기를 마쳤으나, 막상 한국에서 오후 2~3시면 하교하고 숙제도 거의 없는 형들을 보며 많이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그리 간단히 한국에서 공부하겠다고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들의 선택은, '자유롭다'가 결코 '쉽다'의 동의어가 아님을 깨닫는 과정의 시작인 것을...

1년 2개월 15일 만의 귀가. 드디어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일상 세계에 안착한다. 다시 삶으로 떠오르기!²⁾ 1년 넘게 비워 둔 집에 1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하며 생긴 짐을 바리바리 들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격리 기간 중 친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집을 청소해 둔 터라 그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선다. 우리집이라는 공간도 공간이지만, 내가 들어온 저 문으로 언제든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24일간의 격리를 마친 내게는 감격스럽고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격리 해제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후 2주간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고 그 이후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하라고 한다. 학생들과 교실에 대한 그리움이 충분히 무르익도록 기다리라 한다.

2) 랭보, 『지옥에서 보낸 한철』, 『지옥의 밤』, 마지막 부분, 민음사

아들이 한국에서 첫 시험인 중간고사를 마친 지 일주일쯤 지난 날, 한국을 떠난 후 처음으로 아들에게서 음성통화가 걸려온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했고, 그나마도 답장이 너무 늦어 1시간 초과할 때마다 용돈에서 1000원씩 차감하겠다는 벌칙까지 정한 상태다. 음성통화는 예약을 해야 하는 수준이었는데 불쑥 통화라니. 얼른 전화를 받는다. 엄마, 저 이거 이미 여러 날 동안 생각하고 말하는 건데요, 하며 사뭇 진지하게 운을 댄다. 그래, 뭔데? 말해 봐. 저... 자취하면 안 돼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 이유를 묻는다. 공부하고 싶은데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호주에서 1년 동안 컴퓨터나 개인 휴대폰 없는 생활을 하고 돌아온 후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 프로그래머의 꿈을 갖고 틈만 나면 게임에 몰두하던 아들,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생이 되어서도 중간고사 전까지 학교 수업이 다 쉽고 모르는 것이 없다며 별도의 과외나 학원도 거부하고 설렁설렁하던 아들이다. 사실상 엄마와 떨어져 한국에서 '한국 유학'을 시작한 아들은, 비록 요리 솜씨 좋은 넷째이모 집에서 환대를 받고 있긴 해도 아직 자신의 책상 하나 없는 처지이다. 원래는, 코로나 이전인 재작년부터 서울 근교에서 직장에 다니는 아빠와 학교 근처에 집을 얻어 생활할 계산이었다. 하지만 아빠는 강북에서 부천까지 2시간의 출퇴근 거리는 무리라며 주말에만 볼 수 있다는 상황이다. 임시로 머물기로 했던 이모 집에서 계속 다녀야 하는 것이다. 집에 도둑이 들어 자신의 장난감을 훔쳐 가지나 않을까 걱정하던 시절, 사촌형과 아옹다옹할 때면 빨리 중국 집에 가자며, '이 집에 내 꺼는 하나도 없어!' 하던 아들. 내가 이제 막 끝낸 '우리집' 없는 생활을 아들은 다시 시작하고 있다. 나 또한 이 시점에서 직장을 포기하고 중국 생활을 정리해 귀국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기는 하나, 아들의 이 두 번째 독립이, 어쩌면 너무 이른 영원한 독립이 될지도 모른다. 아들의 태명은 광복절과 연관이 있을 뿐 실은 廣福의 의미였건만... 어쨌든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아들, 그야말로 사춘기가 왔는지 '성적' 호기심이 높아졌다!

특히 수난이 많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여정이 너무 길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했을 줄 알았는데, 바로 어제 만난 듯 여전한 현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칭다오를 떠나던 날에서 중간을 건너뛴 채 오늘로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 버렸다. 마

치 한바탕 꿈을 꾸다 깨어난 듯 어리둥절하다. 하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나의 여정이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모험은 생애 처음 겪는 격리 기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미 작년에 한국에 갔던 날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어쩌면 중국에 처음 오던 그때부터, 혹은 성인이 되면서부터, 아니, 이미 오래전 엄마의 몸에서 분리되어 이 세계로 들어오면서부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삶은 뿌리박기나 안착하기가 아니라, 랭보의 그것처럼 ‘떠오르기’인 듯하다. 그리고 설혹, 인터넷 등 모든 통신이 끊긴다 해도, 완전한 격리란 불가능할 것 같다.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해내고 있다면, 그 힘은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또는 그들이 보내오는, 시공을 초월하는 에너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영화를 물들이다

박상수 [중국]

나는 베이징에서 중국 영화의 후반작업을 하는 막 불혹을 넘긴 보통의 한국 남성이다. 다른 이들과 달리 나의 중국 생활은 뜻하지 않게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2005년 영화과를 졸업한 후에 바로 입사한 회사가 영화의 색감을 디지털로 보정하는 자그마한 영화 후반작업 업체였다. 당시 영화 디지털 색보정이라는 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태동기에 있었기에 영화가 산업적으로 발전한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던 첨단 분야에 속해 있었다. 한국에서 3년여간 100여 편의 한국영화에 참여하면서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감독과 같은 세계적인 감독과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일 년에 100여 편 내외의 작품만이 제작되는 시장 환경은 한국에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이 산업이 확장될수록 출혈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른 산업과 같이 나도 해외로 눈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영화인들은 꿈이 영화제 수상이거나 영화산업의 꽃 할리우드 진출이다. 영화 산업계에 있는 나로서는 당연하게도 나의 기술로 할리우드로 진출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디지털 색보정 분야 자체가 미국에서 컴퓨터 특수효과의 한 부류로 시작된 시작점 자체가 미국인 분야였다. 생각 끝에 회사를 설득하여 아시아권 분야로 눈을 돌려 보자고 했다. 2000년대 중반 아시아권에서 영화가 발달된 것으로 분류된 일본, 대만, 홍콩 등이 조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시장조사 결과 일본은 일반적인 인식

과 달리 영화가 산업적으로 발달하지 않았으며 보수적 성향 때문에 협업이 매우 힘들어 보였다. 대만과 홍콩은 중화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상당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두 국가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엔 시장규모가 한국보다 더 작았다.

대만과 홍콩 시장조사 기간 중 코트라나 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 진흥원 등의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중국 '본토' 영화가 산업적으로 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의 공장으로 분류되고 있던 신흥국 중국에서 중산층의 문화 소비인 영화가 산업화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베이징의 중관촌에 있는 메가박스에 방문하면서 그 생각은 바뀌게 되었다. 금요일 저녁 영화표는 80위안, 당시 환율로는 15000원이었고 극장은 만원이었다. 수도권에 중심가에 있는 극장임을 감안해도 당시 한국의 평균 극장표가 7000원에서 8000원, 그리고 대부분이 통신사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통해 5000~6000원임을 비교하면 세배에 가까운 차이가 있었다. 당시에 한국은 3000개 내외의 극장과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 명의 연인원이 관람하는 시장이었고 중국 극장은 5000개를 넘긴 해도 14억의 인구에 비하면 성장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보였다.

중국 진출로 가닥을 잡은 후 1년여의 구체적 시장조사에 들어갔다. 봉이 김선달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각종 세미나와 한중합작 영화인들을 통해 귀동냥을 했고 회사 및 디지털 색보정이라는 분야에 대한 홍보를 시작하였다. 중국 진출의 로드맵은 한국 제작을 위주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중국지사 설립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세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로드맵은 첫 시장조사를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산업화의 단계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중국에선 사회주의 국가에서 영화를 보는 관점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다. 바로 영화를 선전도구로 보며 문화적인 자산인 영화를 산업의 영역이 아닌 문화의 영역으로서 보전해야 한다는 관점이었다. 따라서 당시 필름이라는 매체로 촬영하던 영화가 해외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합작영화라는 허가가 필요했으며 합작영화 인가를 받더라도 해외 반출 시 편집된 필름이 아닌 촬영된 모든 필름을 반출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규정이 있었다. 필름을 편집하지 못하게 하

는 것은 그것이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가공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황당한 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빠르게 방향을 틀어 한국 문화원이나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국가지원 사업으로 필름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디지털 스캐너를 중국에 도입하여 필름을 디지털화하여 한국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것이 성공하면 중국 영화들을 한국에서 색보정 작업 후에 필름으로 다시 전환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길이 열릴 것 같았다. 문제는 작업한 필름을 어떻게 다시 중국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였다. 다행히 필름을 포함한 특수품목을 수출입하는 업체를 찾아내서 접촉을 시작하였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다. 하지만 내가 다루는 분야는 단순한 물품의 수입 수출이 아니고 영화라는 콘텐츠였고 개봉 시기가 아주 중요한 품목이었다. 만일 필름의 수입이 예상시간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영화의 개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 번의 사고가 회사의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전 세계 영화 모두 마찬가지로 영화는 창작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수정을 하기에 해외 작업의 경우 창작자의 수정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도 들었다.

장고를 거쳤다. 중간 결론은 그럴 바에는 한국에서 디지털 작업만 하고 중국에서 필름의 디지털 작업과 작업된 디지털파일을 다시 필름으로 리코딩하는 과정을 담당하지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로 사업 계획을 작성해 보았다. 관세를 제외한 투자금액은 대략 20억 내외였다. 그럼 처음부터 중국에서 지사를 설립하는 비용도 산출해 보았다. 대략 30억이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생각은 복잡해졌다. 의외로 작업을 분리해서 하는 비용과 지사 설립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하나의 작업을 두 개의 국가에서 나누어 하는 것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였다. 중국에 지사를 설립하자!

나의 첫 직장이었던 회사는 한국에선 1위 업체였지만 현금이 많은 회사도 아니었으며 경영진이 해외 진출에 대한 생각 자체가 강하지 않았다. 단순히 사업영역 확장으로 일 년에 3~4개의 중국 영화를 수주하자는 목표가 전부였다. 하지만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자고 결심한 나에게 있어서 3~4개의 중국 영화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다.

중국 출장 시마다 맺은 인맥과 부산영화제, CJ엔터테인먼트 등을 통해서 안면을 튼 중국의 감독, 제작자들을 통해 대략 첫해에 작업할 수 있는 영화를 10편 정도 모아 투자자를 찾아보기로 결정했다. 한국 회사에서는 자금력이 부족하니 중국 자체에서 투자자를 찾아보자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후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영화라는 문화콘텐츠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 자체가 49%를 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디지털 색보정의 영역을 넓혀보자고 했던 노력은 1년 여 만에 한중 합작회사 설립으로 중간결론이 났다.

생각지도 못한 전개로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나의 존재였다. 입사 2년 만에 말도 안되게 해외 진출이라는 가능성을 가져온 신입사원은 회사에서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동대표 중에 한 명만이 해외 진출에 동의하고 개인투자만이 허용되었으며 나머지 대표는 참여를 거부했다. 두 번째 문제는 언어였다. 카투사를 제대한 나는 모든 소통을 당시까지만 해도 영어로 진행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 통역이 문제가 되었다. 단시간에 중국어를 배워서 놀랍게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은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공동대표의 스물여섯 젊은이에게 내려진 의구심 짙은 지원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중국 각지에 투자자를 찾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베이징영화학교 출신의 통역도 찾아 동행하였다. 처음 투자자를 찾은 곳은 베이징이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문화의 중심은 당연히 수도였으며 중국도 마찬가지로 영화의 중심은 수도 베이징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베이징엔 화롱이라는 국영업체, 미국과 합작회사 스텐, 호주와 합작회사 사운드핌이라는 세 개의 회사가 초창기 디지털 색보정을 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 또한 2년 미만의 신생업체로 디지털 색보정이라는 분야 자체가 초창기였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었다. 기회와 한계가 명확했다.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베이징은 한계점이 더 명확해 보였다. 이미 해당 분야에 미국과 호주라는 중국 입장에서 선진국이 분명한 업체와 합작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못한 한국에서 온 업체의 합작회사 설립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 49%

의 지분 모두를 현금으로 납입하기를 원했다. 공동대표가 얘기했던 기술 지분은 인정받지 못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베이징 투자자도 기술 지분 인정부분에 들어가면 불편한 기색이었다. 베이징에서의 반응을 공동대표에게 보고한 후 동시에 10억 내외의 현금출자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의 장고 끝에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은 후 제2의 도시 상해로 출장지를 변경하였다.

상해에 대한 목표는 확고했다. 중국에서 가장 국제화된 도시이지만 영화에 있어서는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 지점을 노리기로 했다. 상해미디어그룹 산하의 상해현상소가 목표였다. 그들과의 만남과 결정은 일사천리였다. 상해 사람들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결정이 상당히 빨랐기에 첫 만남에서 투자 가능성과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로 3시간여를 토론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영화의 새로운 후반작업만을 상해에서만 진행하기에는 그들도 역량이 부족해 보였고 우리 또한 부족했기에 그 자리에서 협상은 결렬되었다. 협상과정에서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통역 과정에서 베이징과 동일한 내용의 통역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알고 보니 상해 사투리를 베이징 출신 통역이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역을 통해서 중국 각 지방 사투리는 한국과 달리 서로에게 외국어에 가깝다는 사실이었다. 이를 통해 왜 중국 영화에 중국어 자막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규정이 생긴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통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음 투자자 찾기는 한국인이 가장 많은 도시 칭다오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완다의 대규모 촬영소가 있는 황다오라는 지역이 당시에는 미개발 지역이었는데 칭다오시의 퇴역 장군이 황다오에 문화기지를 건설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퇴역 장군과의 만남을 위해 점심부터 칭다오 맥주를 비서들과 마시며 기다렸다. 상해와는 달리 또 민간인과 달리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이기에 다소 고압적이고 딱딱한 자리였다. 중국에는 관료들이 하는 관용어가 따로 있는데 역시나 제대로 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가 보기에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헐리우드를 모방한 찰리우드가 목표였던 그에게는 지역적인 사업이었던 나의 영역은 너무 미미해 보였을 것이다. 훗날 그 퇴

역 장군의 역량이었는지 시정부의 추진력이었는지도 몰라도 해당 부지는 완다를 통해 대규모 영화촬영소 및 휴양지로 개발되었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10년 가까이 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지를 제외하고는 자생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의 실패 끝에 간간이 연락하던 중국의 사운드 전문가 친구가 베이징에서 업체를 세우는 조건으로 닝보라는 지역의 은행장이 관심이 있다는 연락을 해왔다. 칭다오 투자자 또한 이 친구의 소개였기에 믿음은 가지 않았지만 집요하게 투자자의 정체를 물어본 나에게 장모라는 얘기를 들려주자 오히려 믿음이 갔다. 가족관계를 중요시하는 중국에서 투자자가 장모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해 보였다. 그와 함께 닝보로 날아갔다. 이번에는 공동대표도 함께 닝보 투자자 회의에 참석했으며 일사천리로 나의 사업계획서에 적힌 1400만 위안, 대략 25억의 절반을 넘는 720만 위안의 투자를 약속받았다. 동시에 사위인 중국 친구와 나는 부사장 자리를 약속받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 생각해 둔 회사명을 포함한 회사 설립을 위한 전반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나는 한국 회사를 퇴직하고 약혼녀를 중국으로 불러드려 2009년 2월을 기점으로 베이징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중국의 한인촌 왕징 근처이자 예술단지 798근처에 자리를 트게 된 첫 회사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투자 단계에서 한국 측 문제가 먼저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했다. 약속된 680만 위안은 100만위안의 최초 납입금 이후에 차일피일 미뤄졌고 부대표인 내가 중국측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분기가 지난 후 한국에서 중고장비를 현물 납입형태로 들어와서 모양새는 맞추었지만 중국투자자에게는 성이 차지 않았다. 중국 측은 재무 권한을 가져가는 등 실권을 장악했으나 투자 단계의 문제를 신경 쓰기에는 실질적 운영자인 나에겐 능력밖에 일이었다. 설립전에 약속되었던 영화들이 하나 둘 미뤄졌으며 결과적으로 설립 후 반년이 지난 후에야 첫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반년이 지나는 동안 좌판을 벌여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 우선 디지털 색보정이라는 분야를 각 영화제작사에 홍보하는 일과 회사 내부의 작업공정 및 인력 교육을 시작하였다. 반년의 기간 동안 준비는 충분하였으나 실제 계약에 이워진 영화는 내가 설립 전에 체결한 세네 작품뿐이었다. 하지만 반년의 기간 동안 홍보효

과로 작업에 대한 문의는 넘치고 있었다. 중국 측에서도 같은 노력으로 영화를 하나 둘 수주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공동대표는 홍보 담당을 선임하고자 했다.

두 나라 간의 협업을 진행할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에는 통역, 나중에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외부 영입 인사일 것이다. 중국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입했던 한국인 홍보담당은 중국에서 한국스텝을 연결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 또한 내가 하는 업무 자체가 새로웠고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하지만 그의 홍보 업무는 본인이 기준에 하던 업무를 홍보하는 게 주목적이었고 회사의 홍보는 부업에 가까웠다. 당연히 어느 정도는 회사 홍보에 도움이 되었겠지만 그가 가져가는 월급 및 보너스 그리고 개인 비용처리 문제가 불거졌다. 홍보담당자 입장에서는 명성과 업무에 맞는 보상이라 여겼겠지만 나로서는 초창기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넘어서는 보상으로 보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업자가 아닌 잉여인력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나의 의견은 묵살되고 중국 측의 끈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일 년 반이나 그와 회사는 불편한 동거를 이어갔다.

일 년 반 만에 회사는 업계 1위 업체로 성장하였고 넘치는 작품으로 확장의 기로에 서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약속된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는 한국 측에 중국 측은 신뢰를 보내지 않았고, 재투자는 없음을 시사하였다. 결국엔 이익금 재투자의 방법밖에 남지 않았는데 확장에 필요한 500만 위안의 이익을 거두기엔 시간이 부족해 보였다. 그 기간 중에 한국 회사에 문제가 생겼던 한국인 공동대표는 한국을 정리하고 중국에 정착하여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투자금에 대한 중국 측 압박이 달갑지 않았는지 동시에 다른 기회를 찾고 있었다. 당시 작업했던 영화감독의 친구인 중국의 푸얼다이, 즉 재벌 2세가 문화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 했고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분투자형식을 생각했던 그는 본인의 관점에서 적었던 투자금을 들고 회사 핵심인력을 차출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자는 한국 측 공동대표의 제안을 수락하여 3000만 위안의 투자를 바로 집행하였다. 20대 초반의 혈기 넘치는 재벌 2세와 50대가 가까운 자본력은 없고 자존심이 강한 한국 공동대표의 협력은

초반부터 문제를 일으켰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문제점이 불거지기 전에 핵심인력이었던 나는 이미 내가 주동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가장 먼저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 설립의 실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뜻밖에 20대 투자자와 50대 공동대표의 문제는 장비 발주와 회사 부지 설정이 되자마자 불거졌고 공동대표는 회사에 대표나 운영진이 아닌 프리랜서 작업자로만 참여하는 것으로 매듭이 졌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디지털 색보정으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한 단순한 생각으로 출발한 내가 타인의 결정으로 중국인을 배신하고 내 스스로 실업자가 될 위치에 서게 된 것 같았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되돌릴 수는 없었다.

마지막 남은 기회라 생각하고 20대 투자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1년 만에 다시 회사를 업계 1위로 만들어 놓았다. 주변의 평가는 안 봐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회사가 잘 돌아가자 공동대표는 이전 홍보담당자와 함께 조금씩 회사 요직을 노리고 있었다. 둘 다 프리랜서 신분이었지만 경력이 부족한 나보다 문제를 일으켰지만 보기 좋은 경력의 그들을 어쩔 수 없지만 신뢰하는 분위기였다. 자존심이 상했다.

중국 시장이 목표가 아니라 영화가 목표였던 나는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 아이맥스 대표에게 개인신분으로 입사 지원을 했다. 중국 영화 산업의 성장과 함께 아이맥스는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기술과 영어, 한국어가 가능했던 나는 적합한 인재였다. 작업 차 한번 미국 아이맥스에 방문한 이후 휴가 기간에 한 번 더 아이맥스에 방문했고 LA에 있는 유사업체에 방문해 보았다. 생각보다 인종차별이 심각해 보였고 중국에서 느꼈던 활기를 의외로 느낄 수 없었다. 체계적이진 않아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었던 중국에 비해 LA에 위치한 헐리우드에서는 좋게 말해 체계적 나쁘게 말해 보신주의만을 느꼈다. 다시 시작할까? 고민의 시간은 길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 모험과 도전을 택한 나에겐 중국이 오히려 모험과 도전에 적합한 나라로 보였다. 중국에 돌아가 두 번째 회사를 정리하고 내가 원했던 개인작업실을 열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회사의 존립과 이익을 위해 원하지 않던 영화를 하는 것보다 소규모 인원과 소규모 투자를 통해 선별해서 작업하자는 판단이 들었다.

회사에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후 1달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요청받았다. 영화편집을 전공했던 나에게 편집과 디지털 색보정, 그리고 영화의 예고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투자금은 대략 300만 위안(한화 5억) 정도가 필요해 보였다. 장비와 장소, 그리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중국에서 두 번째로 작업했던 영화의 제작자를 회사 작업실에서 만나게 되었다. 안부를 묻던 도중에 내가 퇴직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에게 대략적인 나의 계획을 말했다. 그는 깜짝 놀라며 나를 말렸다. 당시까지 중국에서 100여 편의 영화 후반작업의 경험이 있는 내 경력이 아깝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일에 본인이 투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300만 위안의 투자비는 내가 마련할 수 있었고 동시에 잇따른 동업, 협업 실패에 지쳐 있던 나는 제안을 거절했다.

1주일이 지나고 한국에 마지막 휴가를 나가 있던 나에게 그 제작자에서 연락이 왔다. “지금 너의 인생은 재미있니?” 의도를 알 수 없었다. 나 스스로는 몰랐지만 적어도 중공업 회사를 상장시키고 50이 다 돼서 영화계에 입문한 그는 재미있어 보였다. 답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재미있는 일이라며 중국 입국하면 가볼 곳이 있다고 하였다. 그게 지금 나의 회사 IMAGE FOREST의 부지였다. 버려진 창고 부지를 예술단지로 만들고자 하는 토지개발업자가 당시로는 상당히 저렴한 임대비로 영화 후반작업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추천하였고 그 제작자는 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맞길 요량이었다며 1500평의 부지를 보여줬다. 벌써 3번째였다. 앞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산의 영화 후반작업 기지의 건설과 장비 발주에도 참여했던 나는 회사설립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재미있을 거야” 그의 표정과 이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였다. 나를 괴롭히던 동업자도 협업자도 주변엔 보이지 않았다. 단지 재무적 투자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적어도 일 자체에 집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마지막이라 생각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제안을 받아들이고 내 회사를 시작했다. 위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 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졌고 3개월 만에 회사가 완공되었다. 인력 교육부터 회사 홍보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2013년에 IMAGE FOREST가 설립되었다.

2021년 현재까지 100여 편의 영화를 상영시켰으며 역대 박스오피스 10위권에 세

작품을 올려놓았다. 베니스, 베를린, 칸느 등 3대 영화제 등 다수의 영화제에 IMAGE FORESTT에서 작업한 작품들이 수상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아직 17명의 소수정예로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업적인 큰 꿈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에서 영화 디지털 색보정 분야에만 매진하고 있으며 중국 영화인으로 베이징, 하이난, 퍼스트 영화제 후원 업체로 중국 영화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목표하는 방향으로만 흐르면 좋겠지만 막 40줄에 올라선 나는 아직까지는 팔각발이처럼 하나의 전문적인 일을 세월이 지나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금전적인 성취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닐지언정 영화에 있어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마지막으로 10여 년간 중국 생활에서 깨달은 것은 그들의 받아들임이다. 늘 생각해 본다. 만약 일본인이 한국 영화에 주요한 업무를 담당한다면 한국 영화인들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을 맡길 것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린 어쩌면 아직도 새로운 문물을 뼈뺀 자세로 받아들였던 조선 말기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누군가가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더 한국답게 만드는데 기여이 아름다운 조역이 되길 자처할 것이다. 마치 중국의 나처럼 말이다.

멕시코의 태양 아래에서

정 갑 환 [멕시코]

에크모 기계를 장착한 채 투명 비닐 상자에 창백하게 누워있는 아내를 에어 엠블런스에 태워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심정은 착잡했다. 흐린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쳐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멕시코의 태양 아래에서 동분서주 살아온 20여 년 세월이 물에 비친 불빛처럼 흔들렸다. 멕시코에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살고 있지만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은 서글픈 예감이 들었다. 2020년 8월이었다.

센트로 시장의 나비

“산다는 게 생각할수록 슬픈 일이어서/ 친권의 책을 읽어도 쓸쓸한 일에서 벗어날 수 없어/ 깊은 밤 잠들지 못하고 글 한 줄을 씁니다.”

부산에서 봉제완구 제조 수출업을 하다가 인건비 급상승과 사업 환경의 사양화로 폐업하고, 복잡한 마음에 시집을 뒤적이다가 형수 전화를 받고 시작한 이민이었다.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에스파놀도 한 마디 모르지만, ‘멕시코’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감전된 듯 짜릿했다. 그래서 나는 이튿날 지체 없이 LA행 비행기에 올랐고 멕시코시티에 도착한 것은 1998년 11월 중순이었다.

깡마른 체구에 콧수염을 기른 영리하게 생긴 40대 중반의 마르셀, 그는 내가 만난 첫 멕시코인이었다. 완구 제조업을 하며 센트로 시장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그의 가게에 갔을 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오후 2시쯤 가서 7시 퇴근할 때까지, 손님이 밀어닥쳐 돈 받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와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였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다. 시내로 나가는데, 그야말로 인산인해, 70년대 명동 사보이 호텔 골목처럼 사람들에게 떠밀려 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되어 나비처럼 내 눈앞에 훨훨 날아올랐다. 이 착시 현상은 시장을 벗어날 때까지 계속되었고, 어디서든 물건만 갖고 오면 파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마르셀이 같이 워단 장사를 하자고 하여, 나는 한국으로 되돌아와 본격 이민을 준비했다. 새롭게 시작하려니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수중에 있던 육백만 원에서 항공 발권 250만 원, 아내와 아들과 짧은 여행, 장인 장모와 식사하고 아이들 용돈을 주니 겨우 25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아내에게는 거의 맨손으로 간다고 차마 말을 못 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사업이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가자, 멕시코 드림을 찾아서!

홀로 멕시코 이민

1999년 5월 8일, 나는 홀로 멕시코로 돌아갔다. 유명호텔에서 값싼 호텔로, 교민 집에서 한국인 하숙집으로, 다시 하루 만 원짜리 여인숙으로 옮기며 콧감 빼먹듯 줄어드는 돈을 절약하려고 나는 안간힘을 썼다.

나는 그때 한국에서 워단 컨테이너가 도착하길 기다리며 오전 내내 에스파뇰 공부하고, 오후에는 미국에서 완구 사업을 하는 형수가 적어준 외상장부를 들고 수금을 다녔다. 노점에서 저녁 요기를 하고 호텔로 돌아와 맥주 한잔하는 게 일과의 전부였다. 노점에서 타코, 토르타, 껌사디아로 하루 세 끼를 해결하니 속이 메스꺼워 한국 음식이 점점 간절했다. 편의점에 맥주 사러 가서는 말이 안 통해, 책 보고 문장을 써서 다시 갔건만 거스름돈을 못 받아 고생하기도 했다.

스페인어를 외워 인사하며 나를 비즈니스맨 포즈로 수금에 나섰다, 그 길은 험난했다. 수금하러 오후에 가면 저녁에 오라하고, 저녁에 가면 내일 아침에 오라는 식으로 며칠 동안 계속 뱅뱅이를 돌렸다. 그러다가 팔 물건이 떨어지면 수금을 약간해주거나 수표를 주지만 은행 가서 추심하면 예사로 부도가 났다. 멕시코 은행은 통장이 없고 입금 증명서와 수표라는 형식의 출금 청구뿐이니, 은행에서 돈이 지급될 때까지는 수금된 게 아니다.

수중의 돈이 다 떨어져 갔다. ‘궁하면 통한다’고 계산기 두드리며 BOLSA (Paper Bag)를 받아 팔았다. Paper Bag을 대량 구매하고 결제도 깔끔했던 상인을 만났고, 영리한 멕시코 아가씨를 채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매출이 늘어 참으로 고마웠다. 그 덕에 나는 5개월 만에 낡은 아파트로 옮겨 밥이라도 해 먹을 수 있었다. 또 온 종계도 시장 정중앙에 창고를 얻어 BOLSA와 봉제완구 가게를 시작하였다. 작은 성취지만 환희심으로 가슴이 벅찼다.

기다리던 원단 컨테이너(보통 40피트에 원단 약 600롤 정도)가 도착하였으나 잘 팔리지 않았다. 자기 창고에 입고시켜준다는 마르셀의 친절(?)은 물건 빼돌리기 사기로 마무리되었고, 나는 5만 불 손해를 보고 그와의 사업 관계는 끝났다. 막막했다. 이 날을 꼭 기억하리라고 이를 악물었다.

그러고는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멕시코 완구공장으로 세일하러 다니며 완구 제조업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결과는 불가, 믿었던 완구 제조업을 포기하였다. 수입품 완구 판매도 쉽지 않아 페이퍼 백과 포장지, 자동차 방향제를 팔았다. 뭐라도 팔아 살아야 했다.

온 가족이 다시 만나

2년 후 아내가 멕시코로 왔다. 힘이 났다. 6개월 전에 온 아이들도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다. 오랜만에 네 식구 모여서 오붓하게 식사도 하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저녁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에스파놀 공부도 하였다. 에스파놀을 조금 익혔다고 애들이 엄마에게 교습한다고 난리였다. 따뜻하고 행복했다.

아내는 그동안 생활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내리 한 달을 잠만 잤다. 그리고 한 달 후 UNAM대 어학코스에 등록하였다. 아내는 사교적이어서 곧 유학생들의 왕언니가 되고 유학생들이 우리 집에 한국 음식 먹으러 몰려오기 시작했다. 유학생들의 전공이 다양해서 아들 둘은 에스파냐, 영어, 수학, 국어를 과외수업 받을 수 있었다.

아내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멕시코 최대의 연휴 SEMANA SANTA (부활절 연휴)가 되었다. 모두 휴양지로 떠나고 텅 빈 도시, 우리 네 식구는 UNAM대 캠퍼스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짜간 도시락을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였다. 가난한 날의 행복이랄까. 애들은 그때를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고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다짐한 순간이었다고 한다. 고맙다.

아들 둘이 멕시코 학교에 다닌 지 1년이 되자, 에스파냐를 제대로 구사하여 Bilingue Shool (이중언어학교)로 전학했다. 명문학교라고 수업료가 먼저 학교보다 3배나 비쌌기 때문에 아내는 어학과정을 못 마친 채 이민 7개월 만에 시장으로 나섰다. 전업주부와 학창생활을 병행하며 아내가 행복해 보였는데 다시 일을 맡겨 너무 미안하였다. 아들 둘이 학비를 제때 못 내서 그 학교에서 꼴찌로 성적표를 가져오자, 아내는 애들 기죽일 수 없다고 일수 빚을 내어서 학비를 마련했다. 일수는 이자가 20%인데 매일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엄청난 고리채였다. 장사가 안 되어 하루라도 일수를 못 찍으면 욕하고 고함치며 욱박질러서 아내는 울기도 참 많이 울었다.

가게를 옮겨 핸드백과 배낭을 받아 팔았다. 장사는 그러저럭 되었는데 아내를 가볍게 본 종업원들이 짜고서 도둑질을 많이 했다. 심지어는 자기 친구를 강도로 위장하여 데리고 와서는 아내 머리에 총을 갖다 대고서 돈을 강탈해 갔다. 멕시코 전입 신고식을 툭툭히 치러야 했다.

초봄에 돈은 새싹처럼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번에는 집주인이 난데없이 권리금을 6만 불을 요구했다. 사흘 안에 안 주려면 당장 나가라며 그는 아내 가게 매대와 진열상품을 길거리로 내놨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쇼 케이스를 끌고 쫓겨났다. 얼마 후 내가 하던 가게도 내놓게 되어 줄지에 가게 두 군데를 다 잃었다. 멧모르고 온 낯선 땅, 아득하고 황량했다.

그러나 죽으란 법은 없는지, 어렵사리 사거리 큰 건물에 가게를 구했다. 목이 좋아 오히려 장사가 잘 되었다. 다만 협소한 게 흠이었는데, 20m 전방에 좀 더 큰 점포를 계약금만 걸고 하나 더 얻었다. 부처님 가피력을 입었나? 가게 2개를 한 번에 잃더니만 또 한참에 2개가 생겼다. 거역의 잔금을 치르느라 얼굴에 첩판을 깔고 교민들에게 빌려오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지만 좋은 자리에 가게를 얻었으니 그나마 행운이었다. 어려울 때 기댈 곳은 역시 동포들뿐이었다.

수입 업체에서 받아 파는 상품은 한계가 있었다. 똑같은 제품으로 경쟁이 심해 마진이 없으니 새 브랜드가 필요했다. LA에 있는 가방 수입업체로 가서 외상으로 한 컨테이너를 가져왔다. NICKS CLUB이나 EVEREST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나 가격이 비쌌다. 그때부터 싸구려 중국 물건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니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가방을 직접 가져오려고 중국으로 갔다. 잘 팔리는 백팩 샘플 몇 개를 친구 공장으로 가져가 선불만 내고 주문을 했다. 응원해 주는 친구가 있어 힘을 얻고 돌아왔다. 얼마 후 친구가 보내준 컨테이너가 '만사니요'항에 도착했건만, 영터리 통관사로 인해 일이 꼬이는 바람에 판매 성수기를 놓쳐버렸다. 나는 어찌 그리 돈 복이 없을까, 허탈하였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통관 자금을 뺏기지 않은 것이다.

그때 나는 하루하루 통관을 기다리느라고 통관 자금 20만 페소(약 2천만 원)를 가게 금고 밑에 숨겨두고 있었다. 그러다 그날 아침, 거금을 가게에 두면 위험하겠다 싶어 돈을 전부 긁어서 은행에 입금하였다. 1시간쯤 후, 6인조 권총강도가 들이닥쳐 두놈이 내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머릿속이 하얘져 돈이고 물건이고 다 가져가라고 외쳤다. 금고에는 동전만 있었다. 가게가 워낙 변화한 곳에 있으니 강도들도 급했던지 물건은 쓰으나 가져가지 못하고 핸드폰만 빼앗아 갔다. 천우신조였다. 부처야 할 물건값도 많고 애들 학비도 버거운데 그 돈마저 뺏겼으면 어쩔 뻔했을까. 아찔했다.

아이템을 바꾸며 새로운 지평으로

큰아들이 대학 들어가고부터 사업이 슬슬 풀리기 시작했다.

가방 파는 아내 가게에, 아는 사람이 의류 재고를 들고 와서 팔아보라고 한 게 결정적 계기였다. 가방을 두 줄 빼고 옷을 진열하였는데 금방 팔렸다. 옷 진열을 조금씩 늘렸는데 역시 금방 팔렸다. 그래서 며칠 만에 아내 가게 전체에 옷을 진열했다. 또 다시 불티나게 팔렸다. 이거구나 싶어 구색을 갖추려 여신(외상)을 받으려 하자 업자들이 서로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내가 그 동안 반야보리사 신도회장도 하고 문화원을 운영하며 신문 잡지에 이름을 올린 것이 도움이 되었다.

아내는 인상이 좋고 장사 수완도 좋았다. 의류업을 시작한 지 한두 달 만에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나니, 수입업체에서 자기 발로 찾아와 팔아달라고 물건을 밀어 넣기 시작했다. 장사가 잘 되니 종업원들도 도둑질하느라 극성을 부렸다. 손님이 주문하면 물건을 싸고 아내가 계산서를 쓸 동안, 종업원들이 의류를 100~200장 더 집어 넣고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았다. 창고에 입고시키는 종업원이 창고 앞 쓰레기장 안에 빈 박스를 쌓아놓고 그 밑에다 의류 몇 박스를 숨겨 놓는 경우도 있었다. 건물 경비원과 종업원이 짜고 창고 안에서 몇 봉지를 싸 들고 나와 시장 노점상에게 팔기도 했다. 멕시코인이나 한국인이나 틈만 나면 도둑질 하니 누구를 믿어야 하나 싶었다.

은행에도 질 나쁜 은행원이 한두 명 있었다. 기계로 세는 척 하면서 밑으로 돈을 떨어뜨리고 모자란다고 한다. 자주 그러는 바람에 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한 다발씩 주어 사고를 예방했다. 어떤 때는 송금하고 영수증을 받아왔는데, 은행원이 계산이 잘못되었으니 영수증을 돌려달라고 하고는 2만 페소가 부족하다고 더 달라는 경우도 있었다. 세무회계사가 우리 은행 계좌가 인터넷뱅킹이 안된다고 자기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하고 8개월치 세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먹고살기 어려워니 그런 식으로 돈을 벌려는 것이겠지만 한국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니, 톡톡히 수업료를 내며 그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나라냐는 생각이 들었으나 곧 생각을 바꾸었다. 약간은 혼란스럽고 빈틈이 있으니 내가 돈을 벌 자리도 있다는 역발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고마운 일은 가슴에 새기고 궂은일은 금방 잊어버리려 했다. 괴로워한다고 이미 일어난 일이 없어질 것도 아닌데, 지난 일에 묶여 건강을 해치면 나만

손해 아닌가.

그런 중에도 장사는 계속 성업 중이었다. 6개월쯤 지나고부터는 중국에 가서 주문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있는 친구며 사업 파트너와 함께 의류 공장과 수출업체 전시장을 직접 찾아다녔다. 완구 봉제공장을 운영한 경험이 공장 선정에 도움이 되었다. 믿을만한 자가 직영 공장과 샘플 개발 능력이 뛰어난 업체와 계약을 했다. 봉제 공장할 때 샘플을 개발했던 경험을 살려 의류 샘플을 주어 주문하기도 했다. 다양한 의류가 큰 컨테이너로 들어오니 도·소매업이 원활해졌다. 지방에서는 의류를 더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아내와 나는 점심 먹을 틈도 없이 바빴다. 이게 꿈인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다.

한창 사업이 잘나가던 중에, 중국 공장 사장이 야반도주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국인 사장에게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는 사기를 당했다. 게다가 그가 나를 절도 및 장물취득죄로 고소해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된 적도 있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상생의 원칙

돈을 버는 대로 외상 미수금과 빚을 다 갚고, 바이어로서 과한 접대도 받았다. 중국 공장 사장들의 접대문화는 과할 정도여서 한 병에 2~30만 원 하는 술을 대접하고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 시킨다. 공장 직원들은 부실하게 먹고 종일 일하는데 이런 사치스러운 만찬은 도의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 나름의 원칙 몇 가지를 정해 지켰다.

첫째, 출장 시 한 공장주하고 두 번 이상 먹지 않는다. 둘째, 요리는 최소한만 시킨다. 셋째, 남은 음식은 싸가지고 가게 한다. 넷째, 부득이 3회 이상 식사할 경우에는 경비를 내가 지불한다. 이런 원칙으로 공장주들을 대했다. 접대비는 생산 원가에 포함되니 결코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장 거래를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옷 만들 때 자수 작업을 따로 하면 싸게 할 수 있다고 자수공장을 소개해 줬다. 나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나도 공장 운영 원리를 알고 있다. 공장마다 자체 보유한 자수기계가 있는데 밖에서 해가면 의류공장은 무얼

남기겠나? 나만 이익을 남기려 하면 앞으로는 남을지 몰라도 뒤로 밀지는 것이다. 세상은 어수룩하지 않다. 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법이다. 상생의 원칙을 지켜야지,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은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

공장에 샘플 개발을 의뢰할 때 비싼 가격으로 산출되기도 한다. 다른 공장이면 더 싸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거래 약속을 지켰다. 또 원단은 물론이고 단추 등 부속자재는 비싸더라도 고급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원가 압박이 있어 마진을 적게 보더라도 품질을 유지하자는 원칙을 지켰다. 그 덕분인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은 공장들과 거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나는 남의 나라에 살수록, 눈 속이지 말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직원들을 내 사업 파트너로 여겨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의료보험과 주택부금 넣어준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는 10년 이상 함께한 직원이 있고, 5년 이상 된 직원도 수도룩하다.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일을 좀 못해도 절대 해고하지 않는 게 나의 원칙이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오프라인 판매만 하다가 큰아들이 사업을 함께하면서 온라인 판매량이 늘고, 직원이 어느덧 45명으로 늘어났다. 과분한 은혜에 감사하다.

첫 한국 불교 사찰, 반야선원 설립

불교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사며 문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한국교회 가 10개나 있는 멕시코시티에 절을 하나 세우고 싶었다.

우연이었을까, 연말쯤 시카고와 토론토 선련사 會主 A스님이 오셨다. 내가 법회를 열어달라고 청하니, 믿기 힘든지 진짜냐고 두서너 차례 물어왔다. 걱정 마시라 해 놓고 전기도 없는 빈 사무실을 빌려 1월 1일 두 시간 동안 쓰기로 했다. '법회 초청장' 100부를 만들어 센터로 시장 한국인 가게에 돌리고는 얼마나 올까 노심초사했다. 그런데 26명이나 모였고, 우리는 촛불을 켜고 분위기 있게 A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그 후, 절을 하나 만들기로 합의하여寺名 '반야선원'을 설립했다. 십시일반으로 도량 설립자금을 모아, 불단을 꾸몄다.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교민들이 고맙고 든든했다.

2002년 2월 18일, 불상이 없어 사진을 모셔놓고 법회를 하던 그날은 멕시코 한국 이민사 10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 사찰이 개원한 감동적인 날이었다. 대사님과 한인회장이 축사를 하고, 내빈께 한국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회장, 부회장, 법사, 총무를 뽑아 진용을 갖추고 반야선원을 열었다.

한국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자, 9월 중순 한국에서 비구스님 두 분이 진짜로 오셨다. 불상과 범종, 불화 등 불구를 가득 신고서. 성철 스님 범손 상좌인데, 법문을 기가 막히게 잘 하셨다. 그때부터 절은 단연 활기를 띠었다. 그 후 E스님 한 분만 남으셨고, 100일 동안 부처님의 생애와 불경을 배우며 마지막 날에는 삼천 배를 하였다. 100일 기도 기간 내내 '세계평화, 남북통일, 가족평강, 사업번성'을 기원했다. 스님은 추진력이 좋으셔서 신도 50여 명 절에 주간지 '반야소식'을 만들고 한국인이 많이 사는 지방 도시에 법회 원정을 가고, 낮에는 LG, SK 등 대기업 지사 직원 보살들을 모아서 불교교리 강좌를 하고 부처님 오신 날 제등행렬 준비까지 하셨다.

부처님 오신 날 멕시코 스님이 데려온 불자 50명과 우리 절 신자와 교민들 200여 명이 행진에 참가하였다. 대형 불등을 앞장세우고 손에 손에 연등을 든 신도들이 소나로사 거리를 한 바퀴 돌았다. 경찰 오토바이 5대가 앞뒤에서 호위하는 가운데 스님이 큰 목탁을 두드리며 신도들과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치며 나아가니, 구경하던 멕시코인들이 행렬에 합세하였다. 돌아보니 기다란 등불 행렬이 물결쳐 오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나왔다. 500여 명의 군중이 운집하니. 방송국에서 그 장관을 방영하였다.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 날(2004년 5월 22일)에 멕시코 수도 중심부에서 거행된 연등축제와 제등행렬은 한인 이민사에 처음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우리 꼬레아노가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닌 민족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우리 민족을 알리기 위해 멕시코 언론에 수백만 불의 광고를 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진 홍보였다.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그리고 E스님 덕분에 우리 사찰은 '반야보리사'로 조계종에 정식 사찰로 등록했다.

한인문화원 설립과 운영

E스님이, 어떤 보살이 렌트비 1년 치를 시주하겠다고 하니 불교문화원을 만들자고 했다. 우리 문화를 알릴 기회를 찾던 나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마침 절이 입주한 건물 한 쪽이 비어 있어 임대를 했다. 명칭은 ‘한인문화원’,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교민들이 올 수 있도록 ‘불교’란 말을 뺐다. 2003년 10월 30일, 문화원 설립으로 이민사에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시주하겠다는 보살이 석 달 만에 사라지니, 빠듯한 절의 재정에 문화원 렌트비도 걱정이었다. 마침 LG전자 직원들 중 신도가 몇 명 있어, 지사장과 관리 부장의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에서 월 1만 페소씩 정기기부를 받고, 교육용 대형 TV와 컴퓨터 20대도 기증받았다. 지원금이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한인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천명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과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나아가 멕시코인들에게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소개해 국가 이미지를 높여 이곳에서 안정되게 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인문화원에서는, 토요일청소년 학교와 멕시코 포럼, 스페인어와 한글 강좌, 요가, 청소년 피시방 운영, 사물놀이 강습과 연극·등산·배드민턴 취미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민 초보 교민 대상으로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산악회는 멕시코시티 인근 산은 거의 다 섭렵했다. 또한 한인매일신문 편집장이 ‘굿나잇 코리아’라는 희곡을 쓰고 절과 문화원 식구들이 무대장치, 조명, 가설무대 조립 등 역할을 분담하여 성공적으로 연극을 공연했다. 교민 모두가 성취감과 자부심으로 뿌듯했다. 대사관 오00영사가 재외 동포재단에 그 희곡을 올려서 상을 받기도 했다.

E스님이 해인사로 떠나고 LG와 삼성 지사장마저 전근 가버리자 지원금이 끊어졌다. 당장 문화원 렌트비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내가 신도회장과 문화원장이 되어 책임을 지고 운영하게 되었다.

사실, 내가 문화원 활동을 놓지 못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100일 기도 24일째 되는 날 경찰과 세관 합동 단속반이 센트로 시장을 포위하여 한국인 가게를 덮치고 그중 33명을 잡아간 이른바 “타이거 작전” 때문이었다. 한국인들이 밀수, 탈세, 마약 밀매, 심지어는 총기 밀매를 하다가 무더기로 잡혔다고 매스컴에서 떠들어 댔으나 그것은 기획수사요 과잉단속이었다. 72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으나 가시적 성과는 없으니 한국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억울했다. 왜 하필 한국인인가? 잡혀간 교민들의 인권유린이 문제가 되고 항의가 빗발쳤으며, 대사관이 나서고 KBS 팀이 달려왔으니 멕시코 교민사회에서 이런 난리는 처음이었다. 그 사건을 겪으며 나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며 오천 년 역사를 지닌 문화 선진국임을 이곳에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내가 문화원장을 맡자 제일 먼저 스페인어 강좌를 늘렸다. 전문 강사를 채용하니 금방 소문이 퍼져 교민들이 몰려들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조금씩 받아 강사비를 지급하고 렌트비도 해결하였다.

문화원 초기에 수업받던 유학생들이 한국과 미국 등지로 떠나자 멕시코인들이 몰려 오기 시작했다. 멕시코 TV방송에서 한국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가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글강좌를 주 2회에서 5회로 늘렸다. 수강생은 늘었으나 멕시코 수업료는 전액 무료라 문화원 예산이 더 많이 필요했다. 마침 그때 내 사업이 잘 풀려가고 있어서 가게에서 아내 몰래 뽕팡(?)쳐서 운영비를 메꾸었다. 아내는, 장사꾼이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밤낮 자기 돈 써가며 엉뚱한 일만 하느냐고 말하지만, 문화원 행사에 제일 먼저 나서주고, 가게 돈 빼들려서 문화원 유지비용 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눈감아주었다.

나의 꿈대로, 한국 영화도 상영하고 사물놀이도 가르쳤다. 교민들은 물론, 멕시코 한류 팬들에게 사물놀이를 가르치니 문화원 사물놀이 현지인 팀이 만들어졌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사물놀이와 탈춤 강사를 2주간 파견해 주어 교민과 멕시코인들, C수녀원 중·고등생 1500명에게 장구와 탈춤을 가르치며 한국 문화를 알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멕시코 내 각종 행사에서 공연하며 갈채를 받았으며, KBS에 여러 차례 방영되어 큰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한인문화원 개원 4년째 되는 3월 30일(금), 세노리알 홀에서 ‘한인문화원 후원의 밤’을 열었다.

제17회 부여 세계 사물놀이 대축제 참가

한국 사물놀이 강사가 다녀간 후, 사기가 높아진 한류 팬들은 세계 사물놀이 대축제 참가를 열망했다. 명분 있는 행사라, 예산이 없었으나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발로 뛰었다. 할 일을 다하며 때를 기다리니, 주최 측의 지원과 재외동포재단과 KOTRA, 대사관에서 도와주었다. 첫 출전으로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니 영광이었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서, 한류 팬들이 꿈에도 그리던 한국에 다녀왔으니 그것만으로도 대만족이었다.

세계사물놀이 대축제에 다녀온 후 회원들이 부쩍 자신감이 붙어서 계속 일을 벌이고 싶어 했다. 몬테레이 한류 팬클럽에서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문화박람회에 참가해 사물놀이, 부채춤, 상모돌리기, 장구 독주 등을 공연하여 몬테레이 시민들에게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고맙고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고였다. ‘제3회 멕시코 한류팬클럽 전국페스티벌’ 행사도 벌였다. 500여 명의 관중이 참석하여, 3시간 동안 그들이 그동안 갈고닦아온 사물놀이, 부채춤, 한국가요 솜씨를 재미있게 지켜보았다. 손님들에게 불고기, 잡채, 김밥 등 한국 음식을 접대하며 즐긴 성공적인 행사였다. 탐피코에서 ‘제1회 타마울리파스 한맥 문화교류전’, 대사관 주최로 UNAM대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 행사주간’에도 참석하였다.

한인문화원을 설립한지 벌써 7년째 접어들었다.

6.15 공동선언 실천 통일 조직 결성

문화원 멤버들을 중심으로 통일 운동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여기에도 노무현 열풍이 뜨거워서 노사모를 자칭하는 젊은이도 다수 모였다. 그중에서도 문화원 부원장과 총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천주교 신부님이 고문을 맡아주셨다. 30여 명이 조직 결성식을 하고 통일뉴스에 기사를 올렸고, 해외 측 위원회 산하단체인 중남미위원회로

인가되었다.

남북한을 다 합쳐도 미국이나 중국의 1/50밖에 안 되는 나라가 그마저도 반동가리로 분단되어 있으니, 어서 빨리 통일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치유하고 민족번영의 영광을 누리게 되길 기원했다.

우리 집의 일등 공신

큰아들은 한국 대학에, 작은 아들은 한국 고등학교에 보낼 때 우리는 180만 원이 없어 부산 친구에게 꺾야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아들 둘을 한국으로 보내 놓고 우리는 월세 12000페소에서 6000페소짜리 작은 아파트로 옮겼고 학비 조달에 투지를 불태우며 아내는 더욱 지독해졌다.

내가 담배를 끊고 달달한 과자가 당겨 한국 마켓에서 맛동산 과자를 집을라치면 아내는 여지없이 그것을 탁 빼앗았다. 담배도 안 피우는데, 과자 한 봉지도 맘대로 못 먹느냐면 왜 비싼 수입품을 먹으려 하냐고 되물었다. 나중에 한국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갑자기 나가 맛동산을 5봉지나 사 와서 나에게 맘껏 먹으라고 했다.

아내는 콩나물도 안 사고 풀무원 두부도 비싸다고 절대 사지 않았다. 재래시장 가면 채소가 천지인데 왜 비싼 수입품을 사느냐고 난리였다. 그렇지만 교민이 만든 두부는 맛이 없어서 서로 도와야 한다고 사서 먹었다.

하루는, 코리아 식품점에서 전복을 판다는 신문 광고가 났다. 해산물을 좋아하는 나는 그것을 사러갔다. 다섯 마리만 사려는데 주인이 12마리밖에 남지 않았으니 떨이를 하라고 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마라고 할 때 옆 목덜미가 싸늘했다. 아내가 매서운 눈길로 인상을 쓰고 있었다. 집에 와서 전복을 먹자고 하니 아내가 안 먹었다. 다섯 마리만 사면 될 것을 12마리씩이나 사서 화가 난 것이다. 나도 화가 나서 집을 나와 버렸다. 집 앞에 멍하니 앉아있자니 내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아내가 측은하기도 했다. 1시간 후 들어가 둘이 앉아 아무 말 없이 전복을 먹었다.

멕시코 이민 8년 만에 처음으로 칸쿤에 갔을 때다. 무료 호텔 뷔페 한 끼를 먹지 않

고 재래시장 노점상에서 해산물을 팔랑 800페소 어치 사 먹었다가 밤새도록 세 부자가 무릎 꿇고 아내에게 정신교육을 받았다. 아이들이 울면서 잘못했다고 짹짹 빌고 나서야 끝난 그 사건은, 지금도 아내의 위대성을 되새기는 에피소드가 되고 있다.

내 곁에 이런 아내가 있어 든든하고 고맙고 사랑스럽다.

신의 한 수

아들들은 우리가 멕시코에 이민 온 것이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한다.

작은 아들이 멕시코에서 대학을 나와, 미국 학비에 1/4밖에 안 들었으니 그것만도 행운이라는 것이다. 또, 한국에서는 서른다섯 살이나 되어야 팔 수 있는 전문의를 멕시코에 왔기 때문에 스물여덟 살에 땀다는 것이다. 큰아들도 거들었다. 자기는 멕시코에 안 왔으면 반 건달이 되었을 거란다. 여기서 가족이 모여 함께 공부하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 여기서 다닌 AMERICAN SCHOOL 덕에 군대에서 스페인어 통역병으로 잘 지냈고, 한국 대학이나 회사 다닐 때도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큰아들이 한국 회사에서 배운 기술로 여기서 내 사업을 이어가니 나 역시 멕시코 이민에 감사한다. 두 아들에게 취업하면 소득의 1/10을 부모에게 보내라는 각서를 받아 두었는데, 현재까지 입금이 순조로워 노후 걱정이 없으니, 나와 내 아내에게도 멕시코 이민은 신의 한 수이다. 아내의 병, 단 한 가지만 뺄다면.....

벼랑 끝에서 다시

2020년 8월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나는 살얼음판을 딛는 불안감 속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2019년,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65세 넘는 나는 아들의 만류로 집에서 쉬었다. 시장통에서 전투하듯 살아온 아내도 새 아파트에서 살림만 하는 '요새가 신혼'이라며 모처럼의 여유와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 6월에 처남이 코로나19에 걸렸고, 닷새 만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

다. 처남 장례 후 아내는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더니 기침을 심하게 했다. 검사 결과 코로나 확진. 바로 입원했지만 특이 증상이 없어 곧 퇴원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며칠 후 새벽에 불길한 전화가 왔다. ‘갑자기 폐혈증 쇼크가 왔고 다른 장기 손실이 오면 사망할 수 있다. 폐 섬유화가 진행되어 도무지 가망이 없다.’는 것이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며 아내와 함께한 38년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스무 살의 꽃 같은 나이에 뽀얀 얼굴로 다가와, 친정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매 맞아가며 강행한 결혼, 별난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았던 모진 시집살이 10년, 짧은 미국 이민 실패 후 지하 마켓에서 장사하며 고생했던 시절, 멕시코 이민 초기에 겪은 수도모들... 그 세월을 이겨냈으니 이제 은퇴하고 여행 다니자 했건만, 일만 하다 가는 불쌍한 아내를 어떡하나 저절로 통곡이 나왔다.

에크모 치료를 하면 일단 연명할 수 있으며, 몬테레이에 폐 이식 전문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곳으로 옮겼다. 폐 이식 성공 수술 사례가 3회밖에 안 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폐 섬유화가 100% 진행되어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지만, 언제 알맞은 폐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아들 둘과 상의해서, 이곳은 병원비도 비싸지만 의술을 믿을 수 없으니 무조건 한국으로 가자고 했다. 병원과 에어 앰블런스를 알아보려고 백방으로 뛰었다. 작은 아들은 S병원에, 큰아들은 A병원에 긴급 연락을 했다. 큰아들은 ‘저의 어머니를 살려주세요.’라는 메일까지 보냈다. 그 내용이 절절했는지, A병원에서 먼저 의료기록과 환자 사진을 전송하라는 연락이 왔다. 작은 아들은, 엄마가 50페소 아끼느라 좋아하는 망고도 안 사 먹으며 자기를 공부시켰다며 영영 소리 내어 울었고, 나는 밤새 한국으로 가게 되기를 기도했다.

믿을만한 에어 앰블런스 회사와 연락이 닿아, 금요일 오전에 앰블런스 회사 소속 응급의사와 병원 측 의사를 태우고 아내의 한국행 이송작전이 펼쳐졌다. 악천후와 긴 비행시간을 견뎌내고 아내가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그리고 나는 이튿날 한국으로 떠났다.

한국에 오려고 아내 방에서 소지품을 챙기는데, 보석도 액세서리도 없이 옷가지도

단출하고 너무 소박하였다. 얼마 전에 작은 아들이 사준 외투와 핸드백만이 소위 명품이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아내 옷을 챙기는데 주머니마다 돈이 나왔다. 양말에도, 바지 여덟 벌에서도 돈을 숨겨 놓았다. 또다시 울음이 터졌다. ‘바보 같은 사람, 이 돈 다 쓰지 뭐 할라꼬 숨겨놓았나. 그렇게 발발 떨고 아끼기만 하더니 고생만 하다가 가는구나.’

현금이 없어 수도 당한 트라우마 때문일까, 카드를 쓰면서 현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아내는 유난히 현금에 집착했다. 아내는 한국에 가면 부모 형제, 친척에게 두루 인심이 후하다. 고향을 한 바퀴 순례할 때는 돈 봉투 여러 개를 만들어 친척들에게 꼭 용돈을 드리고 왔다. 친구들에게 밥도 잘 사건만, 자기 것은 청바지 하나를 살 때도 여러 번 망설이는 결정 장애가 있다.

“니 엄마 잘못되면 유품을 정리할 때 옷은 버리지 마라. 추억으로 아버지가 간직할란다.” “네, 아버지. 저도 못 버려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나는 줄곧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아내가 두 달 만에 수면상태에서 깨어나 중환자실에서 영상통화를 했다. 파리한 얼굴이나 반가웠다. 한국에서도 알맞은 폐를 만날 확률이 5%라는데, 아무 진진 없이 3주가 흘러가자 초조하고 불안했다. 아내 소식을 알게 된 언론에는, ‘코로나를 이긴 멕시코 사모곡’, ‘12,000km 지구 반대편 메일 한 통의 기적’, ‘엄마 살려달라. 멕시코서 고국행 에어 앰블런스 띄운 효심’ 등 여러 매스컴에 아내 기사가 실렸다. TV에는 큰 아들과의 인터뷰도 방영되었다.

2020년 9월 11일, 아내가 입원한지 40일 만에 10여 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대성공. 장기기증자는 30대 남자, 뇌사자라니 고마우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그날부터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맨 먼저 그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우리의 여생을 그분 뒤편까지 가치 있게, 베풀며 살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반야보리사에 계셨던 B스님께 기도를 청했는데, 나중에 들으니 모든 종교에서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절 식구와 스님은 물론, 기독교 흥 사장 내외, 천주교 다니는 루피노 내

외, 천도교도 종환 형, 장맛비 속에 굶을 해준 아내 친구들...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아내는 2020년 12월 8일 6개월의 병상생활을 끝내고 퇴원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재활하며 회복 중이다. 기적이었다. 너무 너무 감사했다.

내가 병실에서 간병하며 기저귀를 갈 때마다 아내가 축스러워 했다.

“살아줘서 고맙다. 뭐가 부끄럽노? 살기만 한다면 당신 똥을 먹어라 해도 먹겠다.”
그건 앓을 뻔한 아내를 되찾은 나의 진심이었다.

에필로그

내가 만 21년 2개월을 살아온 멕시코는 내 인생의 1/3을 보낸 제2의 조국이다. 나는 그곳에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켰다. 기후 좋고 물가 싸고, 고생 끝에 돈도 벌었다.

내가 그곳에 가기 전,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건 콧수염과 챙 넓은 모자에 담요를 덮어쓴 사람들과 사막, 선인장, 강도, 지진, 치안 불안이었다. 그러나 멕시코는 알면 알수록 큰 나라였다. 테오티오아칸, 마야, 아즈텍 3대 문명에 걸쳐있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광대한 국토, 베사메무초로 등 친숙한 대중음악과 뛰어난 시인과 화가들이 있다. 국민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까르르까르르 잘 웃고 낙천적이며 쾌활하다. 자신의 신세를 비판하지 않고 용감하게 잘 산다. 평균 연령이 낮고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배울 것이 많은 나라이다. 코로나만 아니면 정말 살기 좋은 곳, 아내가 회복되면 다시 가고 싶은, 젊은이들이 도전해 볼 만한 나라이다.

오랜만에 돌아오니 우리나라는 어느새 일류국가가 되어 있었다.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이며 의료 수가도 아주 저렴하다. 복지 혜택도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선진국이다. 아내를 살려준 따뜻한 조국 품에 안겨 노년을 보낼 수 있으니 깊이깊이 감사드린다.

시멘트 담장을 오르던 인동초에 하얀 꽃이 흐드러졌다. 느티나무에서는 새소리가 들린다. 바람과 햇살조차 향기로운 날이다.

엄마와 나와 노르웨이 할머니들

한 은 옥 [노르웨이]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날이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던 날, 싱싱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백발의 할머니를. 그러면서 한국에 계신 엄마가 떠올랐다. ‘우리 엄마도 저렇게 자전거를 타셨으면...’

부러웠다. 건강하게 자전거를 타시는 할머니가. 외롭게 혼자서 방에 계신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아프다.

노르웨이에 살면서도 한국의 뉴스 기사를 빼놓지 않고 읽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이라서 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엄마가 한국에 계시기 때문인 이유가 크다. 사랑하는 엄마가 계신 곳이 행복하고 안전한 곳이었길 바라고 때문이다. 언젠가 뉴스에 백발의 노인이 자전거를 타신 기사가 난 것을 읽은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시는 것은 뉴스에 나올 정도로 드문 일이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노르웨이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고 서로 교류하고 사회에서 활동하고...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사회에서 활동한다. 그것이 그 들의 일상이다.

살면서 노르웨이는 한국과 다르고도 비슷한 면이 참 많다는 걸 깨닫는다. 그럴 때마다 기쁘고 즐겁다. 다르지 않다는 데 큰 위안을 얻는다. 역시 사람 사는 곳은 다 비

슷해... 다르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힘들고 불편하다. 뭐하나 쉬운 것이 없다. 아주 사소한 것도 다 다시 배우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어른이 되어서 배운다는 건 젊었을 때 보다 더 많은 노력과 세심함이 필요하다. 처음에 노르웨이 슈퍼에 갔는데 뭐하나 살 수가 없었다. 만국 공통어인 그림으로 판별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다. 비슷비슷한 그림들.

설탕을 사려고 해도 노르웨이어로 쓰여 있어서 잘 구분할 수 없었다. 영어와 다른 언어. 물론 노르웨이 사람들은 영어를 아주 잘한다.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봤다면 좀 더 쉬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노르웨이에 살게 되었으니 노르웨이어를 배워볼 양으로 갖은 노력을 했으나 쉬운 게 아니었다. 한국어와 비슷하게 노르웨이어는 노르웨이에서만 쓰인다. 문맹의 불편함이 이런 것이구나, 느꼈다. 역시 사람은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해. 그 당시 난 마트에서 신문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한국에선 신문을 읽는 것은 아주 쉽고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곳 노르웨이에선 글을 모르니 신문을 사는 게 의미가 없었다. 글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노르웨이어를 배우고자 학원도 다니고 도서관에서 하는 언어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도서관의 노르웨이어를 배우는 모임은 자원봉사자들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노르웨이어를 배우는 데 도움을 준다. 나는 거기에서 아주 멋진 할머니를 알게 되었다. 우리 그룹의 리더 할머니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아주 열정적이었다. 어눌한 노르웨이어를 하는 다른나라 사람들을 아주 잘 이해했으며 노르웨이에서 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소한 것들도 많이 알려 주었다. 예를 들면 가족들이 쉬는 일요일은 소리가 크게 나는 집안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같은 것. 잔디 깎는 것도 소리가 큰 기계를 사용할 경우 평일에 해야 한다고 했다. 내 생각으로는 시간이 많은 쉬는 날 하는 게 더 일반적인 것 같았는데... 사는 곳이 다르니 생각도 달라져야 했다. 예전의 살았던 방식은 잊고 새롭게 다 다시 시작해야 했다.

노르웨이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조금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자, 나는 한국에서 해왔던 봉사가 하고 싶어졌다. 노르웨이는 복지국

가라 어려운 사람들이 없을 거라 많이들 생각하겠지만, 사람이 산다는 건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는 게 아닐까. 인생은 희로애락 생로병사가 아니겠는가. 나의 생각을 아는 노르웨이 자원봉사자 할머니께서 하루는 내게 노르웨이 노인 봉사 단체를 소개해 주셨다.

처음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봉사자 모임에서의 첫날은 참 인상적이면서도 어색했다. 멋지고 소박하게 꾸며진 큰 탁자에 둘러 앉아 계신 열 명 정도의 할머니들... 외국인은 나 한 사람. 노르웨이 사람들은 보수적이라 한다. 과하게 친절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뚝뚝한 편이다. 미국인처럼 sorry를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다. 우연히 마주쳐도 미소를 짓는 편이 드물다.

하지만 노르웨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진국이라 한다. 정직하고 순박하다. 전통적인 노르웨이 할머니들이 모인 모임에 나간 나는 정말 어색했다. 그 모임에 모인 할머니들의 나이는 60대부터 80대 후반까지 다양했다. 정년퇴임을 하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치과 의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셨다.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에 모여 봉사활동을 하셨다. 주로 대 바늘로 뜨개질을 하셨다.

큰 탁자에 둘러앉아 정말 예쁜 소품들을 뜨셨다. 고등학교 때 떠보고 한국에서 뜨개질을 하지 않은 나는 그 할머니들로부터 기초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할머니들은 몇 십 년 동안 계속하셨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정말 잘 뜨개질을 하셨다.

주로 만드시는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이 태어난 지 몇 개월 내에 아기들이 갖는 세례식에 쓰이는 예쁜 양말이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백일 행사 같은 것... 거기에 쓰이는 축하 용품이었다. 하얀 양말에 노르웨이 색인 빨강과 파랑을 넣어서 만드는 특별한 양말이었다. 이 양말을 만들어 크리스마스 전에 파시는 행사를 하셨는데, 그 수입원으로 돈을 마련해 여러 곳을 도우셨다. 한 컬레에 이 나랏돈으로 100크로네. 우리나라 돈으로 만 삼천 원 쯤 하니까 꽤 비싼 편인데도 잘 팔렸다. 나는 어려운 소품은 못 만들고 쉬운 것을 배워 연말에 내가 만든 작품을 내놓아 팔아서 모금을 하는데 도왔다.

그분들은 그 활동은 하면서 네다섯 시간을 함께 하는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과

뉴스에 난 일들에 대한 자기 생각들을 말씀하시고 의견을 나누셨다. 그리고 각자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참석하셔서 일을 마치고 식사를 함께 하셨다. 빵에 치즈와 오이 파프리카를 얹은 간단한 샌드위치와 커피. 그분들 중에 한 분은 함께 먹을 빵을 구워 오시는데, 약속을 하거나 정해진 순서가 없는데도 어느 한 분은 꼭 함께 먹을 빵을 구어 오셨다. 정말 신기했다. 소박한 점심이지만 탁자에 식탁보를 깔고 촛대에 초를 켜고 냅킨을 예쁘게 접어서 식탁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나이가 많으신 데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셨으며 앉으실 때도 반듯하고 꼳꼳하게 앉으셨다. 함께 먹을 빵을 돌아가며 잡으실 때도 빵 귀퉁이부터 고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것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 놓는...

처음의 어색함이 시간이 흘러 나도 그 봉사 단체에서 3 4년을 활동하면서 그 할머니들과 함께 할 때 한국에 계신 엄마를 늘 생각했다.

내가 그 봉사 단체에 열심히고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할머니들 속에서 나의 엄마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거다. 일주일에 한번 그분들을 만나러 가면서 난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다. 내가 그분들을 위해 빵을 구워가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난 엄마를 생각해서 더욱더 정성을 쏟아 음식을 만들어 갔을 것이다. 엄마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봉사를 하기 위해 모였지만, 그분들도 역시 외로운 노인들이었다. 노르웨이 전국에서 일 년에 한번 모이는 정기 총회 때는 삼십대의 젊은 층도 있었으나, 일주일에 한 번 모일 때는 내가 제일 젊었다. 난 그 봉사 모임에 가서 그 할머니들을 섬겼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른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삶에 대한 자세와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등. 정말 나라가 달라도 사람의 마음은 비슷했다.

그 모임에 나오시는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혼자 사시는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들어주고 공감하는 시간들에 동참할 수 있어서 나도 참 행복했다. 어른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는 건 유익하고 즐거운 일이었다. 노르웨이에 살면서 나도 외롭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 모임에 나가서

참 많은 치유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외국에 살면서 의식주 생계에 대한 고민도 크지만, 나처럼 남편 따라 나와 외국에 살 경우, 직업도 없고 소외되고 우리나라 사람만 만나고 사는 나라에서 문화적 고립된 생활을 할 경우 정신적인 문제가 큰 것 같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은가.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나는 그 모임을 통해 노르웨이 사회를 알아가고 문화와 풍습을 알아가고 배웠다. 내 곁에 이처럼 훌륭한 어른이 여럿 계시다는 건 큰 행운이었다.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 아닌 공부를 통해서가 아닌 산 경험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일 년 동안 열심히 만든 작품들은 연말에 파는 날이 왔다.

노르웨이 할머니들과 나는 며칠 전부터 팔 물건들을 전시할 장소를 청소하고 꾸미고 가꿨다. 정말로 한 분도 늦으신 분이 없이, 모이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오셨다. 무거운 탁자를 옮길 때도 서로가 조심스럽게 힘을 합쳤다. 몸이 불편한 분도 계셨기 때문에 항상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야 했다. 그렇다고 어느 분도 앉아서 계시지만은 않으셨다. 아픈 다리를 끌며 힘을 보태기에 주저함이 없으셨다. 누구 한 분도 자기의 불편함이나 아픔을 보이기보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셨다. 나는 상대적으로 젊었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옮기려 애썼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들은 나를 flott dame--좋은 사람이라고 치켜세워주셨다. 내가 실수를 할 때도 지적하시는 일이 없었다. 내가 부끄러워할까 봐 조용히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고쳐 놓아 주셨다.

일 년 동안 만든 작품들을 팔기 위해 마을마다 전봇대에 전단지들을 붙이고 바자회 일정을 알렸다. 이 단체는 100년 이상 된 노르웨이 봉사 단체로 매년 지부마다 이 행사를 여는데, 가족 잔치 같았다. 할머니가 회원이고, 딸이, 그리고 손녀가 회원이 되었다. 근래는 젊은 사람들의 회원 수가 적어 어떻게 하면 회원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 논의한 적도 있었다. 할머니가 만든 작품을 기쁘게 사고, 만든 음식들을 맛있게 사 먹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와 이 축제를 즐겼다.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어버이날이면 동네 노인정을 찾아 간단한 다과와 과일을 준비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뵈던 적이 몇 번 있었다. 서툴지만 배우고 있는 바이올린과 클라리넷을 연주해 드렸는데 무척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어

서 이 행사에도 우리 아이들을 참여 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하셨다.

엄마가 매주 나가는 봉사 단체라 우리 아이들도 무척 궁금했을 것이다.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와서 행사에 참가하고, 우리 아이들은 바이올린과 클라리넷을 연주해드렸다. 이 행사는 모금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든 케이크와 커피 등을 모두 돈은 내고 사 드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케이크, 과일과 주스 등을 풍성히 무료로 주셨다. 역시 어느 나라에서든 할머니들의 손주 손녀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모은 돈은 노인 복지 미혼모 장애인 등을 돕는데 쓰였다. 다른 사람을 돕는 목적도 크지만 어르신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고립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삶, 나누는 삶, 노인들의 이런 활동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렇게 70,80세가 되어서도 모임을 가지려면 젊어서부터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면서도 구청의 지원을 받아 일 년에 몇 차례 작가를 초청해 좋은 책을 소개받는 행사도 가졌다. 새로 나온 신간들, 그리고 좋은 책을 할머니들께 알려주시고 퀴즈를 통해 책들을 나눠 주셨다. 내게도 쉬운 동화 같은 책을 선물로 주셨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함께 하는 일, 관심사를 공유하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이었다.

우리 엄마도 책을 읽으실까... 우리 엄마는 참 텔레비전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아는 것도 많으시고 유식하시다. 엄마는 친구보다, 남편보다, 텔레비전이 더 좋은 친구라고 말씀하신다. 항상 곁에서 함께해 주는...

그런데도 많이 외로우시다. 많은 정보가 외로움을 대신해 줄 수 없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대체할 수 없다. 우리 엄마에게도 이런 즐거운 정규적 모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었다.

이 봉사 단체는 일 년에 한번 함께 바깥나들이를 뮤지엄이나 유서 깊은 장소를 하루 코스로 다녀왔다. 나와 할머니들은 이 나라 전래동화를 테마로 하는 뮤지엄을 갔었는데, 손자 손녀들이 읽는 동화 속 인물들을 인형으로 만들어 놓았다. 나도 책으로 읽었는데,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니 훨씬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어른인 나도 이렇게 재미있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재미있을까, 싶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 여행을 생각하면 동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노르웨이 할머니들과 나는 어린아이들처럼 즐거워했다. 만들어놓아진 인형들의 얼굴 표정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고,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으니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뮤지엄을 관람하고 웃는 가운데 점심시간이 되었다. 노르웨이 할머니들은 matpakke라고 거의 개인 점심을 싸가지고 다닌다. 좀처럼 점심을 사 드시지 않는 데, 그날은 외식이었다. 우리는 근사한 연어 스테이크를 먹으며 즐거워했다. 후식으로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따사로운 햇볕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였다. 이빨이 시리지도 않으신지,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드셨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한다. 눈의 민족이라 그런지, 추운 겨울에도 노인분들이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5월에 구청에서, 또는 아파트마다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나 식사 대접 여행을 하는 것을 봤다. 여기 노르웨이도 비슷한 문화가 있는 게 신기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몇 달 전부터 할머니들 스스로 계획하고 돈을 내서 여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복지겠지... 여기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여유가 있으시다고 한다. 복지 연금이나 퇴직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대부분 넉넉하시다. 그렇다고 돈을 절대 함부로 쓰시지는 않는다.

음식에 있어서도 매우 철저하시다. 모임에서 남은 빵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다음 모임에서 다시 드신다. 음식을 버리시는 걸 난 본 적이 없다. 그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소스까지 빵에 꼭꼭 찍어 전부 다 드셨다. 물론 나도 소스 국물까지 다 먹었다. 나는 한국에서도 음식물 버리는 것에 엄격했지만 여기 노르웨이에 와서는 더욱 음식물 버리는 게 없다. 예를 들면 삶은 감자를 먹을 때도 껍질째 다 먹는다.

맨 처음에 먹을 때는 껍질이 입안에서 돌아다녀 넘어가지 않더니만 요즘은 익숙해져서 껍질이 맛있다. 어쩌다 껍질 없는 삶은 감자를 먹으면 허전하고 이상하다. 이렇듯 사과도 배도 포도도 거의 모든 과일을 껍질째 먹고, 음식도 딱 먹을 만큼만 해서

먹으니 버리는 게 거의 없다. 이것도 봉사 모임을 통해 배웠다. 봉사라고 말하지만 내가 봉사 모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성품에서 배운 것은 바로 내 몸에 체득된 행동으로 이어졌다.

우리 봉사 단체는 또한 일 년에 한 번 fastelavn이라는 행사 일부로 부활절 전에 자작나무에 색색으로 물들인 깃털을 꾸며 파는 일을 했다. 자작나무 가지를 꺾어 화려한 깃털로 장식한 것을 화병에 꽂아 놓으면,

봄이 올 즈음 집의 거실에서도 나뭇가지의 초록색 잎을 볼 수 있었다. 이것으로 봄이 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이 자작나무의 역할이 우리나라 회초리와 비슷한 것이어서 -물론 체벌용으로 사용된 건 절대 아니지만- 때론 훈육의 목적으로 거실에 전시되기도 한다고 한다.

봉사 모임의 할머니들이 2달에서 3달 걸려서 만든 이 자작나무의 나뭇가지들을 팔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놀라웠다.

이 자작나무 가지를 사는 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색색의 자작나무들을 샀다. 이 봉사 단체는 전통적으로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어서인지 아주 기쁘게 팔려 나갔다.

더 놀라운 건 나랑 팔러 나오신 할머니 두 분 다 깨끗하게 대어섯 시간 동안 서 계신 것이다. 젊은 나도 다리가 아파 좀 앉으시라 말씀드리면 서서 파시는 게 예의라 말씀하셨다.

깨끗한 성품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생각되었다. 왜 다리가 안 아프시겠는가. 몸을 지탱해 주는 마음이 강한 게 아닐까.

다리가 아픈 엄마가 생각났다. 우리 엄마, 아마 활동을 안 하셔서 더 다리가 아프실지도 모르겠다. 외롭게 혼자 계셔서 깨끗한 마음이 약해지셨나 보다. 난 이 어르신들을 보면 늘 사랑하는 엄마가 생각났다.

노르웨이에 살면서 젊은 사람들보다 노르웨이 할머니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나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생김새가 달라도 난 그 모임에서 세대차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 모임에 갔다 온 날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마음이 평화로웠으며

외롭지 않았다.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할머니들을 통해 삶의 진지함을 배웠고 순응함으로 얻어지는 평안함도 알았다.

이렇게 봉사 모임을 이어가던 중,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중단되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수이다 보니 더욱 건강에 조심스러웠다.

노르웨이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모든 노인분들이 계신 곳은 면회가 중단되었다. 뉴스에서도 되도록 집에 있기를 권고하였으며 상점들도 문을 닫았다. 밖에 나가는 일이 줄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혼자 계신 엄마가 더욱 생각났다. 외롭게 혼자 계실 어머니...

이 긴 시간을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고 계실까... 젊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 고립된 멈춰진 시간들...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 날 봉사 단체 회원 중 한 분인 엘사라는 분한테서 문자가 왔다. 우체통에 노르웨이 책 한 권과 노르웨이 풍경으로 만들어진 새해 달력을 넣어 놓았으니 가져가라고...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셨을까. 그분은 운전을 못하신다. 항상 모임에 나오실 때도 남편분이 차로 태워오고 태워 가셨는데 우리 집에 책과 달력을 배달하셨을 때도 함께였을 것이다.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 집에 들어오시게 해서 차라도 대접했을 텐데... 코로나 상황 중에도 나에게 노르웨이에서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 주셨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내 책상 앞, 벽에 걸린 노르웨이 사시사철의 풍경을 담은 달력을 보면서 나도 엘사 할머니를 생각한다. 이 외롭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더욱이 외국에서 서로에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건 얼마나 살맛 나게 하는 일인가.

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노인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먼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일이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일상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함께 한 노르웨이 할머니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집의 앞마당에서 자유롭게 자란 사과나 호박을 나누고 소박한 점심 도시락을 써서

함께 산책 갈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손가락이 곱지 않고, 비싼 옷을 입지 않으며, 황제처럼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친구의 말에 크게 웃어 주고 바라봐 주면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분들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꾸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개인의 행복은 개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책 지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사회의 흐름이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가 방에서 혼자 계시는 시간보다 확 터진 공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큰 소리로 웃으시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혼자가 아니라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언젠가 우리나라로 돌아간다면 난 노인들의 삶이 나아지는 일을 하고 싶다. 노르웨이 노인들의 삶을 보고, 함께 하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도 않고 복지란 물질적 풍요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걸 알았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 마음의 여유를, 이 행복한 마음을 우리 엄마에게 어떻게 선물할 수 있을까...

노르웨이에 있는 우리 집에 개나리가 화사하게 활짝 피었다. 내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보았던 해가 많이 드는 곳에 활짝 피었던 개나리와 똑같은 ... 노르웨이에 피는 개나리의 원산지는 대부분 한국이라고 한다.

처음 노르웨이로 간다고 했을 때 엄마는 걱정을 많이 하셨다. 유난히 추위를 타는 딸을 위해서 두꺼운 이불을 잔뜩 준비해 주셨다.

문화도 낯설고 자연도 다른 환경에서 어렸을 때 보았던 똑같은 꽃을 보았을 때의 경이로움. 비행기로 열 시간쯤 떨어진 곳에서도 봄에 회사한 개나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다.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이 노르웨이에서 할 수 있을 때 한국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좋았다.

요즘 코로나로 행동의 제약이 많아서인지 가까운 주변 환경이 눈에 잘 들어온다. 주변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서 한국의 고산지대의 음지에서 잘 자라는 산나물의 일종

인 참나무이 집 근처에 흐드러지게 자라고 있는 걸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먹었던 것처럼 나무로 무쳐서 밥과 함께 먹으니 한국의 평창에 온 것처럼 좋았다. 노르웨이에서 사는 한국 몇몇 사람들은 봄이 되면 고사리, 명이 나무를 따러 간다. 평창시에도 먹긴 하지만,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고사리를 여기 노르웨이에서 먹게 될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더욱이 울릉도 특산물인 명이 나무까지... 같은 일을 다른 장소에서 경험하는 일은 신비로운 일이다.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외국에 나와 살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노르웨이 할머니들의 사랑으로 극복한 것-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

내가 다시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이 노르웨이 할머니들의 사랑으로 인해 노르웨이를 따뜻한 나라로 기억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가 보다. 환경이 아무리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도 따뜻한 사람들이 살면 그곳은 따뜻한 곳이 된다. 내가 지금 이곳 노르웨이에 살고 있더라도 내 마음의 일부는 항상 엄마가 계신 한국에 살고 있으며, 노르웨이 할머니들과 우리 엄마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한, 난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엄마, 세이 땡큐

박지반 [호주]

아들 쿠온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큰 학교로 전학을 했다. 시드니 하버 브릿지 건너 동쪽 지역에 있는 학교였다. 집에서 차로 30분 넘게 걸리는 거리다. 등교 첫날이었다. 집근처에 학교로 가는 스쿨버스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류장이 어딘지 몰랐다. 그러나 버스를 놓치면 출근길 교통체증 속에서 쿠온을 차로 학교까지 태워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집에서 조금 늦게 나온 우리 가족은 스쿨버스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류장을 찾아 뛰었다. 느긋한 호주인 남편과 쿠온은 앞장 서 뛰는 내 뒤로 엉거주춤 따라 오고 있었다. 뛰면서도 진작 알아들걸, 십분만 일찍 나올걸 하는 후회가 머릿속을 휘몰아쳤다. 규정에 엄격한 호주 버스가 시간 맞춰 도착하고 출발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버스가 어디서 서는 줄도 모르고 달리는 데 멀리서 스쿨버스가 보였다. 남편은 이미 늦었으니 포기하자고 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달리기대회에서 일등 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속력이 났다. 버스를 따라잡은 나는 버스 옆을 마구 두드렸다. 놀랍게도 도로 한가운데서 버스가 섰다. 운전기사에게 오늘 처음 학교 가는 날이니 좀 태워달라고 사정했다. 운전기사는 오늘은 태워주겠지만 버스 정류장은 다음 신호등 300미터 앞쪽이니 다음부터 꼭 그리로 가야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좌석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목을 내밀었다. 뛰느라 상기된 쿠온의 얼굴은 버스에 올라타며 더욱 빨개졌다. 남편은 우

리를 모른 채하며 고개를 숙이고 멀어져갔다.

그날 학교에 갔다 온 쿠온은 버스 세운 한국인 엄마 덕분에 첫날부터 유명해졌다고 했다. 역시 한국 아줌마는 대단해 라며 쿠온과 남편은 입을 모았다. 한국에 몇 번 다녀온 후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한국 아줌마가 어떤 인류인지 정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새로운 친구가 생길 때마다 스쿨버스 이야기를 하며 한국 아줌마에 대한 설명도 덧붙인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스쿨버스를 놓쳐도 여유 있게 차로 바래다줄 수 있었다. 그러나 황급한 순간에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이 버스를 꼭 타야한다는 간절함에 눈이 먼 것이다. 쿠온이 말하는 아줌마의 조건 첫 번째는 눈 앞의 것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한국 아줌마일까? 맞다, 나는 두드려야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아는 한국 아줌마이다.

한국 아줌마는 타고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인생의 반을 살고 있는 호주에서 지금도 나는 한국 아줌마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십년이 넘는 시간동안 호주인과 한국인 혼혈아로 호주에서 태어난 아들 쿠온을 키우고 호주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한다. 쿠온이 호주 사회에 살면서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하는 조바심도 있었다. 어릴 때는 서로 다르다는 구별 없이 놀지만 철이 들면 주위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쿠온이 자라면서 백인친구들과 섞이고 또 엄마가 다른 인종이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 국적이 다른 남편과 결혼하면서 2세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안 해본 것은 아니다. 내 자식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다. 다행이도 걱정할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쿠온은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리드하고 다른 학부모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성장했다.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쿠온은 한국인도 호주인도 아닌 독립국가 쿠온이었다. 내가 처음 호주에 도착했던 이십여 년 전보다 호주 사회는 빠르게 다민족 국가로 변했다. 특히 디지털 원주민인 쿠온이 속한 Z세대는 윗세대에 비해 인종의 다양성을 더 수용하는 편이며 남녀 성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가장 없는 세대이기도 하다. 온라인에서 같은 세상을 공유하는 세계의 젊은이들은 평

등하다.

친구들보다 두 뺨은 더 큰 키를 타고난 덕분에 쿠온은 어릴 때부터 중심에 서있었다.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내 불안은 쓸모없는 것이었다. 별 문제 없이 잘 자랐던 쿠온이었지만 단 한번 뜻밖의 말을 해 내 가슴이 서늘해 진적이 있다. 자신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여자 친구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말이었다. 호주 친구들 속에서 당연히 자신을 호주인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쿠온이 동서양 혼혈이나 서양인보다 동양인에 자신의 정체성을 둔다는 점에 놀랐다. 동양인은 서양인 여자 친구를 사귄 수 없다는 생각에도 충격을 받았다. 낙천적인 그에게도 혼혈아라는 자의식이 어깨를 두드렸던 것이다. 그의 사춘기 어느 하루의 증상이었다.

“너는 얼굴 잘생겼지, 키도 크지, 엄마 닮아 피부도 미끈하지, 게다가 시어머니 자리까지 훌륭한데 무슨 걱정이니?”

나는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그러나 내가 잘 생겼다는 말을 할 때마다 쿠온은 피식 웃으며 말을 던졌다.

“한국 아줌마는 모두 자기 자식이 최고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 자신과 자기 가족을 제대로 파악하는 눈이 필요해”

한국 엄마들은 자기감정에 정직하다는 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줌마에 대한 쿠온의 편견은 지금도 변함없다. 쿠온이 말하는 한국 아줌마의 조건 두 번째는 자기 자식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자기 여자 친구를 소개해도 시큰둥하다고 불만이다. 어떤 잘난 여자 친구를 데려와도 자기 아들에게는 못 미친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그럼 내가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아들의 여자 친구를 볼 때마다 나팔을 불고 춤이라도 춰야하나. 그리고 내 아들이 최고지, 뒷집 아들이 최고인가. 역시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쿠온의 조건에 부합되는 한국 아줌마가 분명하다.

쿠온이 나를 한국 아줌마라고 선언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동양인으로서의 선입견을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내가 서양사회에 살면서 깨진 선입견이 몇 가지 있다. 한국에서 교육받고 사

회생활을 하며 가졌던 선입견들이었다. 그 중 하나는 진보적이고 개방적일 것 같던 서양사회가 가진 뜻밖의 보수적인 면이다. 규칙이 엄격한 쿠온의 학교에서는 교복도 단정해야하고 머릿도 교복칼라에 닿으면 안 된다. 선생님께도 항상 존칭을 써야한다. 자유를 존중하지만 방임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또 진취적이고 외향적인 서양 학부모들이 학교의 방침과 부딪치면 반드시 뒤로 물러선다. 부당하다고 교무실에 와서 따지는 부모는 없다. 오죽하면 학교에서 제일 나서는 학부모가 나왔다.

서양인들이 이기적일 것이라는 편견도 있었다. 호주 백인들이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선입견도 있었다. 동양인들끼리 모여 있으면 호주 백인들은 말 걸기를 주저한다. 처음에는 우리를 꺼려한다는 착각을 했다. 알고 보니 먼저 말을 걸어주면 그들은 굉장히 기뻐한다. 우리를 배려해서 조심하는 것이다. 개인적이라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예의 다음에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 쿠온의 여자 친구들은 나와 쉽게 친해지지 않는다. 같은 호주 백인이어서인지 남편과는 대화를 잘 풀어가지지만 나에게 먼저 말을 잘 걸지 않는다.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괘씸했지만 쿠온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라고 한다. 동양인과 대화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월드는 먼 세계인 듯하다.

내가 가졌던 서양사회의 또 다른 편견은 서양아이들이 이성 친구를 일찍 사귀고 성관계가 문란하다는 것이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호주의 남학교에서는 운동을 많이 시킨다. 사춘기의 넘치는 호르몬을 땀으로 빼고 우울증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운동을 좋아하는 쿠온은 학교 스포츠로 힘을 다 쓰기 때문인지 귀가하면 많이 먹고 일찍 잠들었다. 남자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해 여자에게 관심조차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쿠온의 친구들도 십대 후반이 되어서야 여자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쿠온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나는 여자 친구 있냐고 묻는다. 그들의 이성 관계에 대한 나의 호기심이 몸 밖으로 튀어나온다. 진짜 궁금하다. 그럴 때마다 쿠온은 나를 친구들 주변에서 몰아내며 한국 아줌마처럼 굴지 말라고 한다. 여자 친구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왜 한국을 들춰내는지 알 수가 없다. 한국 아줌

마와 아들 친구의 여자 친구간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단순히 한국 아줌마는 남의 생활에 호기심이 많다는 것인가. 한국 아줌마는 아들의 친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인가. 쿠온이 한국적인 것(Korean thing!)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데, 한국적인 것을 얼마나 잘 알고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쿠온이 말하는 한국적인 것의 절정은 ‘빨리 빨리’다. 쿠온은 한국 김치는 좋아하지만 행동은 아빠를 닮아 호주 스타일 ‘느리게 천천히’이다.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하루에 많은 것을 하려고 서두른다. 남편과 쿠온의 모토는 ‘하루에 한 가지’씩 하는 여유 있는 여행이다.

어쩌다 쿠온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앉는 순간부터 답답해진다. 출발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쿠온은 우선 좌석을 다시 조절하고 유리창도 한번 닦아준다. 그리고 휴대폰을 한참 스크롤한 후 음악을 고른다. 음악이 똥똥 나오면 조금 들어보다가 기분에 맞지 않으면 몇 번이고 바꾼다. 몸이 덩실되는 음악이 나오면 그제야 출발한다. 나는 운전석에 엉덩이가 닿으면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고른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바쁘다. 쿠온은 집에서 요리를 할 때도 음악을 준비하는 시간이 한참 걸린다. 야채를 썰 때 듣는 음악과 볶을 때 듣는 음악이 다르다. 내가 빨리 시작하라고 닦달해도 쿠온은 음악을 들으면서 요리를 하면 일의 기쁨이 2배가 된다고 선곡을 바꾼다. 내 속에서 불이 몇 번씩 붙었다 꺼질 즈음에 식사 준비가 끝난다. 요리는 입도 대기 전에 벌써 식어있다.

호주인 남편과 쿠온이 싫어하는 나의 ‘빨리 빨리’는 우리를 곤경에서 구출해주었다. 아이슬랜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항에서 우리는 얼어버렸다. 출구까지 늘어서 있는 체크인 줄 때문이다. 시간 여유를 두고 출발했지만 렌트카를 돌려주는 데 오래 기다려야했다. 갑자기 불어 닥친 아이슬랜드 관광 붐 덕분에 작은 공항이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이대로 가다간 비행기를 놓칠게 뻔했다.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남편과 쿠온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태연한 척하고 있었다. 이민국의 줄은

줄어들 줄 몰랐다. 내가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양보해달라고 하자고하니 남편은 모두 바쁜 사람들이이니 차분하게 기다리자고 말했다. 암전하게 기다리다가 비행기를 놓칠 판이었다. 아이슬랜드의 날씨도 예측불가지만 다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 걱정되었다. 전날 폭풍우 때문에 공항에 갔다 비행기가 뜨지 못해 돌아온 여행자들을 식당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나는 앞에 서있는 한 사람 한사람에게 내 비행기 시간을 말하며 먼저 가도 되겠냐고 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었다. 뒤에서 나를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서있는 두 사람에게 손짓에게 ‘빨리 빨리’ 앞으로 오라고 했다. 체면 불구하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앞서가는 나를 따라오던 그들은 세관을 통과할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날처럼 열심히 땀 날은 내 생애에 없으리라. 다행히 비행기는 놓치지 않았다. 그 날 비행기를 놓쳤다면 비바람 부는 아이슬랜드로 다시 나가야 했을 것이다. 다음 비행기를 탈 때까지의 수고는 한국인 아줌마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덮여진 셈이다. 그 후에도 우리 가족은 몇 번이나 나의 재치 있는 ‘빨리 빨리’로 위기를 모면했다.

쿠온이 손에 꼽는 또 한 가지 한국 아줌마의 특성은 교육열이다. 한국 엄마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엄마들 공통의 특징이다. 호주 사회에서 혹독하게 자녀를 교육하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인 엄마를 타이거 맘(Tiger Mum)이라 부른다. 넌 더 잘 할 수 있어, 넌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어,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날 수 있어 라며 더 잘하라고 자녀를 압박하는 게 아시아인 부모라는 통념이 쉽고 부끄럽기도 하다. 이민자로서 그 사회의 주류에 진입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적을 잘 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민자 부모의 심정에 공감하지만 공부만 잘 하는 아이로 키우는 교육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내 친구의 아들이 호주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의 사장이 됐다는 소식을 쿠온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했다.

“엄마 친구 아들이 대기업의 CEO가 됐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야.”

아무 속뜻 없이 쿠온에게 한 말이다. 할아버지 무덤에 대고 맹세할 수 있다. 그러나

쿠온은 한국 아줌마들은 자식들을 비교한다며 빈정거렸다. 나는 다른 집 아이를 비교해서 자극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쿠온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이었다. 내가 원했던 엄마의 이상은 코끼리 엄마처럼 옆에 서서 보호하고 격려해주는 동반자였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쿠온에게 어떤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내보였을 수도 있다. 쿠온이 어렸을 때는 음악학원도 열심히 데리고 다녔다. 그러나 얼마 후 쿠온은 확실하게 음악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쿠온이 거절한 음악에서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찢긴 기분이 들었을 때 나는 알았다. 자식을 통해 다시 살고 싶은 내 꿈이 보였던 것이다. 자식이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하기위해 나는 내 시간과 쿠온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남의 집에 들어났던 한 발을 빼야했다. 엄마의 욕망을 위한 시간이 쿠온에게는 없었다. 그러니 한국에서 내 부모가 나에게 교육을 시키며 기대했던 은근한 보상감이 내게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쿠온이 나를 한국적으로 규정하는 또 한 가지는 의사 표현이다. 자기 의사를 뚜렷이 표현하는 서양식 교육을 받은 쿠온은 나의 침묵을 이해하지 않는다. 서로 부딪치는 일이 생기면 바로 대화로 푸는 그로서는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내가 답답할 수밖에 없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입을 다물어버리기 때문이다. 말로 흘려버리지 않으면 감정이 정체되어 관계가 썩어버릴 수도 있다. 사실 나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내 경상도 한국 가족의 정체성은 말없음표이다. 그런 내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화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나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머릿속 생각의 방구석에 앉아 화해의 시간을 기다렸다. 이제 생각은 함께 나누는 대화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다. 내가 나서서 표현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사실 말을 해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말도 안하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 눈빛만 봐도 아는 것이 절대 아니다. 돌려서 말해도 안 되고 자세히 말해야 조금 알게 된다. 조목조목 짚어가며 대화를 하면 오히려 풀리고 관계가 개선되기도 한다. 그래서 말을 더 많이 하는 가족 안에서 자란 아이들의 행복도지수가 높다고 한다. 관계는 그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도 배우는 중이다.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특히 바다를 건너 와서 만난 다른 인종 다른 나라 사람을 가족을 두는 일은 타고난 성격조차 바꾸어야만 가능하다.

쿠온의 친구 루카스의 엄마는 칠레인이고 아빠는 아르헨티나인이다. 자부심이 강한 아르헨티나인답게 루카스의 아빠는 떠나온 고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만날 때마다 강조한다. 호주와 비교되는 아르헨티나의 우월함을 열성적으로 토해낼 때마다 그가 왜 호주로 이민을 왔는지 궁금할 때가 있을 정도다. 몸만 호주에 있고 마음은 항상 고국에 살고 있다.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자식이 성장하여 그만의 가정을 이루고 독립할 때, 아니면 고국에 돌아가 편안하게 먹고 살 정도의 경제적 풍요를 갖추었을 때일 수도 있다. 고국을 떠난 이민자들은 항상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 곳 고향이 그들의 자존심이며 가슴 깊숙이 남아있는 존엄함이다. 나의 선배들도 나이가 더 들면 남은 생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양로원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것이다. 호주 양로원에서 매일 아침 빵과 버터를 먹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루카스의 부모는 호주에서 삼십년 넘게 살았지만 남미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생활한다. 매일 고향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비디오 통화를 한다. 음식도 남미식이며 교류하는 친구들도 스페인어로만 말하는 남미사람들이다. 다양한 인종들의 조화로 우뚝 선 호주라는 큰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지가 모두 따로 뻗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인들은 중국인끼리 모여 사는 동네로 모이고 한국인들 역시 그들만의 그룹을 이룬다. 중국인들이 이십오 퍼센트 이상이 되면 호주 백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동네를 떠나 백인들이 더 많은 동네나 아예 이민자들이 없는 시골 동네로 이사를 간다. 도서관이나 헬스클럽 같은 공공시설도 마찬가지다. 내가 다녔던 헬스클럽안의 줌바클래스에는 십 년 전만 해도 백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중국 이민자들이 시드니의 집을 대거 구입하여 이민을 온 후 클래스에는 중국인들이 늘어났다. 중국인들이 사십 퍼센트 정도까지 클래스를 차지하게 되자 백인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다민족 사회가 잘 섞여있는 것 같지만 사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다. 동양인들만이 아

나라 남미나 아프리카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만의 가치를 치고 산다. 다양한 길이와 두께의 가지들이 뻗은 큰 나무는 햇빛이 좋고 비가 잘 내리면 아무 문제없이 잘 자란다. 그렇지만 태풍이 불고 산불이라도 나면 흔들리고 꺾이고 떨어진다. 코비드19같은 불상사가 생기면 다른 인종을 의심하고 다른 지역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존재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던 벽이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루카스의 부모는 선천적으로 유쾌한 바이러스를 타고난 사람들이다. 그들과 어울리면 남미인 특유의 쾌활하고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나조차 정신을 잃을 정도로 즐거워진다. 쿠온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태어난 루카스는 이런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다. 오랜 세월을 호주 사회에 살면서 좀처럼 변하지 않으니 말이다. 호주인 여자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루카스는 그의 부모에게 공식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루카스의 어머니는 아들의 불만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나에게 말해주었다. 첫째로 남미 사람들은 너무 말이 많고 시끄럽다. 다음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없어서 창피하다고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 불만에 나는 앓 하는 동질감을 느꼈다. 쿠온이 한국인 어머니에게 했던 불만이기 때문이다. 남미도 한국처럼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문화는 아닌 듯하다. 호주 사람들은 내가 감사한 일도 자신들이 감사하다고 먼저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냥 쉬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땡큐’이다.

내가 호주에 처음 정착했을 때 ‘땡큐’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다. 서양 사회의 에티켓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 생각만큼 자주 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쿠온이 유치원에 다닐 때였다. 식탁에서 내가 떨어뜨린 나이프를 쿠온이 주워주었다. 무심코 받아들고 식사를 계속 하는 내 얼굴을 뻘보며 쿠온은 토박토박 말했다.

“엄마, 세이 땡큐”

쿠온이 어렸을 때는 가게나 식당 같은 곳에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땡큐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항상 옆에서 쿡쿡 찌르며 세이 땡큐라고 속삭여 나를 무안하게 했다. 남이 나를 위해 한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적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본다. 내

가 떨어뜨린 젓가락을 셀 수 없을 만큼 주워주었던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가.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게 된 지금 내 옆에는 엄마가 없다. 감사를 느낄 때 오는 충만한 행복감은 고맙다는 말로 표현될 때 더욱 커진다.

마음속으로 감사하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감사하는 마음은 반드시 표현해야한다는 것을 아들에게 배웠다. 서양인 아들이 한국인 아줌마에게 해준 가장 감사한 말은 '세이 땡큐'이다.



체험수기
부문



가작

2021
재외동포
문학의 창



글짓기 중 · 고등 부문



최우수상

유다운 (태국) _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며 • 252

우수상

심로미나 (아르헨티나) _ 어긋난 나라의 앨리스 • 257

김시은 (조지아) _ 낯선 나라에서의 용기 • 263

장려상

양지수 (중국) _ 3국 인싸(insider)의 꿈을 품다 • 268

정지은 (아르헨티나) _ 같은 하늘 아래 • 273

허지원 (영국) _ 나, 김환기,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인 • 279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며

유다운 [태국]

정확히 오후 6시만 되면 우리 집에는 새들의 합창이 시작된다. 무반(태국에서는 주택이 모여 있는 빌리지를 이렇게 칭한다) 안의 새들은 우리 집에 다 모인 것처럼 시끄러워 그 시간에는 티비를 보는 것도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다. 그 소리도 소리지만 집 주위는 온통 새똥 투성이었고 울창한 나무 그늘에 무반 안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십터와 다른 집 방문 차량들까지 다 우리 집 앞으로 모였었다. 그래서 밖에서도 훤히 보이는 우리 집은 대낮에도 커튼을 치고 살아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가려진 커튼을 거두어내니 눈부신 햇살이 그대로 우리 집 거실로 쏟아 들어왔다. 정원의 무성했던 나무들은 가지가 다 잘려나가고 앙상한 줄기만이 남아있었다. 무반 관리 사무소에서 나무가 너무 자라 가지와 이파리들이 전선들을 감싸고 있어 잘랐다고 하였다. 오후 6시가 되어도 주위는 온통 고요뿐이었다.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던 우리에게 더 이상 손님은 없었다. 이제 그늘을 찾아모이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타들어갈 것 같은 강렬한 햇빛 때문에 암막 커튼을 치고 살아야 한다. 온기는 사라졌고 적막감만이 남았다.

재잘거리던 새 친구들을 잃어버려 외로워 보이는 나무를 보니 미안마에 홀로 계신

아빠 생각이 났다. 우리 가족은 8년 전 캄보디아에서 미얀마로 발령이 나신 아빠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빠는 미얀마에 그리고 엄마와 나, 여동생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족이 소중했던 아빠였지만 어렸을 때 천식으로 몇 번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나 때문에 같이 미얀마로 가지 못하고 좀 더 의료환경이 나은 태국으로 오게 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주말마다 아빠를 만날 수 있었기에 아빠의 부재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들은 주말에는 각자의 일을 내려놓고 같이 보내며 즐겼다.

그런데 작년 만물이 소생한다던 봄에 우리 가족의 겨울은 다시 찾아왔다. 정말 잔인한 봄이 시작되었다. 코로나로 태국은 봉쇄령이 내려졌고 나는 아빠 얼굴을 거의 1년 반 정도 못 보고 있다. 우리 가족은 조금만 더 버티면 백신도 나올 거고 아빠도 자유롭게 태국에 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버티고 있다. 아빠는 태국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갱년기가 찾아온 거 같으며 우리가 전화를 조금이라도 살갑게 받지 않으면 우울해하시고 짜증도 내시며 또 때로는 아빠 보고 싶다는 말을 해달라며 어린아이처럼 떼도 쓰셨다. 그렇게 힘든 나날들이 이어졌지만 우리 가족은 잘 이겨내고 있었다. 아빠는 올 초 어떻게든 태국으로 들어가야겠다며 방법을 찾고 계셨고 곧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며 아이처럼 들떠있었다. 나 역시 아빠가 손에 가득 선물을 들고 들어올 날만을 기다렸다. 이렇게 아빠를 맞이하려 준비하는 우리에게 칭찬 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다.

2월 초 어느 날이었다. 항상 학교 주차장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던 엄마는 주차장이 아닌 학교 사무실에서 나오고 계셨다. 테리러 오신 엄마의 표정은 굳어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그날 저녁 엄마는 우리에게 낮고 조용한 음성으로 미얀마에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하셨다. 아빠는 오전에 전화로 그 소식을 전해주시며 제일 먼저 한 걱정이 몇 달 뒤 내야하는 우리의 수업료였다고 하셨다. 미얀마의 상황이 좋지 않아 은행이 닫힐 수도 있어 수업료 먼저 내야 한다는 생각에 엄마

와 아빠는 학교를 오가며 바빠 움직이셨다. 엄마가 학교 사무실에서 나온 이유였다. 그렇게 부모님은 남들보다 3달 먼저 수업료를 납부하셨다. 아빠는 수업료와 생활비를 보내고 나서야 “우리 큰 딸 마지막 수업료를 드디어 냈네. (난 이제 졸업을 1년 앞두고 있다)”라며 웃으셨다. 그 뒤부터 우리 가족은 뉴스를 살펴보며 하루하루를 불안해하며 보냈다. 정말 뉴스에 나오는 미안마 소식들은 금방이라도 아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나의 마음을 옥죄어왔다.

아빠가 태국이나 한국으로 나오기를 바랐지만 아빠는 우리의 생계가 미안마에 달린 이상 사업체를 두고 나올 수는 없다고 하셨다. 너무나 걱정하는 엄마에게 아빠는 미안마 슈퍼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시며 먹을 것도 많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우리를 안심시키셨다. 아빠는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하얀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았다. 그런 아빠 앞에서 엄마는 애써 밝은 척, 태연한 척 하셨다.

그렇게 두려움이 우리 가족을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던 3월 어느 날, 신한은행 여직원 이 총상을 입었다는 뉴스 기사에 엄마는 아빠에게 카톡을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 3일 동안 엄마는 애써 침착하시려 노력하셨지만 우리 가족은 전화기만 보며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다. 그리고 3일 후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전화에 온 가족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학교 숙제를 하고 있거나 티브이를 볼 때 바쁘다는 핑계로 나와 동생은 아빠의 전화를 통명스럽게 받을 때가 많았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아빠의 전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내 마음속의 답답함이 안개처럼 걷히는 것 같았다. 그 뒤 난 아빠와 매일같이 전화 통화를 했으며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아빠의 전화를 우선순위에 두었다. 아빠는 오히려 올 1월과 3월에 일어난 태국에서의 코로나 대 확산을 걱정하시며 아빠가 일이 줄어들어 한가해지니 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며 너스레를 떠셨다.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불안함이라는 두려움 속에 갇혀 살지 않는다. 아빠의 전

화를 매일 기다리며 좋아하는 음악 이야기, 영화나 드라마를 서로 추천해 주며 즐거운 대화만 나눈다. 미얀마에서 밖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해 시간 여유가 생긴 아빠는 우리와 같이 공유할 이야기거리가 더 많아진 것이다. 그렇지만 아빠는 여전히 미얀마에서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군부의 무자비함에 혼자 속으로 울며 두려움과 싸우고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 아빠에게 나, 엄마, 동생은 모든 걸 태워버리는 강렬한 태양 속 한순간의 달콤한 휴식과 같은 존재이다. 마치 우리 집 정원의 울창한 나무숲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아빠가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방패가 되고 희망이 되어 드리려 한다. 그런 생각을 하니 정말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집안에 웃음만이 퍼졌다.

엄마 역시 14년 동안 동남아에 살면서 캄보디아의 부정선거에 대한 유혈사태로 다급하게 태국으로 도피해야 했던 일. (그때 아빠가 한국 출장 중이셔서 엄마는 홀로 어린 나와 동생을 데리고 캄보디아를 빠져나왔었다.) 그리고 태국 이주 후 태국의 군 쿠데타와 지금도 진행 중인 코로나에 이제는 미얀마의 쿠데타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잘 이겨왔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셨다.

이런 부모님을 보며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주인공 귀도가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잡혀 죽으러 가는 순간에도 5살 아들 조슈아에게 이건 즐거운 게임이라고 말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떠올랐다.

“아들아, 아무리 처한 현실이 힘들어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란다”라는 대사와 함께 ...

이제는 알 것 같다. 아빠는 그 총성 속에서도 아빠의 목숨보다도 내 학비가 먼저였

고 태국의 코로나 확산이 더 무섭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학교생활 잘 하며 이곳 치앙마이에서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버티고 계신다는 것을 ...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다.

겨울은 춥고 시린 것만은 아니다. 모든 추위를 녹여줄 것 같은 솜사탕처럼 달콤한 함박눈도 있다.

어둠은 깜깜함과 막막함만 있는 게 아니다. 지친 나를 어루만져 주고 쉬게 해주는 고요함도 있다.

우리 집 정원의 울창한 나무들이 시끄러운 새소리와 새똥만 준게 아니었다. 우리 집과 이 무반 안에서 일하는 분들의 실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었다. 난 이제 매일 아침 커튼을 걷고 앙상해진 나무를 보며 언젠가 울창해질 그날을 기다린다. 물론 나무 이파리들이 자라 전선을 감싸면 다시 잘라지겠지만 또 자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지가 자라고 이파리가 커지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어쩌다 불어온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은 따스한 그리움으로 내 뺨을 어루만지며 나지막하게 속삭인다.

“더 혹독한 추위 속에 더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는 법이야”



어긋난 나라의 앨리스

심 로 미 나 [아르헨티나]

안녕! 나는 어긋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해.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일단 18년 전으로 돌아가자. 2003년, 난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어. 우리 부모님은 이곳으로부터 가장 먼,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서 오셨지만 그래도 난 당연히 나도 주변 애들과 다를 게 없는 아르헨티나인이라고 생각했지. 그저 디즈니 영화들에 흠뻑 빠져 있는 순수하고 부끄럼 많은 흔한 꼬마였거든. 그런데 내가 5살이 됐을 무렵 깨달았어. 난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걸.

난 아르헨티나에서 자랐지만, 한국인 유치원과 한국인 초등학교, 그리고 한국인 교회까지 다녔어. 그래서 난 항상 한국인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자랐어. 내가 다섯 살 때부터 다녔던 학교의 이름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딱 봐도 그렇겠지만, 아르헨티나에 사는 한국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지. 오전에는 그 어느 학교가 그렇듯이 수학, 역사 그리고 또 재미없는 몇몇 과목들을 스페인어로 배웠고, 오후에는 영어와 한국어를 배웠어.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의 반은 현지인분들이셨고 또 다른 반은 한국인분들이셨어.

우리 학생들은 속히 “한폐인어”라고 하는 언어로 대화했어. 우리의 방식대로 두 개의 언어를 섞어서 사용했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건 그들의 문제고. 우리끼리는 다 이해를 했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들이란걸, 아니,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란 걸 알아채지 못했어.

1학년.

매주 목요일 체육 시간, 우리는 스쿨버스를 타고 수영장으로 향했어.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수영장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면서 우리 또래의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마주쳤어. 그 아이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눈을 찢으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어.

“너희 나라로 돌아가”

“중국인들”

“칭챙총”

충격적이었어. 그때, 우리 반에서 그나마 가장 용기 있는 친구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한 마디는 “우리는 한국인이거든!”이었어.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어. 나는 다르다는걸. 나는 소수자라는걸.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선호하지 않는 모양의 눈을 갖고 있다는걸. 그 누구도 내가 이곳에 있길 바라지 않는다는걸. 어긋난 곳에, 어긋난 나라에 있다는걸.

나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는 법을 그때 알지 못했어. 이제 겨우 다섯, 여섯 살에 어린아이들이었기에.

2학년.

이런 인종차별의 경험을 몇 번 겪어도 여전히 충격적이었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어느 박물관 같은 곳으로 견학을 갔다 오고 교실로 돌아오고 나면 아이들은 모두 격양된 목소리로 자기들이 들었던 모욕적인 일들을 하나둘씩 선생님에게 일러바쳤어.

“선생님, 어떤 애가 저를 보더니, 눈을 찌었어요.”

“선생님, 저는 화장실에서 마주친 아이한테 갑자기 욕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썩지라면서.”

“선생님, 저희는 왜 어디를 갈 때마다 이런 일을 겪는 걸까요? 저희가 뭘 잘 못 한 걸까요?”

선생님은 너희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라고는 하셨지만, 어디를 가나 주눅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

3학년.

우리는 서서히 그런 말들과 그런 손짓들에 적응하게 됐어. 상처는 여전히 받았었지만 익숙해지더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아직 몰라서 그저 무시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었지.

“개고기 먹는 놈들이 왜 여기 있어?”

“...”

4학년.

우린 컸고, 드디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웠지.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어.

“우리나라에서 꺼져.”

“우리도 이 나라 사람들이야.”

“중국인들이 왜 여기 있어.”

“우리들의 부모님은 한국인분들이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태어났어!”

5학년.

사람들은 여전했어. 지치더라고. 그쯤 되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무시할 수 있었어.

“아리가또!”

“...(뭐래)”

6학년.

우린 농담도 치고 그들을 비웃을 정도로 즐기기 시작했어.

“거기 중국인들, 아리가또!”

“응, 아리가또. 아리가또는 일본어인데. ㅋㅋㅋ”

그 수준에 다다랐을 무렵, 우리는 졸업을 하게 됐어. 그렇게, 서로 보호해 주던 “우리”라는 팀은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됐지.

나는 Mirana(미라나)라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어. 한국인 학교는 아니었지만, 나 같은 한국인들이 꽤 많았어. 그리고 웃긴 건, 우리 반에는 총 3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중에 25명은 남학생들이었고 나머지 5명은 여학생들이었어. 게다가 우리 여자들은 모두 동양인들이었고, 한 명은 중국인, 나머지 네 명은 한국인들이었지.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그들은 내가 인종 차별을 당할 때 대신 싸워줬어.

“너같이 눈 찢어진 애들이랑은 말 섞기 싫어.”

“방금 앨리스한테 뭐라 그런 거야? 미쳤니?”

“우리도 너같이 무식한 놈들이랑은 말 섞기 싫거든.”

“김밥 맛있다”

“재네는 뭐 저렇게 이상한 걸 먹어”

“우리 먹는 거에 뭐 문제라도 있니?”

이 아이들은 용감했어. 아니, 내가 겁쟁이었지. 모두 자기 목소리를 내는 법을 알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법도 알았어. 그런데 나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 나를 보호하지 못했어.

운 좋게도, 나는 이 울타리 안에서 2년을 더 보호받을 수 있었어. 그렇지만 이곳을 떠나야만 하는 시간이 오고야 말았어.

얼마 전, 나는 이번에 처음 들어본 Cheshire (체셔)라는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됐어. 내가 살던 곳에서 1시간 정도 거리더라고. 부모님께서 내게 처음으로 이사한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을 때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 내 친구들과 내가 평생 살던 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곳에는 동양인이 단 한 명도 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어.

살면서 처음으로 한국인은 물론, 동양인도 없는 곳으로 오게 됐어. 어젯밤, 잠을 못 자겠더라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새로운 학교로 가야 한다는 걸 알았기에, 무서웠어.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인종 차별적인 말을 들으면 어떡하지?’

“항상 내 곁에는 나를 지키던 그 용감한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 혼자네.”

해가 밝았어. 가방을 싸고, 새로 산 교복을 입고, 아빠의 차에 탔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 학교 복도를 걷다 보니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고.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껴졌어. 외계인이 된 기분이야.

혼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걸까?

모르겠다.

교실에 들어가니 파란 눈에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눈빛으로 모두 나를 주목하고 있고 선생님께서 나보고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시네.

“안녕! 나는 어긋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해.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낯선 나라에서의 용기

김 시 온 [조지아]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나라에 살고 있는 김OO입니다.

저는 2007년 한국에서 태어나 바로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중학생이 되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내용은 모두 슬픈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한국에 살다가 낯선 나라에 오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전 어머니의 말의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을 다닐 때 전혀 힘들지 않았고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도 울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친구도 많아 정말 좋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외국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 때 어머니는 내가 적응을 잘하는 것을 보며 너무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 또다시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것에 적응하려니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웁긴 나라에는 제가 전에 있던 나라와 많은 차이는 없었지만 새로운 언어, 학교, 친구 이것들을 다시 적응하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되면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잘 몰랐고 선생님에게 말하면 저와 친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말을 할 때 더듬는 저를 보며 아이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기 싫어졌습니다.

저는 엄마가 이 말을 듣고 슬퍼하실까 봐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매일 웃고 즐겁게 노는 평범한 아이로 보였겠지만 저는 제 안에 있는 슬픔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홀로 챙겨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진이었습니다.

그에게 맞아서 우는 애들을 봤지만, 저를 처음 봤을 때 저만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애들을 만나면 괴롭힐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챙겨주는 아이와 정말 빨리 친해졌습니다.

친해지고 나서는 친구에게 고민도 말하고 학교를 나와 다른 곳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그 아이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4학년이 되자 저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컸습니다.

아이들도 많고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에 같이 놀았던 친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장난으로

“야 너 진짜 용기가 없다. 너는 그래서 친구를 사귄 수 없는 거야”

라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장난으로 말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말을 통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4학년 땀 용기를 내 정말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4학년 땀 제가 다녔던 학교 중에 가장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자마자 전학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언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 언어를 배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도 물론 어려웠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5학년 친구 없이 지나가는 줄 알았지만 좋은 선생님을 통해 친구들은 모두 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5학년과 6학년을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6학년까지 있는 학교였고 그 학교를 마친 뒤 또다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유일하게 수영장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학교로 갔고 저도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반을 찾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와 함께 반을 찾게 도와줬습니다.

제 반은 2층에 있었습니다.

그 반에는 제가 모르는 아이들만 가득했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다녔던 학교에서 나온 친구들이 거의 다 여기로 넘어왔지만, 반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제가 아는 아이가 없어 불안했고 그 아이들은 제가 눈이 찢어졌다고 놀러갔고 저는 7학년도 힘들게 지나갈까 봐 걱정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저는 3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전에 다녔던 학교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을 슬쩍 보고는 반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반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다닐수록 제가 다니는 반과 친구들을 모아 놓은 반이 너무 차이 난다는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에는 공부하는 애라곤 나밖에 없었고 공부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반면 두 번째 반에는 모두 공부를 하는 애들이었기에 우리보다 진도를 2배는 더 빨리 나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말씀드려 아버지는 학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 가서 왜 이렇게 반을 아는 사람끼리만 짝을 짰는지 물어봤는데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들의 어머니들이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짜 달라고 담당자에게 말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가 이렇게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8학년이 되었습니다.

8학년이 되자 결국 학교가 심각성을 느끼고 반이 합쳐졌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공부를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공부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적응하고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범하게 8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했던 것을 되돌아보곤 하는데 매일 엄마가 말한 말이 생각나곤 합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평생 한국에 살다가 낯선 나라에 오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많이 살지도 않고 평생 다른 나라에서 살아왔지만 이렇게 힘든데 평생 한국에서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는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평생 모르는 나라에서 나를 키워 주시고 이렇게 길러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3국 인싸(insider)의 꿈을 품다

양지수 [중국]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두 살이 되던 해에 중국으로 와서 지금까지 중국 심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문화 가정으로,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중국인입니다. 중국에서 생활하고 중국 학교에 다니지만, 저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어머니의 나라인 중국에 살면서, 저는 외국인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외갓집이나 한국의 친가에 가면, 제가 두 나라 문화를 공유한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도 양가 친척들의 정서가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 모두 유교를 바탕으로 한 가족문화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한국과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중국 학교의 교육방식은 완전 주입식 교육입니다. 특별히 정지적인 내용은 이해의 과정 설명 없이 무조건 외우라고 시킵니다. 평소에 나와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학급 친구들이 그럴 때는 중국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평범한 수업이겠으나, 두 나라 교육을 같이 받는 제게는 이국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발 물러선 시선으로 보자면, 중국 정치인들은 너무 신격화되어 있고, 정치 학습은 중국 중심적 전체주의를 심어주는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을 받는 동급생들이 정치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방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자란 중국인들이, 성인이 되어서 국수주의 사상과 타국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도 중화주의며 중국 최고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택시에서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알면, 택시 기사는 대뜸 자기 나라를 자랑합니다. 더 나아가면 한국 문화 또한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 기사가 외국인이라고 물으면 그냥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택시 기사들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정치적 논쟁이 생기면, 저는 자연스럽게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이방인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한 주일에 5일 동안은 중국 학교를 가고, 주말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주말 한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문화 학습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말학교나 한인교회는 친목모임의 성격도 있어서 가면 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한국 문화만 좋아하지 않고, 중국 문화도 다양하게 익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중국 학교에 입학하면 군사훈련을 갑니다. 중국은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할 때, 군사훈련을 통해 전체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군사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중국 학교를 다니는 한국 학생들은 거의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모님은 그 군사훈련이 친구들과 나를 단단하게 결속하게 해줄 거라면서, 저를 거기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바람대로 저는 거기에 가서 중국 학생들과 친밀하고도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사훈련을 통해 흔히 말하는 ‘인싸(insider)’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중국 학생들과의 학교생활이 즐거웠고,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남의 나라 문화에 끼어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문화를 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가정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철학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고 얻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소 좌우명처럼 말씀하시는 맹자(孟子)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의미를 풀어보면, 맹자가 말하길, 인생의 성공 3요소로 천시(天時) 즉 ‘하늘의 때’와, 지리(地利) 즉 땅의 이점과, 인화(人和) 즉 ‘화합의 힘’을 꼽는데,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화합하고 서로 돕는 〈인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제가 평소에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고 주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좌우명과 철학을 늘 보면서 따라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중국과 아버지 곁을 떠나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려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당연히 군대도 가게 될 것입니다. 진짜 내 고향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것에, 저는 벌써부터 두근두근 설렘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에 갔을 때 우선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것과 함께 저의 가장 큰 바람 중 하나는, 한국 친구와 선후배들을 많이 사귀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도 당연히 ‘인싸’에 도전하고, 또 많은 한국의 ‘인싸’들과 만나며 교류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아버지의 나라 대한민국을 배우고, 또한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나라 중국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는 친구가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 ‘친구 사귀기’는 저의 특기이자 장점이 라고, 저는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 ‘좋은 관계 하나가 살 길 하나를 더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 좋은 친구가 중요하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 사귀에 관한 저의 욕심은 서울이 끝이 아닙니다. 평양도 가고 싶고, 평양 친구도 사귀고 싶습니다.

얼마 전 특강에서 들었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사람인 짐 로저스는 20여 년 전에 중국에 투자하라고 주장했고, 최근엔 북한 개방 시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매우 희망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북한이 개방되면 적어도 향후 50년간 ‘기회의 땅’이라고 그는 홍보 중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중국 심양에서 압록강은 가깝습니다. 북한 식당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심양에서 자란 제게 북한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손 내밀면 잡히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의 장밋빛 전망이 제게는, 기다리던 봄소식처럼 성큼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 기대와 전망을 배경으로, 저는 1차 중국의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2차 한국의 친구들도 많이 사귀며, 그리고 나아가 머지않아 가능하다면 3차 북녘땅 평양의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도 모두를 친구로 만드는 ‘인싸’가 되고 싶습니다. 3국 모두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인싸’가 되는 것이 저의 또 다른 꿈입니다.

저의 친화력과 노력으로 3국의 좋은 친구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다가오는 북한 개방시대에는 3국 공동번영의 멋진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 심양 땅에

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성장한 저의 운명이요, 저의 꿈이요, 역사적 소명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짐 로저스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짐 로저스는 20년 전 중국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자기 막내딸을 중국 학교에 전격 입학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딸에게 나의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중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내 딸의 미래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다.”

와우, 그런데 이미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 덕분에, 어머니의 나라에서 중국 친구들을 너무도 잘 사귀고 있고, 이제 곧 아버지의 나라에서 최고의 한국 친구들을 만나며 마음껏 공부할 기회까지 허락받았으니, 정말이지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존재임을 똑똑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정녕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특별히 중국 심양 땅에서 자란 것을 하늘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약속합니다. 전 세계가 기대하는 ‘기회의 땅’인 한반도의 찬란한 미래를, 작지만 저의 온 가슴으로 품고 3국의 친구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정 지 은 [아르헨티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어느 늦은 밤, 로키는 자신의 집으로 오기로 한 슈슈와 구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교 시절부터 친했던 이들은, 다음 달에 열릴 큰 마을 행사의 기획을 셋 중 누가 맡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모였다.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인 만큼, 행사는 포용적이어야 하고 유연해야 하기에 신경 쓸 일이 많을 터. 능력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이 뽑혀야 한다는 점에서는 세 명 모두 동의하는 바였다.

모두 모여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한 후, 각자 자신이 회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던지시 풀어놓기 시작했다. 진정한 토의가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다. 우선 슈슈는 자신의 증조할아버지 세대부터 이 남미 동쪽 마을에 거주하였기에 마을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점을 생각하면 당연히 자신이 행사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하지만 구영은 비록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이민을 와 슈슈만큼 오랜 기간 마을에 살진 않았지만, 세대는 변하고 있기에 시대의 흐름과 다문화 마을이 된 이 마을 주민들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자신이 회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로키는 곤란했다. 그는 오히려 친구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미 취직에 성공한 친구들과 달리 로키는 아직도 대학생이었고, 언젠간 꼭 미술 감독이 되고 싶은 자신의 꿈을 이루려면, 이런 경험이 절실했다. 그렇기에 로키

도 이 자리를 내어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슈슈와 구영도 이런 로키의 상황을 이해했기에 잠시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씩씩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잠시 대화의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어 보였다. 먼저 구체적인 행사 얘기를 꺼낸 것은 구영이었다. 직접 챙겨온 포스터를 꺼내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마을에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크고 작은 차별 사건들이 증가함을 고려해 인종차별 단절 캠페인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야심 차게 발표를 한 구영과는 다르게 친구들의 반응은 다소 애매모호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을에는 인종차별이 없지 않나?”

로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구영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외부에서 온 구영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셀 수 없이 많은 모욕과 차별을 당해왔지만, 원주민인 로키와 슈슈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었던 것이었다. 순식간에 몰려온 배신감에 구영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되물었다.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한 건 뭘데?”

“뭘? 누가 너에게 그런 짓을 했던 말이야?”

로키는 정말 몰랐던 듯이 걱정을 하며 말했다. 차별이란 이민자들이 흔하게 겪는 일들이었지만, 구영에게는 말하기에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였기에,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구영: 내가 처음으로 당한 일은 길거리에서 ‘치노(중국인)’라고 불리는 일이었어. 나는 한국인이지만, 아시아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야.

슈슈: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고 하지 그랬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건 당연하잖아. 알았으면 당연히 안 그랬겠지.

구영: 그들이 정말 내 국적이 알고 싶어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들은 그저 나를 배척하고, 나는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로키: 글썸. 사실 내가 보기엔 그들이 인종차별주의자라기보단 그저 예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소리치는 것 자체가 예의 없는 행위잖아.

구영: 정말 그렇게 생각해? 만약 그저 예의가 없는 거라면, 모두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외적으로 외부인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예의 없게 구는 건 인종차별이 맞잖아. 너는 길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나 있니? 누가 너에게 치노라며 말을 건 적이 있어? 현지인인 너희가 우연히 운이 좋은 것 뿐일까?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라면 어쩔 그런 일들은 꼭 나에게만 일어나는 거야?

로키: 그건 그러네.. 하지만 그들이 꼭 나쁜 의도로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슈슈: 내 말이. 다르다고 차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신기해서 말을 건 걸 수도 있잖아. 궁금하니까, 친해지려고. 네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인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바쁜 생활에 지쳐 예민해져 있는 걸 수도 있어. 설마 친해지려고 하는 것조차 나쁘다고 하지는 않겠지?

구영: 아무리 순수한 어린아이라도 자신이 차별당하는 걸 느낄 수 있어. 당해보면

안다고. 그리고 가까워지려 한다고 해서 차별이 허용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한국 책을 읽을 때마다 중국어도 읽나고 콧 집어 얘기하는 사람들과 그저 고맙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중국어로 '세세' 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아니? 심한 사람들은 나보고 내 나라로 돌아가래. 어떤 이들은 내가 먹는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며 나를 밖으로 쫓아내.

슈슈: 하지만 구영, 네가 우리와 다른 건 사실이고 그들이 너를 다르게 보는 건 어찌면 당연한 일이야. 네 말을 들어보니 심각성이 느껴지긴 하지만, 가끔은 네가 무조건 나쁘게 받아들이고 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구영: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무서울 정도로 반복적인 차별을 겪게 되면 누구든 지치고 짜증 나게 돼. 넌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지. 나도 한두 번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돼. 조금만 더 넓게 보면 결국 다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거고 나도 그들과 똑같이 자라왔는데 말이야. 외모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로키: 구영.. 많이 힘들었겠다. 정말 몰랐어. 하지만 그렇게 상처만 받고 살면 너에게도 안 좋잖아. 그냥 웃고 넘어가 봐. 차라리 무시해. 굳이 저 사람이 나를 차별하려고 하네 라는 생각을 해서 좋을 건 없잖아? 너만 상처받는 일이야.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려니 하고 네가 이해해 봐.

구영: 가해자는 가만두고 피해자 보고 이해해라 용서해라? 너는 당하지 않을 일이니 개선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웃어넘길 수 있으니 남들은 상처를 받든 말든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야?

슈슈: 우리는 널 진심으로 생각해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니? 현실적으로 당장 모든 걸 바꿀 순 없으니 너라도 마음을 가볍게 먹고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잖아.

구영: 정말 널 위한다면 그런 의미 없는 조언보단 위로를 해줘. 당장 모든 걸 바꿀 수 없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해봐야지. 너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도 누군가에게 얼마나 불편하고 기분 나쁜 건지 알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어떤 인식의 변화라도 생길 거 아니야. 인종차별을 숨 쉬듯 해대는 그 사람들의 인생에 스쳐 지나간 누군가는 자신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는 걸 알아야 할 것 아니야. 다음번에는 잠시라도 주춤할 수 있도록. 만약 정말로 상처 주는지 모르고 할 말이었다면 다음부터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말아야!

구영은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남겨진 이들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이 멍하니 앉아있었다. 오랜 시간 구영과 알고 지냈지만 이런 부당한 일들을 겪고 지내는지는 몰랐었다. 슈슈는 손으로 얼굴을 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 동료 중 아시아계의 사람에게 가끔 치노라고 불렀다. 슈슈는 나름대로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이런 자신의 무지한 행동을 합리화하고자 구영의 말에 그렇게 반박을 한 걸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구영의 이야기를 들은 지금 죄책감이 밀려왔다.

로키도 비슷한 마음이었다. 로키는 지금까지 인종이 다르단 이유로 폭력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만 인종차별인 줄 알았었다. 자신은 방관해왔던,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불합리한 일들이 자신의 친구를 이 정도로 괴롭히고 있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간 외국인들을 향한 자신의 부주의한 언행과 행동들이 그들에게 어떤 상처로 다가갔을지 생각해 보니 이런 사회의 문제들을 무시한 채 살아간 저 자신이 부끄러웠

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영이 돌아왔다. 구영 역시 느끼는 게 많았다.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는 바람에 친구들에게 화풀이한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그래서 마음 정리를 하고 사과를 하러 돌아온 것이었다. 가까이 다가오는 구영을 슈슈와 로키는 조용히 바라보았다.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다. 그러다 구영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슈슈와 로키 모두 차례대로 사과의 말을 건넸다.

“미안해 구영. 네 상황을 더 이해해 줘야 했는데. 내가 경솔했어.”

“나도 미안해. 느끼는 바가 많네. 너만 괜찮다면 나는 네가 회장을 해줬으면 해. 이번 행사에서만큼은 상처를 입는 사람도,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

구영은 친구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는 그들에게 행사를 함께 기획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는 행사이니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계획해 나간다면 더욱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거란 취지에서였다. 그렇게 해서 셋은, ‘같은 하늘 아래’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차별에 있어 목소리를 내기로 약속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나, 김환기,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인

허지원 [영국]

이 글은 영국에서 태어난 저와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외국에서 활동한 한 천재 한국인 예술가와의 작품을 통해 경험한 글로벌 코리아에 대한 작은 생각을 담았습니다.

저는 네 개의 나라가 하나의 연합체로 국가를 이루고,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인들은 저에게 ‘너는 어디서 왔니?’라고 자주 묻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태어난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라고 대답을 했지만, 커가면서 같은 영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복되는 질문에 대답을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지만 질문을 한 그들의 눈에 비친 조그마한 동양 소녀는 ‘영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남과 북이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 때문에 ‘남 쪽, 북 쪽?’이라 질문이 덧붙여질 때는 이유 없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사소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이 질문이 커가면서 서서히 제 스스로에게 ‘나는 어디서 온 누구일까’라는 무거운 질문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국가나, 영국과 오랜 역사적 교류가 있었던 인도나 미국인 부모를 가진 친구들에게는 묻지 않은 질문이 저처럼 동양에서 온 아시아인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는 물

음입니다.

저는 태어난 스코틀랜드에서도, 지금 살고 있는 런던에서도, 한국인도 영국인도 아닌 제3의 이방인일 뿐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우연히 학교에서 Art 에세이를 준비하면서 접하게 된 한 한국인 화가인 김환기의 작품이 그 해답을 주었습니다. 주로 점묘 기법으로 그려진 많은 단색의 추상화들은 거추장스럽게 나를 둘러싼 많은 껍질들을 벗겨내고 그대로의 나 자신을 다양하게 존재하는 다른 점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전체로 보여줍니다.

특히, 멀리서 보면 푸른색의 단순한 그림이 가까이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작은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주’(fig.01)라는 작품은 물감의 농담의 차이로 만들어진 번짐과 다양한 채도로 모두 다르게 그려져 있는 각각의 작은 점들이 나 자신과 또 다른 개성들의 어울림으로 인식되면서 오랫동안 답하지 못한 의문이 일시에 풀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장식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칠해진 색보다 가까이서 보면 번지고 뭉개어지고, 검은색과 흰색들이 여러 겹의 레이어로 겹쳐져 있는 작은 점들은 하나 하나의 개성을 보여주면 각각의 점들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각자의 개성을 뿔내며 자유롭게 자리 잡은 많은 점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패턴과 단순한 색조가 저에게는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를 지나며, 한국을 떠나 일본과 프랑스를 거쳐, 미국 뉴욕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남긴 작품들이 100년에 가까운 시간적 거리와 수천 킬로미터의 공간적 거리를 넘어서 서로가 소통하는 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김환기 작품은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피카소나 로스코의 작품보다, 그리고, 다른 일반의 한국작가들의 작품보다 더 많은 공감을 주며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비록 영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부모님의 영향으로 한국말을 하며 아침에는 된장국에 밥을 말아먹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학교에 가서는 영어로 영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영국인의 정체성도 가지고 저는 양국 문화를 모두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문화 속에서 무언가 아쉬워하던 빈자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어느 한

쪽을 선택하면 마음이 편해질까 생각해서 한때는 미친 듯이 영국 문화와 역사에도 심취해보거나, K-POP이나 K-Drama 등의 한국 대중문화에도 열심히 빠져보기도 했지만, 그때도 마음속 깊은 곳의 나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전에 저는 한국인도, 영국인도 그리고, 제 자신도 아닌 가면만 쓰고 있어서 그랬을 지도 모릅니다. 한국인이라 정체성이 늘 확고한 부모님이 가끔은 불편하기도 했지만, 양쪽에 경계를 둔 제 입장에서 부러웠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언제나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기뻐하고, 국가 간 경기가 열리면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열렬히 응원할 수 있는 두 분을 볼 때면, 한국과 영국 양쪽을 응원하면서 마음을 나눠야 하는 저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이런 제 마음을 김환기는 단순한 색채화 하나로 사로잡고, 어지럽고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제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점 하나에 중첩된 여러 겹이 흩어져 있던 제 마음을 합쳐 놓은 것처럼 하나의 개성 있는 점으로 만들어지고, 이 점들이 모여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조화로운 큰 그림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의 작은 외딴섬에서 태어나 일본, 파리, 그리고 뉴욕으로 옮겨가면서 활동 한 한국인 작가의 작품에, 영국에서 나서 자란 소녀가 시공간을 넘어서 공감한다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아마 그의 작품이 한국이라는 문화와 역사의 뿌리를 바탕으로 서양 추상 미술과 교류하고 부딪히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찌면 저의 이민 2세로서의 성장기와 비슷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예술을 거부감 없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실험했던 그이지만, 초기 김환기의 작품은 달 향아리, 매화, 산, 새 등 한국 전통 모티브들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이 모티브들이 나중에 선이나 점의 회상과 같은 흔적으로 남아 결국 그의 개성의 정수와 함께 녹아들어 가면서 그를 서양 작가와 다른 세계 속의 한국인 김환기 작가로 자리매김합니다.

초기의 그의 작품들은 아주 강한 한국적 모티브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당시 유행하던 서양식 기법들을 따라갔습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왔던 제가 영국에 살면서도 오히

려 한국이라는 테두리 안에 자신을 가두고 목소리만 크게 내던 시절이 떠오르지만,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기에 한국에서 이룬 화가로서의 명성을 뒤로하고 뉴욕에서 만들어진 그의 작업들은 한국인으로 물려받은 문화적 역사적 배경들은 몸속에 당연히 흐르는 피처럼 자연스럽게 물감 속에 흐르며, 서양식 기법이나 유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오히려 더 한국적인 서예 기법이나 농담 등을 과감하게 작품에 적용하면서 역설적으로 세계 속에서 더 개성 있는 작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들어내거나 표현하려는 노력보다는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심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개성을 드러낸 것이 그의 노력과 수행이 만나 그를 세계적인 작가, 세계 속의 천재 한국인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김환기는 한국의 추상 미술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위대한 화가로서의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위대한 유산이 예술에만 머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혼란스러운 많은 한국인 2세 또는 3세들에게 두려움 없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문화적 색깔들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함께 포용하고, 각자의 개성을 덧붙여 성장해 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정성스럽게 그려낸 하나의 점들처럼 각자의 본질적인 내면을 잃지 않으면서, 각자가 속한 나라와 한국인의 문화와 전통을 모두 포괄하는 조화롭고, 아름답고, 보편적이지만, 독특한 한국 스타일의 글로벌 세계인의 근거를 보여줬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자의 2세인 저에게 김환기의 작품은 영국에서 보편적으로 접하는 예술품과 비교해서 전혀 거부감 없이 현대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적인 호감을 느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한국에 대한 크고 작은 기억들이 코튼 캔버스의 작은 틈들을 통해 느낌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그림이 동서양의 문화가 현대적으로 응축되어, 한국과 영국 양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제 입장을 반영했다고 느꼈을 때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또 하나의 정체성인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환기의 그림 속의 작지만 큰 울림을

가진 점들처럼 저도 비록 작은 점에 불과할지라도 제 자신을 이해하고 찾아 나아갈
 것입니다. 그 중첩된 점들 중에 한국인 2세로서의 자긍심도 꼭 자리 잡고 있을 것입
 니다.

2021
재외동포
문학의 창



글짓기 초등 부문



최우수상

도재현 (도미니카공화국) _ 산토도밍고 한글학교 일기 • 286

우수상

박준철 (케냐) _ 우리들의 소중한 하루 • 290

안겸 (도미니카공화국) _ 낚시의 추억 • 293

장려상

윤채원 (인도) _ 모기잡이 놀이 • 297

이동아 (미국) _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연주하다 • 300

이강현 (미국) _ 정신없고 요란한 우리집 • 302



산토도밍고 한글학교 일기

도재현 [도미니카공화국]

나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는 도OO, 나는 오징어를 좋아한다. 맛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오징어가 생긴 모양이 좋다. 왜 좋은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는 오징어가 좋다. 이곳에서 친구들은 나를 도징어라고 부른다. 내 성인 도 씨와 오징어를 합친 것이다. 나는 이 별명도 참 좋다.

나는 게임은 열심히 하는데 공부는 대충 한다. 게임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게임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임을 하면 다른 때 보다 시간이 10배는 빠르게 가서 아쉽다. 시간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게임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 공부를 대충 하는 이유는 공부는 게임과 달리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을 때 학교 가는 것이 제일 싫었는데 항상 내가 싫어하는 공부를 하고, 급식에는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급식에 햄버거가 나온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밥버거였다. 밥버거는 패티를 감싸는 부분이 빵이 아닌 딱딱한 밥으로 나왔는데, 치즈가 많이 느끼해서 속이 울렁거렸다. 그나마 패티로 나온 고기만 먹으려고 했더니 치즈가 고기에 딱 붙어있어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산토도밍고 한글학교에선 재미있는 일이 많다. 한국의 학교와 다른 점이라면

책장에 만화책이 많다는 것이다. 수업은 한국 학교와 다르게 국어만 한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점심시간이 길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화장실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1층 화장실에는 수도물이 잘 나오지 않고, 2층도 별로 좋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 반 에어컨이 약하게 나와서 꽤 많이 덥다. 나는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그 더위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한다. 땀이 나서 몸이 끈적끈적 해지면 기분까지 끈적해지는 것 같다.

한글학교를 다니면서 재미있었던 일이 몇 가지 있었다. 첫 번째는 김밥 만들기였다. 예전에 교과서에 김밥을 만드는 부분이 나와서 반 아이들이 실제로 김밥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선생님께 건의하였는데 다행히 선생님이 허락해 주셨다. 모든 재료는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재료는 김, 밥, 단무지 등등이었다. 다 만들고 나서 김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선생님께 엄청 맛있다고 말했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었다. 김밥을 썰지 않고 말은 그대로 먹었더니, 김이 질겨서 김밥 속만 팔려 나왔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조심스럽게 베어 물었고, 이번에는 김과 함께 적당히 잘렸다. 맛이 매우 좋았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 하지만 엄마가 해준 김밥이 사실 제일 맛있는 것 같다.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소시지를 넣어주셔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엄마가 가끔 김밥을 만드실 때 꼬마 김밥을 만들어 주시는데 꼬마 김밥도 엄청 맛있다. 맛있는 꼬마 김밥을 간장에 톡 찍어서 먹으면 맛이 각성한다. 그만큼 김밥과 꼬마 김밥은 맛있다.

두 번째는 송편 만들기였다. 한국의 추석날, 한글학교에서 송편을 빚었다. 그날 먹은 송편은 달콤한 꿀맛이 예술이었다. 단맛이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것이 마치 솜사탕 같았다. 다 먹고 남은 송편은 집에 가지고 가서 엄마랑 누나가 먹었다. 둘 다 맛있다고 했다.

다음은 한글학교 체육대회이다. 종목은 달리기, 홀라후프, 이어달리기, 그리고 줄넘기도 있다고 해서 줄넘기를 집에서 가지고 왔는데 줄넘기 종목은 하지 않았다. 이유는 모르겠다. 아마도 선생님들이 깜빡하셨나 보다. 달리기에서는 내가 많이 고전했는데 나는 달리를 잘 못한다. 그런데 슬래잡기만 하면 엄청나게 잘 뛰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신기하다. 달리기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노력이 현실을 못 따라가서 지고 말았다. 다음은 홀라후프였다. 일단 나는 10번 이상은 돌렸던 것 같았다. 하지만 홀라후프도 지고 말았는데 우리 팀에 홀라후프를 잘 돌리는 친구가 없었고, 상대 팀이 너무 잘 돌렸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이어달리기였는데 일반 이어달리기와는 조금 달랐다. 달리면서 풍선 터트리기, 밀가루 그릇에서 젤리 찾기 등 미션을 완료해야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우리 팀이 못하는 게 아니라 상대 팀이 너무 잘해서 진 것이다.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3번 다 지니 너무 아쉬웠지만 울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울 정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또 울면 놀림 당할 것 같아서였다. 뭐 하지만 꽤 재미있는 체육대회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재미있는 것은 5월 잔치이다. 5월 잔치에서는 우리가 준비한 장기자랑이나, 공연을 부모님께 선보이는데 우리 반은 차력 쇼를 준비했다. 시작할 때 노래가 나오면서 우리는 웃기는 준비 포즈를 취했다. 나는 콧구멍으로 풍선 불기를 했는데, 어렵진 않았지만 조금 아팠다. 무슨 말이나면 코로 풍선을 불 때 느낌이 코를 막고 힘차게 숨 쉬는 느낌이었다. 아무튼, 나는 아주 잘 불었다. 그 다음은 콧바람으로 촛불을 빨리 끄기였는데 그건 내 친구 순서였다. 적어도 촛불이 10개도 넘었던 것 같았지만 그 친구도 잘 해냈다. 마지막 순서는 풍선 위에 앉아서 엉덩이로 터뜨리는 거였는데 여러 번 터뜨려야 했다. 친구가 “엉덩이가 아파서 불나는 줄 알았어”라고 말할 것 같았다. 그런데 친구가 무사히 끝나고 “엉덩이 안 아프냐?”라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아니, 아프기는 커녕 아픈느낌조차 나지 않았는데.”라고 했다. 좀 놀랍기도 하고 신기했다.

나는 한글학교가 재미있다. 지금은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온라인 수업으로밖에 못 하지만 새 학기가 시작하는 몇 달 뒤에는 갈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기쁘다. 만약 다시 한글학교에 가게 된다면, 나는 정말 재미있게 많이 놀 것이다. 물론 공부도 조금은 하고 말이다.



우리들의 소중한 하루

박 준 철 [케냐]

나는 케냐에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나던 해에 아빠는 이곳에서 우리 식당을 시작하였다. 가게가 있는 곳은 나이로비의 카렌이라고 하는 지역이다. 지금은 가운데로 큰 길이 뚫리면서 나무를 많이 베어 내긴 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울창하게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사이로 자그맣게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쁜 우리의 가게가 나온다. 식당의 이름은 ‘하루’이다.

우리 가게는 내가 자라는 동안 참 많이 변해왔다. 처음에는 야외 공간에 지붕도 없어서 비만 오면 모두 안으로 대피해야 했다. 지금 밖에는 비를 막아 줄 수 있는 지붕과 밤에는 아늑한 빛을 발하는 전구가 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와 따뜻한 열을 만드는 히터도 있다. 손님들이 좋아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빠는 참 많이 노력하셨다. 아빠는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밤 열두 시가 다 되어야 돌아오셨다. 우리는 아빠의 얼굴도 잘 보지 못했다. 엄마는 학교가 없는 날에 우리를 데리고 가게로 가서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 이런 노력으로 손님들은 우리 가게를 많이 좋아해 주셨고, 이렇게 예쁘게 변한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면서 나도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최근에는 철판 요리가 메뉴에 추가되었다. 손님 앞에서 바로 철판에 요리해서 내어드리는 요리다. 고기 요리를 할 때 보여주

는 불 쇼는 손님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다. 나도 고기 철판 요리를 아주 좋아한다. 요즘 우리 가게의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볼케이노 치킨’이다. 한국의 닭강정을 베이스로 작게 만든 것인데 아빠 말씀으로는 찾아오시는 손님들 중에 이 메뉴를 시키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라고 하신다. 역시 한국 치킨 맛은 세계 최고인 것 같다.

우리 가게에는 여러 인종의 다양한 손님들이 온다. 손님들의 개성은 각 나라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다. 어느 날부터 우리 가게에 고양이 한 마리가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아빠는 아주 귀여워하시며 신선한 생선과 우유를 고양이에게 주셨고, 결국 그 고양이는 우리 가게에 눌러앉았다. 우리는 고양이에게 ‘떡고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떡고자’는 사람들을 좋아했다. 특히 손님들의 의자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해서 의자에 앉아있는 손님의 등 뒤로 비집고 들어가 앉아있곤 했다. 재미있는 점은 한국 손님들은 고양이가 함께 앉아있는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했지만, 외국 손님들은 좋아하면서 ‘떡고자’를 쓰다듬어 주거나 같이 사진을 찍기도 한다는 점이였다. 나는 ‘떡고자’가 좋다. 우리 가족은 모두 ‘떡고자’를 사랑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양이는 게 올려졌고 새끼 고양이도 몇 마리 낳았다. 지금은 우리 가게의 마스코트가 되어 대부분의 손님과 가게 직원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코로나가 찾아왔다. 우리 가게에는 참 큰 변화들이 생겼다. 케냐 정부는 특히 식당 운영에 많은 제약을 걸었다. 모든 테이블을 2미터 떨어지게 하는 것은 기본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소독하고 체온을 측정해야 했다. 우리 가게는 공간이 크지 않았기에 결국 식탁 몇 개밖에 놓지 못하게 되었다. 야간 통행금지로 손님은 줄었고 점점 상황이 나빠졌다. 그 와중에 한국에서 코로나19대처를 잘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왔다. 가게 문도 닫지 않고 일상을 살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 계신 할머니께선 우리를 많이 걱정하셔서 대량의 마스크를 몇 번에 걸쳐서 이곳으로 보내주셨다. 마스크는 많아졌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학교도 온라인 수업과 등교를 반복했다. 정부에서는 식당들에 대해 테이크 아웃만 된다는 제약을 계속 걸었다

풀었다 했다. 통금도 있어서 가게는 점점 더 일찍 문을 닫아야만 했다. 요즘 나의 마음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일찍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부모님은 오히려 온 가족이 함께 영화도 보고 야식도 먹으면서 가족과 함께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셨다. 엄마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거나 힘들어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원활한 인터넷과 배달이 있고 일을 계속 할수 있는 이곳의 생활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신다. 아빠가 일찍 오셔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좋지만 그래도 나는 빨리 코로나 전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게에서 손님들이 평화롭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우리들의 소중한 하루가 다시 오기를 기다려본다.



낚시의 추억



안 겸 [도미니카공화국]

나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도미니카 공화국” 이라는 곳에 살고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섬 나라여서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인지 나는 파도 타기, 스노클링부터 물고기와 다양한 해양생물까지 바다와 관련된 모든 것을 좋아한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낚시이다. 몇 년 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한국에 방학동안 놀러간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강가에 텐트를 치고 같이 낚시를 했었다. 손바닥만한 물고기 2마리를 잡았는데 평평한 돌위에 놓고 비늘을 긁어내고,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굵은 소금을 착착 뿌려서 숯불에다 구워먹으니 짭짤하고 고소한것이 정말 맛이 좋았다.

그 뒤로 나는 낚시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 이후로도 낚시가 계속 가고 싶었지만 내가 살고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 없었다. 어느날 나의 끝없는 간절한 부탁에 엄마, 아빠가 배를 빌려 바다로 나가 보자고 하셨다. 우리 형은 낚시에는 별로 흥미가 없어 가기 싫어했지만, 형의 가장 친한 친구인 기현이 형을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가기로 했다. 드디어 디데이까지 일주일이 남았다. 나는 유튜브에서 낚시바늘에 찔렸을 때의 응급처치, 낚시줄 매듭법, 줄 꼬이지 않게 하기 같은 낚시와 관련된 동영상들을 보며 공부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다.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했다. 자동차로 가는 동안 사진도 찍고 게임도 하다보니 마침내 새파란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바다는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해변의 식당 사이 좁은 골목에 주차를 하고선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웠다. 배를 채운뒤, 우리는 멀미를 대비하여 약을 먹었다. 멀미약을 먹고서는 잠이 쏟아질까봐 엄마는 가끔 한입씩만 맛 보여주던 박카스 한 병을 전부 마시도록 허락해 주셨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바다 냄새와 해산물 냄새가 났다. 나는 한국의 수산시장 생각이 나서 그 냄새가 좋았다. 차에서 내린 우리는 주욱 기지개를 켜고 짐을 내려 해변가를 향해 걸어갔다. 잠시 후, 우리가 탈 요트가 도착했다. 요트의 이름은 '설록호', 우리는 요트에 올라타 내부를 구경했다. 요트 안에는 작은 바와, 화장실, 소파에 침대까지 있었다. 우리가 할 트롤낚시는 낚시대를 배에다가 고정시킨 다음, 줄을 풀은 뒤 미끼를 가라앉히고, 배를 계속해서 달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미끼가 살짝 떠오르면서 마치 헤엄치는 듯 보이면서 큰 물고기들을 속인다고 하여 트롤낚시라고 했다. 이 방법은 배가 계속해서 달리기 때문에 참치, 바라쿠다, 만새기, 청새치 같은 주로 속도가 빠른 물고기가 잡힌다고 했다.

낚시대는 내가 지금까지 써 본 낚시대와는 차원이 달랐다. 대가 매우 굵고 낚시줄은 철사처럼 두꺼웠다. 미끼로는 제법 큰 정어리를 쓴다고 했다. 먼 바다로 나가던 도중, 형이 멀미를 하기 시작했다. 도무지 멈출 기미를 안보이고 계속 멀미를 하여 결국 우리는 다시 해변가로 돌아가기로 했다. 형은 계속 멀미를 하고, 나는 아까 마신 박카스가 소용이 없는지 졸음 때문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었는데, 나를 완전히 깨워주던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것이다! 미끼를 물자, 고정되어 있던 줄이 갑자기 찌이익 소리를 내며 빠르게 풀려 나갔다. 그 소리를 들은 배의 선장님이 나를 낚시용 의자에 앉혔다. 그 의자에는 낚시대를 꽂을 수 있는 작은 홈이 있었는데, 그곳에 낚시대를 꽂아서 고정시킨 다음, 줄을 감는 것이다. 나는 매우 흥분해서, 엄청난

속도로 줄을 감았다. 배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줄이 굽어서 손맛이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물고기의 무게는 확실히 느껴졌다. 꽤 큰 물고기였기 때문에 팔에 힘이 들어갔지만 즐거웠다. 몇 분 후에, 물고기가 팔딱거리며 배 위로 올라왔다. 잡고 나니, 나는 믿기지 않았다. ‘내가 이걸 잡다니.. 이럴수가’ 물고기는 대강 50센치쯤 됐고 종류는 ‘바라쿠다’ 였다. 바라쿠다는 빠르고 성격이 사납고, 이빨도 뽀족해 ‘바다의 늑대’ 라고 불린다고 했다. 내가 잡은 바라쿠다와 사진을 찍은 뒤, 배 밑 어창에다 넣어 놓았다. 그리고 새로운 미끼를 끼우고 다시 낚시줄을 던졌다.

멀미를 하던 형을 엄마와 함께 해변 가에 내려준 뒤, 나는 아빠랑 기현이 형과 함께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그리고, 또 다시 입질이 왔다. 이번엔 기현이 형이 낚시대 를 잡았다. 1분 뒤, 물고기가 팔딱팔딱 거리며 배 위로 올라왔다. 이번에 올라온 물고기도 내가 잡은 것과 똑같은 바라쿠다 였는데 크기가 내가 잡은 것 보다 커서 은근히 자존심이 상했다. 한동안 소식이 없자 또 다시 줄음이 쏟아졌다. 나와 형 친구는 선실로 들어가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몇 분뒤 줄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아빠가 소리쳤다. “입질이다!” 나와 형아는 빛의 속도로 일어났다. 집에 불이 났어도 이렇게 빨리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기현이 형이 낚시대를 잡았지만, 갑자기 “팅” 소리와 함께 줄이 풀려 나가는 것도 멈췄다.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서 빠진 것이다. 미끼를 확인해 보니 미끼의 몸통이 사라져 있었다.

바다만 계속 바라보던 중 또 다시 입질이 왔다. 이번엔 내가 낚시대를 잡고 또 다시 릴을 감았다. 마치 묵직한 추가 끌려오는 것 같았다. 이번에 잡힌 바라쿠다가 마지막 물고기였다. 나와 기현이 형은 물고기 세마리를 당당하게 들고 해변가로 돌아왔다. 옷에 물고기 점액과 비늘이 묻었지만 아무 상관 없었다. 우리는 가져온 아이스박스에다 물고기를 넣고 옷을 갈아입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기현이 형의 집에 들러 잡은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잡은 두마리의 바라쿠다는 아빠와 손질하여 튀기고 찌고 구워서 맛있게 먹은 뒤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바로 꿈나라로 갔다.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서 간 이 첫 번째 낚시는 나에겐 매우 특별하고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차를 타고 떠나자 마자 바로 다시 낚시가 그리워졌지만 우리 형아의 심한 멀미 때문에 언제 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때를 떠올리며 글을 쓰고 있으니 아.. 또 가고 싶다.

모기잡이 놀이

윤 채 원 [인도]

우리 가족은 저녁을 먹을 때 “인도에서 제일 많이 느는 것은 모기 잡는 실력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한다.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모기는 꼭 조심해야 하는 곤충이다. 인도에 사는 모기가 전파하는 위험한 바이러스들은 뎅기, 말라리아, 그리고 치쿤구니아 등이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심한 고열과 함께 극심한 관절통과 근육통에 시달리며 혈소판 수치가 떨어진다. 하지만 해로운 모기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모기에 물리면 간지럽기만 하고 별다른 증상은 없다. 모기가 많은 시기는 주로 비 온 뒤나, 6월에서 7월 중순 사이, 8월 중순에서 10월까지이다.

인도에 있으면서 모기를 잘 잡으면 잠도 잘 자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인도에서 지내온 오랜 기간 동안 모기 잡는 실력이 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모기가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귀에 모기가 앵앵 되는 소리나 다리, 발이나 팔이 아무 이유 없이 간지러우면 모기가 있는지 잘 살펴 봐야 한다. 그 다음 모기가 어떤 형태로 날아다니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 기어 다니는 모기도 있고, 다리 주위를 팔자로 뱅뱅 도는 모기도 있고, 일자로 날아다니는 모기도 있다. 날아다니는 특성은 모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판단해야 한다.

또한 모기의 날아다니는 속도도 관찰해야 된다. 모기가 느리게 날면 피를 많이 빨아먹는 상태이고, 모기가 빠르게 난다면 집에 새로 들어온 모기임을 알아챌 수 있다.

만약 모기가 느리다면 손으로 잡아도 충분하다. 모기가 빠르다면 모기채를 사용해야 한다. 모기가 다리에서 피를 빨아먹고 있다면 다리를 움직이지 말고 손으로 잡아야 확실히 잡을 수 있다.

모기를 잘 잡기 위해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좋은 모기채를 사야 한다. 모기채가 무거우면 손과 팔의 행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모기채를 사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 나의 경험으로는 모기채가 가능하면 가벼워야 하고, 너무 싸면 잘 망가지기 때문에 너무 싸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게 골라야 한다.

모기가 잘 숨는 곳 또한 알아야 한다. 모기는 모기 색깔과 비슷한 곳에 잘 숨는다. 주로 나무색과 비슷한 가구들이나 검은색, 진한 회색 주변이다. 또한 향수를 뿌리거나 땀을 흘리면 그 냄새를 맡고 온다. 그리고, 화분을 잘 살펴보면 잎이나 흙 주변에 모기떼가 꼭 숨어있다. 그래서 화분이나 식물의 잎사귀들을 잘 건 드려서 모기들을 잡아 줘야 한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모기는 거울에 종종 붙어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거나 손을 닦고 있을 때, 거울을 보면 모기가 90% 내 앞에 있다.

나에게 가장 괴로운 모기와의 싸움은 한밤중 새벽 2시부터 3시경에 일어나야 하는 돌발 상황이다. 자고 있는데 발, 다리 부분이 이유 없이 계속 간지럽거나, 귀에 앵앵 소리가 난다면, 불을 켜고 모기를 잡아야 하는 매우 피곤한 일이 생기게 된다. 모기는 베개나 이불에 숨어있어서 한 번씩 뒤척여 본 다음 침대 위에 치고 잔 모기장에 모기가 붙어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옆에 사람이 자고 있다면 그 자고 있는 사람을 모기의 미끼로 삼아 이불을 다 걷고, 모기가 그 사람에게 오는지 봐도 좋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상대론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다. 어린아이에게는 모기가 더 잘 붙기 때문에 모기에 많이 물릴 수 있다. 계속 기다려도 모기가 안 잡히면 그때 너무 졸리고 힘들기 때문에 이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자는 수밖에 없다. 사각 모기장을 쓴다면 모기장 아랫부분을 침대 매트리스 밑으로 쪽쪽 집어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기들이 기어서 모기장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인도에 오래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은 모기를 잡을 때마다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는

우리만의 독특한 가족 문화를 만들었다. 박수를 받을때 마다 기분이 좋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었고, 가족 중 누군가가 모기를 잡았을 때는 나 또한 박수를 쳐 주며 같이 기뻐했다. 그리고 혼자서만 욕심내서 모기를 잡으려 하면 성공 확률이 낮 으데 서로 목표물을 정하고 같이 잡으면 100% 성공해 박수를 받을 수 있어서 더 행복 했다. 나는 모기를 잡으면서 하루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고 코로나로 심 심했는데 가족들과 모기 잡기 놀이를 하면서 한밤중에 모기 때문에 괴로웠던 일, 모 기에 물리면 간지러움 때문에 한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기쁨과 재미가 되었다.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연주하다

이 동 아 [미국]

올해 4월 6일 뉴저지 주에서 시장님이 한복을 입고 '한복의 날'을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갓도 쓰고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한국 사람보다 더 멋져 보였어요. 시장님이 한복을 입는데 저는 한복이 불편하다고 불평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지만 가야금을 배우기 때문에 한복을 입어본 적이 많습니다. 2학년 때 가야금 연주를 보게 되었는데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배우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야금을 배우고 싶다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가야금 선생님을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데 다행히도 아는 분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금 선생님택으로 가서 배웁니다. 저는 가야금을 배우는 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가야금은 손으로 줄을 누르며 줄을 튕기는 '연퉁김'을 해야 합니다. 가야금 줄이 두꺼워서 손가락에 굳은살이 생겼습니다. 왼손으로 누르는 동작을 '농현'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셨는데 말이 어려워서 자꾸 까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아팠지만 한국을 배운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집에 와서 연습해도 손가락이 잘 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가야금 실력이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가야금 줄을 튕기고 누르는 동작이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가야금 줄을 뜯기만 해도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드디어 배운 지 일 년이 지난 후에 첫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LA에 있는 한국 교육원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다행히 15명이 한꺼번에 연주를 하게 되어서 많이 떨리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실력이 좋아져서 혼자서 가야금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던지 아직도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30명 정도의 관객이 있었습니다. 연주하기 전에는 아주 많이 떨렸지만 연주가 시작되자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그 첫 연주 때는 바다 빛깔을 닮은 파란 저고리와 바나나처럼 노란 치마를 입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사람들이 박수를 아주 많이 쳐줘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연주를 위한 또 한 벌의 한복이 있습니다. 포도처럼 보라색 저고리와 당근처럼 주황색 치마입니다. 가야금을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복을 입고 공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내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별나라 공주 같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들과 디테일한 무늬가 있는 한복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복이 아름답긴 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어요. 여름에는 한복이 두 겹이어서 입을 때 많이 더웠습니다. 가야금을 들고 걸을 때마다 치마가 계속 밟혀서 불편했습니다. 고름도 자꾸 풀어져서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솔직히 연주할 때 한복보다는 드레스를 입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저지 시장님이 ‘한복의 날’을 정했다는 뉴스를 한글학교 선생님이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미국 사람도 한복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데 저는 불편하다고 싫어했던 마음이 창피했습니다. 앞으로는 한복을 입으면서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야금을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연습해서 연주로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아리랑’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아마도 한복을 입고 연주를 하는 제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도 한국 문화에 반할 것입니다.



정신없고 요란한 우리집

이강현 [미국]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어요. 우리 식구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나에게는 세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 이름은 승현, 다현, 서현이입니다. 아차, 제 이름은 강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네 번째 동생 지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합하면 우리 집 아이들은 모두 5명이고 식구는 엄마, 아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합쳐 전부 9명이에요.

동생들이 어려서 우리 집은 정신이 없습니다. 동생이 많으니까 저는 할 일이 많아졌어요. 특히 엄마가 쉬시던가 바쁘실 때는 동생들과 같이 놀면서 봐줘요. 어쩔 때는 집 안에서 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뒷마당에 나가서 공 놀이도 하고 자전거도 타요. 그런데 가끔 똑같은 자전거를 서로 타겠다고 동생들끼리 떼를 써요. 그럴 때는 바로 밑에 동생인 승현이가 양보를 해요.

우리 집의 아침 풍경을 소개할게요. 우리 가족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주말에도 늦잠을 자는 식구는 없어요. 아빠가 제일 늦게 일어나지만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떠드는 바람에 아빠도 늦잠을 주무실 수 없으세요.

아침 메뉴는 늘 달라요. 어떨 때는 시리얼을 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토스트, 계란 프라이, 오트밀 등등 먹어요. 밥을 차려 주면 동생들은 엄마의 도움 없이 혼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동생 서현이는 어려선지 음식을 모두 섞어서 뒤범벅

으로 만든 후에 먹어요. 저는 섞은 음식이 맛이 없어 보이는데 서현이는 그게 재미있나 봐요.

저의 아빠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우리 아빠의 직장은 좋아요. 휴가도 많이 주면서 일을 잠시 못 해도 괜찮다고 하며 돈도 잘 벌어요. 저의 아빠는 영어는 물론이고 한국말, 스페인어도 잘 하세요. 저는 아빠처럼 호기심이 많아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글도 잘하고 한국말 자판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동생들한테 한국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해요. 토요일 한글학교 시간에 질문을 하면 선생님께서 무척 좋아하세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요. 같은 반 친구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제가 설명해 줘서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면 한글 선생님은 영어를 잘 못하시거든요. 저는 선생님께 도움을 주게 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가족은 집에서 한국말 만 쓰기 때문에 2살인 동생 서현이도 우리를 따라서 한글로 말을 해요. 영어는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 가족은 모두 한국어로 말하기 때문이죠.

“아빠, 괜찮으세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자에 부딪혔는데 동생 서현이가 의자에게 “미안해, 모르고 했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말을 하는 동생 서현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점심때는 주로 뒷마당에서 놀니다. 점심밥을 먹기 위해 뒷마당에서 놀다가 집안으로 들어올 때는 손도 씻고 상도 차리고 많은 그릇을 옮겨야 해서 손이 부족하니까 시끌벅적하고 정신이 없어요. 식구가 많은 우리 집은 엄마가 요리하는 것을 힘들어하셔요. 하루의 세 번 밥을 먹어야 하는 아홉 식구의 밥을 만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밥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간식도 먹고 후식으로 과일도 많이 먹어요. 실은 하루 종일 먹지만 저는 살은 많이 찌지 않고 마른 편이에요. 하지만 많이 먹어서 결국엔 똥도 많이 싸요.

하루 종일 먹고 놀다 보면 잘 시간이 되어요. 우리의 저녁 풍경은 참 이상하고 정신 없어요. 왜냐하면 잘 때는 이빨도 닦고 샤워도 했는데도 잠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장난

을 치며 계속 놀아요. 하지만 잘 시간이 되면 동생들은 잠자리에 들어요.

식구가 많은 우리는 잠을 잘 때 잠자리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아빠랑은 저, 승현이, 다현이, 서현이 이렇게 5명이 한 방에서 잡니다. 저와 동생 승현이는 한 침대에서 자지만 아빠는 다현이를 데리고 자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현이를 데리고 자기도 합니다. 엄마와 막내동생 지현이는 다른 방에서 잡니다. 지현이는 아기 침대가 있지만 엄마 품에서 자는 걸 더 좋아해요. 시끌벅적한 우리 동생들은 밤이 되면 다 조용하고 고요해져요.

2021
재외동포
문학의 창



입양수기



대상

Spencer Lee Lenfield (미국) _ My Adopted Mother Tongue • 308

가작

Eric McDaniel (미국) _ Lee Dae-II, Two vs. One : An Adoption Memoir • 346

Marcel Kyu Schuppert (독일) _ A Journey of A German Korean Adoptee • 372

Jess Barish (미국) _ On Being Adopted • 400

My Adopted Mother Tongue

나의 양모국어 (養母國語)

Spencer Lee Lenfield [미국]

1.

Sometimes I wonder what it would be like to be able to write not just in proficient or grammatically correct, but elegant Korean: to command the same nuances of connotation, etymology, rhythm that I feel I have at my disposal in English—except in the language that I have struggled for six years to learn, the language that matches my face and DNA, the language that still so often remains just out of my reach. Joseph Conrad and Vladimir Nabokov famously learned to write i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nd many would say they are among the most graceful writers in the language; Yiyun Li and Xiaolu Guo are among the many writers today who learned English as adults but write in it beautifully. Jhumpa Lahiri wrote her first works in English, but now writes in Italian. Samuel Beckett made himself write in French so that, he said, he could write “without style.” Cognitively, the feat is not impossible. Merely difficult.

I’m not sure when or why writing in beautiful Korean became such a dream of mine. I barely knew any Korean at all until I started taking classes when I was twenty-five. I was born in Korea, and am ethnically Korean, but because I was

adopted when I was three months old, I didn't know the language growing up at all. I didn't study Korean in college. And when I did start, it wasn't with the goal of writing in mind. I think I had vague thoughts that I might someday be able to speak to my birth family, if I ever found them, and that I'd like to read some literature in Korean, too. I would have been satisfied with functional or conversational Korean-and even now, sometimes that goal still feels like a stretch. (News broadcasts, and dialogue with a certain kind of muttering older male taxi driver, still often defeat my abilities.)

To write beautifully in a language is to enter into a deep communion with all its speakers, all its literature-from the most ephemeral memo or newspaper to the greatest novels and poetry. I used to study ancient Greek and Latin, and our professors taught us by having us write in those languages: not for its utility as communication, but because composing in a language is the best way to internalize its workings, and to demonstrate that you have learned true sensitivity to its idioms and shades of meaning. To write beautiful Korean would mean understanding not just grammar, but context, register, and tone; it would mean a rich knowledge of speech and print, and an indexical memory for poetry and prose. I'm not sure whether this is even possible for me, with my thirty-year old brain stubbornly unplastic and ossified, even if I moved to Korea and never spoke another word of English ever again. But I still dream about it, even though for most adoptees and even many Korean Americans, this issue of language never becomes the (possibly unhealthy) obsession it has become for me.

I experience fits of irrational jealousy of almost everyone else vis-à-vis Korean. I envy native speakers for their fluency. I envy Korean Americans for their natural accents and intonation (at least, more natural than my own). I envy bilingual people for their ability to switch back and forth. I envy talented learners of Korean, like the guys on the TV show *Bijeongsang Hoedam* ("Abnormal

Summit”) or the Russian scholar Vladimir Tikhonov. I envy the adoptees and Korean Americans who are content with just a little Korean, or none at all. I envy my non-Korean friends who receive praise for speaking even a little bit of stock Korean in Korea. I envy people with no relationship to Korean at all for having other goals and preoccupations. I know that these feelings are negative, and unreasonable. But I have them anyway.

If I woke up tomorrow speaking and writing perfect Korean, nothing in the world would change. It would improve no one’s life, except my own; cure no diseases, end no wars. And yet somehow, I have ended up staking my career and perhaps devoting my life to it: to my surprise, I am writing a doctoral dissertation on translation and retelling between Korean literature and Korean American literature—two groups of people I am in some way part of, or at least alongside, yet may always feel distant and different from. This is not the life I would have planned out for myself at the start. Until six years ago, it would have barely been conceivable. Yet even long before I knew Korean, the language has always been present in my life, since some of my earliest memories. I think of these as my prehistory with Korean.

2.

My parents tried to learn a little Korean when they adopted me. They bought a language course on tape cassettes titled Let’s Learn Korean! in a box of orange and navy cardboard. It came with a small booklet of phrases in a typewriter-esque font together with Korean script that had been handwritten and mimeographed. The cassettes walked you first through the basic letters of Korean, and then asked you to repeat a number of phrases. The booklet used the old-fashioned McCune-Reischauer transliterations, with intimidating carets over the Os and Us whose function was difficult to understand. So many times, I tried to listen to the

cassettes, but gave up.

Apparently, my father once got good enough at the Korean phrases that he was able to impress some Korean people that he and my mom met on a camping trip when I was just a baby. I used to think this meant that he was able to really speak Korean, though now I realize it was probably just phrases. *Annyeonghi gyesipsio*. I think of the excitement I've seen Koreans use so often when one of my white friends knows even a little Korean, with even a very heavy accent. *Wa! Urimareul arayo*. I think of how rare it must have been for Koreans traveling around rural Michigan in 1991 to come across a white guy who knew how to say even just *annyeonghaseyo*? No wonder they were surprised. *Daebak. Singihaeyo*. (I will never elicit that reaction when I speak Korean, from anyone.)

But life does not give working people much time in which to cultivate new language skills, and eventually my father forgot the Korean phrases he had learned. My parents both worked hard jobs with long hours to support us. Neither of them had ever learned a new language as adults; neither had gone to college. I hardly blame them for not learning a language that I still struggle to speak after six years of concerted effort and some of the world's best academic resources. Still, sometimes I wonder what it would have been like to grow up even just using *annyeonghaseyo*? and *gamsahamnida* around the house with my white parents. It would hardly have made me fluent in Korean. But I can't help but think it would have been nice.

I have never actually come across parents who adopted Korean children and then themselves learned Korean to conversational proficiency. I get it: Korean is a hard language. Until recently, there were few resources for learning Korean within reach of most Americans. Americans (and Australians, and the British) are notoriously loath to learn to speak other languages—a complacency born of speaking the world's dominant language of commerce and education. Americans

tend to think of learning new languages as requiring special talent, like being a concert musician or a professional athlete: not something that “normal” people can or should have to do. I don’t think many Americans realize that plenty of “normal” people who have never set foot in an English-speaking country dedicate decades of their lives to learning English, largely for economic reasons; that entire education systems build English into a standard part of their curricula. I loathe the arrogance in the American presumption that one can go on vacation anywhere (or invade a country) and just find people who speak English along the way.

The best of adoptive parents say they would do anything for their children. It might be uncharitable of me, but I often wonder why, if what they say is indeed the case, so few ever learn the language of their children’s heritage culture. Maybe it’s because of an all-too-American belief that culture and language can be separated—that having enough Korean art and food and books around can make up for the absence of the language from one’s life. That one can be of Italian descent and proud of Italian culture without speaking any Italian; have Iranian heritage but speak no Farsi; have one’s roots in China and eat Chinese food but not actually speak any Chinese—and not experience a sense of loss.

I don’t think that belief is true at all, and I don’t think that even many white Americans from immigrant backgrounds believe it to be true, either. My mother’s father and aunt grew up speaking German at home, and until very recently the church they went to still held Christmas services in German. The husband of my mom’s best friend grew up speaking German, too, and though he still knows a little, I think he does feel some sense of loss around it. But if you grew up with only English in your life, as both my parents did, I think it can be hard to understand how deeply culture involves language. That eating tteokbokki and correctly pronouncing its name go, on some level, hand in hand, and that it marks you as a perpetual outsider if you can’t.

Years later, after learning Korean, I started to realize that many Koreans stereotype Korean Americans as people who can barely speak Korean at all, who know little and care less about Korean culture. I once saw a talented Korean translator of Korean literature into English, an enviably bilingual person who grew up internationally with parents in the diplomatic corps, complain on Twitter that Korean Americans don't actually care about learning Korean. That made me upset, but I understand why they think so. "At this point, you probably speak better Korean than a lot of Korean Americans," a Korean friend once told me. I thought that was weird, because I'd always thought of my Korean American friends as the goal of fluency toward which I aspired. But it's also somewhat true. In my current side job as an editor, I helped publish a group interview among four prominent Korean American writers. I was surprised to learn that only one of them speaks any Korean at all. No wonder so many Koreans look at us like aliens.

3.

By the time I was adopted in the early 1990s, international adoption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no longer told adoptive parents to focus on assimilating children into American culture, as they had in the decades following the beginning of adoption from Korea following the end of the war in 1953. In an era celebrating "multiculturalism," social workers instead urged new parents to celebrate their children's origins and incorporate them into family life.

The range and quality of books and other materials with which adoptive families were supposed to reconstruct the cultural heritage of children too young to know any of it for themselves varied widely, however. Three decades later, Korean culture has circulated more widely across the globe than at any previous moment in history-but in 1990, most Americans knew little more of Korea than what they once saw on the sitcom M*A*S*H. Average people didn't yet know what the Internet even was. Consequently, we were left with books and videos

remember tracing out the letters on paper with no idea what sounds they made. Look, this is Korean, I told myself. Korean was lines; Korean was order. Korean was visible and yet ineffable.

The adoption packet also provided a Korean-English glossary (presumably for parents adopting children old enough to speak Korean); now that I actually know Korean, its suggested pronunciations leave me dumbfounded:

Don't be afraid (It's OK)	Gyen cha nah
I am happy	Geep-buh
Do you want to go to the potty?	Byn-soh-kahl-leh?
Do you want some more?	The Jool Kah?
It's time to go to bed	Jahl-see-gahnee-yah

I mean, can you imagine being a Korean-speaking four-year-old, newly arrived in the U.S., trying to communicate with two American grown-ups who had this as their only equipment? In this transliteration, Korean looks like the many indigenous American languages totally misheard and mispronounced by missionaries, place names from which dot the nation's landscape and cultural imagination: Kalamazoo. Massachusetts. Gitche-Gumee. I can't help but picture a middle-aged American frantically asking a Korean toddler, "The jewel kaa? Jewel cow? Jewel cow?"

We had small pieces of Korean culture around home, too. The adoption agency had sent both my sister and I with maedeup, brightly colored knotwork pendants, each marked with a hanja it would take me decades to learn to identify. They also sent infant-size hanbok, Korean traditional dress, which we quickly outgrew, but kept as symbols of a kind. My parents had a Korean Coke bottle, never opened, that read *코카콜라* on the side. We had Korean flags, large and small. My father, who is good at woodworking, made us a special board on which my sister and I could play yut-nori, a racing board game where you toss rounded sticks with one

flat side to determine how many spaces to move. Someone gave me a kendama—a wooden ball tied with string to a handle with a cup carved on two sides—which I now realize is Japanese rather than Korean in origin, but thought was Korean as a child. And I had a small hand-drum with the primary-colored triple swirl of a *santaegeuk* on its face. Even at the time, I remember not knowing whether Korean children actually played with such things, or just adoptees who were told to think of them as Korean.

I had a map of Korea in my room, full of place-names for cities, mountains, provinces, rivers, highways, and islands I could only imagine. JEJU-DO, near the bottom of the map, was easiest to see when I was small, and I wondered what it would be like to live on an island like that. I used to imagine that Jeju-do looked like the kind of desert island one sees in New Yorker cartoons: enough room for one person and a palm tree. SEOUL I recognized as the name of the city where I was born. Wasn't it awfully close to North Korea? The names of provinces blurred in my head: why did they all end in either NAM-DO or BUK-DO? Little did I know that I was learning the words for "South" and "North." At the top of the map, the Demilitarized Zone, which my parents told me was the lin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no one could go there by agreement, especially soldiers. For a while, I thought Demilitarized Zones were how you get people to leave you alone, and I authoritatively told other small children (including my sister), "You can't go there, that's a demilitarized zone." Needless to say, they didn't know what I meant, because most preschool-aged children don't know what a demilitarized zone is. If we looked hard at the southern edge of the peninsula, we could see JINJU-SI, where my younger sister was born. Her adoption agency had told us it was a fishing town, and because of the stories I had heard in Sunday School of Jesus' disciples fishing, I imagined it as a kind of Korean Galilee, full of men with nets in perilous wooden boats. I envisioned

a Korean Jesus, with a dark beard and a blue sash, walking on the waves of the South Sea between Jinju and Jeju-do.

Young children who have never experienced differences of nation, culture, or language firsthand have a difficult time conceiving what such differences mean, and for years I knew myself to be Korean because I was Korean in contrast with everyone else (mostly white) around me. The Korean objects and books distinguished me from others and therefore constituted my Koreanness. It did not occur to me that there might be gaps between the Korea I had built in my young imagination and the real Korea, any more than a child can conceive of the difference between Santa’s workshop and the real North Pole. To recognize such misconceptions is simply to let go of them. And so it did not occur to me that there might be any gap between Korea and me.

4.

I first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a new language in a serious way when I was in seventh grade. The principal of my school saw that I was bored in English class, so she offered to teach me Latin two days a week instead. (She had majored in classics in college, decades before.) I loved it. I worked ahead as quickly as I could, memorizing the principal parts of every verb in the book, and doing my best to master the niceties of declensions and conjugations. I was still young enough to make-believe with friends, and with the Harry Potter novels still appearing every few years, I would run around the yard holding a chopstick and my copy of Cassell’s Latin dictionary as a “spellbook.” I avidly translated the titles of Christmas carols as a quiz game, and made my exasperated parents guess what they meant in English: *In media nocte clara venit; Gaudium mundo; Gelidus, nivis vir.* I wasn’t able to continue Latin in eighth grade, because my principal was busy and there was no one else around to teach it. But I tried—with

mixed success—to keep learning with the second-level textbook and print-outs of the first book of the Aeneid and De rerum natura.

Around the same time, I also developed little obsessions with Italian and Japanese, because there were introductory textbooks for each of them at our little public library. I read a novel called Bloomability about a girl who won a scholarship at a fancy boarding school in Italian Switzerland; all of my favorite Nintendo video games appeared in Japanese before they appeared in English. I never got very far with either, but it was better than nothing. In the summer after I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I took French lessons because I wanted to test out of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classes. French and Spanish were the only languages my local high school offered.

As an adult, I now somewhat resent that no one realized before middle school that I had such enthusiasm for learning languages; and I definitely resent that Korean was not one of the languages for which I had any access to good instruction. None of the local universities or colleges even offered a Korean program (indeed, they still don't). I didn't learn until much later that there was a summer camp in Minnesota that specialized in teaching Korean to adopted Korean children; and tuition at such programs was always difficult for my parents to afford, anyway. We had a dial-up Internet connection, and almost no connections to any Korean families living in the area. With no one around to teach Korean, I never had a real opportunity to learn it—and despite the dreams of self-studiers the world over, I've come after a lifetime of language learning that languages must be shared from one human to another in order to attain real proficiency.

When I was in eighth grade, my mother found a one-day Korean culture workshop offered at a local university by the shore of Lake Michigan. At that time, she was the secretary at my school, and we both took the day off to go to

this workshop, which was taught by a middle-aged Korean man who must have been a professor of some kind. I wonder what he thought of me? I remember how he taught us the letters of the Korean alphabet—the consonants by matching English words to their shape:

ㄱ, a gun, makes the G sound;

ㄴ, a nose, is N;

ㄷ, a door on a hinge, says D;

and so forth. To this day, I can't look at

ㄹ without imagining it as a River,

ㅁ as a squared-off Mouth,

or ㅂ as a baby's Bib.

ㅅ, a Slide. And ㅈ, a Jumping person. ㅇ a riNG, and ㅊ a man in a Hat. ㅋ a Key, ㅌ a Trident, ㅍ a Pipe. (I forget what he told us ㅊ looks like. ㅊ doesn't look like anything much to me.)

He taught the vowels as a dance, holding our arms out in the shape of the letters. My mom learned alongside me. ㅏ, one arm to the right, a. ㅑ, two arms to the right, ya. ㅓ, one arm to the left, eo (a schwa-like sound); ㅕ, two arms to the left, yeo. And so forth, up (o/yo) and down (u/yu). Stretch both arms up: i. Stretch both arms out wide, and make a sound with gritted teeth as though a giant has stepped on you: euh.

Before we left that day, he offered to write the names of everyone who attended with a brush and ink on crisp rice paper. My mom and I told him my name in Korean, the name I had received at birth, "Lee Young-il." With decisive flicks of his wrist, a calligraphic dance of circles and lines appeared in glistening black: ㅇㅣ영일.

But I could not figure out how to read this: did it say "ngi ngyeong ngil?" And

how did one pronounce that? He had not explained the finer points of how to pronounce what one sees on the page, and so I still didn't know that ㅇ, at the beginning of a syllable, makes no sound. Nor did I understand how to arrange the letters in blocks. I tried to write my English name in Korean and came up with this: 스펀ㅇㅡ스ㅇㅡ크. (Even then, I knew that didn't look right.) Koreans so often pride themselves on a simple, logical alphabet that it is easy to lose sight of how complex its proper usage really is. For a long time, I tried to use the packet on the Korean alphabet from that workshop to sound out the Korean on appliance manuals, an exercise in futility: I didn't know that ㅅ at the bottom of a syllable makes the T sound, or how to correctly pronounce a twin consonant like ㅍ or ㅑ. I didn't know that ㅁ before ㅡ makes the "m" sound, so for a long time I went around saying "gamsahabnida" and "annyeonghasibnikka." And with no further workshops, I didn't know how to push beyond these limitations, either.

After finishing eighth grade at a very small church school in my hometown, I went to a much larger public high school one town over at my parents insistence. Eventually I liked it, but I had a lonely first year. As for so many transfer students, lunchtimes felt especially challenging. I remember trying very hard to make friends with a Korean exchange student my age who also looked alone at lunchtimes. Her name was Bo-min, and she was very quiet. I now realize that she must have been terrified: a Korean girl in jung-sam suddenly dropped in the middle of a random town in rural west Michigan! I tried to say what few Korean phrases I could, but it didn't go far. I'd ask her some questions in English, and she nodded yes or no but not much more. We did not have much in common, apart from an ethnicity.

At the end of that year, another family we knew who had adopted children from Korea hosted a Korean woman—I think as a sort of au pair, or a family friend. We saw them a couple of times. "You could learn some Korean from her!" my

mom suggested. I went along, hopeful but also intimidated. Their family friend was assertive and immediately leapt into refreshing my knowledge of hangeul and teaching me words and their sounds. She drew small illustrations above the Korean so that I would remember what words meant. 사과: an apple. 배: a boat. 아아: baby. (Finally, I understood how the silent ㅇ worked.) “Go learn these,” she told me at the end of the night.

And I did. But we only saw her once again after that—and since she had only taught me lists of nouns, and no grammar, I couldn’t really say anything meaningful. And without the ability to form sentences, the Korean vocabulary rapidly slipped from my mind.

5.

Our small-town public library had no books with which to learn Korean, but it did have a book of lullabies from around the world. I remember that there was just one in Korean, a haunting melody in a minor key that I played note by note at the piano while trying to pronounce the transliterated Korean words. Saeya, saeya, it went. Paran saeya. / Nokdu batei anchi mara. Only over fifteen years later did I learn what I was saying: Bird, oh bird, blue bird: don’t sit in the bean field. (I mispronounced the “ae” as if it were Latin, and the “ch” as if it were Italian.) I wondered if anyone had sung that song to me while I was in foster care, or whether I would have learned that song if I had grown up in Korea.

Like many adoptees, I often wondered how my life would have been different if I had not been adopted and instead grown up in Korea. I had a vague secondhand notion that Korean schools were strict and demanding. Once, the father of one of my classmates had taught a weekly class called Junior Achievement, which was supposed to teach us lessons about entrepreneurship. He mentioned that he had traveled to South Korea for work once before. When I excitedly asked him what

Seoul was like, he said, “Eh. Kind of dirty. But things were cheap.” This hurt me on some level, though I didn’t understand why. (Looking back, I think it was a weird thing to tell an adopted kid. I mean, what the hell.)

My adoption records were unusually informative, and so my parents and I actually had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my placement. We had the names, birth dates, and even heights and blood types of both my birth parents; we even knew that my birth mother had been the eldest of four children, and had grown up in Gangwon Province. My parents told me for years that I had probably been placed for adoption because she felt she was too young to be able to raise a child alone. The papers say that she had been living with her boyfriend (my birth father) but he suddenly disappeared when she realized she had become pregnant. “The baby was born out of wedlock and the birth mother wanted her baby to be adopted in a good home because she could not take good care of the baby alone under her facing environments,” wrote the social worker in English. “Adoption would be the best way for the the baby’s and the birth mother’s stable future, therefore, I recommend it for adoption in an American family.” Sometimes I wondered how my life might have been different if I had been adopted by a family in France, or Saudi Arabia, or Brazil. (I didn’t realize at the time that international adoption is rare in the latter two countries.)

Because I was interested in languages and read a lot about linguistics in high school, I learned about an idea called the Sapir-Whorf hypothesis. Two linguist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had noted that some languages seem to visualize abstract concepts in very different ways. Both Korean and English, for example, imagine past time as “behind” and future time as “forward”; but other languages reverse that image. Some languages—like, they claimed, Hopi—might have a different conception of time because they lacked features like tenses. Later research has mostly disproved Sapir and Whorf’s hypothesis, but at the time it

made me wonder: how might my thinking be different if I had learned Korean rather than English as my first language? Could I have been friendlier, or more suspicious, or sadder, or funnier than I was in English?

One cannot imagine what it is like to think in a language one does not know: without actually knowing Korean, it's impossible to say what sort of thoughts one might think only in Korean. I imagined what it would have been like to grow up speaking in Korean to a single mother somewhere in Seoul. Would we have faced disapproval or ostracism? Would life have been difficult in other ways? I wondered what it would be like to tell someone I loved them in Korean: 사랑해요. In English, these syllables meant nothing in particular: they had no emotional resonance for my adoptive parents.

I took a high-school anthropology class where I learned about a concept in structuralist linguistics called “the arbitrariness of the signifier”: it means that there is no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sound, form, or texture of a word (or any other symbol) and the idea for which it stands. Neither “love” nor 사랑 has a more privileged relationship to the underlying concept—nor amour, ài, Lieb, or any other language. That said, one language might separate a concept into finer distinctions than others. I had heard in church a million times that Greek had several words for different kinds of love: *erōs* (romantic love), *philia* (friendship or liking), *philadelphia* (sibling love), *agapē* (charity). And I knew that French made distinctions that English did not—between, for instance, *savoir* (knowing a fact) and *connaître* (knowing a person). I wondered what distinctions might lie in Korean, and how I might change if I learned it. I also wondered what it would be like to give up English.

Among the children's books we had about Korea for adoptees was a slim maroon hardcover titled *When You Were Born in Korea*, full of black-and-white photos of Korean children and especially mothers. The message was meant to

inform children in an age-appropriate way about why birth parents might place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nd it did, but I also found it mysteriously saddening to look at. The monochrome pictures seemed sombre, ashen. At one point I read it in our basement and sobbed, thinking of the hardships my birth mother might have gone through, and might still be going through, out of reach half a world away. I realized that even if I could meet her, I would not be able to say anything to her—except, perhaps,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과. 배. 아이.

6.

When I started college, I thought about beginning a new language. I considered taking Arabic, or Hindi, or Chinese. I'm ashamed to say now that I deliberately stayed away from Korean, although the Korean program at my university was truly excellent, and I later wished I had started back then. I was worried people would stereotype, or worse, pity me. Of course: the adopted boy, looking for his heritage! Of course it makes sense that you want to learn Korean. Good for you. I did not want to be pitied. I wanted to inspire awe and respect. (Years later, a brilliant Korean friend of mine, who is an accomplished political philosopher, told me that she felt similarly in college: "I felt like I had to study the whitest, most canonical Great Men so that people would take me seriously.") I registered for enormous survey classes on the European novel, on the history of philosophy, on astronomy and neuroscience and music theory.

There was a Korean American girl, E, on the same floor of the same dorm where I lived. We were friendly, though never close. I was pretty good friends with her roommate—an applecheeked, absentminded Russian American girl who played the piano like I did. One night I was visiting their room, and E was talking with a Korean American boy on Skype. Somehow I ended up in view. "Hi," I said.

“Are you Korean?” he asked.

“Yeah, but it’s complicated...” I answered.

“Do you speak Korean?”

“A little. Gamsahamnida.”

He laughed derisively. “Your accent is really weird.”

I’m not sure I said another word of Korean for the rest of college.

7.

Years passed.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I spent several years in England studying classics and philosophy. More languages accrued along the way: Latin, Greek, a decent amount of Italian and German. I took Chinese for a year. Only toward the end of my time living in England did a feeling suddenly pass over me: it was time to learn Korean, too. I wanted a quest, something to direct my life after I finished exams and started a job.

I moved to Washington, D.C., and took Korean classes once a week after work through the Korean Embassy. Progress was slow: I needed a month just to pronounce the vowel ㅏ properly. Every step of learning the language took longer than I had imagined: from numbers and colors to subordination and honorifics, from ordering off menus and using ATMs to reading newspaper articles and understanding broadcasters. (I still struggle to develop my listening ability in particular, actually.) Why is this language so much harder for me than all the others? I asked myself again and again. For a long time, it felt as though the connection to meaning I was able to develop with other languages came in Korean only with great pain. Often, it seemed like the warmest support as well as the most withering criticism came from native speakers of Korean. When someone told me that I was doing well, or spoke with me over a meal, I felt as though I were fully alive for the first time. When someone complained about my

accent or made fun of me, I too often wanted to give up, doubting whether it was right to shoulder this burden.

After a couple of years learning Korean in the United States, I moved to Korea for a year to teach English in Gangwon Province, a place I chose solely because I knew my biological mother's family hailed from there. I searched for my birth parents, and though the police located people matching their names and birthdates, I was not allowed to know their contact information. The police did tell me that they now seem to be living together. I wonder whether they have children, who would be my siblings. I may never know.

I had hoped that after a year or two, I would be able to read Korean literature for fun; in reality, it took me twice that long. I remember the first works I tried to read in Korean during that year in the mountains: Chae Mansik's story *Isanghan Seonsaengnim*, "Strange Teacher"; Hwang Sunwon's *Sonagi*; Yun Dongju's *Seosi*, "Prelude." A Korean friend generously took the time to help me read Cho Nam-jo's feminist novel *Kim Jiyeong, Born 1982*, which was especially popular and influential that year. I found myself wondering whether my mother's life had been at all like Jiyeong's mother's—both from the generation born in the mid-1960s, in the middle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which witnessed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transformation around the time I was born. I wondered if she, too, had had to give up dreams, had felt the pressure of sexism and inequality. I wished that I could ask.

To read Korean literature in Korean is a constant source of joy to me now in large part because it offers so much direct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that I didn't have in my life when I was growing up. My prehistory with Korean now strikes me as funny, but also avoidable—in a world with more translations, more literature, better resources with which to make a language accessible even to children. When I started a Ph.D in literature the following year, I didn't intend

at first to specialize in Korean. But I found with time that I couldn't give it up, even if I often felt my skills still far too inadequate. I work with Korean literature now so that in the future other people, Korean and otherwise, might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s culture and history no matter where in the world they live. I may never know my birth family's history or stories, and so what I have in their place is the history of Korea and its language. Korean might not be the language I grew up speaking. But it has become my adopted mother tongue, so to speak: the language that connects me to so much I could never otherwise have known.

My Adopted Mother Tongue

나의 양모국어 (養母國語)

Spencer Lee Lenfield [미국]

1.

단순히 유창하거나 문법적으로 정확한 것만이 아닌, 우아한 한국어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때때로 궁금하다. 내가 영어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의미, 어원, 리듬의 미묘한 차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면, 6년 동안 배우려 애썼던, 내 얼굴과 DNA에 일치하는 언어지만, 여전히 너무나 자주 내가 닿지 못하는 곳에 있는 언어에서 말이다. 조지프 콘래드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제2외국어인 영어로 글을 쓰는 법을 배운 것으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영문학에서 가장 우아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손꼽을 것이다. 리이윈과 구오 샹오루는 성인이 되어 영어를 배웠지만, 오늘날 아름다운 글을 쓰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줌파 라히리는 첫 작품을 영어로 썼지만, 지금은 이탈리아어로 쓴다. 사뮈엘 베케트는 스스로 말하길 “스타일 없이” 쓸 수 있도록 프랑스어로 글을 썼다고 한다. 인식적으로는, 뛰어난 작품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단지 어려울 뿐이다.

아름다운 한국어를 쓰고 싶다는 것이 언제, 그리고 왜 이토록 절실한 꿈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스물다섯 살에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어를 거의 알지 못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인종적으로 한국인이지만, 생후 3개월에

입양되어서 자라는 동안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글을 쓴다는 목표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언젠가 친가족을 만나면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던 것 같다. 또한 한국 문학을 읽고 싶었다. 실용적이고 회화적인 수준의 한국어에 만족했을 수도 있다. 지금껏 이 목표마저도 때때로 벅차게 느껴진다. (뉴스 방송과 중얼거리는 나이 든 택시 기사들과의 대화는 여전히 내 언어 실력에 좌절감을 안겨준다.)

한 언어로 아름다운 글을 쓴다는 것은 텅없는 메모나 신문에서부터 가장 위대한 소설과 시에 이르기까지, 그 언어의 모든 사용자 및 문학과 깊은 교감을 이루는 일이다. 나는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공부했고, 교수님은 우리가 그 언어들로 글을 쓰도록 가르쳤다. 의사소통에서의 유용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언어를 구성해 보는 것이 그 작동 방식을 내면화하고 관용구와 의미의 음영들에 대한 진정한 감수성을 배웠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때문이었다. 아름다운 한국어를 쓰는 것은 단순히 문법을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맥, 사용역 및 어조를 이해했다는 뜻이다. 담화 및 활자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시와 산문에 대한 문맥적 기억을 의미한다. 내가 한국으로 가서 영어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30년 된 나의 고집스러울 정도로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된 뇌로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꿈을 꾸다. 대부분의 입양인이나 한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이 언어의 문제가 전혀 집착(그것도 건강하지 않은)이 되지 않지만, 나에게는 그렇다.

나는 거의 모든 한국인에 대해 비이성적인 질투를 느낀다. 한국어 원어민들의 유창한 언어 실력이 부럽다. 한국계 미국인들의 자연스러운 억양과 어조가 부럽다(적어도 나보다는 더 자연스럽다).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자유롭게 넘나드는 능력이 부럽다. TV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박노자(블라디미르 티호노프)와 같은 재능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럽다. 한국어를 조금밖에 못 하거나 아예 하지 못하는 것에 그저 만족하는 입양인이나 한국계 미국인들이 부럽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아주 조금 말하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는 외국인 친구들이 부럽다. 한국어와 전혀 관련 없이 다른 목표와 관심이 있는 이들이 부럽다. 이러한 감정들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나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갑자기 한국어를 완벽히 말하고 쓸 수 있다고 해도 세상에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다. 질병을 치료하거나 전쟁을 끝내는 등 내 삶을 제외한 다른 이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내 경력을 걸고 아마 내 인생을 거기에 바쳤을 것이다. 놀랍게도 나는 한국 문학과 한국계 미국인 문학 사이의 번역 및 개작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속해있고, 적어도 옆에 함께 하고 있거나 항상 거리감과 이질감을 느끼는 두 그룹이다. 내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삶은 아니다. 6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국어를 알기 훨씬 전부터, 한국어는 항상 내 삶에 존재해왔고, 내 초기 기억들에 마저 존재한다. 이를 내 한국어의 선사 시대라고 생각한다.

2.

부모님은 나를 입양하면서 한국어를 조금 배워보려 했다. 두 분은 오렌지색과 네이비색 판지 상자에 담긴 〈한국어를 배워봅시다!〉라는 제목의 카세트테이프 어학 프로그램을 구매했다. 손으로 쓰고 등사한 한국어 글씨체와 함께 타자로 친 것 같은 어구들이 적혀있는 소책자가 함께 들어있었다. 카세트는 한국어의 기본 글자를 먼저 안내한 다음 여러 구절을 반복해서 따라 하도록 했다. 소책자는 구식 매균-라이샤워 표기법을 따르고 있었고, O와 U에 그 기능을 이해하기 어려운, 엄두조차 나지 않는 기호들이 있었다. 나는 여러 번 카세트를 들어보려 했지만 포기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함께 가신 캠핑에서 만났던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정도로 한국어 구절을 능숙하게 구사한 것 같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아버지가 진짜로 한국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저 몇 마디였을 것임을 깨달았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 백인 친구가

한국말을 아주 조금이라도, 심지어 억센 억양으로 말할 때도 한국인들이 자주 보여주는 흥분을 떠올린다. “와! 우리말을 알아요”. 1991년에 미시간 시골을 여행하던 한국인들이 그저 “안녕하세요?”라도 말할 수 있는 백인 남자를 마주치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이었을까 생각해 본다. 그들이 놀랐을 만도 하다. “대박. 신기해요.”(내가 한국말을 한다면 그 누구도 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은 삶에서 새로운 언어 능력을 키울 시간이 많지 않으며, 결국 아버지도 익혔던 한국어 구절들을 잊어버리셨다. 부모님은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힘든 일을 오랜 시간 일했다. 두 분 다 성인이 되어 새로운 언어를 배운 적이 없고, 대학에도 가지 않았다. 6년간의 혼신의 노력과 세계 최고의 학술 자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말하기 애먹는 언어를 그들이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는다. 그래도 가끔 집에서 내 백인 부모님과 함께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를 쓰면서 자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내 한국어가 유창해졌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든다.

한국 아이를 입양한 부모 중 한국어를 회화 수준까지 익힌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 이해한다. 한국어는 어려운 언어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다. 미국인(그리고 호주인과 영국인까지)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을 싫어하기로 악명이 높다. 상업과 교육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우세한 언어를 쓰는 데서 나오는 안일함이었다. 미국인은 새 언어를 익히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공연 음악가나 전문 운동선수가 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재능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미국인이 영어권 국가에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보통” 사람들이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영어 학습에 수십 년을 바친다는 사실과 그 전체 교육 시스템이 영어를 표준 교과 과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인들이 어디로든 휴가를 떠날 수 있고(아니면 한 국가를 침공할 수 있고) 그곳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오만함이 싫다.

최고의 입양 부모는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한다. 내가 무정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아이가 속했던 문화의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 왜 그렇게 적은지 종종 의아하다. 아마도 문화와 언어가 분리될 수 있다는 너무나 미국적인 믿음 때문일 것이다. 이는 한국의 예술, 음식 및 책을 충분히 접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의 삶에서 그 언어의 부재를 만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이탈리아 혈통으로 이탈리아어를 말하지 않고도 이탈리아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란 혈통이지만 페르시아어를 쓰지 않는 것, 중국에 뿌리를 두고 중국 음식을 먹지만 실제로 중국어를 쓰지는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두 상실감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 모든 믿음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민자 출신의 배경을 가진 많은 백인 미국인들도 이를 사실로 믿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고모는 집에서 독일어를 쓰며 자랐고, 최근까지도 독일어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다니셨다.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의 남편도 독일어를 쓰며 자랐고, 여전히 독일어를 조금 기억하고 있지만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처럼 오직 영어만 쓰고 자란 경우에는 문화가 언어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떡볶이”를 먹고 이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영원한 이방인으로 낙인찍히는 것이다.

몇 년 후 한국어를 배운 뒤, 나는 많은 한국인이 한국계 미국인에 대해 한국말을 거의 할 줄 모르고 한국 문화를 거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한국 문학을 영어로 옮기는 재능 있는 번역가를 본 적 있는데, 외교부에서 일하는 부모 밑에서 국제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트위터에 한국계 미국인은 한국어를 배우는 데 관심이 없다고 불평했다. 나는 이에 화가 났지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한다. “이 정도면 넌 웬만한 한국계 미국인들보다 한국말을 더 잘 할 거야”라고 한 한국인 친구가 내게 말한 적 있다. 나는 항상 한국계 미국인의 유창한 한국말을 목표로 했기에 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또한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

최근 부업으로 편집자로 일하면서 4명의 저명한 한국계 미국인 작가들의 그룹 인터뷰를 출판하는 일을 보조했다. 그 중 한 명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많은 한국인이 우리를 외계인처럼 볼 만도 하다.

3.

1990년대 초 내가 입양되었을 무렵 미국의 국제 입양기관들에서는,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국으로부터 입양이 시작된 후 수십 년 동안 그래왔던 것과는 달리 입양 자녀를 미국 문화에 동화시키는 일에 더 이상 집중하지 말라고 입양 부모들에게 말했다. “다문화주의”를 기념하는 시대에 사회복지사들은 대신 새로운 부모들이 입양 자녀의 출신을 기리고 이를 가족생활에 통합하기를 장려했다.

하지만 입양 가족이 입양 자녀의 문화유산을 재구성하는 데 사용할 책과 기타 자료들은 어린 자녀들이 이해하기에는 힘들었고, 그 범위와 품질이 매우 다양했다. 30년 후, 한국 문화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지만, 1990년에 대부분의 미국인은 한국에 대해 시트콤 〈매시〉에서 본 것이 다였다. 보통의 사람들은 인터넷이 뭔지도 아직 모를 때였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소수의 전문 출판사들에서 나온 책과 비디오가 다였다. 일부는 입양 자녀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더욱이, 오래전 사라진 조선 시대의 전통, 전후 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일반화, 그리고 양국 정부가 원했던 부지런하고, 위생적이며, 현대화된 후기 냉전 동맹국의 모습 등 실제로는 당시에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한국을 그리고 있었다.

내 입양 기관에서는 〈한국 옛보기〉라는 제목의 17쪽짜리 팸플릿을 프린터 용지에 복사해서 보내왔다. 간략한 한국 역사, 요리법 및 한국 문화의 여러 측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대중 매체” 면에서는 “한국의 텔레비전 수가 1.7 가구당 한 대로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택” 면에서는 귀족적인 “한옥” 설립을 묘사하는 데 전체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었다. “한국식으로”라는 제목의 그림책은 (이제 내가 알게 된 바로는) 1780년경 한국의 일상생활 특징을

한국말을 하는 네 살짜리 아이가 미국에 도착해서 이를 유일한 도구로 가지고 있는 두 명의 미국 어른과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이 음차에서는 한국어가 선교사들이 완전히 잘못 듣고 잘못 발음한 많은 미국 원주민들의 언어처럼 보인다. 칼라마주, 매사추세츠, 기치거미와 같이 나라의 풍경과 문화적 상상력에 산재해 있는 지명 같다. 중년의 미국인이 한국 아기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더(the) 주얼(jewel) 카? 주얼(jewel)카우(cow)? 주얼 카우(jewel cow)?”

우리 집에도 한국 문화가 부분적으로 존재했다. 입양 기관에서 나와 여동생에게 밝은 색의 “매듭” 장식을 보냈었는데, 내가 무슨 뜻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십 년을 보낸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 또한 유아용 한복도 보냈는데, 우리는 금세 자라 맞지 않았지만 일종의 상징으로 간직했다. 부모님은 한국 콜라병도 갖고 있었지만 절대 열지 않았다. 옆에 “코카콜라”라고 한글로 써어있는 병이었다. 크고 작은 사이즈의 한국 국기도 있었다. 아버지는 목공예 소질이 있으셔서 우리가 옷놀이를 할 수 있도록 옷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다. 둥근 막대기를 납작한 면으로 던져 몇 칸을 움직일지 결정하는 보드게임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켄다마를 주기도 했다. 양쪽이 컵 모양으로 깎인 핸들에 끈으로 묶인 나무 공이 달린 것인데, 지금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어릴 때는 한국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나에게는 삼태극의 원색 삼중 소용돌이가 있는 작은북이 있었다. 당시에도 한국의 어린이들이 진짜 그런 것을 연주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한국인이라 믿는 입양아들만 연주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한다.

내 방에는 한국 지도가 있었다. 내가 상상만 할 수 있었던 도시, 산, 지역, 강, 고속도로, 섬의 이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도 하단에 위치한 제주도는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런 섬에서 사는 것은 어떨까 궁금했다. 나는 제주도가 뉴요커지 만화에서 보던 무인도와 같은 모습일 것이라 상상하고는 했다. 한 사람이 살기에 충분한 공간과 야자수가 있는 풍경이었다. 서울은 내가 태어난 도시의 이름으로 알아보았다. 북한에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지역 이름들은

내 머릿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다. 왜 다 “남도” 아니면 “북도”로 끝나는 걸까? 당시에 나는 “남”과 “북”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지도 상단에 있는 비무장 지대는 부모님이 말씀하신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으로 합의에 따라 아무도 가지 못하는, 특히 군인들이 가지 못하는 곳이었다. 한동안 나는 비무장 지대가 사람들이 날 혼자 내버려 둘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내 여동생을 포함한) 다른 어린아이들에게 명령조로 말하고는 했다. “거기 가면 안 돼. 비무장 지대야.” 그들은 대부분 미취학 아동으로 비무장 지대가 무엇인지 몰랐기에 당연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한반도의 남쪽 끝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여동생이 태어난 곳인 진주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동생 입양 기관에서는 진주가 어촌이라고 했고,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진주를 그물을 들고 위험한 나무배에 탄 사람들로 가득한 일종의 한국의 갈릴리라고 상상했다. 검은 수영에 푸른 띠를 두른 한국인 예수가 진주와 제주도 사이 남해의 파도 위를 걷는 모습을 상상했다.

국가, 문화 혹은 언어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적 없는 어린아이들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수년 동안 나는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대부분은 백인)과 대조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국 물건과 책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 지었고, 그렇게 내 한국인으로서의 특성을 구성했다. 어린 시절 상상으로 구성된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 간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산타의 작업장과 실제 북극의 차이를 어린아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러한 오해를 인식하는 것은 그저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나 사이에 어떤 격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4.

7학년 때 처음으로 새로운 언어를 진지한 방식으로 배울 기회가 생겼다. 교장 선생님은 내가 영어 수업을 지루해 하는 것을 알고 대신 일주일에 이틀 라틴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다(그녀는 수십 년 전에 대학에서 고전을 전공했다). 나는 라틴어를 좋아하게 되었다. 책에 있는 모든 동사의 기본 부분을 암기했고, 어형 변화와 활용의 세세한 차이점들에 숙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최대한 빨리 앞서 공부해 나갔다. 아직 친구들과 역할 놀이를 할 만큼 어렸고, <해리 포터> 소설이 여전히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상황에서, 짓가락과 카셀 라틴어 사전을 “마법서”처럼 들고서 마당을 뛰어다녔다. 나는 크리스마스 캐럴의 제목을 퀴즈 게임으로 열성적으로 번역했고, 짜증 나는 부모님에게 영어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맞춰보도록 했다(In media nocteclaravenit. Gaudiummundo. Gelidus, nivisvir.) 8학년에 올라가서는 라틴어 수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교장 선생님이 바빠졌고 대신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2단계 교과서와 <아이네이스> 및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인쇄물로 계속해서 공부하려 했고, 반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비슷한 시기에 나는 또한 이탈리아어와 일본어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다. 동네의 작은 공립 도서관에 두 언어의 입문 교과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스위스의 이탈리아어 지역에 있는 멋진 기숙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한 소녀에 관한 소설 <블루머빌리티 Bloomability>를 읽었고, 내가 좋아했던 닌텐도 비디오 게임은 모두 영어로 나오기 전 일본어로 나왔다. 둘 중 어느 것도 그다지 잘하지 못했지만, 아예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왔다. 중학교 졸업 후 여름 동안 프랑스어 수업을 들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수업을 미리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는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유일한 언어 수업이었다.

성인이 된 지금의 나는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 내가 언어를 배우는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에 다소 분개한다. 또한 좋은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도 분개한다. 지역 대학들에는 한국어 강좌가 없었다(여전히 그렇다). 한참 후에야 나는 한국 입양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여름 캠프가 미네소타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쨌든 부모님은 그러한 프로그램의 등록금을 대줄 여유가 없었다. 우리에게겐 전화

접속 인터넷이 있었지만, 그 지역에 사는 한국 가정들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주변에 한국어를 가르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는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다. 전 세계 독학자들의 꿈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언어 실력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해당 언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평생의 언어학습에서 배웠다.

8학년 때 엄마는 미시간 호숫가의 지역 대학이 제공하는 1일 한국 문화 워크숍을 찾았다. 당시 엄마는 우리 학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그래서 교수였을 것 같은 한 중년의 한국 남성이 가르치는 이 워크숍에 가기 위해 엄마와 나 모두 학교를 하루 쉬었다. 그가 날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다. 그가 한글을 가르치던 방식을 기억한다. 자음 모양에 영어 단어를 짝짓는 방식이었다.

ㄱ, 건(gun), G발음

ㄴ, 노즈(nose), N발음

ㄷ, 도어(door), D발음

지금까지도 나는 ㄹ에서 강(river)을 떠올리고, ㅁ에서 네모 모양으로 만든 입(mouth)을, ㅂ에서 아기의 턱받이(bib)를, ㅅ에서 슬라이드(slide)를, ㅈ에서 점프(jump)하는 사람을, ㅇ에서 링(ring)을 발음할 때의 발음을, ㅎ에서 모자(hat)를 쓴 사람, ㅋ에서 열쇠(key), ㅌ에서 삼지창(trident), ㅍ에서 파이프(pipe)를 떠올린다(그가 ㅈ이 무엇처럼 생겼다고 말했는지 잊어버렸다. ㅈ처럼 생긴 것이 별로 없다).

그는 우리 팔을 모음 모양대로 내밀게 하며 모음을 춤으로 가르쳤다. 엄마도 내 옆에서 함께 배웠다. ㅏ는 한 팔을 오른쪽으로, a발음. ㅑ는 두 팔을 오른 쪽으로, ya발음. ㅓ는 한 팔을 왼쪽으로, ea발음(슈와(중성모음)와 같은 소리다). ㅕ는 두 팔을 왼쪽으로, yeo발음 등등, 팔을 위로 (o와 yo 발음), 아래로 (u와 yu 발음). 두 팔을 모두 위로 뻗으면 i, 두 팔을 넓게 벌리고 거인에게 밝힌 것처럼 이를 악물고 소리를 내면 euh 가 되었다.

그날 마치고 전에 그는 바스락거리는 화선지에 붓과 잉크로 수업에 온 모든 이의 이름을 적어주었다. 엄마와 나는 그에게 내 한국어 이름을 말해주었다. 내가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인 “Lee Young-il”이었다. 그가 손목을 과감하게 휘두르자 원과 선의 서예적 춤이 반짝이는 검은 색으로 나타났다. 이영일이라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읽는지 몰랐다. “응이 응영 응일”이라고? 어떻게 발음할 수 있지? 종이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가 세세한 부분을 설명해주지 않아 나는 여전히 음절의 시작 부분에 있는 ㅇ을 소리 내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 글자를 블록 형태로 배열하는 법도 몰랐다. 내 영어 이름을 한국어로 써보려고 했고, 그 결과는 이랬다. 스펀키 나 스펀키 리 (그때도 이것이 잘못 쓴 것임을 알았다). 한국인들은 한글의 단순하면서도 논리적인 면에 자부심이 커서 종종 한글의 올바른 사용법이 실제로 얼마나 복잡한지 간과하기 쉽다. 오랫동안 워크숍에서 가져온 한글에 대한 책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설명서에 있는 한국어를 발음해보려 했지만 헛된 노력이었다. 받침의 ㅅ은 T와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을 몰랐고, ㅍ 이나 ㅃ 과 같은 이중 자음을 올바르게 발음할 줄 몰랐다. ㄴ 앞에서 ㅂ이 m과 같은 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몰랐고, 그래서 오랫동안 “감사하브니다”, “안녕하브니까”라고 말하고 다녔다. 더 이상 워크숍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도 몰랐다.

고향의 작은 교회 학교에서 8학년을 마친 후, 부모님의 권유로 한 마을 너머의 훨씬 더 큰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결국엔 그 학교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첫해에는 외로웠다. 많은 전학생이 그렇듯 점심시간은 특히나 힘들었다. 점심시간에 역시 혼자처럼 보였던 내 또래의 한 한국인 교환학생과 친구가 되기 위해 무척 애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보민이라는 이름의 그 학생은 아주 조용한 성격이었다. 지금의 나는 보민이 겁에 질려있었음을 안다. 중3의 한 한국인 소녀가 갑자기 미시간 서부의 어느 시골 마을 한가운데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내가 아는 한국어 몇 마디를 해보려 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진 않았다. 보민에게 영어로 질문을 하면 보민은 응 혹은 아니라고 고갯짓을 할 뿐이었다. 우리는 같은 인종이라는 점 외에는 공통점이 별로 없었다.

그해 말에 우리가 알고 지내던 한국 아이를 입양한 또 다른 가족이 한 한국인

여성을 맞이했다. 입주 가정부거나 가족의 친구였던 것 같다. 우리는 그들을 두어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 여자한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희망을 품고 그렇게 했지만,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다. 그 가족 친구는 확고한 성격으로, 즉시 내 한글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하면서 단어와 소리를 가르쳤다. 그녀는 내가 단어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글 위에 작은 그림을 그렸다. 사과, 배, 아이(마침내 나는 소리 나지 않는 o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가서 이것들을 공부해” 그날 밤이 끝날 무렵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공부했다. 하지만 그 뒤 그녀를 한 번 더 볼 수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명사만을 가르쳐주고 문법은 가르쳐주지 않아 나는 의미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없어서, 한국어 단어는 곧 빠르게 잊혔다.

5.

우리 마을의 작은 공립 도서관에는 한국어 교재는 없었지만, 세계 각국의 자장가 책은 있었다. 한국어 자장가가 하나 있었는데, 단조의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멜로디로 나는 음차된 한국어를 발음하려 애쓰며 음표 하나하나를 피아노로 연주했던 것을 기억한다. 노래는 이러했다. 사에야, 사에야. 파란 사에야. 녹두 바테이 안키 마라. 15년도 더 지난 후에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 새야, 새야. 파란 새야. 녹두발에 앉지 마라(ㄹ(ae)를 라틴어처럼, ㅈ(ch)을 이탈리아어처럼 잘못 발음했었다). 내가 위탁되어 있었을 때 누군가가 이 노래를 내게 불러줬을지,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 자랐다면 이 노래를 배웠을지 궁금했다.

많은 입양인과 마찬가지로, 나도 입양되지 않고 한국에서 자랐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한국의 학교는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막연한 간접적인 생각이 있었다. 한번은 반 친구의 아버지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수업인 '주니어 어치브먼트'라는 주간 수업을 가르친 적이 있다. 그는 전에 한 번 일 때문에 한국을 가본 적이 있다고 했다. 내가 신나서 서울이 어떤 곳인지 묻자 그는 “어, 좀 더러웠어. 그래도 물가는 싼어”라고 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는 어느

정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돌아보면, 입양아에게 하기에는 이상한 말이었다. 아니, 대체 무슨 소리야).

내 입양 기록은 비정상적으로 상세해서 부모님과 나는 내 입양을 둘러싼 상황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름, 출생일뿐만 아니라 내 친부모의 키와 혈액형까지 알 수 있었다. 친엄마가 4남매 중 맏이로 강원도에서 자랐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부모님은 친엄마가 아이를 홀로 키우기엔 너무 어려서 나를 입양 보냈을 것이라고 수년 동안 이야기했다. 문서에 의하면 친엄마는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었지만(내 친아빠다), 그는 친엄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 “아기는 결혼 없이 태어났고, 생모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혼자 아이를 잘 돌볼 수 없어서 좋은 집으로 입양 보내기를 원했다”고 사회 복지사는 영어로 적어 놓았다. “입양은 아기와 생모의 안정적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것으로, 미국 가정으로의 입양을 추천한다.” 때로는 내가 프랑스나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브라질 가정으로 입양되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궁금해질 때가 있었다(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브라질에서는 국제 입양이 드물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언어에 관심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 언어학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사피어-워프 가설에 대해 알게 되었다. 20세기 초의 두 언어학자는 일부 언어가 추상적인 개념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시각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과거를 “뒤”로, 미래를 “앞”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언어들에서는 그 반대 이미지다. 언어학자들이 주장하기로는 호피어(Hopi)와 같은 일부 언어는 시제와 같은 기능이 없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이후 연구는 사피어-워프의 가설을 대부분 반증했지만, 당시에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를 모국어로 배웠다면 내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궁금했다. 영어를 쓸 때보다 더 친근하거나 의심스럽고, 더 슬프거나 웃겼을까?

알지 못하는 언어로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없다. 한국어를 알지 못하면 한국어로만 할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일지 말할 수 없다. 서울 어딘가에서

홀어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하며 컸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고 배척당했을까? 삶이 다른 면에서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한다고 한국말로 말하는 것이 어떨지 궁금했다. 사랑해요. 영어에서는 이 음절들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 내 양부모에게는 그 어떤 감정적 공명도 일으킬 수 없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 인류학 수업에서 구조주의 언어학 개념인 “기호의 자의성”에 대해 배웠다. 소리와 형태, 또는 단어 구조(혹은 다른 상징)나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 사이에는 아무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러브Love”든 사랑이든 어느 것도 그 근본적인 개념과 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아무르amour, 아이ai, 리브Lieb 등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한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개념을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나는 교회에서 그리스어에는 다양한 사랑의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들 있다고 수없이 들었었다. 에로스(로맨틱한 사랑), 필리아(우정이나 호감), 필라델피아(형제자매간의 사랑), 아가페(자선) 등이다. 또한, 프랑스어는 사실을 아는 것(savoir)과 사람을 아는 것(connaître)과 같이 영어에서는 구분 짓지 않는 개념을 구분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어는 어떤 구분을 사용할지, 그리고 그것을 배우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다. 영어를 포기하면 어떨지도 궁금했다.

입양아를 위한 한국에 대한 동화책 중에는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라는 제목의 얇은 밤색의 하드커버 책이 있었는데, 한국의 아이들과 특히 엄마들에 대한 흑백 사진으로 가득했다. 그 메시지는 친부모가 왜 아이들을 입양 보냈는지를 아이들 연령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는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슬퍼졌다. 흑백사진은 잿빛으로 침울해 보였다. 어느 날 나는 지하실에서 그것을 읽고 흐느껴 울었다. 세계 반대편의 닿지 못하는 곳에서 친엄마가 겪었고 어쩌면 지금도 겪고 있을 고난을 생각하며 말이다. 친엄마를 만날 수 있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과, 배, 아이'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6.

대학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언어를 시작할까 생각했다. 아랍어나 힌디어, 중국어를 배우는 것을 고려해보았다. 대학에는 정말 훌륭한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내가 일부러 한국어를 멀리했었다는 것을 말하기 부끄럽다. 나중에는 그때 한국어를 시작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지만 말이다. 사람들이 나를 고정 관념으로 바라보거나 더 심하게는 나를 불쌍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당연하지. 저 입양아가 자기 뿌리를 찾고 싶어 하지”, “당연히 너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겠지. 잘됐어” 등등 말이다. 사람들의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경외와 존경을 일으키고 싶었다(몇 년 후, 뛰어난 정치철학자인 내 한국인 친구도 대학에서 비슷한 심경이었다고 말했다. “가장 백인적이면서도 가장 고전적인 위인들을 연구해야 사람들이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 같았어”). 나는 유럽 소설, 철학사, 천문학, 신경과학 및 음악 이론에 관한 방대한 연구 수업을 등록했다.

내가 살았던 기숙사 같은 층에 한국계 미국인 여학생 E가 있었다. 우리는 잘 지냈지만 한 번도 가까운 친구 사이는 아니었다. 나는 E의 룸메이트와 꽤 친했는데, 나처럼 피아노를 치는 핑크빛 뺨을 가진 멍한 러시아계 미국인 여학생이었다. 어느 날 밤 그들의 방을 방문했는데, E는 스카이프를 한 한국계 미국인 남자와 이야기 중이었다. 어쩌다 나는 화면에 나오게 되어 “안녕”하고 인사했다.

“한국인이야?” 남자가 물었다.

“응, 근데 좀 복잡해.” 내가 대답했다.

“한국어 할 줄 알아?”

“조금. '감사합니다.'”

남자는 조롱하듯 웃었다. “네 억양 정말 이상해.”

그 후 대학 생활 동안 다시는 한국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7.

몇 년이 지났다.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영국에서 고전과 철학을 공부하며 몇 년간

지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언어가 축적되었다. 라틴어, 그리스어, 충분한 정도의 이탈리아어와 독일어가 생겼고, 일 년간 중국어 수업도 들었다. 영국에서의 생활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나를 스쳐 가는 느낌이 있었다. 한국어도 배워야 할 때라는 것이었다. 나는 시험을 마치고 취직한 후 내 삶을 이끌어줄, 탐구할 무언가를 원했다.

워싱턴D.C.로 이사해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 한국어 수업을 들었다. 진행은 더뎠다. 모음 ㅈ를 제대로 발음하는 데 한 달이 걸렸다. 한국어를 배우는 모든 단계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렸다. 숫자와 색깔에서부터 반말과 존댓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메뉴를 주문하는 것과 ATM 사용에서부터 뉴스 기사를 읽고 방송을 이해하는 것까지 말이다(실제로 나는 아직도 듣기 능력을 기르느라 애먹고 있다). ‘왜 한국어는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더 어렵지?’ 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오랫동안, 내가 다른 언어에서 키울 수 있었던 의미와의 연결을 한국말로 가져오는 것이 큰 고통으로만 느껴졌다. 종종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에게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동시에 가장 주눅 들게 하는 비판을 받는 것 같았다. 누군가가 내게 잘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할 때는 처음으로 내가 완전히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누군가가 내 역량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거나 놀리면, 내가 이 부담감을 지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지 몇 년 후, 한국으로 가 일 년 동안 강원도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친엄마의 가족이 강원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곳이었다. 나는 친부모를 찾으려 했고, 경찰이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사람들을 찾았지만,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그들이 함께 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들에게 내 형제일지도 모를 자녀가 있는지 궁금했지만 나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1, 2년 후에는 한국 문학을 재미로 읽을 수 있게 되길 바랐다. 실제로는 그 두 배의 시간이 걸렸다. 나는 그해 산에서 한국어로 읽으려 했던 첫 작품들을 기억한다. 채만식의 〈이상한 선생님〉, 황순원의 〈소나기〉, 윤동주의 〈서시〉였다. 한국인 친구가 친절히 시간을 내어 내가 조남주의 페미니스트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도록 도와주었다. 그해 이 소설은 특히나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작품이었다. 우리 엄마도 지영의 엄마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 궁금했다. 두 명 다 1960년대 중반 군부 독재 시절에 태어나, 내가 태어났을 무렵의 민주화와 경제변혁을 목격한 세대다. 친엄마도 꿈을 포기해야 했는지, 성차별과 불평등의 압박을 느꼈을지 궁금했다. 내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랐다.

한국 문학을 한국어로 읽는 것은 많은 면에서 지금의 나에게 끊임없는 기쁨의 원천이다. 내가 자라면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한국 문화를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내 한국어 선사 시대는 이제 웃긴 일이 되었고, 또한 피할 수 있다. 더욱 많은 번역과 문학, 어린이들도 언어를 접할 수 있는 더 나은 자료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말이다. 이듬해 문학 박사학위를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한국어를 전공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내 실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느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래에 한국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세계 어디에 살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나는 한국 문학을 연구하고 있다. 내 친가족의 역사와 이야기를 결코 알 수 없겠지만 그 자리에 나는 한국의 역사와 언어를 두었다. 한국어는 내가 자라면서 사용했던 언어가 아닐 테지만 내 양모국어가 되었다. 내가 모르고 지나쳤을 많은 것들과 나를 연결해 주는 언어이다.

Lee-Dae-Il / Two vs One : An Adoptee Memoir

Eric McDaniel [미국]

Let me tell you about a kid with an unusual story. A story of one child with two families, from two worlds, and just as many odds stacked up against them. In Korean, 2 vs. 1 is Lee-Dae-il. It also happens to be that child's name. Lee Dae-il. That's me.

I was born Lee-Dae-II, but my American name is Eric McDaniel. I'm a Korean-American adoptee, born in 1986. For most of us adoptees, we do not know our actual birthdates. Due to abandonment, much of our paperwork and records were lost. Our adoption agencies would register fake birthdays for us under our own family registration, what I call "Abandoned Orphan Lineage."

In the beginning, I was born in Incheon. Supposedly, it was so country, not even my birth parents remember where I was born. In the 80s, there was a lot of industrialization and inflation happening in South Korea, it was the fastest growing first world economy after the war. Therefore, many households were left severely broken financially and mentally. How could single mothers, fathers, and poor families support their children? Korea found a solution to give these parents

and their babies an opportunity at a better life: international adoption.

From what I know, I was living with my mother and father until I was about 4 years old. My father at the time was 46 years young. He was called the “Night Club King.” From what my gangster cousins told me, he was very respected in his community. You might guess what line of business he was in. If you look at his face, you can definitely tell through his odd lines, and wrinkly dry skin under his almond eyes, there is a huge story of the unknown, the untold, a fiery past. Sometimes, when I look at him, I catch him in a reminisce stare looking out a window with a melancholy gaze that there is something he should repent for.

My mother was twenty when she had me. I was told I was actually delivered in a car. Then, Pops comes and says, “Lee-Dae-il is what we will name him.” Actually, Dae-il means “The Big One.” But in Korean, Lee-Dae-il also means 2 vs 1. For me, this is very significant. It means: Two worlds. Two families. Two cultures. Two names, Eric McDaniel and Lee Daeil, for one man. You will see.

Regardless of culture, a twenty-year age gap isn’t too common anywhere in the world. It’s already looked upon as taboo. In Korea, if you’re single or unmarried, it’s looked down on even more socially. You will be shunned from the family, disowned, and practically ostracized from your surroundings and your peers. Therefore, many families with single parents or affairs all hid the truth and the easiest solution was adoption.

By the time I was born, my father was a retired gangster who lost everything because of competition, age, and industrialization, working many odd jobs in Incheon. My mother was once a secretary. However, even she struggled to find work and was hardly home. I was alone most of the time.

When I reminisce about my past in Korea, it is more than a memory. It is almost like a polaroid picture. My five senses imbedded into that snap shot of a memory. But that snap shot is so vivid, when I close my eyes, I can almost

remember the sights, the smells, the touch, the sounds, and the tastes. When I was in the orphanage, they were memories I kept close to my heart. Deep in my brain. Those memories protected me from others because I didn't trust them. It fueled my hate for myself, my Korean parents, and abandonment.

Now flashing back, I remember never having a lot of food. I remember my mom and dad fighting consistently. I remember the distinct alcohol smell of soju lingering through the air. I remember the shattering of green glass, and broken shards glistening on the floor. I remember the thrashing of their bodies and the reverberating heart gurgling words being spit through the air. I could see it like a mist of hate being sprayed through a spray bottle, but instead it was their words.

I remember crying so hard that I couldn't even breathe. The sounds of my cries would resonate throughout the walls. I remember I tried my best for them not to fight. I would be between them during the fight. As a result, I would get knocked away or beat. I would remember hitting the cold damp floor smelling of soju. I remember just lying there crying and looking away at them seeing their shadows boxing along the walls, as my tears dripped down covering my cold clammy face, as I gasped inhaling ashes of cigarettes floating through the air.

On one life altering day, one of the worst days of my life happened. Both my mom and dad came home arguing severely drunk. I remember bottles shattering, floors rumbling, and screams echoing. I curled up in a ball because I was scared to get hit. That was the night that changed everything. During the heat of the battle both my mom and dad were hitting and screaming at each other, things were breaking...

All of a sudden, I remember loud screams and my mom hunched over wincing in pain and fear... After that, everything blacked out and when I woke up everyone was gone. That day changed my life forever.

That was the last time I saw my mother ever again. Supposedly, she moved to

Busan and I was left alone with my father to raise me. I was heartbroken, looking at the door and crying for my mother to come back, but she didn't.

Until one life changing moment, my father asked me to go with him on a trip. He had a kind voice and he seemed to stutter. I didn't care because anything was better than this lonely damp house. What seemed like hours later, we arrived at an office. I remember a long plain white desk and a big long brown couch in front of it. I laid on the couch as my father and some strange woman started talking about stuff I couldn't even understand. I remember my father softly saying, "Dae-il, just lay down and go to sleep. This will be a while." Hungry, tired, bored, and three years old, you sleep a lot. I fell into a deep sleep.

A lady softly woke me up telling me, "Your father left you here, but don't worry. We will take care of you. This is your new home now." I remember a numbing bolt of energy running through my body. A sense of confusion, like the dull roar/echo of a sound-piercing shell shock. A sense of fear that thudded through every heartbeat. The sense of my biggest fear: abandonment. I felt helpless like a gazelle collapsed from exhaustion running away from a pack of lions closing in. Just lying there, with the feeling of abandonment waiting to eat the last part of my happiness.

Every day, I remember we would eat once or twice a day. A small bowl of rice with some broth. Sometimes, as a treat, we would get a little vanilla wafer or crackers. I was a very shy kid in the orphanage because of the environment. I didn't talk much because I was scared. And I hated the world. It was just a square, flat dull place. None of the kids would laugh, or talk too much either. If we would talk too much or did not do our chores, I remember getting slapped on the wrist and the back of the knees. I remember getting my ears pinched, squeezed, and turned like a tourniquet. This was my everyday life in the orphanage. It seemed like an eternity. I was lost. I hated my life.

Some of my daily activities and chores would be cleaning all those nasty toilets in a row. I dreaded doing that every time. That was my assigned daily chore. If I didn't clean the toilets fast or efficiently enough, I would get my ears pinched and yelled at. Since I was three years old, I couldn't use the regular toilets. I had one of those little aluminum tray bins for hospital patients to use when they can't get up and use the bathroom. This was embarrassing and one of the worst memories I had at the orphanage. The pot was in the right corner of the main living quarters near an exit, which meant it was open for everyone to see. I had to pee and poop in front of everyone. Often, I would cry. I knew it was something I had to do or else there would be punishment.

I thought to myself, this is going to be my life forever: hungry, abused, embarrassed, exposed, depressed, and hateful.

I remember on one calm morning, just another regular day, there was a strange man, and this strange girl next to him. They walked up very calmly, with this aura around them. It looked like they were glowing and gleaming a warm yellow orange color. It was very welcoming; it was very tranquil. All I could do is gaze as they would slowly walk to me. I was hypnotized by their warm light surrounding them. The tall man had a huge brown trench coat, a top hat, and black glasses. He had a white face, and a smile with sharp white teeth, but his daughter looked like me. She was soft, kind, with a sweet smile. Then my caretaker told me I had to go with them. I was ready to go, wherever it was. Little did I know, this man would be my adoption lawyer and change my life forever.

The next thing I remember is being on an airplane for the very first time. It was horrible. My ears hurt because of the air pressure. I was screaming and crying. I even got an ear infection. After what felt like eternity, I felt a rumble, an earthquake, and then suddenly we were on the ground. My ears came back to normal with a quick popping sound, the pressure released from my ears. When

we got off the airplane, I felt a sudden relief, knowing I was grounded. But I realized something was different and my senses were going haywire. Listening to all the different sights and sounds of the airport.... we landed in the US of A.

After walking a few feet into the airport, I remember a sense of anxiety rushing over me. I remember looking in every which way I could and seeing that everyone was different. Old, young, fat, skinny, white, brown, black.... This was America. All I could do is be shocked, and just freeze in time. I gazed side-to-side, in slow motion. My lawyer had to hold me and try to calm me down. Then, I remember seeing a woman with a smile, a gentleman with another smile, and a small child that looked like me with a smirk on his face...

After some small talk, my lawyer picked me up and handed me into my father's arms. Right away, a burst of fear jolted through my body and I erupted with a loud cry! I was kicking and screaming and crying for my life because I had no idea who these creatures were. I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Suddenly, the small boy, who looked a lot like me, rushed to me with candy in his hand. I believe it was PEZ. He held it out to me, to see if I wanted it.... I stopped crying for a bit to see what he was holding. I didn't know what it was. Scared for my life, I kicked his hand and the candy spilled all over the floor. He started crying too. He said, "Take him back, take him back! Go back to Korea!" This was my older brother, who is also a Korean-American Adoptee. Suddenly, shortly after, my lawyer and his daughter left.

My American father wrapped me in his big arms so I wouldn't squirm away. Even though I tried so hard, his grip overpowered my malnourished strength. He put me into my mother's lap in the passenger seat of the car. Suddenly, the car ignition turned on and my mother took out a brown leather photo album from the glove department. I sat looking at the photo album in a transfixed stare while I'm still crying. When she opened the book, she showed me the pictures. The first

picture was a house. The second, my American mom smiling with my brother. The third, was my American dad smiling with my brother. Fourth, a family picture of all of them at home smiling at a dinner table. Then after, a picture of a bed. Do you know what I did shortly after? I fell right asleep because I knew what was now given to me: A family that I always dreamed of. I could feel the love from the pictures. I knew I had a home now. A family. A life. A second chance. Later on, I would learn that a new family meant new responsibilities.

Growing up in Independence, Missouri in the 1990s was not easy as a Korean adoptee. One of the first problems I dealt with growing up in elementary school was my speech problem. After arriving to America, I was mute for six months. That was my transitional period. However, it made my mother happy when the first words I said was, “I love you mom.” Believe me, I meant it.

However, a new life meant new real world experiences. The real problems started when I entered elementary school. I remember taking the bus to school consistently being picked on by predominately white kids. Every day on the bus, kids slanted their eyes to make fun of the shape of my eyes, throw trash at me, and spit on me. At first, the little-boy-in-the-orphanage instincts kicked in. I fought fire with fire. Whatever they did to me, I did back... but this didn't work. I found myself crying because I never had to fight anyone so much bigger than me. I felt like that hopeless little boy fighting my Korean dad.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but let the hate and fear reside in me. I remember getting off the bus, and seeing my mother, just smiling at me with her big blue eyes, blonde short hair, and big glowing smile. After I would see her, nothing mattered anymore because I would run into her arms knowing I was loved and I was safe.

But due to my past, I would never tell her what was wrong with me. Sometimes, I would come home, and she could see the spit stains on my shirt and dried tears on my face. She would ask me, “Eric, what is the problem? You can

tell me?” But I would never reply. I didn’t want my mom to worry and make her feel sad. After months of mental torture and racism on the bus, I realized I knew what to do to fight the racism against me. I reminisced about my past in Korea and understood the raw hate the bullies on the bus had against me. I realized they hated me because they didn’t understand me. I related this hatred to when I didn’t understand why my dad would abuse me. I let the hatred be the catalyst to my anger towards others. I asked myself, “What if they have the same issue?” In addition, I had a good class environment. Most kids in my classes were mixed. We had Spanish, African American, and different shades of white in my class. Together, we all played and enjoyed class. With these two factors, I decided to fight the bullies’ anger with kindness. I fought it with kindness because I remembered how I felt when I recognized I had my second chance. I fought it with kindness because I knew there were people of other color who genuinely liked me.

So one day, I went on that bus, with my head up and sat right next to the bullies and all I did was nod and smile and ignore them. They tried to annoy or provoke me, but I didn’t react with anger. I just didn’t do anything at all. And after two or three days of just dealing with the racism and fighting, the bullying stopped.

As an adolescent, my American father taught me two Midwestern proverbs:

“Son, nothing good comes easy.”

“Son, life isn’t fair so get over it.”

These resonated with me deeply. I knew life wasn’t fair, through my abandonment from my Korean father. I knew, in order to get what I wanted, that I needed to be accountable for my actions. If I didn’t get abandoned and then adopted, who knows? Maybe I would have taken the easy way out, point fingers at other people, and always think negatively about the world. Fortunately, I was adopted into a great loving family that taught me values and morality, the exact

opposite of the family/person/human being that I lived with in Korea. Throughout those years, I took everyone's negativity, the bigotry, the hatred, and the ignorance and used them as fuel for myself to be joyful: understanding the hate was my catalyst to be joyful. I already knew what hatred looked like because when I was a little boy in the orphanage, I lived it. But when I was growing up in America with my American family, I respected it. As a result, I embraced the hate in order to understand true joy.

Eventually, growing up, I totally lost my Korean identity in high school. I was so lost that I allowed my nick name to be Chino throughout high school and university. At the age of fifteen, I received the nick name Chino when I went to Cuba with my older brother Adam. His team was invited to play team Cuba at a time when Americans were prohibited from traveling to communist Cuba. We were all fortunate enough to receive government exemption to go. Off we went to Havana, Cuba, thanks to the power of our American government and Fidel Castro. When we were there, the locals called my brother and me "chino" because that was the word in their language for "Asian man."

When our team finally arrived back in America, in Independence, I allowed my white teammates to keep calling me Chino even though I didn't like it. Most of their justification, and the justification which I told myself was, "Bro, it's just a term for an Asian man, in Spanish language." So I let it slide. I didn't even realize I lacked my Korean heritage anymore. Honestly, my actions disregarded my heritage. In high school, I was president of my class for two years, and everyone called me the nickname "Chino" when my American name is Eric McDaniel, and my Korean name is Lee Dae-il. I wasn't really accountable in respecting or insisting my Korean identity. That was my mistake. But how was I to find my identity and realize who I was?

Priorities led me to only focus on the love of my life: baseball. Moreover, I

focused on my grades because I didn't want to end up poor like that little boy in the orphanage, Lee Dae-il. So I received scholarships as a baseball player which paid nearly everything for school. I was even the only Korean American prospect to pitch left and right-handed. My love for it made me work double hard to achieve my dreams. But I didn't even think of myself as Asian. Didn't know, didn't care.

Then I got hit with a curveball. My dad was diagnosed with cancer. I fell into severe depression because the person I looked up to was so hurt. I deferred so many Division-1 scholarships and moved back to Kansas City to be close with him. Then, depression got the best of me and I ended up quitting baseball to focus on school. It was the first time in my life I had felt lost and hurt like that little kid in the orphanage.

But during university, I met my first true Korean friend. He educated me about Korean food, Korean culture, and we even watched Korean movies and dramas together. We watched *Stairway to Heaven*, *Cheonguk-ui Gyedan*. I even grew my hair out long to look like one of the actors. This fueled my curiosity to go back to Korea. So I asked my American mom and dad for my adoption papers since they still had my files. When they gave them to me, I learned I had a half-brother and half-sister. Same father, different mothers. In those times, I would flashback to those polaroid picture moments... I had to fly back. I had to find out more.

So thirteen years ago, in 2008, I sold my car, quit my job working in finance, and packed my bags to search for my newest goal: to find my Korean father and mother, and my Korean half-brother and half-sister.

When I came to Korea, I filed for a birth family search through my adoption agency. Although I had heard it was less than a 10% chance to find one's birth parents, I wrote and submitted a letter and pictures to my agency. They in turn

sent telegrams to my parents. People still sent telegrams in 2009.

Luckily, I found both of them. My father was really emotional. Therefore, I told him that I am fine. I told him that I am here to rebuild what we have because I deserve it and so does he. I reiterated that he should not feel embarrassed because I understand how hard the decision for him must have been and I totally forgave him 100%. I also told him I am ready to love him and my family because everyone deserves a “second chance”. In addition, I knew that he couldn’t provide for me at that time of hardship and adoption was the only option for me besides dying in a little hut of a house. Since I got a second chance at life my Korean family and I deserve a second chance to rekindle our relationship together.

Moreover, I took the same approach with my mother. Although she was more emotional because she was so embarrassed. I told her that the past is the past and lets both learn from it.

Overall, I had a second chance to find out who I was. I found out I was not born in April, but February. Also, I have aunts and cousins living in LA, the whole entire time I was living in America. In addition, through the agency, I found out my half-brother and half-sister were adopted together to France.

Nevertheless, I had this precious and rare opportunity to find my family, my heritage and myself, it was not easy taking in all the information about the past. Unfortunately, supposedly my father took a knife and stabbed my mother. That’s why she left. I understood her more. She’s now a recovering alcoholic. Throughout the years, my dad was supposedly a former gangster, known to abuse and cheat on everyone he came across.

Even knowing all this, I kept strong. I needed to find my brother and sister. I must learn. I must grow. Because I’m nothing like my Korean father. So when I would look at my Korean father, that’s me embracing the hate. Moreover, I needed to let my brother and sister know that someone from their blood, their

family, was searching for them.

In order to do that, I needed more information about my brother and sister. So what did I do? I showed my mother and father total forgiveness. Every year, every Chuseok, every family holiday I visited him. Hoping to find more information about my brother and sister, so that I could find some way to connect with them. But whenever I pressed the issue, he'd say he didn't know anything. He was lying and hiding something. No matter what I did or said, he wouldn't budge. So I just waited, and went on living my life in Korea.

Moving to Korea opened up so many doors for me, not just in finding my family but finding what I love about Korea and what I truly enjoy as a man. During my 12 years, I worked many jobs, tried different businesses, made lots of connections, and had lots of experiences. A long time ago, I even started a Korean restaurant.

More importantly, I became an event planner. I networked as hard as I could, knowing it would make it easier for my brother and sister to find me. Luckily, my lifelong love and passion, baseball, even found its way back to me again. I was fortunate enough to play and even be an instructor for Journeyman, a Korean independent baseball team. I even got featured on the biggest expat magazine, Groove Korea for their April 2018 issue.

Last year, around Chuseok, I went to have dinner with my father and his now-wife out in Incheon. We made small talk in the living room with the TV on. But then something happened, and he motioned for his wife to pull something from the TV drawer. It was pictures of my brother and sister, with their birthdates. After 12 years of waiting and coaxing him, he finally gave me what I needed.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the help of my best friend translating every single detail for me to persuade him to give them to me. That was all I needed.

In my time leading up to this, I also met many other adoptee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I linked with many adoptee groups online so I could be a part of the adoption communities. After collecting all the social media groups, I uploaded their pictures with their information. After a month after uploading my siblings' information to social networking groups, I got a message.

Apparently, my sister was curious and checked Facebook one day, after she was curious about adoptee stories. And did an adoptee search on Facebook. Then she saw the post I made with her picture and birthdates, and she fell in shock. It was mid-December when we had our first video call together. She doesn't speak Korean or English, only French. Her son, my nephew, spoke English well enough to translate for us.

My nephew translated for us as I told my sister how hard I had looked for her and our brother, how much I loved her and that I'd never lose her again. I told her that no one can hurt her anymore.

Through perseverance and patience, I finally got the opportunity to let them know they had a brother. That I was searching for them. Not only is it our chance in life to connect as siblings, it's also their chance to find out who they were, who their family is. Because I learned enough Korean and went through the process, I was able to help find their birth mother and translate for them when they had their first video call with their mother.

This is supposed to be a memoir about my experience as an adoptee, but this story isn't over yet. It's only begun. I have to go to France to see my brother and sister and hug them for the first time.

At times in my life, I felt like I had two worlds against me. Abandoned in Korea. Dealing with discrimination in America. But I turned the hardships I encountered in these two worlds, all the hardships and difficulties, into the most powerful motivation to become the best man I can be. As an adoptee, as diaspora, I'm so proud and grateful to be part of both cultures, to my American and Korean

parents. I've overcome these challenges and become a better person as a result.

Whoever you are, wherever you're from, however lost, confused, desperate or alone you may be because of your family situation or cultural identity crisis... you are not alone. You can transcend. You can become so much greater than your problems and your struggles and the darkness and the hatred. I was lucky, but I put a lot of work in. You can do the same. Second chances deserve your hard work and passion.



이대일 / 2 대 1 : 어느 입양인의 기록



Eric McDaniel [미국]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아이를 소개하고 싶다. 두 개의 가족, 두 개의 세계, 그로 인한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아이다. '2 대 1'. 한국어로 발음하면 이대일이다. 이것이 아이의 이름이다. 이대일. 바로 내 이름이다.

한국 이름은 이대일이지만 미국 이름은 에릭 맥대니얼이다. 1986년생이며 한국계 미국인 입양인이다. 입양인은 대부분 정확한 출생일을 모른다. 버림받은 우리와 관련된 서류나 기록은 없는 경우가 많다. 입양기관은 호적에 가짜로 출생일을 등록한다. '버림받은 고아의 족보'를 만드는 셈이다.

태어난 곳은 인천인데 워낙 시골이라서 친부모님도 나를 어디서 낳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1980년대 한국은 산업화와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다. 한국은 전쟁 이후 빠르게 성장한 경제 국가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가정이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 한부모 가정이나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아이를 부양하겠는가? 한국은 부모와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할 해결책을 발견했다. 해외 입양이다.

나는 4살 때까지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았다. 당시 46세였던 아버지의 별명은 '나이

트 클럽 대왕'이었다. 깡패 사촌들에게 듣기로는 지역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면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 여기저기 금이 간 얼굴, 둥근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과 거친 피부에는 모두가 합구하는 미지의 험난한 과거가 담겨 있다. 가끔 아버지를 보면 과거를 후회하는 듯한 애잔한 눈길로 창밖을 바라보는 무심한 시선을 볼 수 있다.

나를 가졌을 당시 어머니는 20세였다. 나는 차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아버지는 “아이 이름은 이대일로 한다”고 하셨다. 대일은 ‘큰 사람’이라는 뜻인데 ‘2 대 1’이라는 의미도 있다. 특히 나에게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두 세계, 두 가족, 두 문화, 두 이름에릭 맥대니얼과 이대일. 사람은 1명인데 이름은 2개다. 이제부터 설명하겠다.

세계 어느 문화권이든 20년 나이차가 평범한 일은 아니다. 금기시되기도 한다. 결혼도 안한 미혼이라면 한국 사회에서 색안경을 끼고 본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의절하거나 주변 사람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한다. 그래서 한부모가 되거나 혼외자가 있는 집안은 그 사실을 숨기고 가장 손쉬운 해결책으로 입양을 선택한다.

내가 태어날 무렵 아버지는 한물간 깡패로서 치열한 경쟁과 나이, 산업화에 밀려 모든 걸 잃고 인천에서 허드렛일을 하셨다. 한때 비서였던 어머니도 구직에 애를 먹었고 집에 거의 없었다. 나는 언제나 혼자였다.

한국과의 추억을 떠올리면 단순한 추억 그 이상이다. 마치 폴라로이드 사진 같다. 내 모든 오감이 추억의 사진에 담겨있다. 눈을 감으면 그때의 모습, 냄새, 촉감, 소리, 맛이 또렷이 기억난다. 고아원에 있을 때도 모든 기억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다.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아무도 신뢰하지 못한 나에게 과거의 기억은 나를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는 도구였다. 한편 그 기억들은 나 자신과 한국 부모님, 버림받은 것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겼다.

돌이켜 보면 나는 배불리 먹은 기억이 없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끊임없이 싸우셨다. 언제나 공기 중에 소주 냄새가 났다. 녹색 유리병이 산산조각 나고 깨진 파편이 바닥에서 반짝였다. 찰싹하고 몸이 부딪치는 소리, 심장을 후벼 파는 거친 말이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말에 담긴 증오의 공기가 스프레이병에서 분사된 것처럼 공

기를 채웠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울었던 기억이 있다. 내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울렀다. 나는 두 사람이 싸움을 멈추도록 있는 힘껏 울었다. 싸우는 부모님을 말리다가 맞아서 나가 떨어지기도 했다. 차디찬 바닥에서 축축한 소주 냄새가 났다. 바닥에 쓰러진 채 울면서 벽을 보면 서로에게 주먹질하는 그림자가 보였다. 차갑고 끈적거리는 얼굴 위로 눈물이 푹푹 떨어졌다. 자욱한 담배연기로 숨쉬기가 어려웠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평생 최악의 날이 찾아왔다. 엄마, 아빠는 만취한 상태로 싸우면서 집에 돌아왔다. 술병이 깨지고 방바닥이 흔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맞을까봐 겁나서 몸을 웅크렸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다. 부모님은 서로 치고 받으며 격렬하게 싸웠다. 온갖 물건이 깨지고 부서졌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고통과 공포 속에 얼굴을 찡그리며 몸을 숙였다.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 날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게 내가 어머니를 본 마지막 날이었다. 어머니는 부산으로 가버렸고 나만 아버지 집에 남았다. 상심한 나는 문을 보며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울면서 기다렸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여행을 가자고 하셨다.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더듬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웠다. 외롭고 축축한 집보다는 낫겠지 싶어서 집을 나셨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는 어느 사무실에 도착했다. 기다란 흰색 책상과 큰 소파가 놓여있었다. 아버지와 낯선 아줌마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소파에 누워 있었다. 아버지는 부드럽게 말씀했다. “대일아, 누워서 눈 좀 붙여라. 좀 걸릴 거야.” 배고프고 지치고 지루한 세 살은 잠이 많다. 나는 깊이 잠 들었다.

어느 아주머니가 가만히 나를 깨웠다. “아버지는 너를 두고 가셨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잘 보살펴 줄 테니까. 앞으로는 여기가 네 집이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쪼릿하고 몸이 굳어버렸다. 포탄의 충격 같은 굉음과 반향으로 정신이 혼미했다. 두

려움이 심장을 관통했다. 가장 큰 공포는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었다. 거리를 좁혀오는 사자무리를 피해 전력으로 도망치다가 기진맥진한 영양처럼 무력감이 찾아왔다.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내 마지막 행복까지 갉아먹는 동안 그렇게 그냥 누워있었다.

식사는 하루에 한두 번 나왔다. 작은 그릇에 담긴 국과 밥이 전부였다. 종종 바닐라 웨하스나 크래커를 먹는 날도 있었다. 나는 낯선 환경 때문인지 고아원에서 매우 조용한 아이였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곳이 싫었다. 각지고 무미건조한 지루한 곳이었다. 아무도 웃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말이 많거나 시킨 일을 안 하면 손목이나 종아리를 맞았다. 귀를 꼬집고 잡아당기고 지혈대를 고정 하듯 비틀었다. 고아원의 일상이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길이 보이지 않았다. 사는 게 죽도록 싫었다.

매일 하는 일과 중에 더러운 변기 청소가 있었는데 할 때마다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일이었다. 화장실을 재빨리 효율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귀를 잡아당기고 소리를 질렀다. 3살이라 일반 변기를 쓸 수 없던 나는 화장실에 가기 힘든 병원 환자들이 사용하는 조그만 알루미늄 통을 변기대용으로 사용했다.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최악의 고아원 기억 중 하나다. 내 전용 변기는 모두가 생활하는 숙소 문가 오른쪽에 놓여 있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 있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소변을 해결해야 했다. 자주 눈물이 났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혼이 났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갑했다. 허기와 학대에 시달린 나는 당혹스럽고 수치스럽고 우울하고 증오심으로 가득했다.

평범한 어느 날 아침이었다. 이상한 아저씨와 여자아이가 왔다. 차분히 걷는 두 사람에게서 아우라가 느껴졌다. 따스한 주홍빛 광채가 뿜어 나오는 듯했다. 여유가 넘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내 쪽으로 걸어오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들을 감싼 따스한 빛에 홀린 기분이었다. 키가 큰 남자는 갈색 트렌치코트에 마술사 모자와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하얀 얼굴에 번쩍이는 하얀 이로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옆에 있는 딸은 나와 비슷해 보였다. 아이는 상냥하고 부드럽고 미소가 예뻐

다. 선생님은 나에게 저 사람들과 같이 가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어디가 되었든 무조건 따라갈 태세였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사람은 내 입양을 담당할 변호사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다음 기억은 난생 처음 탄 비행기이다. 정말 끔찍했다. 기압 때문에 귀가 무척 아팠다. 나는 소리지르며 울어 댔다. 종이엽까지 생겼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지나고 지진이라도 난 듯 덜컥거리더니 어느 새 비행기가 지상에 있었다. 기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땀 흘리는 소리와 함께 먹먹했던 귀가 나아졌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드디어 땅에 도착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뭔가 다르다는 걸 감지하자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공항은 낯선 광경과 소리로 가득했다. 미국에 온 것이다.

공항에서 걸어가는데 불안이 엄습했다. 사방을 둘러보니 하나같이 달랐다.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흰 피부, 갈색 피부, 검은 피부 등. 여기는 미국이었다. 충격 때문에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천천히 걸논질을 했다. 변호사 아저씨는 나를 잡고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웃고 있는 아줌마와 아저씨, 히죽히죽 웃고 있는 나랑 비슷해 보이는 사내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몇 마디 나는 뒤에 변호사는 나를 들어서 아버지 품에 안겼다. 순간 공포가 온 몸을 감싸고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발버둥치고 소리치며 목이 터져라 울었다. 이 생명체들은 대체 누구인지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나처럼 생긴 아이가 손에 사탕을 들고 달려왔다. 페즈 캔디였던 걸로 기억한다. 내가 사탕을 먹고 싶어할 거라 생각했는지 사탕을 주었다. 나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아이가 손에 쥐 준 걸 보았다. 그게 뭔지 알 턱이 없었다. 겁에 질린 나는 아이 손을 발로 찼다. 사탕이 바닥에 떨어지자 아이도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재, 돌려보내, 돌려보내란 말이야! 너 한국 가!”라고 소리쳤다. 나처럼 한국계 미국인 입양인인 우리 형이었다. 곧이어 변호사와 딸이 자리를 떠났다.

미국 아버지는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큼직한 팔로 안으셨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허약한 내 힘으로는 속수무책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운전석 옆자리에 태워서 어머니 무릎에 앉혔다. 시동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앞자리 사물함에서 갈색 가죽 커버

의 사진첩을 꺼내셨다. 나는 올면서도 사진첩에 시선을 고정했다. 어머니는 사진첩을 펼쳐서 사진을 보여주셨다. 첫번째 사진은 집이었다. 두번째 사진에는 미국 어머니가 형과 웃고 있었다. 세번째 사진에는 미국 아버지가 형과 웃고 있었다. 네번째 사진에는 세 식구가 식탁에서 웃고 있었다. 다음 사진에는 침대가 있었다. 그 뒤에 내가 어떻게 했을까? 앞으로 벌어질 일을 깨달은 나는 금세 울아떨어졌다.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가족이었다. 사진에서 사랑이 느껴졌다. 이제 나에게도 가정이 생겼다. 가족. 삶. 두 번째 기회. 그러나 새로운 가족은 새로운 책임을 의미한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

1990년대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서 한국인 입양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초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부딪친 문제는 언어였다. 미국에 도착해서 6개월 동안 영어 리 상태였다. 내가 처음으로 한 말이 “사랑해요 엄마”라서 어머니가 무척 기뻐하셨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진짜다.

새로운 삶과 함께 새로운 세계의 경험이 찾아왔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진짜 문제가 생겼다. 학교에 가는 버스에서 주로 백인 아이들이 괴롭혔다. 매일 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이 눈을 잡아당겨서 내 눈모양을 놀렸고 쓰레기를 던지고 침을 뱉었다. 처음에는 고아원 출신의 본능이 발동했다. 맞불 작전으로 나갔다. 나를 놀릴 때마다 죽도록 싸웠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나보다 덩치가 큰 아이와 싸워봐야 상대가 안 되고 눈물만 났다. 한국 아버지와 싸우는 힘 없는 어린 꼬마처럼 느껴졌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미움과 공포만 쌓여갔다. 버스에서 내리면 크고 푸른 눈의 짧은 금발머리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기다리셨다. 어머니를 보면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가 사랑받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확신 속에 어머니 품으로 달려가 안겼다.

내 과거 때문인지 내가 당하는 일을 사실대로 말하기가 어려웠다. 집에 온 아들의 셔츠에 묻은 침얼룩과 얼굴의 눈물자국을 보고 어머니가 “에릭,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라고 물어보셨다. 대답할 수 없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몇 달 동안 버스에서 온갖 정신적 고문과 인종차별을 당한 끝에 나는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한국에서의 일들을 생각하니 버스에서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느끼는 반감이 이해되었다. 아이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미워한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학대하는 이유를 몰라서 증오심만 생겼던 기억이 떠올랐다.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를 촉발하는 촉매제가 바로 증오심이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어서 그런 게 아닐까?” 다행히도 학급환경은 괜찮았다. 다양한 아이들이 수업을 들었다. 스페인계,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금씩 다른 백인들이 수업에 참여했다. 우리는 함께 놀고 공부했다. 이런 생각을 한 끝에 나를 괴롭힌 아이들의 분노에 친절로 맞서기로 했다. 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떠올렸다. 나는 친절을 무기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 아이들과 피부색이 같은 아이들 중에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용기를 냈다.

나는 당당히 고개 들고 버스를 타서 나를 괴롭히던 아이들 옆에 앉았다.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고는 그들을 무시했다. 아이들은 나를 괴롭히고 화를 부추기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분노로 응수하지 않았다.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사흘쯤 그렇게 인종차별에 맞서싸웠더니 괴롭힘이 끝났다.

사춘기 아들에게 미국 아버지는 중서부의 교훈 2가지를 알려주셨다.

“아들아, 좋은 일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아들아, 인생은 불공평한 거니까 이겨내라.”

두 교훈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국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경험을 통해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걸 이미 경험했다. 원하는 걸 얻으려면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도 알았다. 버림받고 입양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쉬운 해결책을 택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세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사랑 넘치는 가정에 입양되었다. 우리 가족은 내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가족, 사람, 인간의 개념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가치관과 도덕성을 가르쳐주었다. 그 시절 나는 모두의 부정적인 생각, 편견, 증오, 무지를 내 기쁨의 연료로 사용했다. 고아원에서 증오가 무엇인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증오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 미국에서 미국 가족과 살게 된 나는 증오심을 존중했다. 참된 기쁨을 깨닫기 위해 증오심을 포용했다.

그렇게 성장하여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한국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어느 정도였나 하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치노(Chino, 중국인)라는 별명을 그냥 받아들였다. 15살 때 우리 형 아담을 따라 쿠바에 갔을 때 처음 치노라는 별명이 생겼다. 형이 속한 팀이 쿠바에서 초청경기를 하게 되었다. 미국인은 공산국 쿠바에 가는 것이 금지되었던 시절이다. 우리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가게 되었다. 미국 정부의 힘과 피델 카스트로 덕분에 우리는 하바나로 향했다. 현지인들은 우리 형제를 ‘치노’라고 불렀다. ‘아시아인’으로 통하는 단어였다.

팀과 함께 미국 인디펜던스에 돌아왔다. 백인 친구들이 계속 ‘치노’라고 부르는 것이 썩 맘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두었다. 친구들은 “브로, 스페인어로 아시아인을 말하는 단어잖아”라고 했다. 나도 수긍하며 그냥 흘러가게 놔뒀다. 내 안에 더 이상 한국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솔직히 내 행동은 한국의 뿌리를 무시했다. 고등학교에서 반장을 하던 2년 동안 친구들은 에릭 맥대니얼이라는 미국 이름이나 이대일이라는 한국 이름보다 ‘치노’라고 더 많이 불렀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존중하거나 고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다. 실수였다. 나는 어떻게 내 정체성을 찾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까?

내 모든 관심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야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고아원 아이였던 이대일처럼 가난하게 생을 마치지 않으려면 성적도 중요했다. 나는 야구선수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었다. 좌완과 우완이 가능한 양원투수로서 유일한 한국계 미국인 유망주였다. 야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다. 나 스스로를 아시아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잘 몰랐고 상관없었다.

그러다가 예상하지 못한 커브볼이 날아왔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신 것이다. 존경하는 분이 아프다는 사실에 나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수많은 전액장학금 기회를 미루고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 캔사스시티로 돌아왔다. 우울증에 압도된 나는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야구를 그만두었다. 평생 처음으로 고아원 시절의 아이처럼 길을 잃고 상처받은 느낌이 들었다.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한국인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나에게 한국 음식과 문

회를 알려주었다. 함께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봤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보고 극중 배우처럼 머리를 길렀다. 조금씩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다. 미국 부모님께 입양 서류를 보여 달라고 말씀드렸다. 서류를 통해 이복 형제자매가 있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형제들이었다. 플라로이드 사진 같은 순간들이 종종 떠올랐다. 나는 돌아가야 했다. 더 알고 싶었다.

지금부터 13년 전인 2008년, 나는 차를 팔고 재무 업무를 그만두고 새로운 목표를 위해 짐을 쌌다. 한국 아버지와 어머니, 이복 형제자매를 찾는 것이다.

한국에 온 나는 입양기관을 통해 친가족 찾기를 신청했다. 친부모를 찾을 가능성이 10퍼센트 미만이라고 들었지만 편지와 사진을 기관에 보냈다. 기관에서는 우리 부모님에게 전보를 보냈다. 2009년에도 전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운이 좋게도 두 분 모두 찾았다. 아버지는 온갖 감정이 들었던 모양이다. 나는 잘 지낸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우리의 관계를 재건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다. 나와 아버지 모두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 부끄러워하실 필요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충분히 이해하며 백 퍼센트 용서했다고 말했다.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말했다. 너무 힘든 시기라서 아버지 혼자 나를 부양하기는 역부족이었고 작은 집에서 죽는 것 외에 유일한 해결책이 입양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내가 삶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었듯이 우리 한국 가족과 나도 관계를 되살릴 두 번째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었다.

어머니와도 동일한 방식으로 소통했다. 어머니는 당황해서 그런지 훨씬 감정적으로 반응하셨다. 나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과거에서 교훈을 배우면 된다고 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알고 보니 내가 태어난 달은 4월이 아니라 2월이었다. LA에 고모와 사촌이 살고 있다고 했다. 내가 미국에 사는 동안 그들도 미국에 있었던 것이다. 입양기관을 통해 이복 형제자매가 프랑스로 입양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내 가족과 뿌리, 나 자신에 대해 알게 된 매우 소중한 기회를 얻었지만 과거의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다.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아버지가 휘두른 칼 때문에 집을 떠난 것이었다. 어머니는 현재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이었다. 폭력배 출신인 아버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괴롭히고 속여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될수록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형제자매를 찾고 싶었다. 반드시 알아야만 했다. 더욱 성장하고 싶었다. 나는 한국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다. 한국 아버지를 보면 증오심으로 불탔던 내가 보였다. 내 형제자매에게 그들과 피를 나눈 가족 중 누군가가 그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러자면 그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였다. 매년 추석과 명절에 아버지를 찾아갔다. 내 이복형제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어서 꼭 찾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문제만 꺼내면 무조건 모른다고 하셨다. 계속 거짓말하고 뭔가를 숨기셨다. 아무리 노력해도 꿈쩍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저 기다리면서 한국에서의 삶을 이어나갔다.

한국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새로운 문이 열렸다. 가족을 찾았고 내가 한국에 대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즐거운지를 알게 되었다. 12년 동안 다양한 일을 하고 많은 사업을 시도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많은 걸 경험했다. 심지어 한국 음식점까지 개업했다.

나는 행사기획자가 되었다. 내 형제들이 나를 찾기 쉽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넓혔다. 내 평생의 사랑이자 열정인 야구가 삶에 다시 찾아왔다. 한국의 독립야구단 '저니맨'에서 선수로 뛰면서 코치까지 맡는 행운을 얻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잡지 '그루브코리아' 2018년 4월호에 내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작년 추석에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분과 함께 인천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거실에서 TV를 보며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부인에게 TV장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오라고 손짓하셨다. 내 형제자매의 생일이 적힌 사진이었다. 12년간 기다리고 희유한 끝에 마침내 필요한 정보를 주셨다. 아버지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에

서 세세한 부분까지 통역해준 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드디어 꼭 필요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동안 나는 전 세계에서 온 입양인들을 많이 만났다. 각종 온라인 입양인 그룹을 찾아서 입양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모든 SNS그룹을 취합해서 사진과 정보를 올렸다. SNS에 내 이복형제 정보를 올리고 한달 뒤에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내 누나가 입양인들 이야기가 궁금하여 페이스북에서 입양인을 검색해보았다. 우연히 내가 올린 사진과 생일이 담긴 글을 보게 되었고 충격을 받았다. 12월 중순에 우리는 처음 영상통화를 했다. 누나는 한국어나 영어를 못하고 프랑스어만 했다. 누나의 아들인 내 조카가 영어를 잘 해서 중간에서 통역해 주었다.

내가 누나와 형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설명하고 누나에게 사랑한다고 두 번 다시 누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조카를 통해 전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누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인내와 끈기로 버틴 끝에 마침내 형제들에게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 내가 그들을 찾고 있었다는 것도 알렸다. 우리는 형제로 다시 연결되었다.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의 가족이 누구인지도 알려줄 기회를 얻었다. 이제는 내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전체 프로세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생모를 찾도록 도와주고 어머니와 첫 영상통화를 할 때 통역해 주었다.

이 글은 한 입양인의 경험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했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프랑스에 가서 우리 형과 누나를 만나고 난생처음 그들을 꼭 껴안아주어야 한다.

그 동안 종종 내 앞에 두가지 세계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를 버렸던 한국과 나에게 차별의 시련을 주었던 미국이다. 하지만 두 세계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최고의 사람이 되겠다는 강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나는 입양인이자 디아스포라로서 두 문화에 속했다는 점이 자랑스럽고 미국 부모님과 한국 부모님에게 감사드린다. 나는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든, 가족의 상황이나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로 길을 잃

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이고 외롭더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모든 문제와 시련, 어두운 현실과 증오를 넘어 훨씬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운이 좋았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기회에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어 보기 바란다.

A Journey of A German Korean Adoptee

Marcel Kyu Schuppert [독일]

Hello there. My name is Marcel Kyu Schuppert, I am a graphic designer, tourism manager and musician. I was born in October 1984, in the “Colorful City” of Daegu and adopted few months after. Passing through different constitutions I made my way, first to Seoul and then to the airport, from where I flew out to Stuttgart, the state capital of Baden-Württemberg, lying in the southwest of Germany. The name I was given in Korea is Oh, Yung Kyu.

I was a baby when I left Korea and very sick. So, the first thing that happened after my arrival in Germany, was that my adoptive parents were taking me to hospital. Where they had to operate my lung. A scar from that operation is still visible today. Surely the first time in Germany wasn’t great. My mom told me that I was very unsettled and crying a lot.

Nevertheless, I seemed to be happy for being in good hands. And this is where my story began.

This story is about me growing up as an adopted child from Korea and how I experienced Korea, including my birth place Daegu, for the first time in autumn 2016.

1. Growing Up

We had a dog called Efi a fluffy and chilled out one that loved to hang out on the floor. My older sisters are called Myriam and Michaela. Michaela is also adopted from Turkey and she was already there when I came. My brother's name is Martin, someone that I always looked up to.

So, we are the four M's. My parents are Gisela and Rainer Schuppert. Very caring people and I never had any doubts about us being a good and real family. I always felt sheltered and welcomed when I was a child.

If there were any other children with a Korean background when I grew up? My younger self would have said no, definitely not. I am the only Asian looking kid in the whole city. Today, I have to admit that there were some. But they were all spread around Stuttgart. Today things have changed a lot. There are loads of Korean people that live here for studying or other causes. Bringing the Korean culture and cuisine to town. People started to love K-POP and K-POP parties, for example the one at the Kala club. Korea is hot. There are even regular meetups for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e Korean culture, where I also take part.

Coming back to my childhood, I must say that I never thought about the topic of adoption or my birth country Korea a lot as I felt home and happy where I was. When I then came to school of course kids asked me frequently where I was from or where my parents were coming from. Not a big deal but of course it annoyed me at some points as it was so repetitive. I always answered in the same way when questions came along that I couldn't really answer to myself.

Did my look have a negative impact on my life or how others treated me?

In my opinion the majority of Germans do like East Asians. They are renowned for being respectful and smart. In my case, people were mostly open and friendly and seemed to have sympathy for me. Maybe because they found me interesting or exotic in a way. But of course, there is also the other side. Racism is a problem

worldwide and there were few moments when I had to deal with it. Not in a very bad way and it might just happened two or three times and to be honest it didn't bother me much. This can happen everywhere in the world and it is a problem of those doing it.

In school I made new friends easily even if I was rather a shy kid. I can play football very well and in Germany this is a great door opener. But I recognized early that something was a bit different about me.

My youth was surely exciting. I was a chaotic and cheeky teenager and a bit of a troublemaker. Not in a horrible way, but I made fun about loads of things. Which especially wasn't the best idea when the person you're mocking is your class teacher. My mom is an English teacher and as you can expect, this wasn't her favorite time with me, being at the same school. So, after a while I went to a private boarding school close to the Swiss border. The campus lied on a hill overlooking Lake Constance, which was a fantastic view. Many memories come to mind thinking about that time. I'd say my youth was the time when I felt the most carefree. Back then I was a young and creative one loving to draw, doing music and playing football. I loved everything that gave me the possibility to express myself.

2. A Journey Starts

As a child and youngster, I always felt like a German and acted like a German. Others often told me how German I was, especially when I lived in England and surely in a good way. But my look was Korean which I like as it's kind of special.

As mentioned before, I always felt that something was different about me. What was it though? The fact that I was adopted? Or because I look different? Let me start from the beginning.

I never got into the subject of my adoption much until 2016, when my dad

came up with the idea to visit Korea together and he was planning to invite me for the journey.

I said yes. I was curious. And so, an agency that is specialized in round trips to Korea, started to plan our visit. This should happen for the first time after 32 years. And which has to be my most exciting, emotional and deepest journey I ever undertook. I think it lasted a couple of months until everything was set up and we were ready to go.

At that time, I was living in London and my dad and his wife Ulla, who also joined us, were travelling from Stuttgart. I stayed in Tokyo for a couple of days, before we all met in our hotel in Seoul. Landing in Incheon and driving into the city of Seoul was a blast. I was continuously thinking “so this is where I am coming from, wow”. First, I saw fields, then some houses, then more houses and then I was in the heart Myeong-dong, with all the skyscrapers – breathtaking. So, what to do next? I don’t speak Korean well but I have a good coordination sense. I made my way to Aventree Hotel a few blocks away, where I had a warm welcome by my dad and Ulla. It was just great to see them in this completely new environment. We all had made our way here and were ready to explore this fascinating country. But before that it was time to sleep.

The next day we started our journey on the opposite side of the world. Beginning with a snack in form of a fish with a sweet bean filling, which was tasty and reminded me of German “Waffeln”. We then walked northwards and ended up at one of the touristic highlights in Seoul – the Gyeongbokgung palace. Where we could take a look at all these women wearing traditional dresses, so called Hanboks. They were very pretty.

Our next stop was Myeong-dong and the river that flows through the district and then Namsan Park with the N Seoul Tower. We went there by cable car and took a view about this gigantic metropolis and of course a couple of photos.

The Lotte World tower on the opposite side of the river reminded me of the Shard in London. In the evening we met with Renae, a Korean friend of mine who I worked with in London. She brought us to a top-class dining restaurant in Gangnam and we had the most incredible and versatile meal that I ever had in my life. It came on a metal trolley and it consisted of at least 40-50 small plates with so much food on it. From Kimchi, pancakes, all kinds of sea food to stuff that I can't remember. It was not only delicious dinner, it was more of a very own experience to us, presented by a local.

Stuffed and happy we made our way back to the Aventree hotel. Enough for a day.

The following day we visited Holt, the organization that was dealing with my adoption, back in 1984. There was a young lady that we met. Her name was Jiyoung. She told us a about everything that was available about my adoption case. As after a certain time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are thrown away.

We looked at my records - which wasn't much at all – and she showed us around the rooms where some of the babies were accommodated back in the days. At the end she gave me some presents, like a Korean flag, a Korea map and a necklace. It was a nice gesture of her.

We walked around the Holt building and I just couldn't realize that I was there - 36 years ago. This seemed just surreal to me and I couldn't think quite straight in that moment. But I was feeling fine. After this gathering we took a cab to continue our touristic tour through Seoul. We were stunned, about the mix of modern architecture, traditional temples and houses and all the views that Seoul has to offer. We visited the Bukchon Hanok Village and Insadong. Unfortunately, we missed out some other popular places like Hongdae or Itaewon which I just heard about when we were already back. Maybe next time.

So much was going on here in this vibrant city. But everything seemed to work

well and ran smoothly. Of course, we had more Korean food, with fish, salad and chili. It was fun to see how the owner of one restaurant scissored my meal before I could eat it. I definitely lost weight during this trip.

On day four we continued our journey towards the countryside. We took the KTX (Korean high-speed train) from Seoul Station travelling in direction of the harbor city of Busan, which was planned to be our last stop. On the way, the agency had organized visits to other places, including my birth town - Daegu.

The first stop was Daejeon, from where we took a bus, driving through the countryside for a couple of hours, ending up at the Songnisan National Park. A place where it first got emotional for me.

Diving deeper into the Korean culture is when I recognized that these were my roots. But I didn't know anything about them yet and this somehow brought tears to my eyes. It was just a strange feeling that I never had any connection with Korea. But I could feel it in that moment.

I talked a lot with my dad and Ulla about how I was feeling in that situation, not knowing who my birth parents were and emotions just took over. But after a while I came down and we were then able to enjoy the rest of the day and the wonderful nature in this park with its gigantic golden statue and the nice old temples. There was a stream flowing, with the clearest water and loads of hikers and families.

We were walking the whole day and obviously quite tired at the end. We just went to sleep as on the next day we should finally visit Daegu.

3. Visiting the Past

Sleeping over nearby the Songnisan National Park we took an early train in the morning. At the train station I could already see a sign saying Daegu. I suddenly got very excited and remember to being tense at the same time. So far, I knew

Daegu just from Naver and Youtube. So when we drove into the center of the city, we could see all of these apartment towers that are typical for Daegu and many parts of Korea. My dad and Ulla stayed there in a hotel and I was accommodated with a Korean family few blocks away. Keen about what would happen the following days.

I never ever had rice and fish for breakfast but I was enjoying it. I liked the contrast of things being very similar to Germany but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Like sitting together in the morning, just with a different kind of dish on the plate.

After a nice chat with the guest family, I met up with my dad and Ulla to walk to our first stop – the White Lily Baby Home in the heart of Daegu.

I had arranged an appointment with Sister Theresa, who's still working there, months before. This place used to be an orphanage and it is the place where I stayed the first couple of months of my life. After I was found on a playground in Dongchon (district of Daegu) and brought to a close by police station. We had an interesting and joyful talk together and Sister Theresa and the Sisters that were on site, sang for us, before Sister Theresa showed us around the area. It was unbelievable to realize that this was the place where I had lived for two months when I was just little. Today there is a school for young ones and the kids were playing in their rooms at the time. When they saw us, the only thing they were really excited about, were my dad and Ulla. It was probably new to them to meet strangers from Europe. They just loved my dad.

We went on to a small church passing a big chimney. Sister Theresa was so happy about us being there that she even showed us more of Daegu, including another church and some historical places. A truly amazing welcome to the city.

The following day we met with her at Dongchon Station, this is closest station to the playground where I was found as a baby. We walked there together and for

the first time and with my own eyes, I saw the place where I was found.

It was a checked ground of green and red color and in front of a SOS Children's Village. Sister Theresa had arranged a meetup with a social worker from the Village, and to all our surprise: She had invited a police officer who was working at the close by police station, when I was found. His name is Mr. Jo, who today runs a blueberry farm.

Meeting up with these people was probably the most surreal and emotional encounter that I had in my whole life. It was beautiful and confusing at the same time. And it kind of felt like travelling back in time. Both told me that unfortunately no documentary about my case still existed. As everything is thrown away after a certain time. There was nothing there. No hint that could give us an idea about my birth mother. To be honest I was quite speechless and didn't talk at all. I just looked around and tried to understand what just was going on.

We all walked to the police station, where we had a chat with the current police director, who repeated to us that there were no existing documents or information about my case. So then we were taking a couple of pictures with everyone, said goodbye and I hugged Mr. Jo. He made all the way to meet me. A gathering that I will never forget.

We then walked along the river in Dongchon, watching the swan looking paddleboats on the water.

Later the day we went to the temple of Dongwhasa with Sister Theresa and the social worker from the SOS Children's Village. It was definitely a great experience to be so close to someone that is linked to my past. We talked about anything and everything, while laughing a lot. The day ended at 83 Tower where we enjoyed the view over Daegu and the sunset. Sister Theresa had shown us almost everything within only two days. Happy and satisfied we went to bed.

On the fourth day in Daegu, I still couldn't realize that I was really there. This

last day, I was travelling by myself, riding the very cool Sky Train, having a cappuccino at “Angel in us Coffee” and visiting the Dalseong Park, a zoo with loads of animals. I also went to the Daegu Stadium where the Olympics took place in 1988, so four years after when I was born. Today it’s the home of the football club Daegu FC. Maybe I would have played there today if I had grown up in Daegu. At least that was what I was thinking that moment.

In the evening, I accidentally ran into my dad and Ulla at the local Medicine Market, when I was strolling around town. We went into a barber shop, where we spoke to this nice older lady. She seemed so glad to meet us and wanted to show us around. So we went outside to her car and drove for roughly fifteen or twenty minutes and ended up at the Seomun market. A buzzing market in the city center where you can have the best Street Food in Daegu, traditional Korean clothes and much more. We tried so much different things and it was just a lively place with loads of different stalls and the smell of freshly cooked food was delicious.

I absorbed everything that I saw, tried to understand what Daegu is about. Questions came to my head, about my biological mother and what happened back then. Surely, I was nervous as I never stood face to face with my past before. But I liked what I saw. The people, all those things that I had never seen before and then familiar things, like H&M or McDonald’s. It was just a crazy mix of excitement, different feelings and culture shock. But it felt valuable to me. It opened up a totally new world and today I know that I want to know more about it.

Time flew by and we had to leave the next morning. It was time to say goodbye. I made my way from my guest family’s house to catch my train at Dongdaegu Station. It felt rather weird. Do I really have to leave already? There is a lot more to explore, is what I was thinking. I was starrng around for quite a while. But then I had to go, knowing that I will return to this beautiful and very special city.

Goodbye for now Daegu and thanks for having me.

4. A Journey Ends

Without a doubt Daegu was the most important and emotional stopover during the whole journey. From now on we could take it easy and enjoy the country with its cultural highlights and attractions. No better way to do this as in Gyeongju, the cultural hub of Korea. Here we gazed at all the historical sights and buildings, like the Bulguksa Temple and visited a fish market in town. It gave us a glimpse of Korea's past. A great place to come down after such an emotional rollercoaster. We stayed there for two nights before we moved on.

The last stop of our trip before heading back to Seoul and taking the flight to Germany, was Busan.

It's the second largest city of Korea and to me it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we had seen before. It's definitely huge and dynamic and more on the industrial side. But versatile with a harbor area, Haeundae Beach and the popular Jagalchi Fish Market. I haven't tried the living Octopus though but instead some other nice-tasting dishes. And I almost lost my wallet in a cab. Fortunately, I was running quick enough to catch it before it was gone.

I liked Busan. Most of the cities that we had seen before were lying in between mountains. Busan has access to the sea which for me is always a good thing. Busan reminded me a bit of Hamburg which is a harbor town in the upper north of Germany.

There were lots of things to see there. As I do love looks from a tower, of course we also entered the Busan Tower. From there we saw most parts of the city including the Gwangandaegyo also named Diamond Bridge. Then we split up to see what was going on in the city for ourselves.

In the evening I remember that my dad and I sat together in a silent moment.

Without Ulla, as she was out for a walk. We started talking about what we had experienced so far. He might have recognized that things were touching me and the whole situation wasn't as easy for me. He knows how it feels to lose someone in early years.

I never saw my dad crying or showing emotions lots. But when he spoke to me that night he did. He hugged me and said sorry for what he might have done wrong.

I think he didn't do anything wrong. He and my family were the best things that could happen to me. I had a happy and carefree childhood and always more than I needed. It was maybe because he understood what it can mean to be an adoptee. To have to start somewhere new, in an entirely different kind of world, with different people, having lost so much. Even if I was absolutely fine in that situation, I appreciated his compassion. Being adopted was always okay for me as I never had missed anything.

When we drove back to Seoul we didn't talk much. We were reflecting about the last 14 days and I believe all of us were feeling good. Good about what we were able to see, all those emotional encounters and all the experiences that we shared.

We had one last day in Seoul. We didn't do much apart from hanging out and preparing for our departure. The other day a bus brought us to Incheon airport. We hugged each other and said goodbye. They flew to Stuttgart and I towards London. And this is when this journey ended.

The flight from Seoul to London took me about 12 hours with a stopover in cold Moscow. It was an okay flight and I was happy being back in the UK and my girlfriend Jo. Great feeling. She's originally from Wales and we met for language exchange before becoming a couple. I was very happy to see her and obviously, I told her everything about this journey. From the flight to Beijing, to Tokyo and

then to Seoul. The whole ride from Seoul to Busan and back. The whole story.

Being back in London, Korea was still in my head. There was so much I had experienced there and I still had to let it sink. But I was glad about it. It was an experience of a life time and the first thing I did when I came back was hanging up the Korean map flag in our living room. There were some Korean restaurants opening up in London as well. One just around the corner from where we lived, next to Finsbury Park station, where my girlfriend and I had our first Bibimbap in Britain.

Coming back to Germany from London in 2019, I started to take classes in Hangeul the Korean alphabet. At the same time, I also started a language exchange to learn some basic words that I could use on my next trip. I met other Koreans on the way and also took some cooking classes online.

I found out about K.A.D, an organization of Korean adoptees living in Germany. They organize events and bring together everyone. This is when I joined my first Korean gathering in 2019, in Bonn. It was spectacular. Loads of Korean adoptees were attending, coming from all parts of Germany. Most of them are in their 40s and many of them were or are searching for their birth families. It was interesting to get to know their stories and views on their adoptions.

It was an event full of fun and excitement. With K-POP dancers from Germany, a Kickboxing class, a huge Korean buffet and of course Karaoke in the evening. Even Dr. Jong Bum Goo, the South Korean ambassador from Berlin, attended and sang the first song in front of us.

I came in touch with many other adoptees sharing a comparable story to mine. And even if we all are different as persons, we have something big in common – Korea. I was glad to see, that everyone had a good connection. A great community that sticks together. We cooked Kimbap and enjoyed the pleasant atmosphere together. No deep talks at the time.

Time passed by, but at one point I recognized that the journey might have changed me. Not sure what exactly it was but there were questions coming up to my mind. Questions about myself, Korea and what influences Korea has on me as a person. I think I just got curious and wanted to know more about it to understand what kind of connection there is.

This is when I started to ask myself: Am I German? Am I Korean? Where do I belong? Questions that I had to answer to myself.

5. Korean or German

When we visited Korea in autumn 2016 and we met all those wonderful exceptional people. Sister Theresa, my friend Renae and all the others. The whole vibe and the people were so unlike from what I knew from Europe. And I started asking myself about what my identity was. Something that you ask yourself from time to time when you are adopted and especially after such an intensive journey. Am I German, am I Korean or something in between? And how much of it?

I enjoyed the atmosphere in Seoul and overall, in Korea, it was harmonic. And in my opinion people seemed to be more careful and respectful with each other. This is still something that I am very impressed by. Some folks seemed reserved and shy as well. I was thinking that all these characteristics are also part of my personality. Is this my Korean side? I really can imagine it.

Frankly spoken, in Germany, Korea is still more of an unknown country. Of course, it got much more popular during recent years with Korean pop culture and artists like BTS, Psy and so on. As a country it is more of an exotic destination - by the way Psy played loads of shows in all over Europe and people went crazy doing flash mobs to Gangnam Style – he definitely put Korea on the map.

For me, Koreans are truly helpful, caring and open-hearted people. Not saying that Germans are not, but maybe in a different way. Germans can be very straight

forward and direct which might appear unfriendly. Here's surely more of a dog-eat-dog society. Sorry my fellow Germans.

On the other hand, I see loads of similarities. What do I mean by similarities: I'd say it's about being organized and structured. Everything has to work efficiently and with precision. Both countries are huge economic powerhouses with renowned brands like Samsung, Hyundai, LG, Mercedes Benz, Porsche, Adidas, to name just a few. Both took a great development after the wars and grew rapidly - maybe here, Korea is ahead by a nose. And even the weather and climate zone are comparable.

Germans do also love to find themselves problems to have something to solve. But we are definitely not as humorless or boring as our reputation says.

In some situations, especially in the streets of Seoul, people just came up to us to say Hi. They wanted to get in touch with us as it was perhaps a rarity to see white folks from Europe. In my case most people tried to speak Korean with me and were surprised that I gave my answers in English. It was funny.

Thinking back, I had the impression all the things and culture we had seen and experienced, somehow were a part of me. Indeed, Korea must be a part of me. It's my home country. Even after all that time, it is part of my DNA. And even if I do not specifically know what precisely it is.

I got curios. There is something about Korea that made me want to explore more. To get to know more about this fascinating part of the world. And of course, to meet new people, dive deeper into the culture, try more street food and to mingle with the crowd. And I'm excitedly looking forward to do so.

If I am Korean or German? I am a bit of both. And I believe that most adoptees feel similar. A bit of both worlds. The connection is there. Stronger or weaker. But it's there and always will be. I act and feel like a German, but I definitely have quite a few Korea features as well. That's what I'm pretty sure about.

But it doesn't matter too much. Important is that Korea is a part of me. A part that I really like and care about. If that's the love for sea food, my passion for Bulgogi, Korean Fried Chicken and Japchae or my obsession for Samsung devices. I brought all these things from Daegu to Germany and I will keep them here. And I'm proud, to act as a link between two worlds that are so similar but in such a different way.

I will return to figure out much more. But for now, I'm thankful and glad for what I was able to do.

I am German Korean Adoptee. And this was one chapter of my life.

6. Last Words

First and foremost, I like to say thank you to my family. My mom and dad, my siblings and the rest of my family. And to all those who supported me in good and in bad times. A special thanks goes to my dad and Ulla for inviting me for this journey and made all of this possible. And for being a great company.

And of course, thanks to all the people we were able to meet along the way:

Sister Theresa and the Sisters of St. Paul of Chartres who guided us through the streets of Daegu, the town center, Dongwhasa, Dongchon, the SOS Children's Village, the police station and showed us everything. Renae and Mr. Jo who made all the way from his blueberry farm to Daegu, to meet us. All the friendly people that we met at all the different locations. In Seoul, Songnisan National Park, Daegu, Gyeongju and Busan. We will keep you in our memories and I am sure that I will return to the White Lily Baby Home at one point in the future. Hopefully with lots more stories to tell about what's happening in Germany.

At the end I thank you, the reader, who I am sharing my story with. I'm very glad that you took your time to read it.

많은 감사합니다.

어느 한국계 독일 입양인의 여행

Marcel Kyu Schuppert [독일]

내 이름은 마르셀 규 슈퍼트이다. 나는 그래픽디자이너, 관광매니저, 뮤지션이다. 1984년 10월에 '컬러풀 도시' 대구에서 태어나서 몇 달 후 입양되었다. 여러 도시를 거쳐 서울 도착하여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주도 슈투트가르트에 도착했다. 한국 이름은 오영규이다.

한국을 떠날 때는 몸이 많이 아팠다.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양부모님은 나를 병원에 데려가셨다. 폐 수술을 받은 흉터가 아직 남아있다. 독일에서의 첫 출발은 좋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매우 불안정하고 많이 울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좋은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 행복하게 자랐다. 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 글은 한국 출신 입양인이 성장하는 과정과 2016년 가을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내가 태어난 대구를 방문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1. 성장의 시간

우리 집에는 바닥에 뒹굴며 놀기를 좋아하는 털복숭이 반려견 예피가 있었다. 누나는 2명으로 미리암과 미카엘라이다. 터키에서 입양된 미카엘라 누나는 나보다 먼저 왔다. 우리 형 마틴은 내가 항상 우러러본 존경의 대상이다.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이름의 4남매를 둔 우리 부모님은 기젤라 슈퍼트, 라이너 슈퍼트이다. 마음이 하늘 같이 넓은 분들이라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어린 시절, 주변에 한국 출신 아이가 있었다는 질문을 받는다면 내 어린 자아는 절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할 것이다. 나는 도시 전체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아이였다. 솔직히 말하면 나 말고도 있었지만 슈투트가르트 전역에 퍼져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유학 등 여러 목적으로 온 한국인이 많아져서 한국 문화와 음식이 전파되었다. 케이팝과 케이팝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를테면 칼라 클럽 같은 곳이 있다. 한국은 요즘 핫하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정기 모임이 있는데 나도 참여하고 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입양 문제나 내가 태어난 한국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다. 내가 있는 곳이 집이고 행복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부모님은 어디 분이냐고 물었다. 별일 아니지만 같은 질문을 계속 받으니까 슬슬 짜증이 났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나 똑같이 대답했다.

내 외모가 내 삶이나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까?

내 생각에 독일인 다수는 동아시아인을 좋아한다. 일단 예의바르고 똑똑한 것으로 유명하다. 내 경우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열린 마음으로 친근하게 대해주었는데 일부 동정의 시선도 있었던 것 같다. 그들 눈에는 내가 흥미로워 보이고 어딘지 이국적이었나 보다. 물론 정반대 경우도 있었다. 인종차별은 세계 공통의 문제다. 나도 몇 번 인종차별을 당했는데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다. 두 세번쯤 되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세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문제일 뿐이다.

수줍은 아이였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을 쉽게 사귀는 편이었다. 축구를 잘하는 것이 독일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어딘가 조금 다르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다.

학창시절은 흥미진진했다. 나는 제멋대로고 장난기 많은 골칫거리였다. 그렇다고 구제불능까지는 아니고 재미를 추구하는 편이었다. 문제는 하필이면 내가 놀린 대상이 담임선생님이라는 것이다. 어머니가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아들과 같은 학교에 있

기가 편하지 않으셨던 모양이다. 나는 스위스 국경 인근의 사립기숙학교로 보내졌다. 보덴호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교정이 위치한 덕분에 풍경이 끝내줬다.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많은 추억이 떠오른다. 아무 근심걱정 없는 시간이었다. 어리고 창의적인 소년은 그리기와 음악과 축구를 좋아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무엇이든 좋았다.

2. 여행의 시작

청소년기까지 나는 항상 독일인이라고 생각했고 독일인처럼 행동했다. 특히 영국에 살 때는 좋은 의미로 뻗속까지 독일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외모가 좋았다.

앞서도 말했지만 나는 항상 어딘지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다. 무엇이 다를까? 입양되었다는 사실? 남들과 다른 외모? 하나씩 정리해보자.

내 입양 문제에 처음 직면한 때는 2016년이였다. 아버지께서 한국에 함께 가면 어떻겠냐고 하시며 한국 여행에 초대하셨다.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궁금했다. 한국방문 전문기관을 통해 방문 일정을 계획했다.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내 평생 가장 흥미롭고 감동적이고 심오한 여행이 될 게 분명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서 갈 때까지 몇 달이 걸렸다.

당시 나는 런던에 살았고 아버지와 동거인 올라는 슈투트가르트에 있었다. 나는 도쿄에서 며칠 지내고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다. 인천에 도착해서 서울로 가는 길이 흥분되었다. ‘와, 내가 여기서 태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눈이 보였는데 점차 집이 늘어나더니 결국 서울의 중심 명동에 도착했다. 높은 빌딩들을 보니 숨이 멎는 듯했다. 이제 어떻게 하나? 한국어는 잘 못하지만 방향감각이 괜찮아서 아벤티리호텔까지 몇 블록을 걸어 잘 찾아갔다. 마침내 아버지와 올라와 반갑게 재회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두 사람을 보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환상적인 나라에 도착해서 살살이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단은 잠부터 보충했다.

다음 날 세계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여행을 시작했다. 단팥이 든 물고기 모양 간식을 먹었는데 맛도 좋고 독일식 외플이 떠올랐다. 북쪽으로 걸어서 서울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경복궁에 도착했다.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입은 여자들이 많았다. 한복이 예뻐다.

명동과 도심에 흐르는 실개천을 보고 N서울타워가 있는 남산으로 향했다. 케이블 카를 타고 올라가서 이 거대한 도시의 광경을 사진으로 남겼다. 한강 반대편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보니 런던의 더 샤프드가 떠올랐다. 저녁에는 런던에서 같이 일했던 한국인 친구 르네를 만났다. 르네의 안내로 강남에 있는 최고급 식당에서 내 평생 가장 놀랍고 다양한 음식을 먹었다. 서빙카트에 담긴 40~50개 작은 접시에 각종 음식이 담겨 있었다. 김치, 빈대떡, 온갖 해산물 말고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맛도 일품이었지만 현지인이 소개해준 특별한 경험이라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배불리 먹고 행복한 상태로 아벤트리호텔에 돌아왔다. 첫날 일정 끝.

다음 날 1984년에 내 입양을 처리한 홀트아동복지회를 방문했다. 우리가 만난 젊은 여성의 이름은 지영이었다. 내 입양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모든 서류와 정보를 건네받았다.

자료가 많지 않아서 별로 볼 게 없었다. 당시 아기들을 수용했던 방을 구경했다. 마지막으로 태극기와 한국지도,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다. 기분 좋은 호의였다.

홀트 건물 주변을 걷는데 36년 전 내가 여기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너무 비현실적인 일로 느껴져서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기분은 괜찮았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서울 관광을 계속했다. 현대 건축물과 전통 사찰, 한옥이 뒤섞인 서울의 풍경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북촌한옥마을과 인사동도 둘러보았다. 아쉽게도 홍대나 이태원 같은 인기 장소는 나중에 들어서 가보지 못했다. 다음에 가 볼 생각이다.

이 활기찬 도시는 많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 듯했다. 우리는 생선과 신선한 채소, 고추가 곁들여진 한국 음식을 먹었다. 먹

기 편하도록 눈앞에서 식당 주인이 가위로 음식을 잘라주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이번 여행에서 체중이 줄었다.

여행 4일째 우리는 지방으로 여행을 계속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항구도시 부산 방향으로 향했다. 부산에 가는 길에 내가 태어난 도시 대구를 포함하여 여러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을 계획했다.

첫 번째 기착지는 대전이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몇 시간 교외를 달려 속리산국립공원에 도착했다. 여기서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처 올랐다.

한국 문화에 점점 빠져드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내 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내 뿌리에 대해 아는 게 없었지만 갑자기 눈물이 났다. 그 동안 한국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기분이 묘했다. 그 순간 뉘가를 분명히 느꼈다.

내 친부모가 누구인지 아직 몰랐지만 순간적으로 감정에 압도되어 느꼈던 감정을 아버지와 올라에게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얼마 후에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즐겁게 남은 일정을 소화했다. 거대한 금불상과 아름다운 사찰을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는 등산객과 가족 방문객이 많았다.

하루 종일 걸었던 탓에 매우 피곤했다. 드디어 대구로 가는 내일의 여정을 위해 이쯤에서 하루를 정리했다.

3. 과거로의 여행

우리는 속리산 근처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 날 새벽 기차에 올랐다. 기차역에서 대구라고 적힌 표지판을 보았다. 갑자기 흥분되면서도 긴장되었다. 네이버와 유튜브로만 접한 대구였다. 도심으로 가는 차창 밖으로 대구만이 아니라 한국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와 올라는 호텔에 묵고 나는 몇 블록 떨어진 한국 민박에 묵기로 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마음이 설렘.

처음 아침식사로 먹은 밥과 생선도 맛있게 먹었다. 독일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대조적인 것들이 재미있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것은 같지만 접시에 담긴 음식은 전혀 달랐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와 올라를 만나 대구 중심에 위치한 백합 어린이집에 갔다.

나는 여전히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테레사 수녀님과의 만남을 몇 달 전에 예약했다. 원래 고아원이었던 이곳에서 나는 생후 처음 몇 달을 지냈다. 나는 대구 동촌의 놀이터에서 발견되어 인근 파출소로 전달되었다.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테레사 수녀님과 어린이집 수녀님들이 우리를 위해 노래까지 불러 주셨다. 테레사 수녀님의 안내로 공간을 둘러보았다. 내가 갓난아기일 때 여기서 두 달을 보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지금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어 아이들이 교실에서 놀고 있었다. 우리 일행을 본 아이들은 아버지와 올라에게 관심을 보였다. 유럽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신기했나 보다. 특히 우리 아버지를 좋아했다.

우리는 큰 굴뚝을 지나 작은 교회를 방문했다. 테레사 수녀님은 우리가 와서 좋은 신지 대구 이곳저곳을 보여주셨다. 또 다른 교회와 여러 유적지도 보여주셨다. 제대로 환영받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동촌역에서 수녀님과 만났다. 내가 발견된 놀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었다. 우리는 놀이터를 향해 걸었다. 평생 처음 내가 발견된 곳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바다의 녹색과 빨간색 격자무늬로 만들어진 놀이터로 SOS 어린이마을 건물 앞에 있었다. 테레사 수녀님은 어린이마을에 일하는 사회복지사와의 만남을 주선하셨다. 놀랍게도 내가 발견되었을 당시 인근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경찰관도 오셨다. 조 선생님이라는 전직 경찰관은 현재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다.

이분들과의 만남은 내 평생 가장 초현실적이고 감동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아름답지만 혼란스러웠다.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기분이었다. 안타깝게도 내 사건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았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한다고 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생모에 대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 말문이 막혀서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그저 주위를 보며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느라 바빴다.

우리는 파출소에 가서 현직 경찰관과도 대화했는데 역시나 내 사건과 관련된 문서

나 정보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다같이 사진 찍고 헤어졌다. 조 선생님과도 포옹했다. 나를 만나려고 먼 길을 하신 분이였다. 절대 잊지 못할 만남이었다.

우리는 오리배가 떠 있는 동촌 강변을 따라 걸었다.

테레사 수녀님, SOS 어린이마을 사회복지사와 함께 동화사를 구경했다. 내 과거와 연결된 누군가가 곁에 있다니 무척 놀라운 경험이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많이 웃었다. 83타워에서 해가 지는 대구의 경관을 즐겼다. 수녀님은 이틀 동안 거의 모든 걸 보여주셨다. 우리는 행복감과 만족감 속에 잠이 들었다.

대구에 온 지 나흘이 지났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마지막 날은 혼자서 여행하기로 했다. 엔제리너스에서 카푸치노를 마시고 멋진 스카이레일을 타고 달성공원 동물원에 갔다. 내가 태어나고 4년 뒤인 1988년에 올림픽이 열린 대구스타디움도 가보았다. 지금은 대구FC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가 대구에서 자랐다면 오늘날 이 경기장에서 뛰었을지도 모른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녁에 시내를 걸어 다니다가 약령시장에서 아버지와 올라와 우연히 마주쳤다. 이 발소에 간 우리는 나이 지긋한 부인과 대화하게 되었다. 부인은 우리를 만나서 기분이 좋았는지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분 차를 타고 15-20분쯤 달려 서문시장에 도착했다. 도심에 위치한 시끌벅적한 시장에는 대구 최고의 길거리 음식과 한국 전통의상 등 없는 게 없었다.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시도했다. 방금 만든 음식의 좋은 냄새가 진동하고 온갖 맛집이 즐비한 활기 넘치는 곳이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흡수하고 대구의 모든 걸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나를 낳은 어머니와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이 머리에 가득했다. 내 과거와 대면해본 적이 없어서 더욱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내가 본 모든 것이 좋았다. 사람들, 생전 처음 보는 것들, H&M이나 맥도널드처럼 익숙한 것도 좋았다. 모두가 하나 같이 소중한 사람이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고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다음날 아침에 떠나야 했다. 모두와 작별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숙소를 나와 동대구역으로 갔다. 기분이 이상했다. 이렇게 빨리 떠나야 하는가? 더 알고 싶은 게 많았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가야 했다. 이 아름

답고 특별한 도시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나를 환영해준 대구와 작별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4. 여행의 끝

이번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고 감동적인 도시는 분명 대구였다. 이제부터는 편하게 관광지를 보며 문화를 즐길 시간이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한국 문화의 중심지 경주였다. 우리는 불국사 등 유적지에 가고 시내에 있는 어시장도 방문했다. 한국의 과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나에게 최적의 도시였다. 우리는 경주에서 이를 있다가 다음 도시로 향했다.

서울에 가서 독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여행지는 부산이었다.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은 지금까지 본 도시들과 완전히 달랐다. 거대하고 역동적이고 산업적인 느낌이 많았다. 항만도 있지만 해운대나 자갈치시장도 있었다. 산문어를 먹을 기회는 없었지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 택시에서 하마터면 지갑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재빨리 달려서 떠나는 택시를 붙잡았다.

부산이 마음에 들었다. 그동안 가본 도시들은 산 사이에 있었는데 부산은 바다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 좋았다. 독일 북부에 있는 항구도시 함부르크가 떠올랐다.

가볼 곳이 굉장히 많았다. 나는 전망대에서 보는 경관을 좋아해서 부산타워에 갔다. 다이아몬드브릿지로 불리는 광안대교를 비롯해서 부산의 명소가 한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흩어져서 각자 도시를 탐험해 보기로 했다.

그날 저녁 나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올라서 잠시 산책하러 나가고 없었다. 우리는 그때까지 경험한 일에 대해 대화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 동안의 모든 자극과 상황이 나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셨다. 어릴 때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상실감에 대해 알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가 올면서 그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그 날 아버지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나를 껴안고 자신이 잘못된 일에 대해 사과하셨다.

내 생각에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아버지와 우리 가족은 내 인생 최고의 선

물이었다. 걱정 없이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고 늘 필요한 것보다 넘치게 받았다. 아버지는 입양인의 심경을 잘 이해하셨던 것 같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많은 걸 버려야 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괜찮았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었다. 분에 넘치는 보살핌을 받은 사람으로서 입양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에서 우리는 별로 말이 없었다. 지난 14일의 여행을 되돌아보면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가 본 모든 풍경, 그 모든 감동의 시간, 함께 나눈 경험까지 전부 좋았다.

우리는 서울에서 마지막 하루를 보냈다. 떠날 준비를 하며 별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가서 포옹하고 작별 인사를 나눴다. 두 분은 슈투트가르트로 나는 런던으로 향했다. 이렇게 이번 여행은 끝이 났다.

서울을 출발한 항공기는 추운 모스크바에 경유한 후 런던까지 총 12시간을 비행했다. 기분 좋은 여행이었다. 여자친구 조가 있는 영국에 돌아와서 좋았다. 흥분되었다. 웨일즈 출신인 조와는 언어교환으로 만났다. 여자친구와 기쁘게 재회하고는 한국 여행에 대해 빠짐없이 전했다. 베이징, 도쿄, 서울, 서울에서 부산, 다시 런던에 오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들려주었다.

런던에 돌아왔지만 한국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흡수할 시간이 필요했다. 다시 생각해 봐도 참 좋았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경험이었다. 런던에 돌아오자마자 한국 지도를 거실에 걸었다. 런던에는 한국 식당이 많이 있다. 내가 사는 핀스버리파크역 근처 코너에도 한국 식당이 있다. 나는 여자친구와 영국에서 처음으로 비빔밥을 먹었다.

2019년에 런던에서 독일로 돌아온 나는 한글 수업에 등록했다. 다음 여행에 써먹을 기본적인 단어를 배우기 위해 언어교환도 시작했다. 한국인도 많이 알게 되었고 온라인 요리수업도 들었다.

독일에 사는 한국 입양인을 위한 단체인 한국독일입양인협회(KAD)를 알게 되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한다. 2019년 처음 본에서 열린 한국인 모

입에 참여했다. 굉장한 시간이었다. 독일 전역에서 온 한국 입양인들이 한데 모였다. 대부분이 40대로 상당수가 출생 가족을 찾고 있거나 찾아본 경험이 있었다. 그들의 입양 이야기나 입양에 대한 생각을 듣는 것도 흥미로웠다.

재미있고 신나는 행사였다. 독일의 케이팝 댄서들, 킥복싱 수업, 성대한 한식 뷔페와 더불어 저녁에는 노래방 순서가 있었다. 정범구 주독일대사님이 참석자들 앞에서 첫 곡을 부르기도 했다.

여러 입양인과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며 동지애를 느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한국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모두가 연결된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함께 연대하는 좋은 공동체였다. 우리는 김밥을 만들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다. 심각한 대화는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문득 한국 여행이 나를 바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여러 질문이 떠올랐다. 나 자신과 한국에 대한 질문들, 한국이 나라는 사람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더 알고 싶었고 궁금증이 떠나지 않았다.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나는 독일인인가? 한국인인가?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나에게 대답해야 하는 질문들이었다.

5. 한국인 또는 독일인

2016년 가을 한국에 가서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다. 테레사 수녀님, 내 친구 르네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한국의 분위기와 사람들은 내가 유럽에서 경험한 것과 완전히 달랐다. 나는 내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입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짧은 시간 집중적인 여행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독일인인가? 한국인인가? 아니면 그 중간인가?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

서울의 분위기도 좋았고 한국이 전체적으로 조화롭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었다. 지금까지도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다. 물론 낮을 가리고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모든 특성이 내 성격의 일부라는 생

각이 들었다. 어찌면 이게 한국적인 측면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솔직히 말해 독일에서 한국은 여전히 미지의 나라이다. 물론 케이팝 문화와 방탄소년단(BTS), 싸이 같은 아티스트 덕분에 최근 들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여전히 이국적인 곳이다. 싸이가 유럽 전역에서 공연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강남스타일 플래시몹에 몰두한 적도 있다. 싸이는 한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내가 생각하는 한국인은 협조적이고 배려심 많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독일인이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조금 다르다. 독일인은 훨씬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편이라서 차갑게 보이기도 한다. 워낙 인정사정 없는 사회라 그럴 수도 있다. 말하고 보니 독일인들에게 미안하다.

한편으로는 비슷한 점이 많다. 내가 말하는 유사점이란 조직적이고 구조적이라는 측면이다. 모든 일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중시한다. 한국과 독일 모두 경제대국으로서 삼성, 현대, LG,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아디다스 같은 유명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양국 모두 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뤘다. 어찌면 이 부분에서 한국이 조금 앞설지도 모른다. 날씨와 기후도 비슷하다.

독일인은 자신을 해결해야 할 문젯거리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진부하고 유머감각 없는 사람들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히 서울 시내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먼저 와서 인사를 건넸다. 유럽에서 온 백인들을 많이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우리와 적극 소통했다. 내 경우에는 한국어로 말을 걸었다가 영어로 대답하니깐 깜짝 놀랐다. 재미있었다.

생각해 보면 내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과 문화가 이미 내 일부였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 분명 내 일부이다. 내 고향이다. 그 모든 시간이 흘렀지만 내 DNA의 일부이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점점호기심이 생겼다. 한국에 대해 더 탐구하고 싶은 것이 많다. 이 환상적인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이 문화를 탐구하고 길거리 음식을 이것저것 먹어보고 군중 속에 섞이고 싶다. 그날을 간절히 고대한다.

나는 한국인일까 독일인일까? 양쪽 모두 조금씩 섞인 것 같다. 입양인 대부분이 비슷한 감정일 것이다. 두 세계가 일정 부분 섞여 있다.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정도가 강하거나 약할 뿐이다. 그 연결고리는 분명히 존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독일인처럼 행동하고 느끼지만 한국인의 특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한국이 내 일부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일부를 나는 좋아하고 소중히 생각한다. 해산물을 사랑하고 불고기, 치킨, 잡채를 좋아하며 삼성 제품에 집착하는 것도 그 일부일 것이다. 나는 대구에서 독일까지 모든 기억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간직할 것이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세계 사이에 속한 사람으로 행동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더 알기 위해 돌아갈 것이다. 일단 지금은 나에게 주어졌던 시간에 대해 감사하고 기쁨 따름이다.

나는 한국계 독일 입양인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한 챕터이다.

6. 글을 마치며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고 싶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들과 모든 가족에게 감사한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한다. 특별히 이번 여행에 나를 초대하여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준 아버지와 올라에게 감사한다. 좋은 동행이 되어 주었다.

여행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대구 거리와 시내, 동화사, 동촌, SOS어린이마을, 파출소까지 대구 곳곳을 안내해 준 테레사 수녀님과 샬트르 성바로수녀회 수녀님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내 친구 르네, 우리를 만나려고 블루베리 농장에서 대구까지 오신 조 선생님에게 감사한다. 서울, 속리산, 대구, 경주, 부산 등 한국 곳곳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 모두가 우리의 추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언젠가 백합어린이집에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독일에서의 모든 경험을 모아 이야기 꾸러미를 풀어놓을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에게 감사한다. 귀한 시간을 내어 내 글을 읽어 주어서 글쓴이로서 무척 기쁘다.

On Being Adopted

Jess Barish [미국]

As I got older, my mom and I had this joke.

You know, you could never say I was a mistake, I would say.

No, but I kept the receipt, was her response.

I was adopted, and from what I recall, I always knew that. There was never a huge reveal or a serious talk where my parents reassured me that I was undoubtedly their daughter, even though they acknowledged that I had another mother and father somewhere in Seoul, South Korea. It was as plain a fact as knowing I was a girl or that I was living in New Jersey. I don't remember how my dad explained my adoption to me, if he ever did, but I definitely remember my mom's explanation. It's a part of her legacy and mine.

You grew in my heart instead of my tummy. You did grow inside another woman's tummy all the way in Korea, but you were always mine. As you grew inside her, you grew inside me too. Then after you were born, you took a long plane ride to be with me, to be my daughter.

I was probably around five years old, maybe younger, when I first heard this.

It has stayed with me as one of my earliest memories, one that has profoundly shaped the person I am and what I have accepted about myself.

No one has any control over the family they're born into. There is no line of babies waiting to choose their parents when they enter the world. In my case, it was twice over that I was not granted any kind of choice. I was aware, even as a child, there was very much some kind of alternate life that I could have had or that I was presently living.

I was one of South Korea's major exports during the 1980s. Babies were flown out of the country by the hundreds and dropped off all over the globe. How did I become one of those children? I was either born to an unwed, single mother shunned by her culture, or my Korean family was too impoverished to raise me. Recovery from the war and fast-moving industrialization within the country had brought tumultuous times. And there's no way to tell if I was born "on purpose"—I was probably going to be born no matter what. During that time, South Korean law only permitted abortions for cases where the mother or the unborn child's well-being was of concern. I wouldn't have been aborted based only on bad circumstances.

On May 7, 1987 I arrived at Newark Liberty Airport. My mom and dad, Colleen and Jeffrey Barish, were waiting impatiently for me along with my grandparents, aunts, uncles, and cousins from both sides of the family. They were a mix of Irish Catholic on my mother's side and Eastern European Jewish on my father's. When my mom told me the story about that day, she said that she stared into the arms of each woman who was carrying a baby through the gate. After months of dreaming, here was the moment her life would change. She couldn't stand to let another minute pass without me in her own arms now that I had arrived. I recognized you as soon as you appeared. I had memorized every feature

of your precious face, Mom said.

But who was to say my biological family wouldn't have loved me too? I'll never know because that's not what happened. What I do know is that my mother wanted me so desperately and I was adored more than anything else she had in life—I know this because there was rarely a day that passed without her telling me. It wasn't until after she had died when I was twenty-four years old that I found out she wasn't able to have children of her own. Her fertility was affected by either a drug that was administered in utero (the drug was called DEA) or it was because she had had some type of reproductive cancer when she was in her twenties (a possible effect of the DEA).

This was most certainly a factor out of my control, but nevertheless, an event that would lead me to the life I have. Definitely, I have considered the alternative: my mom could have had the blessed capability to have children of her own and I never would have been adopted by the Barish's. So then what family would I have ended up with? Where would I even be? Who would I be?

I faced a chilling realization as I read the comments left on my mother's virtual obituary. Some woman, who identified herself as being an old coworker and friend from Mom's cocktail waitressing days at Bally's Park Place Casino, left her condolences. Nothing was striking about her words until I scrolled down further. This woman mentioned that she guided my mother "to consider adoption." Upsetting is putting it lightly. Sure, she meant well, but I hate hating reading this woman's intrusive, inappropriate comment about my existence. To me, it suggested that my mom had run out of options and adoption was something she had settled for to become a mother. What if my mom hadn't befriended this woman? Would she have considered or even have discovered the opportunity of adoption on her own? It has become clearer to me there were multiple elements that determined my fate. I also acknowledged there may have been a time when

my mom, who had claimed she always knew she wanted to adopt, did want and try to “traditionally” create a family. There was a time that she didn’t dream of me as a part of her life.

A question I get asked a lot is if I want to find my biological parents. This question has come from everyone—friends both old and new, boyfriends who are getting to know me, and (most ominously) my family. I think the first person to really ask me was one of my aunts, my Aunt Judy. That conversation only floats as a memory, but we were in my Aunt Carol’s living room sitting next to each other on a sofa. The question wasn’t provoked, it came from nowhere in particular. Aunt Judy in her quiet manner asked do you think you’ll ever want to find your birth parents? I remember there being no hesitation when the question had landed. No, I don’t. I want to visit Korea, but I don’t want to search for family there. You’re my family, and my mom is my mom. And that was all I said.

My answer had flown from my mouth, so it was after the fact when I earnestly thought about what I had said. I knew it was all true, the most true part of it being that my mom is my mom. Never would I give her the distinction of being my “adoptive” mother. The woman who gave birth to me gets the alienating title, the title of being other as my “biological” mother. “Mother” is still included in her label, but she is not my mother by definition. Even at that young age when I had this intimate conversation, I knew there were qualities and actions that define mothers, regardless of biological designation.

My mom and I had the same conversation years later. So much time was spent in my mom’s bed. We would watch TV there or read. I would even do my homework. On my respective side near the window, I was on my computer, probably online shopping when I should have been doing a paper for one of my college classes. She broke our comfortable silence and asked me, do you want to

find your family in Korea? My answer was the same as it was with my aunt.

I have no desire to find anyone. I just want to visit Korea to see where I'm from, but that's it, I said. Mom looked at me with what read as satisfaction. She smiled, and I continued. You're my mom. The other woman isn't my mom. She's just the lady who gave birth to me. I thought I needed to add that. And I'm sure she wanted or needed to hear it. She was well aware that I have another mother. A nagging thought always resting in the back of her mind must have been that I may have felt like I was missing something, something that might have been her—the other woman. But the other woman is a thing that I have never missed.

I've never felt shame about not knowing my birth parents and that they willingly gave me up. I have also never felt like I was loved in a lesser way than people who came from normal circumstances, but then again what is "normal?"

My mother and father treated our family as normal. They were people who wanted to build a family—they just had to go about it in a different way. All of the same thought, preparation, and emotions were there. There was even the same expecting and waiting periods that families with pregnancies experience. My mother went through the same anticipation, fear, and unadulterated joy as an expecting mother. This is what she told me at least, and she was a horrible liar. I'm pretty sure she didn't make that up.

Mistaken Identity

We had spent the day running errands, and during the car ride home, my dad started talking about the Korean woman he had dated before he met Mom. To six-year-old me, she sounded so exotic. She had introduced him to Korean food and even spoke the language. These were things that I didn't know. It was like being told a fairy tale and she was the proverbial princess. Pulling into the driveway

Dad said, you're kind of like her. That confused me. Was it because we looked alike? Was it because we were both Korean?

My identity didn't always include being Korean, or even Asian. I thought adoptedencapsulated me as a human. No way did I think that I represented a Korean or an Asian American identity since those weren't the identities of my family. I was White, like them, except with a footnote. They didn't try to keep it a secret or just let me figure out that I was adopted. Like responsible and caring transracial adoptive parents, they let me know that I was indeed different from them but gushed with assurance that that made our family special.

The Jewish traditions on my dad's side were one part of my by-proxy heritage. I went to shul, fasted on Yom Kippur, ate latkes during Hanukkah, and read from the Torah at my bat mitzvah. On my mom's Irish side, I was present at the large family get-togethers for their Catholic influenced holidays and also whenever someone got engaged, had a wedding, had a baby shower, had a baby, had a baptism, had a Confirmation, when someone was dying, and/or when someone was dead.

Compared to Asian friends and classmates, most of whom were first generation Americans, my family was an enigma. Likewise, I couldn't imagine myself in their families, even if we were from the same diaspora. I was met with politeness if invited over to their homes, but there was usually something off with the interactions. My friends' Filipino, Chinese, or Korean parents looked at me with suspicion/pity/disappointment. It was as if they already knew that I didn't take off my shoes before entering the house, eating with a fork and knife was my baseline and using chopsticks was for fun, I didn't have to date a nice Korean boy (unless that was something I was into), and wasn't beholden to becoming a doctor/lawyer/engineer.

There have been a lot of people who have littered my life with, what I now recognize as, microaggressions. Some primary examples are:

- I. A substitute teacher in middle school gave me a questioning look when he said my name during roll call and I raised my hand. Why do you have the name “Barish?” he asked in front of my classmates – some who knew the reason why and some who didn’t.
- II. There was a coworker who with genuine enthusiasm greeted me with konnichiwa. He looked so pleased with himself because he thought he had made me feel extra welcomed at work that day.
- III. From time to time, I get an attagirl for speaking English so well and without a hint of an accent. The last person who did this was the guy behind the deli counter who handed me my sandwich like a reward. I offered my gratitude by telling him that my English is so good because I had grown up in New Jersey.
- IV. After my parents had divorced when I was nine years old, weekdays were with Mom and weekends were with Dad. He had moved into his mother’s, my grandmom’s, shoebox-sized duplex. We watched a lot of TV together. Grandmom liked to watch anything on CBS – mostly “Doctor Quin: Medicine Woman.” One Saturday night, a trailer came on for a movie that looked like it was about karate. Dad perked up from his usual slumped position in the recliner.

Do you know who that is? he asked me. I shook my head.

That movie is about Bruce Lee. He did a bunch of kung fu-karate movies back in the 70s. I can’t believe you don’t know about Bruce Lee!

Bruce Lee was a big deal in the 70s. Of course, I didn’t know who he was. But he must have been important for that fact to be overlooked. The next Saturday at

Grandmom's involved a trip to the video store. With macho smugness, Dad asked the guy behind the counter what Bruce Lee movies the store had. There was only one and I don't know which one, but that night we cancelled our appointment with Doctor Quin.

You see how quick he was? Dad would say every once in a while, like it was part of the viewing experience. We were watching people being punched and kicked in the most creative and fastest ways I had ever seen.

Eventually, we went to see *Dragon: The Bruce Lee Story*. It was dramatic and had a strong focus on his marriage to a White woman, and that was it. Not long after the Bruce Lee immersion, Dad enrolled me in a karate class that was in our synagogue right after Sunday school. Some of his other ideas to help me connect to my Asian culture were gifting me jade jewelry and introducing me to all of his Chinese coworkers.

As a child, I knew my background was complicated and pieced together from material that was my own and the rest was from my parents. That was the only thing I knew. I didn't question anything because I thought I had all of the facts and documentation to just know who I am. But this proof isn't seeable or tangible to others. I'm not who I appear to be. Lots of people can't understand that I was raised like any other child from the suburbs, like any other White child from the suburbs. Strangers assign their assumptions, stereotypes, prejudices in pretty open and direct ways.

What kinds of foods did you grow up eating? he asked while staring at me from his side of the hi-top table. He already emoted interest in whatever I was about to say.

I ate a lot of pasta, I said.

You mean noodles, right?

No, I ate pasta, I repeated.

He looked deeply confused and I didn't feel like he was worth explaining myself. This guy maybe imagined that I had constant access to meals that his family got in crappy takeout form every once in a while. Upon seeing me, he maybe also imagined that if everything went well on this first date I would soon be preparing home-cooked meals better than the best restaurants in Chinatown or Flushing. The eye roll I gave him ranks in my top five of Biggest Eye Rolls of All Time.

I'm not sure what to think most of the time, but I know how I feel. I feel like I'm not allowed to exist in the world the way that I do. I feel like I'm falling short of meeting people's expectations, no matter how cringe-worthy their expectations are. What I can only describe as pressure is the most palatable feeling. I have only one question: Is this case of mistaken identity on them or me?

Legs

In sixth grade, I remember the first time noticing what attractive legs looked like. This girl Kelsey—praised by the boys in our class as the hottest girl—had very long, lean legs. Almost any girl in our grade was taller than me, but she was mostly taller because her legs were so long. They were half of her. They were also half the width of mine. I noticed this when we sat at our neighboring desks. My thighs spread out so much more than hers. It was like my flesh oozed over the seat of my chair while hers stayed tightly tucked in. I marveled at the difference and became obsessed. This obsession became a vexing envy.

An unhelpful hyper-awareness swept over me that even other Asian girls had

skinny stems while I was stuck with tree trunks. My friend Jenny, a Vietnamese girl, had legs similar to Kelsey's. Jenny was Asian, like me, so why didn't I have those type of legs? As a baby, my Uncle Larry (God bless him) called me "Little Sumo Wrestler." My legs were so chubby and robust that they resembled a pair belonging to a mighty, overweight Japanese man. But as the charm of that childhood nickname wore off, I thought I had inherited a mutation from one of my biological parents. I was adopted from South Korea, and my adoptive family was a mix of Irish on my mom's side and some sort of Eastern European descent on my dad's.

Stumbling into young womanhood was torture in so many ways. My face became spotted with blemishes, I got my first period during the summer and couldn't figure out tampons so I could go swimming, and I struggled getting used to wearing a bra. But shopping for pants became the most miserable, degrading experience with the amplified, hormone-sponsored perception of my physical appearance. It didn't help that my mom couldn't relate to my crises in the fitting room. We shared no commonalities in body type since we weren't biologically mother and daughter.

You have such a cute figure, Mom would say. I thought she was delusional. I was stumpy, and my proportions were not classically flattering. I had a petite figure, but it was far from waif-like. I had to find pants that fit my thighs before they fit my waist, which usually produced an unappealing, saggy bottom. Also, it was a rarity to find pants that didn't have an excessive length of fabric pooling at my feet. I would look into the fitting room mirror and want to slam my head against it with tears swelling in my eyes. For the first time, I felt the difficulties and complications of having a mother who didn't look like me, a mother who didn't share the same body trepidations. There were so many times I wanted to be acknowledged and heard that I am different and maybe that my mom couldn't

understand this part of me.

But she never saw us as Biological Mother and Adopted Daughter. We were simply mother and daughter just like any other. Thankfully, it wasn't a consuming thought that I didn't look like her, let alone like anyone else in my family. She was a constant beacon of positivity. My friend's mothers told them that the potato chips they were grabbing from the pantry would give them chunky thighs. My mom would carry on about how she wanted my shapely "gymnast legs." I would tell her how I wanted her slender, leggy-legs, and she would shake her head saying, Jessica, be grateful that you have what you have because that's what makes you you, and that's what beauty is.

The relationship I was developing with my body couldn't acknowledge the relationship I had with my mom. Our bodies, no matter if it was through the love or the hate that we respectively held for them, would be a missed connection leaving me with the realization that I was different from the people I knew as "family."

입양에 대하여

Jess Barish [미국]

나이가 들면서 엄마와 나는 종종 농담을 나누었다.
‘내가 실수로 생긴 아이였다는 말은 못 할 걸요’라고 내가 말하면
‘그래 너를 샀던 영수증이 아직 있지’라고 엄마가 대답했다.

나는 입양됐고, 내 기억에 나는 항상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모님은 한국의 서울 어딘가에 내 다른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들의 딸이라고 안심시켜주는 거창한 폭로나 진지한 대화를 한 적이 없다. 내가 여자라거나 뉴저지에 살고 있다는 것만큼이나 그저 사실일 뿐이었다. 아빠가 내 입양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의 설명만큼은 확실히 기억한다. 그것이 엄마와 내가 가진 유산이다.

너는 내 뱃속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랐단다. 한국에서 다른 여인의 뱃속에서 컸지만
넌 항상 내 아이였어. 그녀의 몸속에서 자란 것처럼 내 안에서도 자랐단다. 그리고 네
가 태어났고, 나와 함께하고 내 딸이 되려고 비행기를 타고 멀리 왔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아마 다섯 살 즈음이었을 것이다. 내 가장 오래된 기

억 중 하나로 남아있고, 지금의 나를 만들고 나 자신에 대해 받아들이게 한 중요한 기억이다.

어떤 가족에서 태어날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세상으로 나올 때 아기들이 줄을 서서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 내 경우에는 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두 번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현재의 삶이나 가질 수 있었던 삶이 아닌 많은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1980년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였다. 수백 명의 아기들이 해외로 날아가 전 세계로 보내졌다. 내가 어떻게 그들 중 하나가 됐을까? 나는 한국의 문화에서 외면당한 미혼모의 아이였을 수도 있고, 한국의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날 키울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전쟁으로부터의 회복과 빠른 산업화는 한국에 격동의 시간을 가져왔다. 내가 “계획했던” 아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나는 태어났을 것이다. 당시 한국법은 산모나 태아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낙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987년 5월 7일, 나는 뉴어크리버티 공항에 도착했다. 나의 부모님 콜린과 제프리 바리쉬는 양쪽 조부모님을 비롯한 이모, 고모, 삼촌, 사촌들과 함께 나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일랜드 가톨릭계인 엄마 쪽 가족과 동유럽 유대인인 아빠 쪽 가족들이었다. 엄마는 이날, 아기를 안고 게이트를 들어오는 모든 여자의 팔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몇 달간 꿈꾸어오던, 그녀의 삶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내가 도착하자 엄마는 한시도 자신의 품에서 날 놓지 않았다. “네가 나타나자마자 알아봤지. 소중한 네 얼굴의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단다”라고 엄마는 말했다.

하지만 내 친가족은 날 사랑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일어난 일이 아니기에 나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은 엄마가 나를 간절히 원했고 엄마의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 날 아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 이유는 엄마가 거의 매일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24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야 엄마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궁 내에 투여된 DEA라고 불리는 약물 때

문이거나 DEA의 영향일 수 있는 20대 시절 앓았던 어떤 유형의 생식기 암으로 인해 생식 능력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었지만 어쨌든 지금의 삶으로 나를 이끈 사건이다. 물론 나는 다른 경우의 수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 엄마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이 내려졌다면 나는 바리쉬 가족에 입양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가족에게 갔을까? 나는 어디에 있게 되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엄마의 온라인 부고에 달린 댓글을 읽으면서 소름 돋는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을 엄마가 발리스 파크 플레이스 카지노에서 칵테일 웨이트리스였던 시절부터 동료이자 친구였다고 밝힌 한 여인이 조의를 표했다. 별달리 눈에 띄는 말은 없었지만, 스크롤을 더 아래로 내리자 이 여인은 엄마가 “입양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언짢았다고 말한다면 이에 대한 내 감정을 가볍게 표현한 말이었다. 물론 여인은 좋은 의도로 한 말일 테지만, 내 존재에 대해 거슬리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읽는 것이 싫었다. 그 말은 엄마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입양만이 엄마가 되기 위해 받아들여야 했던 방법이었음을 나타냈다. 엄마가 이 여자와 친구가 되지 않았다면? 엄마 스스로 입양의 기회를 고려하거나 발견했을까? 내 운명을 결정한 많은 요소가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또한 나는 항상 입양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던 엄마에게도 “전통적으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했던 때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를 엄마의 삶의 일부로 꿈꾸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친부모를 찾고 싶은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오랜 친구나 새로운 친구, 나를 알아가고 있는 남자친구 및 가장 불안하게도 가족들까지, 모든 이들이 이 질문을 한다.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주디 이모였던 것 같다. 내 기억 속 그 대화에서 우리는 캐롤 이모 집 거실의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그 질문은 유도된 것이 아니라 그저 특정 맥락 없이 나왔다. 주디 이모가 조용히 물었다. “친부모를 찾고 싶어질 것 같니?”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니요. 한국은 가보고 싶지만, 가족을 찾고 싶진 않아요. 이모가 내 가족이에요. 우리 엄마가 내 엄마고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 대답은 입에서 바로 흘러나왔고, 내가 한 말에 대해 솔직하게 생각해본 것은 그 이후였다. 나는 내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고 가장 진실한 부분은 우리 엄마를 내 엄마로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엄마를 “날 입양한 엄마”라고 구분 지은 적이 없다. 나를 낳아준 여인이 “생물학적” 엄마라는 개별적 호칭으로 불린다. “엄마”라는 칭호가 여전히 붙지만, 그녀를 내 엄마로 정의하지 않는다. 이 친밀한 대화를 나눴던 어린 나이에도 나는 생물학적 명칭과 상관없이 엄마라는 존재를 정의하는 자질과 행동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몇 년 후 엄마와 나는 같은 대화를 나눴다. 나는 엄마의 침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숙제를 하기도 했다. 그때 나는 창문 근처의 내 자리에서 대학 수업 리포트를 써야 할 시간에 아마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엄마가 우리의 편안한 침묵을 깨고 물었다. “네 한국의 가족을 찾고 싶니?” 나는 이모에게 대답했던 말을 똑같이 했다.

“나는 아무도 찾을 마음이 없어요. 그저 한국에 가서 내가 온 곳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내가 말했다. 엄마는 만족스러워 보이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미소지었고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엄마가 내 엄마예요. 나를 낳아준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예요. 그냥 날 낳은 사람일 뿐이에요.” 나는 이렇게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엄마도 이 말을 듣고 싶었거나 들어야 했을 것이다. 엄마는 내게 다른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엄마의 마음 한 쪽에 늘 있었을 것이고, 그 대상은 바로 나의 또 다른 엄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엄마를 그리워한 적이 없다.

내가 친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그들이 나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부끄러워해본 적이 없다. 또한 정상적인 상황의 사람들보다 사랑을 덜 받았다고 느껴본 적도 없다. 하지만 무엇이 “정상적”인가?

엄마와 아빠는 우리 가족을 정상적으로 대했다. 그들은 가족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그저 다른 방식을 택했을 뿐이다. 그에 필요한 모든 생각과 준비, 감정들은 같았다. 임신을 경험한 가족들과 똑같은 바람과 기다림의 시간도 있었다. 우리 엄마도

출산을 앞둔 사람과 똑같은 기대감과 두려움, 순수한 기쁨을 경험했다. 이것이 우리 엄마가 내게 말해준 것이고 엄마는 거짓말에 약하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신원 오인

그날 우리는 종일 불일을 보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빠는 엄마를 만나기 전 사귀었던 한국 여인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6살의 나에게는 그 여인이 굉장히 이국적으로 느껴졌다. 그 여인은 아빠에게 한국 음식을 접하게 해주었고, 한국어를 말하기까지 했다. 이는 내가 모르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마치 동화를 듣는 것 같았고, 그 여인은 동화 속 공주처럼 느껴졌다.

내 정체성은 한국인도, 심지어는 아시아인도 아니었다. 그저 입양되었다는 사실이 인간으로서의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했다. 한국인이나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내 가족의 정체성이 아니었으므로 내가 그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나는 내 가족과 같은 백인이었으나 참고 주석이 붙었다. 부모님은 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내가 스스로 깨닫도록 두지 않았다. 다른 인종의 책임감 있고 사려 깊은 입양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과 다르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 열정적으로 확신 시켜 주었다.

아빠 쪽 유대교 전통이 내게 위임된 혈통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유대교 회당에 나갔고, 욘 키프르 때는 단식을 했으며, 하누카 때는 라트카를 먹었고, 내 성년의례 때 토라 문구를 읽었다. 엄마의 아일랜드인 혈통에서는, 가톨릭교 명절들과 누군가의 약혼, 결혼, 출산 축하 파티, 출산, 세례, 견진 성사 및 누군가가 죽어갈 때 혹은 사망했을 때 모든 친척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했다.

대부분이 미국인 첫 세대인 아시아인 친구들이나 동급생들과 비교하면 내 가족은 수수께끼였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같은 디아스포라였지만 내가 그 가족에 속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를 집으로 초대해 정중히 대했지만, 종종 소통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내 필리핀, 중국, 한국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나를 의구심과

동정, 실망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벗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기본적으로 포크와 나이프를 쓰므로 젓가락은 재미 삼아 사용하며,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멋진 한국 남자를 만날 필요가 없고, 또한 의사나 변호사, 엔지니어가 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현재의 내가 미묘한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행동으로 내 삶을 어지럽힌 사람들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때 대리 교사 한 명이 출석 확인 시간에 내 이름을 불렀고, 내가 손을 들자 의문의 시선을 보냈다. 왜 '바리쉬'라는 성을 갖고 있지? 그는 내 반 친구들 앞에서 물었다. 반 친구 중에는 그 이유를 아는 아이들도 있었고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다.
2. 진심을 담아 나에게 '곤니치와'라고 인사했던 직장 동료가 있었다. 그는 그날 내게 직장에서 더 환영받는 느낌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스러워 보였다.
3. 가끔 내가 억양이 전혀 없이 영어를 잘하는 것에 대해 칭찬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내게 칭찬을 보냈던 사람은 텔리에서 일하던 남자로, 상을 주듯 내게 샌드위치를 건넸다. 나는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내가 뉴저지에서 컸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4. 내가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주중은 엄마와 함께 보냈고 주말은 아빠와 보냈다. 아빠는 할머니의 작은 집으로 들어가 살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TV를 많이 시청했다. 할머니는 CBS에서 방영해주는 프로그램은 뭐든지 좋아하셨는데, 보통은 <닥터 퀸>이었다. 어느 토요일 밤, 가라데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는 한 영화의 트레일러가 나왔다. 평소와 같이 의자에 길게 기대앉아있던 아빠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건 브루스 리에 대한 영화란다. 70년대에 쿵푸나 가라데 같은 영화를 많이 찍었던 사람이야. 브루스 리를 모른다니 놀랍구나.

브루스 리는 70년대의 대스타였고, 당연히 나는 그가 누군지 몰랐다. 하지만 그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 분명했다. 그다음 주 토요일에 할머니 집에 머물 때 비디오 가게로 향하게 되었다. 아빠는 마초처럼 거들먹거리며 비디오 가게 점원에게 어떤 브루스 리 영화들이 있는지 물었다. 가게에는 딱 한 편이 있었고 나는 그게 어떤 영화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밤 <닥터 퀸>을 보는 계획은 취소되었다.

얼마나 빠르지 보이니? 아빠는 계속해서 물었고, 이는 마치 영화를 보는데 포함된 과정 같았다. 우리는 내가 본 적 없던 가장 창의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때리고 발로 차는 광경을 함께 시청했다.

결국 우리는 <드래곤: 브루스 리 스토리>를 보러 갔다. 극적이면서도 그가 백인 여성과 결혼한 것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일 뿐이었다. 브루스 리에 몰입했던 시간 이후, 아빠는 우리 회당에서 주일 학교 수업 직후 열리는 가라데 수업에 나를 등록시켰다. 내가 아시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던 아빠의 다른 시도들로는 옥 장신구 선물하기, 중국인 직장동료들에게 날 소개해주기 등이 있었다.

어렸을 때, 내가 가진 배경은 복잡하고, 나 자신이 가진 것과 부모님에게서 온 것들로 짜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다.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모든 사실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의문을 품은 적도 없다. 하지만 이 증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사람이다. 많은 사람은 내가 교외 지역에서 자란 다른 백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타인들은 그들의 추측, 고정관념 및 편견을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낸다.

어릴 때 주로 어떤 음식을 먹었나요? 그가 테이블 건너편에서 날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할 말이 무엇이든 이미 관심이 있었다.

파스타를 많이 먹었죠 라고 내가 대답했다.

국수말이죠?

아니요, 파스타요 내가 반복했다.

그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 보였고, 나는 그에게 날 설명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다.

이 남자는 아마도 내가 그의 가족이 가끔씩 사먹던 형편없는 테이크아웃 음식을 먹고 컸다고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나를 보면서 이 첫 데이트가 잘 풀리면 차이나 타운이나 플러싱에 있는 최고 레스토랑보다 더 나은 음식을 내가 집에서 요리해 줄 것이라고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불쾌감의 표시는 가장 크게 불쾌함을 표시했던 순간 상위 5위 안에 든다.

보통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기분은 안다. 마치 내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기분이 든다.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당혹스럽든, 내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분이다. 압박감이라는 느낌이 내가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분이다. 딱 한 가지 의문점은 있다. 이 경우, 잘못된 정체성을 가진 것은 그들인가, 나인가?

다리

6학년 때, 처음으로 매력적인 다리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게 된 때를 기억한다. 반에서 가장 예쁜 아이로 칭송받던 켈시라는 아이가 가늘고 긴 다리를 갖고 있었다. 같은 학년의 거의 모든 여자아이가 나보다 컸지만 켈시는 특히나 컸다. 긴 다리 때문이었다. 거의 키의 반이었다. 하지만 굽기는 내 다리의 반이었다. 서로 나란한 책상에 앉았을 때 이 사실을 알아차렸다. 내 허벅지는 켈시의 허벅지보다 훨씬 더 넓게 퍼져서 마치 살이 의자에서 흘러내리는 것 같았는데, 켈시의 허벅지는 단단히 의자에 잘 놓여있었다. 난 이 차이에 감탄했고 집착하게 되었다. 곧 이 집착은 성가신 질투가 되었다.

다른 아시아 소녀들은 가느다란 나뭇가지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나무 둥치 같은 다리를 가졌다는 도움 되지 않는 과도한 의식이 나를 휩쓸었다. 내 베트남 친구 제니도 켈시같은 다리를 갖고 있었다. 제니도 나와 같은 아시아인인데 왜 내 다리는 저렇지 않지? 아기였을 때 래리 삼촌은(그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나를 “작은 스모 선수”라고 불렀다. 내 다리가 워낙 통통하고 튼튼해서 힘 좋고 뚱뚱한 일본 스모

선수의 다리를 닮았다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의 별명이라는 매력이 사라지고 난 후, 나는 친부모로부터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국에서 입양되었고, 내 입양 가족은 엄마 쪽 아일랜드 혈통과 아빠 쪽 동유럽계 혈통이 혼합되어 있었다.

사춘기로 접어드는 것은 여러모로 고문이었다. 얼굴에는 피부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여름에 첫 생리를 했는데 수영을 하러 가기 위해 탐폰을 사용할 줄 몰랐고, 브래지어 착용도 적응이 안 돼서 힘들었다. 내 외모에 대한 인식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증폭되어, 바지를 사는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탈의실에서 벌어지는 나의 위기 상황에 대해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모녀가 아니므로 체형에 있어서 공통점이 없었다.

‘네 몸매가 얼마나 귀여운데’라고 엄마는 말했었다. 나는 이를 엄마의 망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팽팽막혔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비율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 나는 체구가 작았지만 마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허리가 아니라 허벅지에 맞는 바지를 찾아야 했고, 그래서 보통 엉덩이 쪽이 축쳐져 보기 좋지 않았다. 또한 발에 감길 정도로 긴 길이가 아닌 바지를 찾는 것도 힘들었다. 탈의실 안 거울을 들여다볼 때면 눈물을 흘리며 거울에 머리를 부딪치고 싶었다. 처음으로 나와 닮지 않았고 몸에 대한 당혹감을 공유하지 못하는 엄마가 있다는 것에 대한 좌절과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고 그 말을 듣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마도 엄마는 나의 이러한 면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우리를 ‘생물학적 엄마’와 ‘입양 딸’로 보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다른 모녀들과 같은 모녀 사이였다. 다행히도 내가 엄마와 닮지 않았다는 생각에 몰두하지 않았고, 가족 중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는 생각에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변함없는 긍정의 불빛이었다. 내 친구들의 엄마들은 친구들이 찬장에서 늘 감자칩을 가져다 먹기 때문에 허벅지 살이 찌는 거라고 말했다. 우리 엄마는 내 보기 좋은 “체조 선수 같은 다리”가 부럽다고 말했다. 내가 엄마의 가늘고 긴 다리가 부럽다고

말할 때면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시카,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렴. 그것이 진정으로 너라는 사람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란단다.

내가 내 몸과 맺어온 관계는 나와 엄마의 관계를 따르지 못했다. 우리가 각자 품고 있는 몸에 대한 감정이 사랑이건 미움이건 간에 몸은 내가 “가족”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깨달음을 남긴 잃어버린 연결고리일 것이다.

2021
재외동포
문학의 창



수상 소감



시 《가작》

길 위의 할머니



유 영 재

[호주]

시는 그래도 써야 할 그 무엇이었다.

또 다른 곳으로의 떠남을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고 있지 않은 곳이기도 한 곳.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지만 아무나 볼 수 없는 곳. 거기서 내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싶었다. 바지를 걷어 올리고 그곳으로 향하는 물가로 들어설 즈음 당선 소식을 받았다.

수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시 창작 대학원 수업에 청강생으로 초대를 받은 적이 있다. 강의실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다. ‘시골 이발소 액자에 걸려있는 시 같네요’ 학생들은 내 시를 그렇게 불렀다. 무너지는 흠터미처럼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왔다. 그 흠터미 속에 뎀도 묻혔다. 수 억겁 같은 시간이 흘렀지만, 뎀은 여전히 흠터미 속에 있었다. ‘거 그런 식으로 함평을 해가지고...’ 그때 나를 초대했던 공광규 시인은 시와 멀어져 있는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시를 뒤적이고 있었다. 다시 시와 같이하게 된 이유는 나에게 있어 시는 그래도 써야 할 그 무엇이었기 때문이다. 문학이 있는 곳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거친 비바람에 굶픈 생채기를 문학이 있는 곳에서 치유했다. 한 달에 한 번 카페에 둘러앉아 문학을 이야기하고 시를 음미하는 시간은 꿀보다 더 달콤했다. 우리는 문학과 시를 이야기하며 축적한 기운으로 다음 한 달을 살아내곤 했다. 비틀거리더라도 흐트러지지 않아야 문학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겼다.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는 써야 할 것 같다. 아직 덜 익어 풋내 나는 시를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익은 시를 수확하라는 격려의 응원이라 생각합니다. 시드니에 있는 문우들과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시 《가작》 왕십리



김재구

[인도네시아어]

오랜 세월 해외에 살아도 늘 고향이 가까이 있다고 느끼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재외동포 문학상의 존재 때문입니다. 매년 수상작품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나보는 것이 저의 해외 삶의 일부가 된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마침내 오늘은 저의 시작품 하나도 함께 올려놓을 수 있어 그 기쁨이 작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외국의 말을 익히고 일상 가운데 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어딘가 부족하고 여전히 저의 뜻을 온전히 실어 전달하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도 가끔 시를 써보지만 그 맛이 마치 숙성이 덜된 막걸리를 마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쓰시던 그 모국어로 시 한 편 쓰면 왜 그리 달고 맛이 있는지요. 적도의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살며 하루의 노고도 모국의 시한편 읽거나 자작시를 써보면 위로가 되고 살맛도 느껴집니다.

시〈왕십리〉는 가난하던 그러나 어머니가 있어 행복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가난은 비록 찬바람처럼 우리 형제들 마음을 많이 구겨놓기도 했었지만 제주도의 그돌담처럼 우리 형제들 늘 둘러싸고 그 바람을 막아주셨던 우리 어머니가 항상 생각이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2년이 넘도록 방학이 되어도 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보고 싶고 재외동포문학상 탔다고 직접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자랑하고 싶은 인도네시아의 밤입니다.

저의 시를 뽑아주시고 상과 상금까지 허락하신 재외동포문학상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게 뽀족뽀족한 한국의 산세를 그리워합니다.

유학으로 첫발을 디뎠던 섬나라 아일랜드. 평생 배우자가 된 파란 눈의 아일랜드인 남편 그리고 살림 맡긴 첫딸과 자상한 아들. 이제는 제 삶의 터전이자 제2의 고향인 아일랜드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리운 고향, 친구, 친지들, 가족들 그리고 어머니…….

견우와 직녀처럼 오작교를 사이에 두고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한없이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이민 생활.

귀향길에 좋은 소식을 준 재외동포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이들이 코로나 시국을 잘 버티고 이겨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선하면서 발전이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 과분한 대접을 동포재단으로부터 받은 것 같다. 힘을 얻어 생각이 바뀌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더 좋은 글 쓰고 싶다. 그리고 나 같은 시니어(senior)님들이 나이 많다고 포기하고 접어 두었던 재능을 다시 꺼내어 시작해 보시라는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다.

이번 기회로 인하여 남은 인생을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만 있다면 내가 동포 재단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싶다.

단편소설 《대상》

길몽



이 월 란

[미국]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갑니다. 산책 갈까? 하는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온종일 카우치 포테이토였던 토비 주니어는 날개 달린 듯 번쩍 날아오릅니다. 어쩌면 저리도 좋을까요. 잔디밭에 나뒹구는 토비의 꿈을 데리고 돌아오는 산책길엔 그리스 에비아섬의 화재 사진을 본 탓인지 붉게 그을린 해가 산 위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혁혁대는 강아지의 발을 씻긴 후 노란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며 낯선, 재외동포재단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혁, 놀라서 덜컥 삼켜버린 복숭아가 꾸역꾸역 식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낮 뜨거워 목에 걸려 있던 수많은 활자들이 요술에 걸린 듯 달콤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토비처럼 날개가 달린 듯 번쩍 날아올랐습니다.

한때는 시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시로 우수상을 받은 것이 꼭 10년 전입니다. 그때는 한글을 다시 깨우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떠오르는 불행에 살을 붙이다 보면 행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꼬리를 무는 어지러운 생각을 써내려가다 보면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햇살보다 그들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웃음은 가벼웠지만 글쟁이의 여운은 길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를 쓰지도 않고 미워만 했습니다. 길몽을 꿈꾸는 수진의 눈물을 만났을 때 시의 독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길어 시가 되지도 못한 습작에 재외동포문학상 대상이라는 타이틀을 얹어주시니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써보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여전히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빈 파일을 열겠습니다. 며칠 전 아기를 기다리던 딸의 임신 소식을 듣고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얼마 전 꾸었던 꿈이 정말 딸의 태몽이

있는지 이제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두 개의 엄청난 기쁨을 품느라 가슴이 아려옵니다.

바다 건너에서 한글을 끌어안고 쓰다듬으며 외로이 배를 띄우는 이들에게 밝은 등대가 되어주시는 재외동포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진의 눈물을 돌아보아주신 심사위원
님들께 감사합니다. 백지 위에서 짓고 허무는 허구의 집은 삶의 급행열차가 쉬어가는 꽃
바람 훑날리는 간이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편소설 《우수상》

아내



이 영 미

[케너]

몇 해 전, 지금껏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 고뇌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남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 반면 스스로에게는 인색했던 나를 위로하기 위해 용기 내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을 쓰며 복잡한 생각들은 정리가 되었고 상하고 지친 마음이 치유되며 회복되었다.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면서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함이 찾아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자 책을 가까이하며 글을 쓰는 시간이 많아졌다. 고민 끝에 크게 숨 고르기를 하며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에 문을 두드렸다.

아내라는 소설을 쓰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애정이 생겼다. 소설 속 인물들은 나에게 말을 걸어왔고 영감을 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 타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수많은 김명진 씨와 그의 아내 장희남 씨 그리고 나에게 박수를 보내며 글을 마무리했다.

부족한 글을 우수상으로 뽑아주시고 귀한 자리를 펼쳐주신 재외동포재단에게 감사를 드리며 열심히 글을 쓸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해 본다.

소설을 쓰는 동안 "엄마는 작가"라며 기분을 북돋아 준 세 아이들, 특별히 20년 동안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사를 전한다. 또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준 폴리나님과 응원해 준 리더아님, 햇살님, 로사님과 단비님 그리고 에스더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신있게 ‘서른 세살!’이라 외쳤다고. 포복절도할 대답이지만 요즘 말로 평언이 아닐 수 없다. 목표를 세우고 삶의 어느 시점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연속으로 본다면 우리는 계속 배우고 변하며 성장하고 있을 뿐이다.

단편 소설 ‘스왈로우’를 수상작으로 선정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체되지 않고 조약돌 위를 흐르는 냇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작가가 되리라 다짐해본다.

체험수기 (대상)

한민족 한마음 한의학 진료소가 만들어진 사연



송 영 일

[우즈베키스탄]

먼저, 부족한 글에 큰 상을 주신 재외동포재단과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은 글의 우수함 자체에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깨닫고 실천해나가는 봉사활동을 독려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상을 받고 앞으로도 한민족 한마음 한의학 진료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이 좋게도,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수상 축하메시지를 받은 날, 마침 저는 한국에 휴가를 와있었고, 어머니께 직접 기쁜 소식을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굳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처자식들 고생시킨다고 타박하시던 어머니께서도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직접 보니, 자식으로서 작게나마 평안을 드린 것 같아 많이 행복합니다.

사실 제가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에 글을 보낸 것은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편하게 여기는 딸아이에게 한국어로 글을 써보도록 독려하기 위해 같이 글을 쓰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고국을 떠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나의 아이들에게서 모국어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제 세 아이에게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두려움 말입니다. 제 아이들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아빠의 이번 수상이 작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이하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어머니(이점순 여사),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나 우즈베키스탄에서 같이 살아가게 된 나의 아내 김은경, 아빠와 엄마에게 항상 행복을 주는 유림, 유근, 종욱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못난 장남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고 있는 동생들(송영인, 송영동)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저를 찾아 1200km를 달려오신 김 계나딘 아저씨와 한민족 한마음 한의학 진료소를 찾아주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진료소에서 뵙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담아 아습차이요!(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전합니다.

체험수기 (우수상)

우주에서 보낸 한철



유재원

[중국]

머나먼 곳, 나와는 별개라고 생각되었던 우주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당연한 사실이 참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이 들썩이면서야 돌아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적 상황이 불러올 그 다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더 이상 비극이 아니기를 소망하며, 또한 엄마와 떨어져 새로 시작하는 아들의 힘찬 나날들을 소망하며 쓴 글에 수상이라는 격려로 화답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재외동포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멀어질수록 한국과 사랑하는 이들의 중력이 더 절실한 날들, 실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는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주는 어여쁜 모국어가 있어 또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쓸수록 불완전한 것이 글이고 언어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붙들어야 했던 이유가, 사실은 나의 삶, 이 세계가 미지 또는 무지라는 우주의 속성과 닮아 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안정이나 정착이 아니라, 숨쉴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힘껏 떠돌아야지..., 다짐합니다.

이러한 나를 늘 불안스레, 하지만 응원을 아끼지 않고 지켜보며 믿어주는 한국의 가족 및 한국과 중국의 벗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내게서 나온 모든 것들이 이들의 양분으로 키워진 것들이겠지요. 또한 홍용희 교수님, 이문재 교수님, 김정숙 교수님 등 경희사이버대학원 문창과의 여러 스승님과, 지금까지 배움과 글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학우님들, 그리고 알란실험극회벗님들, 중국의 어여쁜 제자들...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 전합니다. 귀한 응원과 지지에 보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혹은 타국에서...,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내일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체험수기 《가작》

멕시코의 태양 아래에서



정갑환
[멕시코]

나를 돌아본 소중한 시간

한국과 멕시코가 축구 경기를 하면 물론 나는 한국을 응원한다. 그러나 한국 이외의 나라와 멕시코가 경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멕시코를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본다.

그렇다, 유행가에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는 가사가 있듯이, 중장년 시절 21년을 살았던 멕시코는 어느 사이엔가 나의 제2의 고국이 되었다. 지금도 가끔씩 그리운 멕시코, 코로나만 아니라면 참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날씨 좋지, 사람들 인정스럽고 낙천적이지, 넓은 국토에 자원 많지, 국민들 평균 연령 젊어서 구매력 왕성하지 한국의 젊은이들이 비즈니스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나라이다. 그리고 나에게 값진 경험과 감동을 준 고마운 나라이다.

아내가 멕시코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 이식 수술을 받으러 갑작스럽게 귀국하면서 나는 나의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았다. 그러다가 수기 공모를 알게 되어 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간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니 지면이 너무 제한되어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었다. 한두 가지 사연만 쓰면 몰라도 만 자 이내에 어떻게 21년간의 삶을 축약할 수 있을까. 물론 나의 글재주 역량의 부족함이 큰 탓이리라.

그러나, 내게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한데. 눈앞의 일을 해결하느라 하늘 한 번 제대로 쳐다볼 여유가 없었던 멕시코 시절을, 한 발자국 떨어져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700만 재외동포를 응원해 주고 이런 잔치마당을 마련해 준 재외동포재단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목숨을 살려준 우리나라의 의료진과 복지 혜택에 무한 감사드린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들에게도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코로나 시대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화이팅하기를 바란다.

체험수기 《가작》

엄마, 세이 탕큐



박지반

[호주]

이상한 시간을 견디고 있어도 봄은 온다. 5킬로 반경만 다닐 수 있게 발이 묶여버린 시드니의 코비드 봉쇄에도 봄은 뚫고 온다. 8월, 봄이 열리는 모습을 본다. 시드니에 이십년 넘게 살면서 이제야 제대로 꽃들의 잔치를 구경한다. 목련이 난리법석을 떨고 철쭉이 몰려오고 재스민이 춤을 춘다. 내가 멈추니 더 잘 보이는 것인가, 세상이 멈추니 꽃들이 몰려오는 것인가. 집 주위를 산책하고 정원에 앉는다. 무릎을 꿇고 내 정원을 들여다본다. 오래 보고 자주 보니 꽃 너머로 벌레 먹은 나뭇잎들이 눈에 띈다. 가지와 줄기에도 오랜 상처가 보인다. 꽃은 꽃만이 아니었다. 나무는 이렇게 아프면서도 아름답게 웃는 꽃들을 터뜨렸던가. 그동안 나는 꽃만 보고 탄성을 내뿜고 바빠 지나갔다. 흉터가 생긴 나무들을 보지 못했다. 병든 나무를 얼싸안아본다. 아픈 건 나무인데 내가 나무에게 위안을 받는다. 서로를 안고 있으면 꽃은 계속 필 것이고 멈춘 시간도 다시 흐를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나의 정원에 초대할 어여쁜 그대들을 생각한다. 동백꽃 머금은 붉은 립스틱을 입술 가득 두껍게 칠할 그날을 기다린다.

글짓기 중·고등 부문 《우수상》 어긋난 나라의 엘리스



심로미나
[아르헨티나]

안녕하세요. 저는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 청소년글짓기 중·고등부문에 〈어긋난 나라의 엘리스〉로 우수상을 수상한 아르헨티나에서 거주 중인 만 18세 심로미나입니다.

우선 저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글은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평생 자랐지만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서의 제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른 재외동포친구들과 저의 관계, 그리고 인종차별은 빠질 수 없던 주제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쓰는 과정이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일들과 감정들은 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적어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종차별은 저와 같은 재외동포들에게는 흔하디흔한 일이지만 그에 비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저의 방식으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듣고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이곳에서 18년 인생을 모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소속감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저와 같은 재외동포 친구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홀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야 할 때 또다시 인종차별을 당할까 봐 두려움이 앞서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아직도 많이 어렵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재외동포 친구들이 이 글을 읽고 공감하고 아주 조금의 위로를 받을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인종차별로 인해 앞으로가 두려운 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엘리스들에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어긋난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그리고 다 같이 함께 나아가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짓기 중·고등 부문 《장려상》

나, 김환기,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인



허 지원
[영국]

저에게 2021년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판 데믹으로 인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었는데요, 영국시험과정인 GCSE 중 [ART] 과목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화가, 도예가, 작가 그리고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되었어요. 특히, 올해는 유치원부터 다니기 시작해 중3까지 10여 년간 다녔었던 [런던 한국학교]도 졸업하게 되었는데, 글짓기로 많은 상을 받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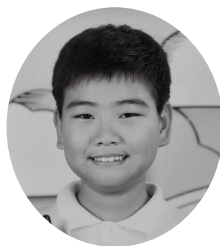
[김환기]라는 작가를 만나게 되고, 그의 아름다운 작품과 그의 발자취, 개인사를 알게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명으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이렇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저희 부모님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한국에 계신 할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가족들과도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다시한번 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며, 지난 8월 초에 하늘나라로 가신 할아버지께 이 멋진 수상의 영광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글짓기 초등 부문 《우수상》

낙시의 추억



안 겹

[도미니카공화국]

하늘을 넘어 우주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것 같다. 처음 글을 쓸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 지 고민했지만 ‘일단해보자’하는 마음으로 써 내려갔다. 글씨 하나하나에 정성을 불어 넣어 재미있었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글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썼다. 쓰다보니 점점 글쓰기에 재미가 느껴졌는데 머릿속에 너무 많은 쓸거리가 떠올라서 무엇을 써야할 지 막막할 때도 있었다. 글을 완성하고 나서 글을 반복해서 읽으며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나의 생각과 마음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를 살피며 고치는데 많은 정성을 쏟아부었다. 이쯤되니 ‘어? 이정도면 읽을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글을 제출하는 날, 나는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이시여~~’ 하면서 메일을 보냈다.

몇 달 뒤인 8월 11일, 아침에 일어난 나를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다며 부르셨다. 그리고 나에게 핸드폰을 보여 주셨다. 메일에는 “우수상: 낙시의 추억”이라고 써 있었다. 나는 그 메일을 여러 번 읽으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았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 많은 글 들 중에 내 글이 뽑히다니! 형아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글을 쓰는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재외동포재단과 심사위원분들께 수상소감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만약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이런 소중한 경험을 가족, 친구들, 그리고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간직하지 못했을 것이다. 망설이는 학생이 있다면, 나는 내년에는, 꼭 한번 도전해 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재외동포문학상’이라는 맥락 안에서 입양인으로서의 제 경험을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외교부 및 재외동포재단이 저를 ‘재외동포’라고 지칭함에 있어, 제가 갈망했지만 종종 성취할 수 없다고 느꼈던 전 세계 한국인 사이의 소속감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인식됩니다(이러한 경험을 제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한국인들에게 한국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했죠. 제가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호칭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선집에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 포함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 이야기와 추억은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이 넘는 입양인들의 다양한 삶의 양상과 의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단 하나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여기 실린 글을 읽는 독자들이 제 에세이를 한국인 입양인의 경험을 ‘대표’한다고 보지 않고 수많은 경험 중 하나,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한국인 입양인의 글과 생각을 찾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로 여겼으면 합니다.

우선 이전 공모전에 대한 정보와 전단지지를 보내준 우민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거예요. 간단하게나마 제 입양인 수기를 적어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제가 재외동포재단에 보낸 건 ‘전체관람가’ 버전이지만 이렇게 한국인 입양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희 입양인들은 재외동포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재외동포재단과 앞으로 이 여정을 함께하며 영원히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공모전에 참가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목소리는 전달될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서사로 풀어낼 용기를 낸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지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안아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모든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복형제자매를 찾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인 입양인 커뮤니티에도 감사드립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분명 장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 입양인 커뮤니티 결을 든든하게 지키는 해외입양인연대(G.O.A.L)에도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세계 이 공모전에 대해 알려주시고 수기를 쓰도록 격려해주신 Eirik Hagenes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입양인을 위한 지원 사업에 제 상금을 기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재외동포재단과 해외입양인연대가 서로 응원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1984년 한국 대구에서 입양되었습니다. 독일에서의 성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독특하고 흥미진진한 여정이 되었죠.

2016년 제가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역시나 처음으로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제 과거를 마주하였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일생에 걸친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글에서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한국인으로서 자란 제 경험을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한국이 저에게 끼친 영향과 제가 직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제 글은 저의 아버지와 그의 아내 올라와 함께 했던 한국 여행 기입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의 많은 것이 달라졌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준 저의 가족에게 이 글을 바치고 싶습니다. 저의 어머니(Gisela), 아버지(Rainer), 형제자매(Myriam, Martin, Michaela), 그리고 다른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인생의 대부분 동안 저는 스스로의 ‘한국성’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의 입양가족은 제가 어릴 때 제가 한국 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단순한 사실로 제시된 그 말은 한 국계 미국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미묘하고 복잡한 표현이 아니었죠.

저는 글쓰기를 통해 제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배우고, 또 정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 글을 나눔으로써 입양인 커뮤니티에 대한 보다 깊고 풍부하고 총체적인 관점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더없이 영광입니다.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품집

2021 재외동포 문학의창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발행일 2021년 10월 30일
디자인 편집 그린주의
표지 일러스트 프림에이(김정태, 이현수)
교정/교열 전강민
번역 조용경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증로 55 재외동포재단
전화 064-786-0200
홈페이지 <http://www.korean.net>
ISBN 979-11-85409-43-6

〈비매품〉

※ 수상작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이 책은 수상자로부터 이용허락(저작권법 제46조)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수상작품집 감상 외 목적으로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저작권자(수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